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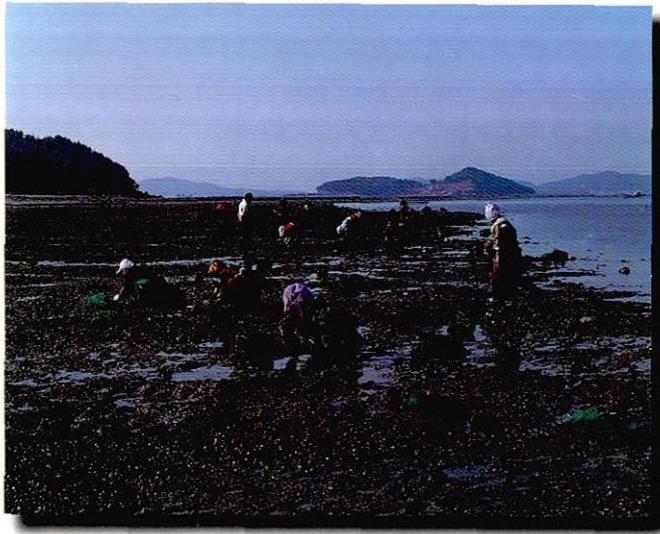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시 상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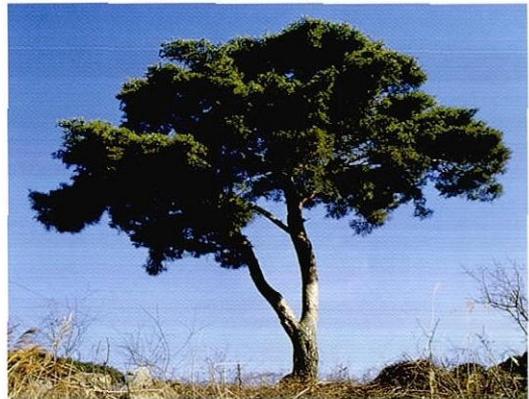


① 서산시의 영문표기문자인 “S”자와 시나무의 소나무를 형상화하였으며, 서산시 전체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쾌적한 환경을 나타냄. (녹색)

② 서산시의 대표적 문화재인 마애삼존불상과 뫼 “山”을 형상화하였으며,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냄. (백색)

③ 서산시의 맑고 푸른바다를 형상화하였으며, 서해안 중심지로서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나타냄. (청색)

※ 서산시 심볼마크의 의미는 서산시 천혜의 자연조건인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무궁한 도약, 전진, 발전을 나타내며, 서해안 중심지로서의 온시민의 화합, 단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미래를 향한 발전하는 도시이미지를 상징함.



■ 까 치

시민들이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

■ 소나무

사계절의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

■ 국 화

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

시민의 노래

서산에 살리라



1. 가 야-산 푸른 숲에 해 뜨-는 아 침
2. 옥 너-봉 술밭 에는 푸 르-른 달 빛



활 기-찬 거리 마다 꿈 이-넘 치-고
덕 덕-한 가슴 마다 사 랑-의 노-래



미 래-로 가는 교장 서 산-의 숨 걸
가정 마-다 마을 마다 아 늑-한 불 빛



서 해-안 물결 타고 내 일-이 온 다
둘 러앉은 얼굴 마다 웃 음-꽃 핀 다



아 아 축복 의 땅 내 사랑서 산 시



살-리 라 여 기살리라 서 산에 살 리 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새 서산



우리 고장의 모든 발전과정과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15만 시민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산은 옛부터 인심이 온후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며 충, 효, 예를 숭상하는 높은 선비정신으로 성현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옛 선현들의 발자취와 지혜의 숨결을 찾아 상세하게 재조명하여 이번 에 발간하는 “서산시지(瑞山市誌)”는 1982년 “서산군지(瑞山郡誌)” 증보판을 발간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새로이 발전된 그간의 변화상과 전에는 기록하지 못 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여 지리, 역사,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 게재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하고 숨겨진 사실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서산시지(瑞山市誌)”의 발간은 우리서산의 실상을 바로 알고 역사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교훈과 자긍심을 일깨우며 서산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위상을 드높이 세우는 귀중한 문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건속에서도 “서산시지(瑞山市誌)” 발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위원과 편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4월 일

서산시장 김 기 흥

축간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 서산

우리 서산시의 역사, 사회, 전통문화를 비롯한 경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산시지(瑞山市誌)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발간한 서산시지(瑞山市誌)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행정, 문화, 경제 등 서산 역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서로서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적으로 옛부터 예행의 고장, 충절의 고장으로 옛 선조들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이어받은 유서깊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미곡생산을 중심으로한 1차산업의 기반고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1,2,3차 산업의 균형을 이루고 서해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화와 균형을 이룬 문화의 도시, 교육·행정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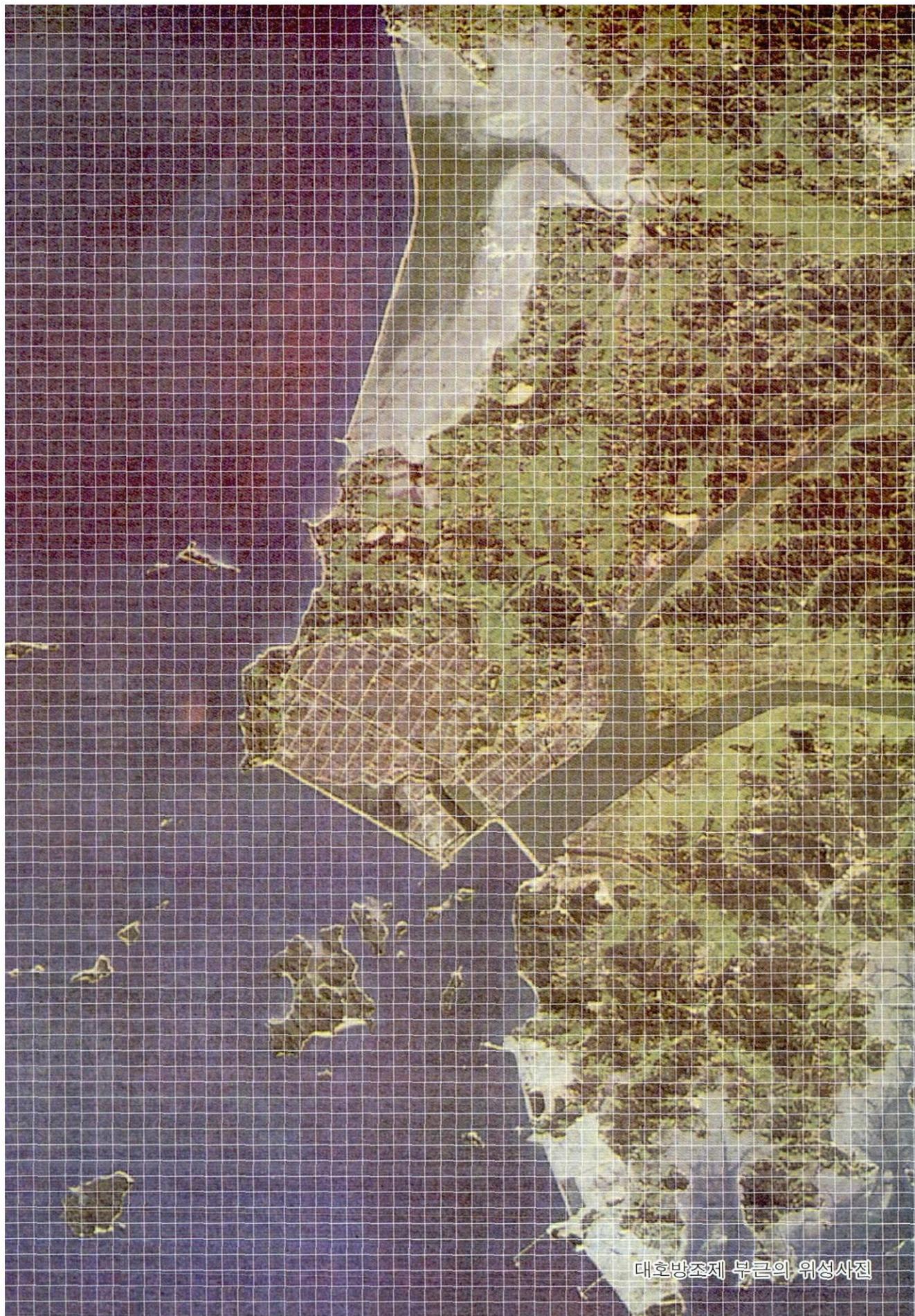
또한, 옛 선조들의 전통 미풍양속을 되살려 예향의 도시, 충절의 도시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서산시지가 15만 시민과 후손들이 서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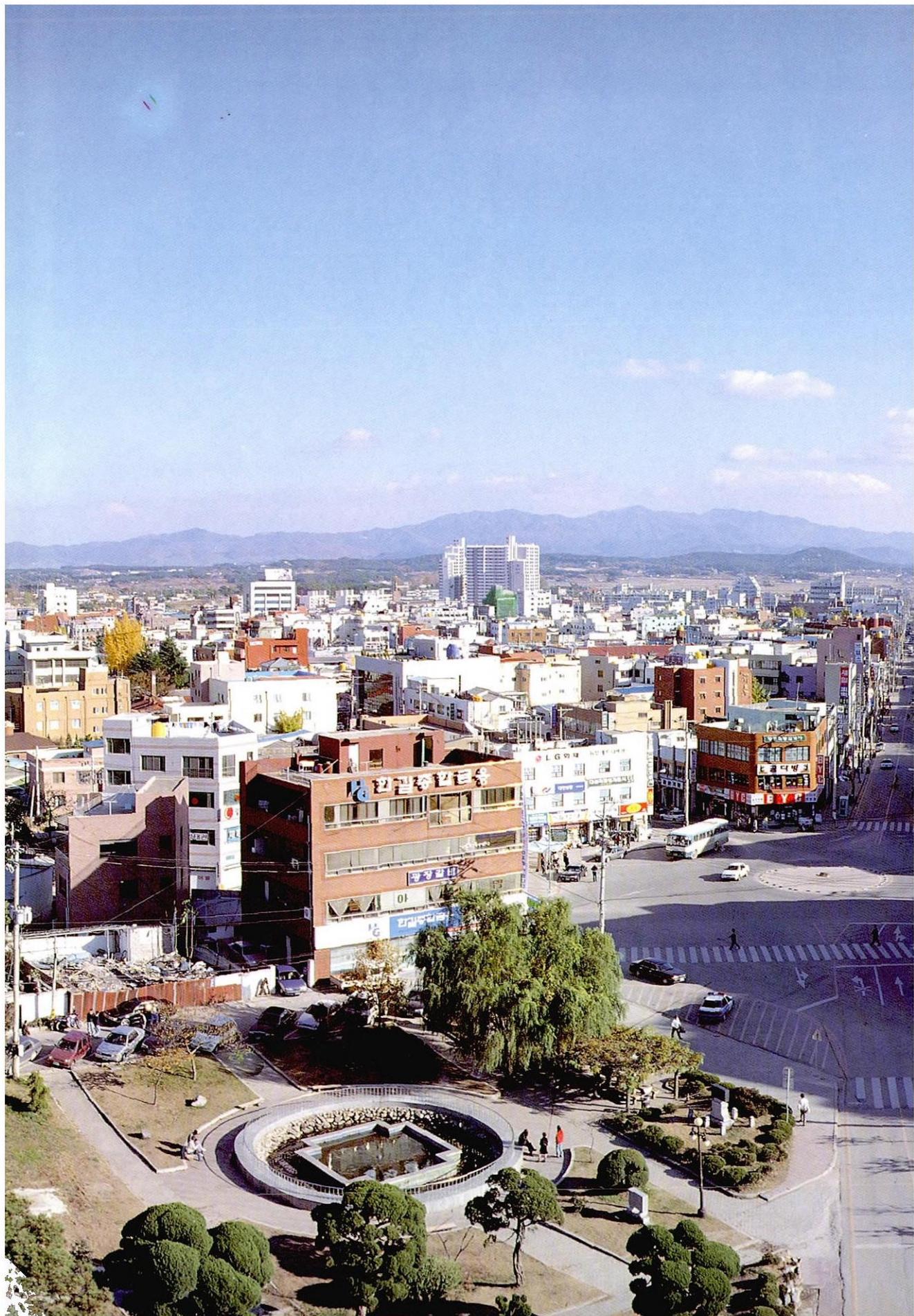
우리 서산시지(瑞山市誌)를 집대성하기까지 수고하신 이해준 교수님과 편집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서산지역 역사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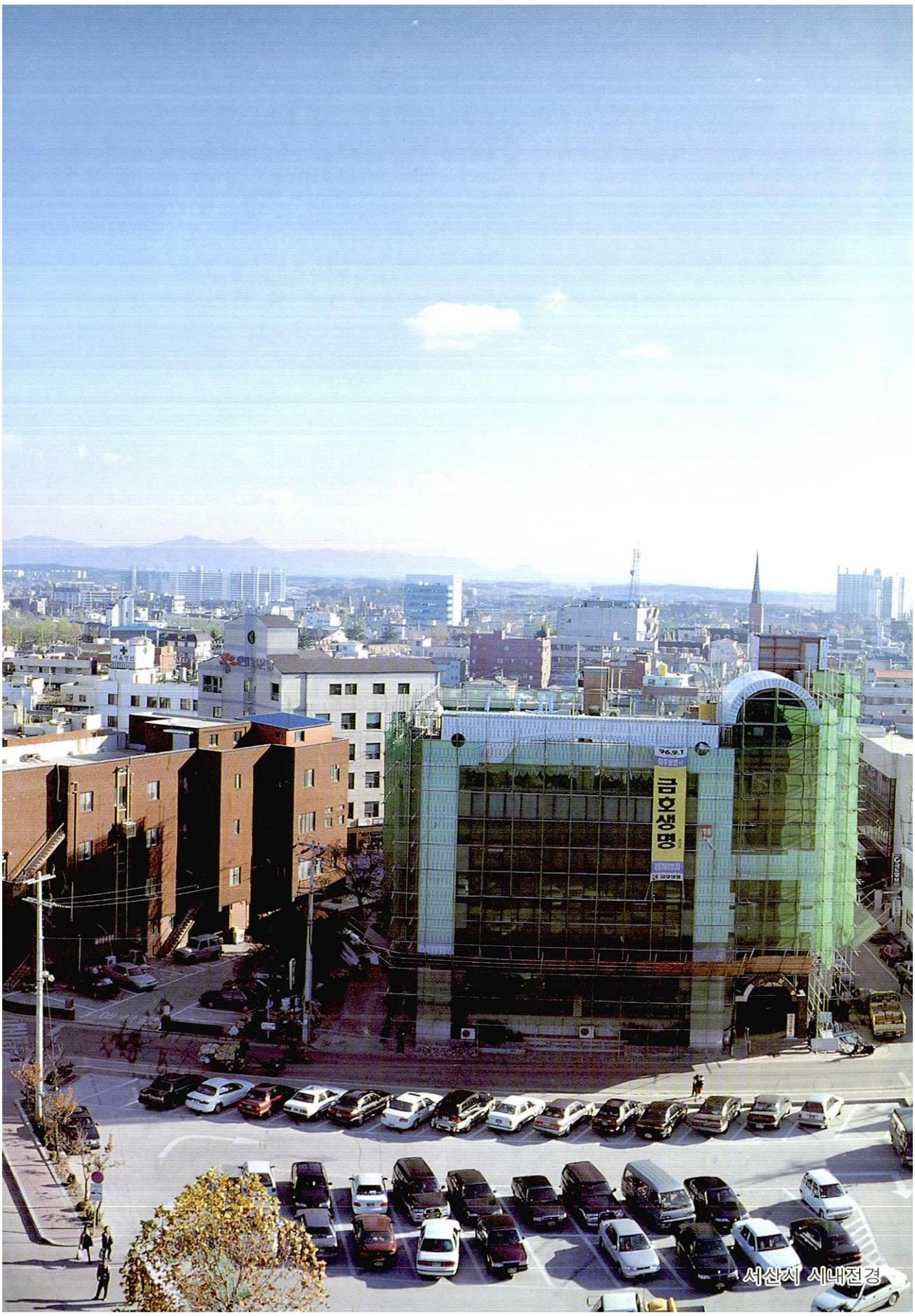
1998년 4월 일

서산시 의회의장 김 관 기



대호방조제 부근의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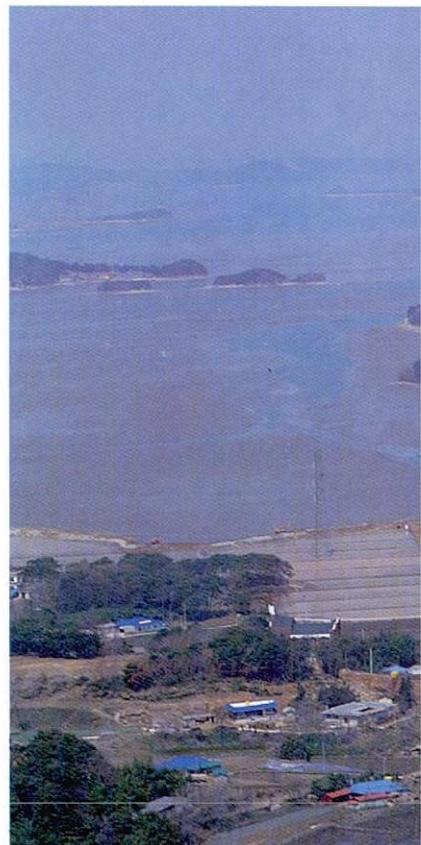
서산제 시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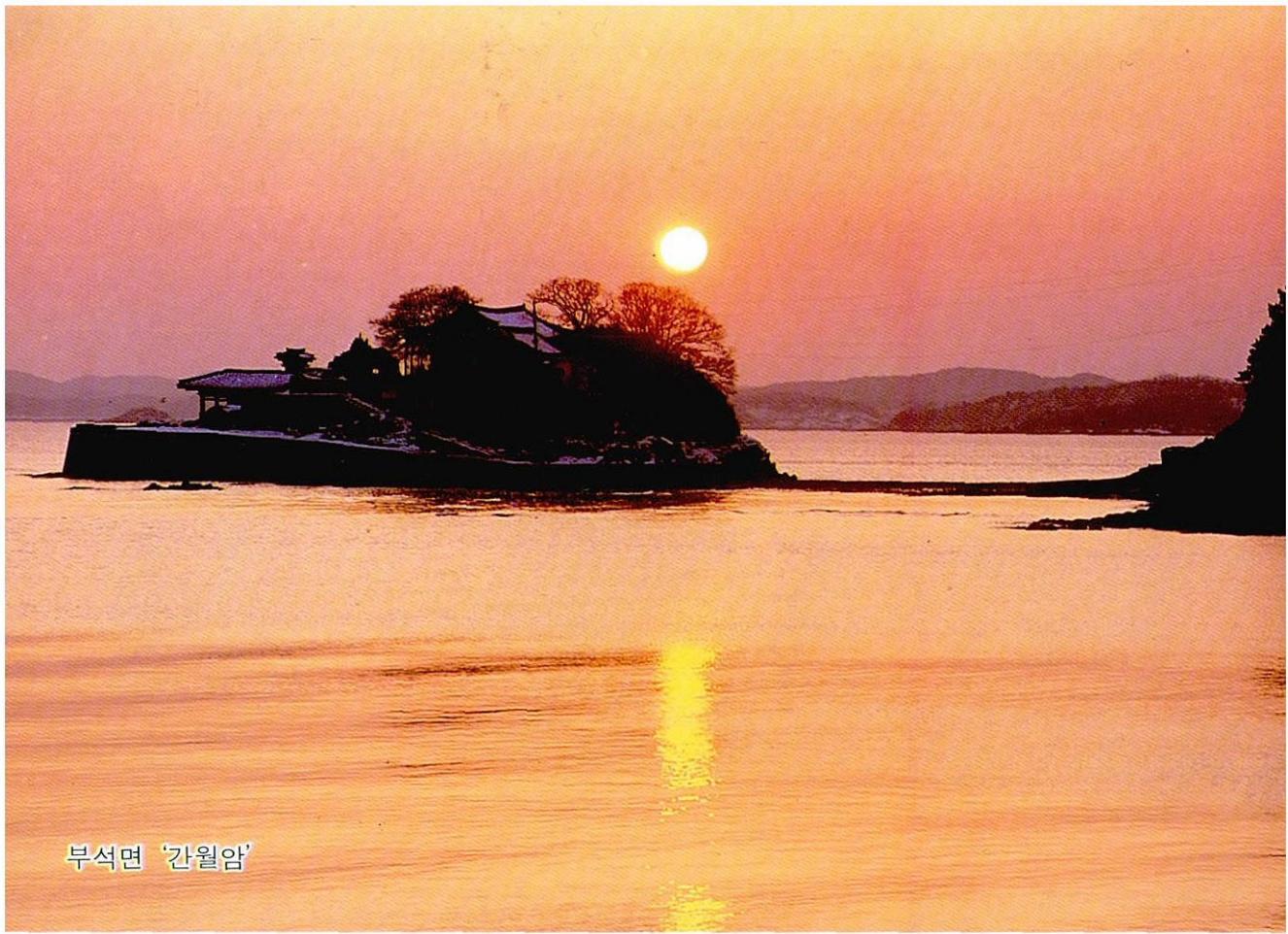
▲ 가야산



◀ 용현계곡







부석면 '간월암'



◀ 간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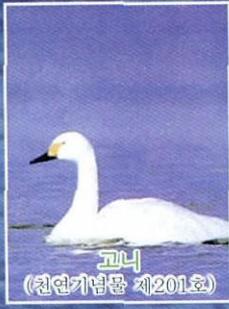
서산 A지구 방조제 ▶
(마지막 물막이 공사)



대호지구 방조제



기러기
(천연기념물 제325호)



고니
(천연기념물 제201호)



마오기
(천연기념물 제198호)



노랑부리백로
(천연기념물 제361호)



원앙
(천연기념물 제327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205호)



황새
(천연기념물 제199호)



흑기러기
(천연기념물 제325호)

서산시지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김기홍 (시장, 위원장)
김관기 (시의회의장)
신서균 (부시장, 부위원장)
우상훈 (시의회부의장)
홍성배 (문화공보담당관)
이해준 (공주대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 집필책임자 및 집필자

제1책 서산의 지리

이문중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
과 교수)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정환영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춘표 (공주대학교 화학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2책 서산의 역사

이해준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남석 (공주대 박물관장)
유원재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문수진 (신구전문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3책 서산의 정치와 행정

이준원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방행
정학과 교수)
이덕연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4책 서산의 산업과 경제

이문중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지리학
과 교수)
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수)

제5책 서산의 민속문화

구중희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국어교
육과 교수)
김삼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중승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병환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강현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형우 (공주대학교 강사)

제6책 서산의 현대문화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
시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 향토문화연구회장)
신상찬 (서산향토사가)
오윤희 (한서대학교 교수)

제7책 서산의 문화유적

이남석 (집필책임자 : 공주대학교 박물관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교수)
서정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이 훈 (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원창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현숙 (충남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제8책 서산의 자량

윤용혁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규익 (승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중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종운 (서산시 문화관광계장)
김용래 (서산시 문화재계장)

● 윤문 및 교열위원

김현구 (서산문화원장)
김기풍 (서산향토사가)
이은우 (국편지방사료조사위원, 전천안시
립중앙도서관장)
문권혁 (서산향토문화 연구회장)
신상찬 (국편지방사료 조사위원)

목 차

제1절 행정구역의 변천	17
제2절 위치와 면적	
1. 위치	22
2. 면적	23
제3절 자연 환경	
1. 지질과 지형	26
1) 지질	26
2) 지형	31
2. 기상과 기후	74
1) 기후 특성	74
2) 기온	76
3) 강수량	76
4) 바람	78
5) 계절의 추이	79
3. 토양과 식생	80
1) 토양	80
2) 식생	83
제4절 인구와 취락	
1. 인 구	86
1) 인구개발	86
2) 인구의 증감	86
3)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96
4) 인구이동	99
5) 인구동태	100
6) 인구구성	100
2. 취 락	105
1) 가옥	105
2) 촌락	116
3) 도시	167
제5절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1. 서산의 지역개발사업	194

1) 공업개발	194	2) 농업개발	195
3) 교통개발	197	4) 관광개발	199
5) 도시개발	200	6) 행정개발	201
2. 서산지역 개발의 과제			202
1) 공업개발의 과제	202	2) 농업개발의 과제	205
3) 교통개발의 과제	206	4) 관광개발의 과제	206
5) 도시개발의 과제	206	6) 행정개발의 과제	208
3. 지역개발에 따른 서산주민의 저항			209
1) 인지면 모월리 개척단과 간척지 분양			209
2) 간사지 불법매립지 처리			209
3)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피해와 보상과정			210
4) 서산 쓰레기 매립지 시설과정			212
5) 양대리 쓰레기장 설치			213
6) 분뇨처리장 시설문제			214
7) 인지면 산동리 공설공원묘지조성			215
8) K-Z 비행장건설에 따른 주민저항과 이주과정			215
9) 동문동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의 교훈			216
4. 서산의 지역개발과 환경의 변화			220
1) 토지 및 기후	220	2) 대기질	220
3) 수질	223	4) 토양	228
5) 폐기물	230	6) 소음과 진동	231

제6절 서산시 지명의 연혁

1. 서산(瑞山) 지명의 연혁 탐구를 위한 일반론	234
1) 소지명(小地名)의 연혁을 추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	234
2) 소지명(小地名)의 일반적 특징	236
3) 서낭당, 성황당(城隍堂)에 대하여	238
4) 지명의 연원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들	238
5) 연구방법	242
2. 서산(瑞山)의 지명의 연혁	243
1) 서산시의 산천	243
3. 대산읍(大山邑)	247
1) 읍명(邑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47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48

4. 인지면(仁旨面)	252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52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53
5. 부석면(浮石面)	261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61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63
6. 팔봉면(八峰面)	274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74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75
7. 지곡면(地谷面)	283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83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84
8. 성연면(聖淵面)	294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294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294
9. 음암면(音岩面)	301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301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302
10. 운산면(雲山面)	310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310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312
11. 해미면(海美面)	322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322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324
12. 고북면(高北面)	338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338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339
13. 서산시내(瑞山市內)	345
1) 동명(洞名)의 연원	345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346

제1절 행정구역의 변천

(집필자 : 이은우)

제1절 행정구역의 변천

서산지방은 충남의 서북부에 돌출한 반도로 된 위치 때문에 고대에는 특별한 역할기능이 없었음일까! 어떠한 곳이었는지 정확한 문헌적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지동이전(三國志東夷傳)의 마한조 54개국 중의 하나인 치리국(致利鞠國)이 오늘의 지곡면을 중심으로한 지역에 있었고, 태안지방에는 신소도국(臣蘇塗國)이, 운산면 지방에는 염로국(莚路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한 학설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연구 대상이며, 대체로 기원전 3세기경이 아닌가 추론되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 때는 서산지방에 기군(基郡)이 있었고, 그 밑에 영현(領縣)으로 지육현(知六懸, 현 지곡지방)과 성대혜현(省大兮縣, 현 태안지방), 그리고 혜성군(毘城郡, 현 당진군 면천지방)의 영현이었던 여촌현(餘村縣, 현 서산시 운산지방)이 있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에 기군(基郡)은 부성군(富城郡)으로 바뀌고, 그 영현도 지육현(知六縣)은 지육현(地育縣)으로, 성대혜현은 소태현(蘇泰縣)으로, 여촌현은 여읍현(餘邑縣)이라 개칭되었다.

고려조에 들어와서는 부성군은 부성현(富城縣)으로, 지육현은 북곡현(北谷縣)으로, 소태현은 그대로 소태현(蘇泰縣)으로, 여읍현은 여미현(餘美縣)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일은 기군(基郡) 및 부성군(富城郡), 그리고 지육현(知六縣) 및 지육현(地育縣)으로 있을 때의 기군(基郡) 및 지육현(知六縣), 부성군(富城郡) 및 지육현(地育縣)과의 관계이다. 이는 기록상의 문제이지 실제로는 같은 곳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군 및 부성군의 치소(治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지곡면(地谷面) 내에 있고 역사적 기록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1182년(고려 명종 12년) 부성현이 혁파되어 관호(官號)가 없어지면서 운주(運州, 현 홍성군지방)에 복속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1284년(고려 충렬왕 10년) 이곳 출신 정인경(鄭仁卿)의 공로가 인정되어 복군(復郡)이 되면서 서주목(瑞州牧)이 되었다. 그 후 1310년(고려 충선왕 10년) 서령부(瑞寧府)로 강등되었고, 뒤에 다시 지서주사(知瑞州事)로 강등되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년)에는 서산군(瑞山郡)으로 되었다.

1695년(숙종 21년)에 다시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713년(숙종 39년)에 다시 군(郡)으로 회복되었고, 1733년(영조 9년)에는 다시 현(縣)으로, 1742년(영조 18년)에 다시 군(郡)으로 되었다가, 1777년(정조 원년)에는 다시 현(縣)으로 강등되었으며, 1786년(정조 9년)에 다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여미(餘美)와 해미(海美)지방은 고구현(高丘縣, 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와 고북면을 합친 곳과 현 해미면을 합친 곳)의 일부였으나 고려의 개국시 몽웅역 지방(夢熊驛 地方, 현 해미지방)의 한씨성(韓氏姓)을 가진 사람이 큰 공을 세워 대광(大匡)이라는 벼슬을 받으면서 고구현(高丘縣)에서 분할, 별도의 행정구역인 해미현(海美縣)이 되었다. 이것이 후에 여미현(餘美縣, 현 운산지방과 당진군 정미면·대호지면을 관할하던 곳)과 합쳐지면서 해미현(海美縣)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의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서산군 관할이었던 안면면(安眠面)의 전구역이 태안군(泰安郡)으로 이속되었고, 조그만 섬에 불과한 고파도리(古波島里)가 서산군 문현면 관할과 태안군 북일면 관할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때 하나의 행정리로 합쳐져서 태안군 북일면 고파도리로 되었다. 또한 홍주군 고북면 황도리(黃島里)와 서산군 화변면 간월도리(看月島里)가 안면면 소속으로 바뀌면서 태안군 관할이 되었으며, 홍주군 소속이던 운천면(雲川面)의 상성리(上城里)·원벌리(元伐里)·거성리(巨城里)·가좌리(佳佐里)·소중리(小中里)·성암리(城岩里)와 서산군 관할이었던 동음암면의 신창리(新昌里)·관유리(館柳里)·태봉리(胎封里) 용현리(龍賢里)와 덕산군 외야면(外也面)의 슬치리(瑟峙里), 면천군 마산면의 울사리(栗寺里) 일부와 우현리(牛峴里)를 합쳐서 와우리(臥牛里)로 하여 부산면(夫山面)을 만들어 해미군(海美郡) 소속으로 하였다.

따라서 서산군은 대사동면(大寺洞面)·두치면(豆峙面)·동암면(銅岩面)·오산면(吾山面)·울곶면(栗串面)·군내면(郡內面)·인정면(仁政面)·화변면(禾邊面)·마산면(馬山面)·노지면(蘆旨面)·영풍창면(永豐倉面)·문현면(文峴面)·지곡면(地谷面)·성연면(聖淵面)·동음암면(冬音岩面)·대산면(大山面)을 관할하게 되었고, 태안군은 군내면(郡內面)·남면(南面)·근서면(近西面)·원일면(遠一面)·원이면(遠二面)·북일면(北一面)·북이면(北二面)·동일면(東一面)·동이면(東二面)·이원면(梨遠面)·소근면(所近面)·안흥면(安興面)·안면면(安眠面)을 관할하게 되었다.

1914년 일제(日帝)에 의한 행정개편 때는 서산군·태안군·해미군이 합쳐져서 서산군(瑞山郡)으로 되었다.

서산군의 경우에는 대사동면·오산면·울곶면·군내면을 합하여 서령면(瑞寧面)으로, 두치면·동암면·동음암면·해미군 운천면·성암리를 합하여 음암면(音岩面)으로, 인정면·노지면을 합하여 인지면(仁旨面)으로, 화변면·마산면을 합하여

여 부석면(浮石面)으로, 영풍창면과 태안군 북일면 고파도리·태안군 동일도면 역리(驛里)·문현면을 합하여 팔봉면(八峯面)으로 하였으며, 지곡면·대산면·성연면은 본래의 면명(面名)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리별(里別) 행정구역의 변경은 있었으니 지곡면에는 문현면의 연화리(蓮花里)·대산면의 환성리(環城里)를 편입시킨 반면 웅도리(熊島里)를 대산면에 소속시켰으며, 성연면에는 동음암면의 문기리(文起里) 일부를 명천리(鳴川里)에 편입시켰다.

태안군에 있어서는 군내면·동일면·동이면을 합하여 태안면(泰安面)으로, 원일면·원이면 일부·소근면을 합하여 소원면(所遠面)으로, 북이면·원이면 일부를 합하여 원북면(遠北面)으로, 근서면·안흥면을 합하여 근흥면(近興面)으로, 북일면·이원면을 합하여 이북면(梨北面)으로 하였다.

해미군의 경우에는 동면 남면을 합하여 지성면(枳城面)으로, 운천면·부산면·이도면을 합하여 운산면(雲山面)으로, 염솔면(鹽率面) 서면의 경치리(景峙里)와 일도면을 합하여 정미면(貞美面)으로, 고북면의 경우에는 종래의 고북면 지역에 동면(東面)의 시산리(詩山里) 일부를 용암리(龍岩里)에 붙이고, 홍주군 고남상도면(高南上道面) 방곡리(芳谷里) 일부를 대사리(大寺里)에 편입시켜 고북면(高北面)으로 하였다.

1917년에는 서령면이 서산면(瑞山面)으로, 지성면이 해미면(海美面)으로 바뀌었으며, 1914년 10월 1일에는 서산면이 서산읍(瑞山邑)으로 승격되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당진군(唐津郡)으로 이속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에는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가 다시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7일에는 태안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 12월 1일에는 안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 4월 1일에 안면읍 고남리(古南里)·루동리(樓洞里)·장곡리(長谷里)등 3개리를 분할하여 고남면(古南面)으로 승격시켰다.

1983년 3월 15일에는 고북면 대사리(大寺里)가 홍성군 갈산면(葛山面)으로 이속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는 서산읍이 서산시(瑞山市)로 승격되었고, 태안읍·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이 분할되어 태안군(泰安郡)으로 되었다. 이로써 서산군은 인지면 부석면·팔봉면·지곡면·대산면·성연면·음암면·운산면·해미면·고북면의 10개 면을 관할하는 군(郡)으로 남게 되었다.

1991년 12월 1일에 대산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1일에는 시·군 통합에 의하여 종래의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어 서산시(瑞山市)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절 위치와 면적

1. 위 치

일정지역의 위치는 그 지역의 기후, 산업, 생활양식 등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접지역과의 위치 여하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은 인간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위치는 보통 수리적위치와 지리적위치로 나뉜다. 수리적위치란 경·위도상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위치라고도 한다. 지리적위치란 한 지역을 타지역과 관련지워 말하는 위치로 일명 관계적위치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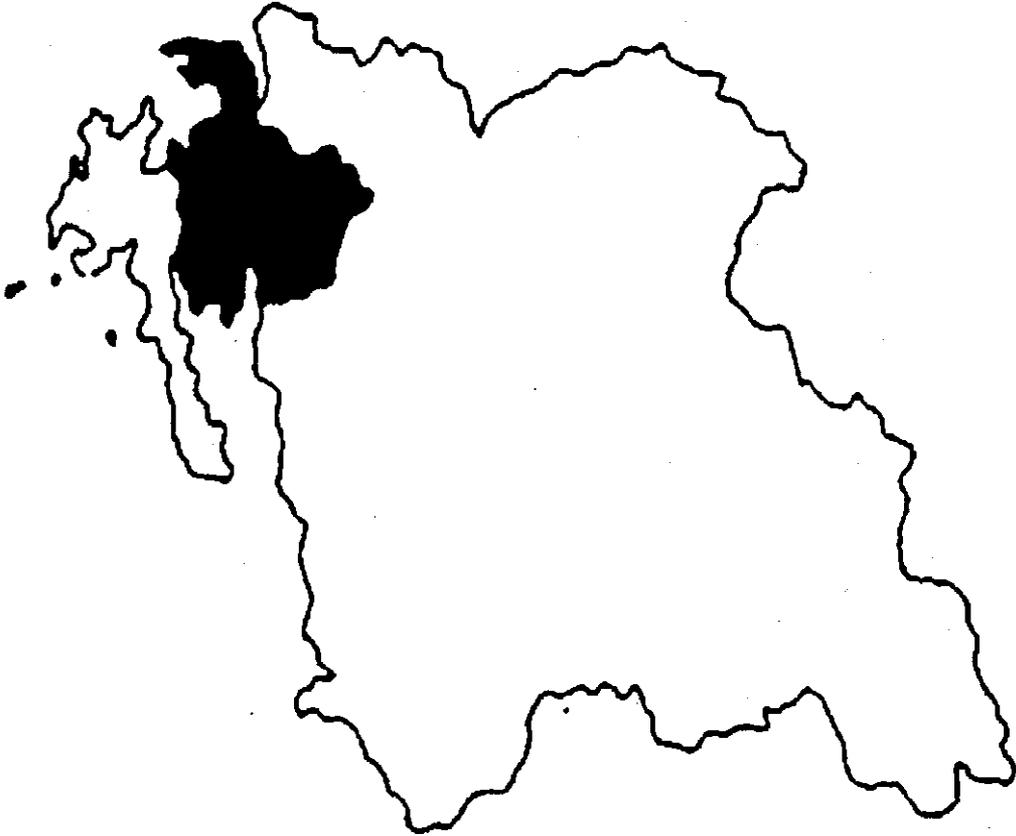
서산시의 수리적위치는 남단 : 북위 36° 36' (부석면 간월도리), 북단 : 북위 37° 00' (대산읍 화곡리), 동단 : 동경 126° 39' (운산면 와우리), 서단 : 동경 126° 22' (팔봉면 진장리)이다. 이러한 위치로 말미암아 서산시는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상으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기후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산시는 충남의 북서부에 들출한 태안반도에 속하므로, 일찍부터 중국과의 연락이 잦아 대륙문화 수입의 선진적인 역할을 하였다. 태안 백화산의 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용현리의 서산마애삼존불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방은 백제 조상미술(造像美術)의 선진지역으로서, 이것이 용진(熊津) 또는 사비(泗布)에 전해졌고, 다시 신라에 전해졌으며, 일본에 건너가서는 아스카(飛鳥) 시대의 조상미술에 제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산지방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하므로 려말·선초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며, 고려·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의 중요한 루트였다. 문화적으로는 가야산 주위의 이른바 「내포지방」으로서, 충남에서 차령산맥 동남부의 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근대교통에서 멀어서 그 동안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대규모의 간척사업, 대산지구 임해공업지역 등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건설중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

면 수도권 지역과의 연결이 매우 밀접하게 될 전망이다.

〈 그림 2-1-1 〉 서산시의 위치도



2. 면 적

1995년 현재 서산시의 총면적은 739.03km²로써, 충남 총면적(8,546.8km²)의 약 8.6%를 차지하며, 충남에서 공주시(941.0km²) 다음으로 2번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서산시 관내의 읍·면별 면적을 보면 부석면(123.80km²)이 가장 넓고, 다음이 대산읍(103.94km²)이며,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문동·활성동(8.77km²)이다.

〈 표 2-2-1 〉 서산시의 읍·면·동별 면적



단위 : km²

서산시	739.03
대산읍	103.94
인지면	35.44
부석면	123.80
팔봉면	51.40
지곡면	57.94
성연면	43.70
음암면	43.99
운산면	82.73
해미면	68.08
고북면	71.80
부춘동	9.45
동문동	8.77
활성동	
수석동	8.80
석남동	18.06
오산동	11.13

('96 서산시 통계연보)

제3절 자연 환경

1. 지질과 지형

- 1) 지질
- 2) 지형

2. 기상과 기후

- 1) 기후 특성
- 2) 기온

3) 강수량

- 4) 바람
- 5) 계절의 추이

3. 토양과 식생

- 1) 토양
- 2) 식생



(집필자 : 이문중)

제3절 자연 환경

1. 지질과 지형

1) 지질

(1) 지질개요

서산시의 지질은 주로 선캄브리아기의 서산층군과 쥐라기의 대보관입암류에 속하는 화강암류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 소규모의 쥐라기 섬장암류, 백악기의 불국사관입암류에 속하는 산성맥암류와 제4기의 충적층 및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1 참조).

선캄브리아기의 서산층군은 호상편마암, 편암류, 화강편마암 및 태안층군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지질계통은 <표 3-1-1> 과 같다. 서산시 지역에 분포된 지질을 오래된 암층으로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지질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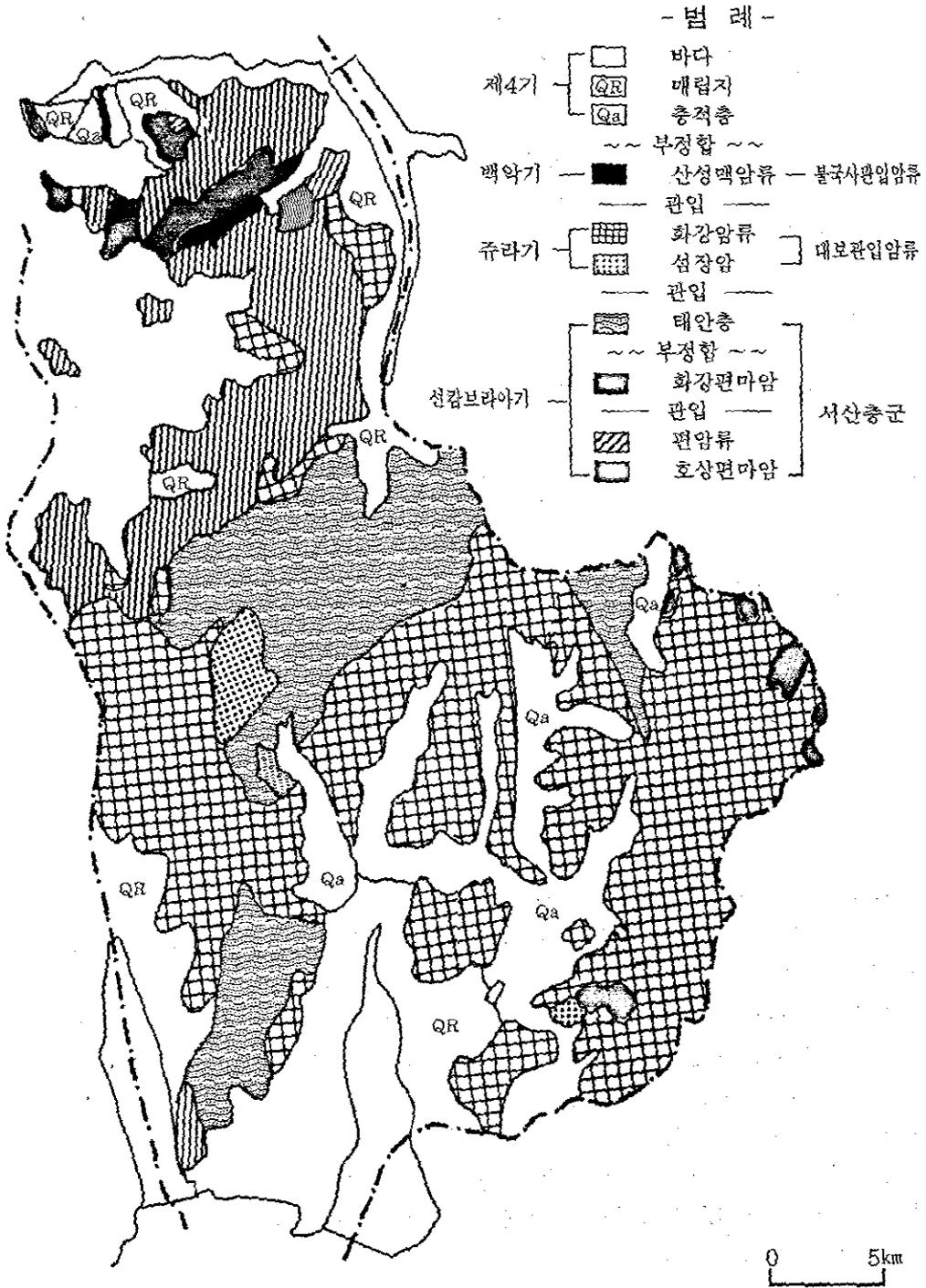
① 호상편마암

본암은 서산층군의 편암류 하부에 분포하며 서산층군의 기저를 이루는 암석이다. 서산시지역에서는 주로 동남부에서 쥐라기 화강암체내에 소규모 포획암체로 나타난다. 이 암석내에는 석회암이 간혹 협재하고, 각섬석편마암도 협재하고 있다.

본암은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대와 흑운모로 구성된 우흑질대가 교호하면서 호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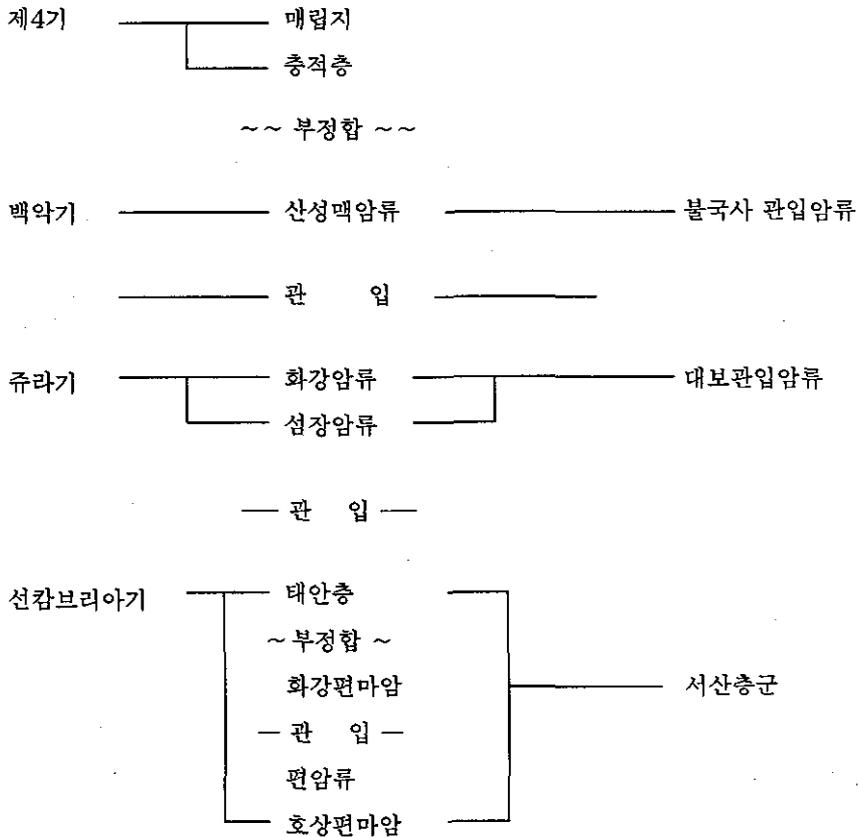
② 편암류

본암류는 서산시의 북부에 주로 분포하며, 남서부에서는 쥐라기 화강암내에 소규모의 포획암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 서산시의 지질도

< 표 3-1-1 > 서산시의 지질계통



본암류는 대개 견운모편암, 흑운모~견운모편암, 석영~견운모편암, 석영편암 등으로 구성되며, 규암 및 석회암이 다수 협재한다. 이 편암류는 곳에 따라 석영이나 장석 인자들이 커지면서 편마암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편암류에 협재된 규암은 비교적 순수하게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곳에 따라 함철규암이 배태된다.

함철규암은 대체로 정장석, 미사장석과 석영으로 구성된 아코스사암이 규암화되었으며, 곳곳에 사층리들이 발달된 것으로 보아 규암내에 함유된 자철석중 일부는 표사기원일 가능성이 높다.

규암이 분포된 지역은 대체로 높은 산능선을 이루고 있다. 석회암은 결정질석회암, 석회규산염암 및 각섬암의 복합체로 그 폭이 5m 이상이나, 지역에 따라 격심한 층후의 변화를 보인다.

이 편암류는 최소한 3차 이상의 중복변형작용을 받았으며 변성상은 녹색편암상에서 각섬암상에 이르는 중복변성상을 보인다.

③ 화강편마암

본암은 서산시의 북단 부근에서만 소규모로 분포하며 편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화강편마암은 전반적으로 홍색장석을 함유하고 염리조직을 잘 보이며, 본암중에서 편암과 규암의 포획암이 자주 관찰된다.

본암의 광물조성은 석영 약 30%, 사장석 약 20%, 카리장석류 및 퍼사이트 약 35%이고, 나머지는 소량의 흑운모, 견운모, 각섬석, 스펀과 불투명 광물이다.

④ 태안층

본층은 주로 서산시의 중부에 분포하며, 서남부 및 중동부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또한 본층은 상기의 편암류 및 편마암류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저변성퇴적암류인 녹니석슬레이트 및 천매암, 흑운모 천매암, 견운모~석영천매암 및 변질사암 등으로 구성되어 크게 이질기원 변성암과 사질기원 변성암으로 구분된다.

⑤ 섬장암

본암은 서산시 중서부 팔봉산 근처에 소규모 암주상으로 분포한다.

이 암석은 반상조직을 가지며 유색광물로는 각섬석이 풍부하다. 암상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구성광물은 장석, 흑운모, 각섬석과 미량의 석영이 관찰된다.

⑥ 화강암류

본암류는 주로 서산시의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상기 암층들이 대규모 저반상으로 관입하거나, 소규모의 포획암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중부 이북에서도 곳곳에서 소규모로 편암류를 관입하였다.

이 화강암류는 편상화강암, 각섬석화강암, 반상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및 홍색 장석화강암 등 다양한 암상의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⑦ 산성택암류

본암류는 석영반암, 장석반암, 규장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북부 대산면에서 편암류와 화강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다.

⑧ 층적층 및 매립지

층적층은 자갈, 모래 및 펄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층으로서 서해로 유입되는 수계를 따라 그 주변에 비교적 넓게 발달한다.

또한 서산시 지역의 서해안은 매우 불규칙한 리아스식해안이므로 최근 이를 이

용하여 천수만지역 등에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여 큰 매립지가 만들어졌다.

(3) 지질구조

선캄브리아기의 편암류, 규암, 석회암 등으로 구성된 서산층군내에서는 4차례의 중북변형에 의하여 재습곡구조들이 자주 관찰된다.

첫번째의 변형작용은 광역적인 엽리를 형성시켰으며, 이 엽리면과 거의 평행한 습곡측면을 가지는 등사습곡과 광물선구조를 형성시켰다.

두번째 변형은 전단벽개 내지 단열벽개형성과 폐쇄습곡 및 부딘 내지 축팽구조 등을 형성하였다.

세번째 변형시기에는 직립개방습곡, 파랑벽개 및 파랑선구조가 형성되었다.

네번째 변형작용 동안에는 완사습곡 및 단층들이 형성되었다.

그 후 서산층군은 몇차례의 단층작용에 의해 교란되었다. 이 지역에 발달된 대표적인 단층은 북북동 방향의 좌수향이동 단층이다. 또한 이 주향이동 단층에 따라 발달된 거의 남북방향의 정단층이 자주 관찰된다.

그 후 주라기의 대보관입암류에 속하는 섬장암 및 화강암류가 암주상 및 저반상으로 서산층군을 관입하였으며, 백악기의 산성맥암류가 암맥상으로 관입하였다.

충적층은 기존의 모든 암층을 부정합으로 덮었으며, 근래의 간척사업으로 넓은 매립지가 생겨났다.

(4) 지 사

앞에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서산시의 지질이 형성된 과정, 즉 지사(地史)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선캄브리아기에 이 지역은 쇄설성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퇴적분지였고, 여기에 주로 점토와 모래가 쌓여 세일과 사암이 형성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석회질 물질의 침전으로 석회암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후기의 광역변성작용에 의하여 변성암으로 변하여 호상편마암과 편암류로 되었다. 그 후 이들은 화강편마암의 관입을 받았으며, 다시 태안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였다.

주라기의 대보조산운동 말기에 이 지역에는 소규모의 섬장암과 화강암류의 관입이 일어났으며, 백악기에 들어와 소규모의 산성맥암류의 암맥상관입이 있었다.

상기 모든 암석은 형성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풍화·침식작용을 받았으며, 이들은 낮은 곳에 쌓여 넓은 충적층을 형성하였다. 더구나 서산시 지역에는 근래 천수만지역 등에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넓은 매립지가 생겨났다.

2) 지형

(1) 지형개관

태안반도는 충청남도의 북서부에 돌출한 반도이다. 태안반도의 동쪽에는 가야산지가 남북으로 달리면서, 이른바 「내포지방」을 지역적으로 그 동쪽의 「예당평야지역」과 그 서쪽의 「서산·태안지역」(태안반도지역)으로 이분하고 있다.

서산지역의 지질은 크게 보아 선캄브리아기의 서산층군, 쥐라기의 대보관입암류에 속하는 화강암류,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 및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화강암류로 주로 서산시의 중부에서 남부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선캄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 중 규암이 분포된 지역은 대체로 높은 산능선을 이루고 있다. 화강편마암은 서산시의 북단인 대산반도 끝에 주로 분포하며, 태안층은 서산시의 중부와 서남부지역에, 그리고 편암류는 대산반도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이들 모든 암석은 형성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풍화·침식작용을 받아, 풍화에 강한 곳은 산지로 남고 풍화에 약한 곳은 저기복의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즉, 화강암의 차별적인 심층풍화와 삭박작용에 의해 서산지방에는 완만한 저구릉지나 봉고 동일성(峰高同一性)의 저구릉지가 넓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침식된 물질들은 낮은 곳에 쌓여 충적층을 형성하였으며, 근래 천수만지역과 대산반도의 독곶지역 등에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넓은 매립지가 생겨났다.

태안반도의 동쪽에는 가야봉(677.6m), 석문봉(653.0m), 상왕산(307.2m)으로 이어지는 가야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고,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성왕산(252.0m), 부춘산(187.6m), 팔봉산(361.5m)의 구릉성산지가 연속되어 서산의 주요 산지를 이루고 있다. 서산의 북쪽인 대산의 망일산(302.2m)과 남쪽의 도비산(351.6m)은 300m를 조금 넘는 저산성산지이나 절대적인 고도가 낮은 서산지방에서는 고도가 낮아도 높게 보인다. 이들 산지로부터 북쪽으로는 대산반도, 남쪽으로는 부석반도가 뻗치면서 수많은 만입(灣入)과 대소의 섬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이 서산지방에서는 해발 50m 이상의 저산성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100m 이상의 산지라해도 동부의 가야산지와 서산읍내 북부의 성왕산-부춘산-팔봉산을 잇는 산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200m, 300m 이상의 산지는 전체 면적에서 아주 작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1-2~그림 3-1-5 참조).

따라서 높은 산지가 없고 해발고도가 낮은 저평한 구릉성 지형면이 대부분인 서산지역에서는 취락의 발달도 50m 이내의 구릉지, 대략 20~30m의 구릉지 위에 발달하고 있다. 또한 서산지방에서는 규모가 큰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것이 지형적인 특징이다. 하천의 발달이 적다는 것은 지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결국

지표수가 적은 서산지방에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논농사(畝作) 보다는 밭농사(田作) 위주로 개척될 수 밖에 없었다. 서산지방에 산촌(散村)의 발달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산지방의 해안지형을 보면 해안선이 길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또한 연안은 수심이 얇고 조차가 커서 넓은 간석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간석지는 옛부터 농경지·염전·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산과 산지, 구릉지

〈그림 3-1-2〉~〈그림 3-1-5〉는 서산지역의 지형을 해발고도 50m 이상, 100m 이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역의 지형은 동남부의 가야산지(伽耶山地)를 제외하면 지역 전체가 대체로 50m 이하의 낮은 구릉지 내지 저지로 되어 있다.

1926년 발행 「서산군지」에는 서산의 지형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본군의 면적은 70方里인데, 산야(山野)가 그 7割을 점하고 있으며
이름난 巨川이 없어 산의 곡간을 흐르는 원류는 이름없는 작은 溪流 뿐이다.

서산의 지형 모습을 매우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산의 지형이 이와 같이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게된 과정을 지질발달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서산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억년 전인 선캄브리아기에 서산층군의 지층들(그림 3-1-1 지질도 참조)이 형성된 이래 계속 침식작용과 삭박작용을 받아 오다가 중생대 쥐라기말에 대보조산활동(大寶造山活動)이 일어나서 앞의 〈지질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의 중부이남지역에 화강암지층이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대략 1억 5천만년 전 쯤으로 보고 있다.

대보조산활동은 우리나라 지사상(地史上)에 있어 가장 큰 조산활동(造山活動)이었다. 대보운동에 따라 격심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한반도의 전국 각지 특히 중남부의 광범한 지역에 걸쳐서 화강암(대보화강암)의 암장(岩漿 Magma)이 다량 분출하였다. 즉, 이때에 화강암은 북동~남서방향에서 내습한 압력 때문에 북동~남서의 지나방향(支那方向)으로 대상(帶狀) 분출하였다. 이 시기에 분출한 화강암은 현재의 우리나라 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중생대말의 대보조산활동이 있는 이후 대체로 평온하여 장구한 기간 동안 침식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서산지방 화강암지층 역시 장구한 시간 동안 계속 침식과 삭박작용을

받아 왔다. 이와같이 서산지방은 지층이 형성된 이래 큰 지각변동 없이 장구한 시간 동안 계속 침식과 삭박작용만을 받아 왔으므로 오늘날 서산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저산성 구릉지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화강암지층이지만 가야산지 일대에서는 고지대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그 서부지역에서는 광범하게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차별침식(差別侵蝕)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서부지역에서는 가야산지의 서쪽 산록을 따라 과거 이 지역에 발달하여 있던 북북동 방향의 단층선들의 영향으로 지층의 심부까지 풍화가 빨리 진행되었으나 동부지역인 가야산지 지역에서는 암체의 규모가 크고 단층선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풍화의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고지대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같은 화강암지대이지만 동부지역은 침식에 강해 산지로 남게 되었고, 서부지역은 침식에 약해 낮은 구릉지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지형학에서는 차별침식이라고 한다.

서산지역의 구릉지는 대체로 고도 30~40m 정도의 저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곳이 해미면에서 고북면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이다. 이른바 '비행기들'로 대표되는 신상리·신하리·남정리·석포리 일대에는 배후의 산록에서 뺀어 나온 완사면과 저기복의 구릉지가 멀리 천수만까지 연장되고 있다. 산록에 구릉상으로 남아 있는 해미 일대의 완사면과 석포리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봉고동일성(峰高同一性)의 저구릉들은 형태적 특징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침식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이들의 기반암석이 모두 화강암류로서 심층풍화를 심하게 받은 상태이며, 산록완사면과 구릉지의 배면을 잇는 고도가 거의 동일하며, 산록완사면과 저구릉지에 남아 있는 토양의 발달상태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시말하면, 해미와 고북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산록완사면과 석포리 일대의 저구릉들은 구침식면(舊侵蝕面)이 파괴되다 남은 지형적 유물로서, 과거에는 산록완사면과 저구릉지의 배면을 잇는 고도에 광대한 침식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미면이 위치한 주변 지역과 곡입구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흐르는 하천의 양안에는 충적성 평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즉, 해미면을 지나 서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미천(海美川) 양안과 해미면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남정천(南井川)을 비롯한 여러 하천의 양안에는 하천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침식면의 파괴와 충적지의 발달은 지난 빙기(氷期)의 해수면 하강과 후빙기(後氷期)의 해수면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해수면이 하강하였던 빙기에는 하천들은 하곡을 깊게 팠지만, 해수면이 상승한 후빙기에는 하곡지와 그 연안의 저지에 물질을 퇴적시켜 충적지를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서산지방의 지형발달은 대략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산지역의 산과 산지는 동쪽에서 가야봉~석문봉~상왕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의 가야산지, 서산시내의 북쪽에서 성왕산~부춘산~팔봉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산지, 그리고 대산의 망일산, 부석의 도비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산과 산지는 「동국여지승람」, 「서산구지」, 「해미읍지」, 「서산군지」, 「호산록」 등의 문헌자료에도 기록되고 있어 서산지역 삶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산들이다.

여기서 이들 산과 산지에 대하여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지리적 사실들을 참고하여 그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야산(伽倻山, 677.6m)

해미면에 있다. 가야산에 대하여 「서산군지」(1926)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俗離山) 일맥이 충청남도 천안으로 들어와서 광덕산(廣德山)이 되었고, 여기서 다시 청양을 거쳐 보령 땅에 와서 성주산(聖住山)과 오서산(烏棲山)이 되었으며, 또 홍성으로 들어와서는 월산(月山)을 이루고, 예산의 덕산으로 들어와서는 덕숭산(德崇山)이 되었으며, 서산땅 해미면 대곡리(大谷里)에 이르러서는 갈라져서 두 갈래로 되었는데, 한 가지는 고북면 삼준산(三峻山)이 되고, 또 한가지는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운산면 사이에 일어나서 가야산(伽倻山)이 되었는데, 그 높이는 677.6m에 이른다. 가야산은 뒤로 예산땅을 등지고 서산땅에 임해 있는데 실로 충청 서부의 거악(巨嶽)이며, 서산지방 여러 산의 조종산(祖宗山)으로 옛사람들은 파악했다. 산 위에는 일락사(日落寺)라는 절이 있었으며, 본시 이 산은 이태왕조(李太王朝)가 종친인 이달용(李達鎔)에게 사패(賜牌)한 것이었다.

지금의 가야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정에는 KBS 중계소가 있다. 가야산으로부터 산능선이 북쪽으로 뻗어 해미면 산수리에서 석문봉(石門峰, 653.0m)이 되고, 다시 북으로 운산면에 이르러서는 상왕산(象王山)이 된다. 석문봉은 다시 서쪽으로 황라리에서 남향하여 해미의 읍내리에 이르러 정산(停山)이 되는데, 이 산은 본시 해미 면사무소의 뒷산이 된다. 산의 아래에는 조선시대에 서해안 방어와 행정을 담당했던 「해미읍성」이 있다. 해미읍성에는 조선 태종 2년(1402)부터 효종 2년(1651)까지 충청병사가 주재했다. 성벽과 문루의 보존·복원이 양호하여 우리나라 읍성의 표본으로 꼽힌다. 옛날에 성을 둘러싸고 탕자나무를 심었으므로 지성(枳城)이라고도 했다. 19세기 후반 천주교 박해 때 많은 신도가 이곳에서 순교하였으므로 천주교의 성지가 된 점도 특이하다.



〈사진〉 충남 서부의 고봉 가야산

가야산은 예산땅을 등지고 서산땅에 임해 있는데, 실로 충청 서부의 거약이며 서산지방 여러 산의 조종산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봉인 가야봉(677.6m)을 중심으로 석문봉(653.0m), 옥양봉(621.4m), 일락산(521.4m), 수정봉(453m), 상왕산(307.2m) 등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 가야산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정에는 KBS중계소가 있다.

옛부터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산으로 상왕산 기슭에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한 보원사지, 백암사지, 명종대왕태실 등 유서깊은 문화유적과 개심사, 일락사, 문수사, 송덕암 등의 유명 사찰이 있으며, 21.06km²의 거대한 한우목장이 있다.

해미와 덕산을 있는 '해미고개'는 해발 200m 정도의 고개인데, 최근 포장되어 교통량이 늘어났다. 이 도로의 산수저수지 부근에는 한서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② 삼준산(三峻山, 489.9m)

고북면에 있다. 수덕산(修德山)은 해미면 대곡리에 이르러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가 가야산(伽倻山)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남으로 달려 고북면 장요리에서 일어나서 삼준산(三峻山)이 된다. 산의 배후는 홍성군의 갈산면이 된다. 산의 위에는 삼준사(三峻寺)의 구지(舊址)가 있는데, 파괴된지 오래되었다.

이곳으로부터 두 가지로 분기되어, 한 가지는 장요리의 연암산(燕岩山, 440.8m)이 된다. 산위에는 천장사(天藏寺)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대사리의 봉화산(烽火山, 228m)이 된다. 이 산은 서산시 고북면과 홍성군 갈산면에 접해 있는

데, 고려 때 고구현(高邱縣)의 땅이었다. 성지(城址)가 남아 있고, 고려 말로부터 봉수(烽燧)를 올려 신호하던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다.

③ 상왕산(象王山, 307.2m)

운산면에 있다. 가야산 줄기가 북으로 달려 운산면 신창리에 이르러 상왕산(象王山)이 된다. 상왕산 지맥에는 입모산(笠帽山), 문수산(文殊山), 장락산(張樂山), 옥녀봉(玉女峰) 등을 이루고 있다. 상왕산에는 개심사(開心寺)가 있고, 문수산에는 문수사(文殊寺)가 있다.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 때 혜감국사가 창건한 절인데, 대웅보전은 단정한 품위가 돋보이는 조선 초 맛배지붕으로 유명하고, 문수사 극락보전은 고려 때 창건된 사찰이다. 더욱 운산면 용현리에는 보원사지(普願寺址)와 서산마애삼존불상(瑞山磨崖三尊佛像)이 있어 유명하다. 보원사지에서는 백제금동여래입상(百濟金銅如來立像)이 출토되어 유명하고,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조각의 수법이 절묘하여 영원한 '백제인의 미소'라 칭할 만큼 백제 조상미술(造像美術)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 운산 용현리의 마애불은 태안 백화산의 또 다른 마애삼존불상과 더불어 서산지방이 백제 조상미술의 발상지요 우리나라 불교조상미술의 선구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서산지방의 마애불은 백제의 왕도인 웅진 또는 사비에 전해지고, 다시 신라에 전해져서 일본에 건너가서는 아스카시대(飛鳥時代)의 조상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산록」을 썼던 당시의 사람들은 상왕산을 「가야산」이라 불렀었던 것 같다.

「호산록」에는 상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의 동쪽 30리 해미 경계에 있다. 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 이름은 상왕산(象王山)이고 또 한 이름은 가야산(伽倻山)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상왕산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가야산」이라고만 부른다. 가야라는 말은 본래 불서(佛書)에서 온 것이지만 사적과 본말을 근거해 보아도 알 수가 없고, 「동국통감」, 「여지승람」에서도 고찰해 볼 수가 없다. 오직 이 산을 상왕이라하여 궁전·누대·연못·연로·벽돌·깨어진 기와·부서진 초석이 수풀속에 쌓여 있는 것이 옛그제 일과 같이 완전하지만 과연 어느 시대에 이 산에다 국도(國都)를 건설하였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생각하건대 여러 짐승들 가운데 코끼리가 가장 힘이 세고 으뜸이니 코끼리를 비유해서 당시에 힘이 있는 자가 상왕(象王)이라 칭한 것에 불과한 듯 하고, 아마도 신라와 백제가 전쟁할 때에 참담되게 호칭을 도둑질해서 제 힘을 믿고 힘준한데 의거해서 왕이라 하고 국가라 칭한 것이 한때의 역사에 기록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산에는 네 개의 하천이 있는데, 하나는 봉대암(鳳臺庵)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는 서림사(西林寺) 아래에서 흘러나와서 무릉대(茂陵臺) 앞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 당진·면천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 하나는 덕산 대사동, 홍주 대치동에서 나와 여정(黎亭)에서 합류해서 서쪽으로 병영(兵營) 남문 밖을 지나 양림포(陽林浦)에 유입해서 남해에 달한다. 하나는 가야산 골짜기 가운데서 나와서 봉종원(峯鄒院) 앞을 지나 신교천(新橋川)에 합류해서 마침내 면천 대진(大津)에 달한다.

수청봉(秀靑峰)은 강당사(講堂寺) 건너편 가에 있는데, 봉(峰)이 극히 험하고 높다. 석성(石城)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 오기를 상왕(象王)이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 극히 정교하고 벽돌 하나도 퇴락한 것이 없다. 지난 정유년(1597)에 병사 이시언(李時彦)이 친히 순검하고 다시 증축해서 진술(鎭戍)할 계획을 세웠는데 군사들이 산이 깊고 길이 멀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드디어 중지했다.

태봉(胎峰)은 문수사(文殊寺) 왼쪽 어깨편에 있는데, 명종대왕의 태(胎)를 묻은 곳이다. 또 태사(胎寺) 3칸을 짓고 봉우리 아래에는 태직이 10여호가 있는데 벌채를 금하고 산불도 금하고 있다.

상왕산(象王山)은 내포(內浦) 몇 고을의 땅에 서려 있는데, 산의 북쪽은 당진(唐津)이고 동쪽은 면천(沔川)이며 조금 동쪽은 덕산(德山)이고 남쪽은 홍주(洪州)이고 조금 남쪽은 결성(結城), 서쪽은 해미(海美)·서산(瑞山)·태안(泰安)·안흥량(安興梁)·소근포(所斤浦)이며 조금 서쪽은 파지도(波知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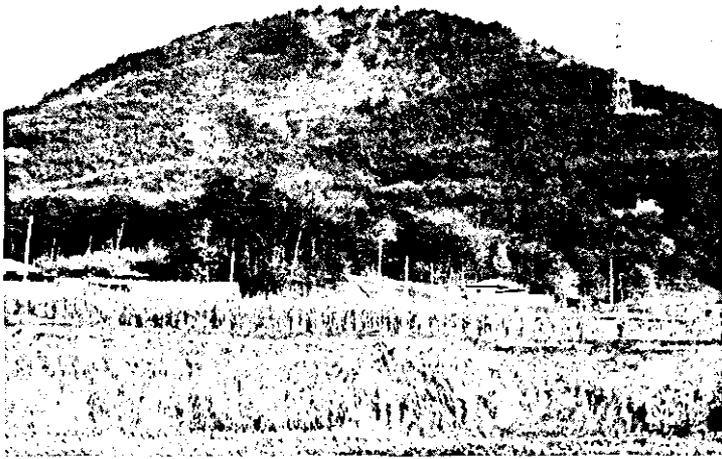
④ 성왕산(聖王山, 252m)

음암면에 있다. 가야산맥이 운산면 가좌리로 나와 동암산(銅岩山)을 이루었고, 서북으로 뻗다가 당진군 정미면에서 뻗어 나오는 안국산(安國山, 일명 봉화산 烽火山)·은봉산(銀峰山, 283.5m)과 합쳐 간대산(艮臺山, 175.2m)이 되었다. 여기서 다시 서북으로 달려 당진군 대호지면에서 뻗어 나오는 차모산(慈母山, 250.3m)과 합쳐 문길산(文吉山, 189m)을 이룬 다음 서남으로 방향을 돌려 모가울고개, 성연고개를 거쳐 서산시 부산리에 이르러 성왕산(聖王山)을 이루었다. 이 성왕산에서 시작하여 서남으로 연속되는 부흥산, 부춘산, 명림산은 서산시내의 뒷 산맥으로 서산의 서·남·북으로 뻗는 여러 산맥의 원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왕산의 허리에는 개운암(開雲庵)이 있고, 암자의 뒤에는 운제단(雲祭壇)이 있다.

「호산록」에는 성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郡)의 북에 있는데 성(城)과의 거리는 5리이고 봉우리에 군루(軍壘)의 옛터가 남아 있다. 봉우리 위에 샘(泉)이 있는데 맑고 차다. 거사 손씨(孫氏)라는 자가 불당을 짓

고 거기 살았는데 그 후에 첨지(僉知) 유대춘(柳帶春)이라는 사람이 재사(齋寺)를 짓고 중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이 산의 들은 모두 청색으로 큰 것은 명석만한 것이 있고 판자같은 것도 있고 상같은 것도 있는데 온돌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



〈사진〉
서산시 원맥 성왕산

서산시내의 뒷산인 부흥산, 부춘산, 명림산은 모두 성왕산에서 뻗어내리고 있다. 옛부터 여러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소탐산(騷探山)은 서산시 수석동과 음암면 신장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 「호산록」에서는 소담봉(疎淡峰)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 동쪽 10리에 있는데, 그 봉우리는 산맥에 근본을 두지 않고 들 가운데서 우뚝 솟았는데, 임목이 듽성듬성 질게 푸르러 사랑할만 하며 이를 바라보면 산뜻한 기세와 정신이 그 가운데서 고무되는 듯 하다고 「호산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 양지 쪽에는 조선 제2대 왕인 정종의 10남인 덕천군(德泉君)의 증손인 변성군(邊城君)의 묘가 있다. 변성군의 아들로서 기수(期壽, 가산군수), 이수(頤壽, 경상병사), 학수(鶴壽, 비인현감), 봉수(鵬壽), 난수(鸞壽, 길주목사)의 5형제는 모두 현달한 인물이었고, 학수의 아들로서 유검(惟儉)은 임진왜란 때 무부(武夫)로서 김해전투에 참여하였고, 그 아우 유직(惟直)은 충청병사에 올랐다. 또 봉수의 아들인 유성(惟誠)도 벼슬이 병사에 이르렀고, 그 아들인 승길(承吉)은 판사(判事), 윤길(胤吉)은 초계군수, 중길(重吉)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에 이르렀다. 또 조선조 문장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던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는 이수(頤壽)의 손서(孫婿)이다. 이와같이 소탐산(소담봉) 아래에 정착한 덕천군 후손들은 과거에 급

제한 사람만도 삼십여 명을 헤아리는데, 혹 판서가 되기도 하고, 혹 병사, 혹 수령, 혹 생원, 혹 진사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곳 덕천군 후손들은 특히 조선 초기부터 중기에 걸쳐 서산지방 제일의 명문거족을 이루었다.

「호산록」에서는 이 봉우리 아래의 이씨들이 이렇게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게 된 것은 비록 이 봉우리는 작다 해도 천지의 정숙지기(精淑之氣)가 이 봉우리에 가득하게 뭉쳐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⑤ 부춘산(富春山, 187.6m)

부춘산은 서산시내 뒤에 있는 산이다. 옥녀봉(玉女峰, 187m)은 부춘산의 중심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같은 산에 있다.

「호산록」에 보면 부춘산이나 옥녀봉이란 이름은 없고 「북산」(北山) 또는 「북주산」(北主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춘산이란 이름은 1926년에 간행된 「서산군지」에 비로소 언급되고 있다. 「호산록」이 조선 광해군 11년(1619)에 편찬된 사실을 감안하면 부춘산이란 이름은 아마도 광해조 이후에 생겨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산의 맥이 성왕산으로부터 나와 서북으로 달려 온석동을 지나 동문동에 이르러 부흥산(富興山, 198.4m)이 되는데, 산 아래에는 향교(鄉校)가 있다. 이곳으로부터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서남으로 달려서 동문동·읍내동의 사이에 이르러 솟아나서 부춘산(富春山)이 되는데, 일명 북주산(北主山)이라 한다. 옥녀봉



〈사진〉

서산의 주산 부춘산과 옥녀봉

서산 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부춘산은 서산의 주산(主山)이다. 옥녀봉은 부춘산의 중심 봉우리이다. 부춘산은 시민의 문화공간 및 휴식공원으로 여기에는 문화회관, 조각공원, 도서관, 레포츠공원, 국공장, 단군전, 충령각, 체육공원, 4개의 사찰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옥녀봉은 옛부터 옥녀에 대한 전설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 모두가 신성시하고 있다.

(玉女峰)은 서산시청이 있는 뒷산으로 이 산 밑에는 치소(治所)가 500년 동안 있어 왔고, 산의 중북에는 삼선암(三仙庵)이라는 고찰이 있으며, 산록에는 성암서원(聖巖書院)의 유지비(遺址碑)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산은 백사청송(白砂靑松) 사이에 기암(奇岩)이 일어나고 엮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천연적 공원과 같으며 조망이 멀리 안면도와 천수만이 보인다고 했다. 풍수가 들은 이 산의 모습이 '옥녀가 가야금을 타는 형국' (玉女彈琴型)이라하여 이 산을 많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호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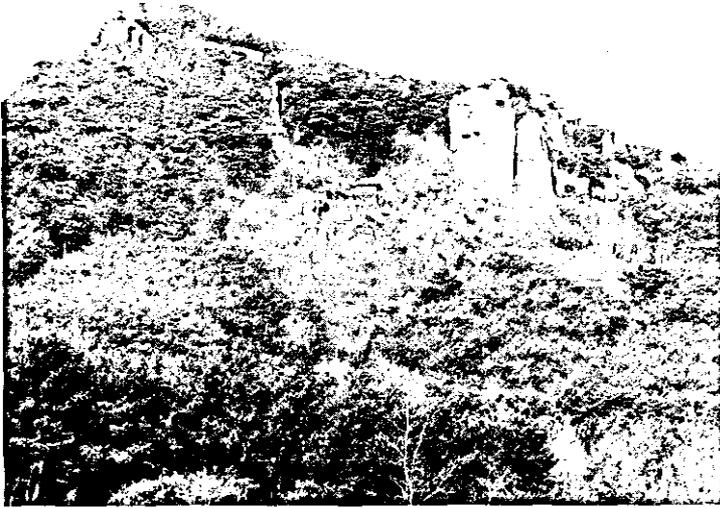
군의 북 1리에 있다. 군민들이 북산(北山)이라 하지 않고 주산(主山)이라 한다. 이 산에는 상선대(上仙臺), 중선대(中仙臺), 하선대(下仙臺)가 있는데 고경명(高敬命) 군수가 이름한 것이다. 지형의 높고 낮은 것으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고 누대를 지은 것은 아니다. 상선대 아래에는 짧은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가운데에 지세가 조금 넓은 곳이 있다. 찬 샘물이 바위 아래에서 솟아 나오는데 고(高) 군수가 그곳에 초당(草堂)을 짓고 관청문서의 일이 끝나는 한가한 시간에 여기에 노닐고 싶어했는데, 마침 체임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부춘산은 서쪽으로 달려 인지면 풍전리에 이르는데, 한 가지가 북으로 달려 성연면 일람리 뒷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북을 직주해서 인지면 갈산리·성리에서 비룡산·서각산(금강산)을 만든 다음 팔봉면에 이르러 팔봉산이 된다.

명림산(鳴林山)은 서산시 읍내동 서산문화회관 서편에 있는 산이다. 이 산 밑에는 원래 향교(鄕校)가 있었으므로 명륜산(明倫山)이라 불려지던 것이 잘못되어 명림산(鳴林山)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명림산은 주민들간에 '울음산'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다. 지금은 복개됐지만, 이 산 밑으로는 맑고 깨끗한 작은 하천이 암석위를 흐르고 있어서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두드리는 빨래방망이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서 마치 산이 우는 것 같이 들렸다고 한다. '울음산'이란 이런 연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⑥ 비룡산(飛龍山, 290m)

인지면에 있다. 부흥산 여맥이 갈산동에 이르러 일어나서 인지면 성리에서 비룡산(飛龍山)이 되는데, 이 비룡산지가 서산의 서남쪽 산지의 시작이 된다. 산에는 죽사(竹寺)라는 절이 있다. 비룡산의 바로 서쪽은 서각산(犀角山, 316.1m)이다. 서각산은 본래 '코뿔소산'이란 뜻이지만, 1926년 「서산군지」에는 일명 '취뿔산'이



〈사진〉

비룡산 : 본래는 코뿔소산

서산의 서남쪽 산지의 시작이 된다. 본래 '코뿔소산'이란 뜻의 서각산(犀角山)이지만, 일명 '쥐뿔산'(鼠角山)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지도에는 '금강산'(金剛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산위에는 높이가 50장이나 되는 바위가 있다.

란 뜻의 서각산(鼠角山)으로도 부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립지리원 발행 지도에는 「금강산」(金剛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산 위에는 높이가 50장(丈)이나 되는 바위가 있다. 그 모양이 마치 금강산을 방불케하여 서각산을 금강산이라 부르는 것 같다. 금강산의 바로 밑은 장군봉(將軍峰, 203.5m)이 되고, 서산~태안을 잇는 차리고개를 지나 인지면의 역마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⑦ 역마산(驛馬山, 171.4m)

인지면에 있다. 서각산(금강산)에서 남쪽으로 뺏어내린 한 줄기가 차리고개를 지나 물래산을 만들고 팔봉면·부석면·인지면과의 접경지대에서 역마산(驛馬山)으로 솟아나는데, 이 역마산의 줄기가 인지면 남정리에서 청금산(靑金山, 203.4m)을 만들고, 다시 부석면 월계리, 인지면 애정리 사이를 지나는데 여기에 송곡향현사(松谷鄉賢祠)가 있다. 이어서 '취개고개'를 넘어 달려서 부석면의 도비산이 된다.

⑧ 도비산(鳥飛山, 351.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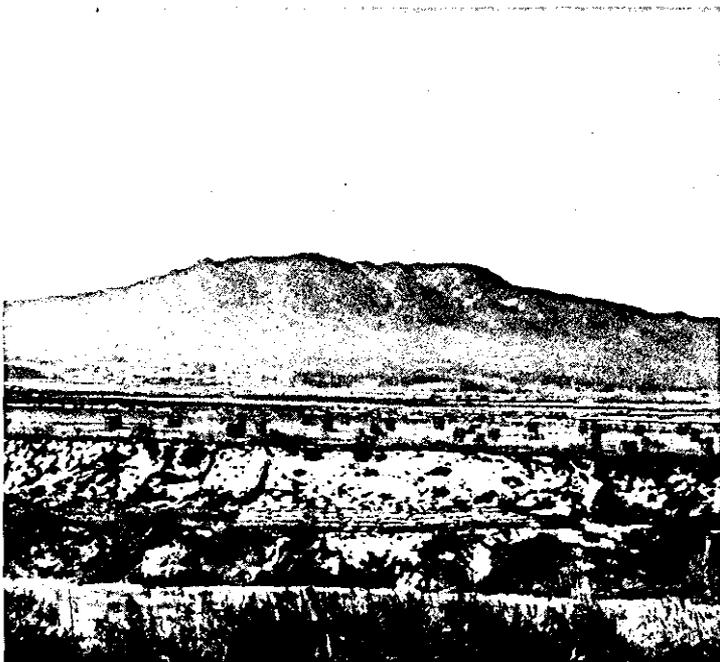
부석면에 있다. 맥이 인지면 화수리 역마산에서 나와 부석면 월계리를 지나 취평리에 이른다. 취평리는 부석면의 중심지가 된다. 여기에서 솟아나서 도비산(鳥飛山)이 된다. 산봉우리 위에는 봉수(烽燧)를 올렸던 고지(古址)가 남아 있고, 산 중

턱에는 부석사(浮石寺) 및 동사(東寺)가 있다. 이는 천년 고찰(古刹)인데, 올라보면 멀리 황해의 무궁함을 볼 수 있다.

「호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산 위에는 봉수대(烽燧臺)가 있으며 또한 기우석(祈雨石)이 있다. 이 산은 땅이 서해의 끝지점에 있기 때문에 쾌청한 날 올라서 바라보면 해로(海路)가 분명하며 바다가운데에 위안도(賚眼島), 명호도(鳴呼島)가 가로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명호도(鳴呼島)는 제(齊) 나라 전횡(田橫)이 의사(義士) 500명을 데리고 한고조(漢高祖)를 피해 와서 머물렀던 섬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도 중국 조정에 조회하기 위해 이 바닷길을 가다가 전횡의 의리를 생각하여 시(詩)를 남겼다. 도비산은 단산(單山)으로 옛노인이 전하기를 개벽초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왔으므로 도비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도비산으로부터 서남으로 두줄기가 뻗는데, 한 가지는 봉락리를 달려 포(浦)의 앞에서 멈추고, 한 가지는 지산리·강당리를 지나 포(浦)의 앞에서 바다에 들어 가는데 간월도(看月島)가 된다. 간월도는 송나라 때 신하 원외랑(員外郎) 정신보(鄭臣保)가 원나라를 피해 이곳에 살았다. 정신보는 서산 정씨의 시조가 된다.



〈사진〉
중국에서 날아왔다는
도비산

중국에서 날아와서 이루어진 산이라는 전설이 있다. 산 봉우리에는 봉수를 올렸던 고지(古址)가 남아 있고, 산중턱에는 천년 고찰인 부석사(浮石寺)와 동사(東寺)가 있다. 산에 오르면 멀리 황해의 무궁함을 볼 수 있다.

⑨ 팔봉산(八峰山, 361.5m)

팔봉면에 있다. 비룡산~서각산(금강산)의 산지가 한 가지는 서북으로 뻗어 팔봉면 어송리에서 팔봉산(八峰山)을 이루었고, 한 가지는 서쪽으로 달려 태안에 이르러 백화산(白華山)을 이루었다. 팔봉산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여덟 봉우리로 되어 있어 산형이 매우 기이(奇異)하다.

「호산록」에서는 팔봉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의 서쪽 해안에 있는데 여덟 봉우리가 산 위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팔봉산(八峰山)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첫째 봉우리는 운암사(雲庵寺) 뒤에 있는데 가장 우뚝하며 3면이 모두 석벽이고 창암절벽이어서 날아 다니는 새가 아니고서는 능히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일면에는 가느다란 길이 돌 위에 얽히어 돌고 있어서 겨우 사람만 다니는 통로가 된다. 봉우리 안쪽은 평탄하고 광활하여 가히 백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전해 오기를 옛날에 은산(銀山) 이문(李文)이라는 강도가 있어서 부하 백여 명을 거느리고 이 봉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점거하고 굴을 만든 다음 평민을 갈취하고 살해했다고 한다. 당시에 병사(兵使)가 이를 듣고 도적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풀어 세겜으로 포위하여 수비하니 도적이 굶주려 죽기도 하고 굴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봉우리 뒤쪽 창암절벽은 수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은 도적이 밤에 수비하지 않음을 알고 굴 속에서 나와 도망쳤다고 한다.



〈사진〉

여덟 봉우리의 팔봉산

팔봉산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여덟 봉우리로 되어 있어 산형이 매우 기이하다. 기암 절벽과 울창한 소나무숲은 한쪽의 동양화 같고, 산정에 오르면 서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임진년 난리에 효릉참봉(孝陵參奉) 김호열(金好說)이 서생(書生) 김덕용(金德容)을 이끌고 촌민을 불러모아 팔봉산 가느다란 길이 있는 곳에 들어가 축성하고 난을 피하려 했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만약 도적이 잠시 왔다가 곧바로 가면 괜찮지만 진을 치고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면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루 속에 들어 있는 쥐가 되고 말 것이다」하여 드디어 중지하고 성을 쌓지 아니했다.

고경명(高敬命) 군수가 임오년(1582) 한해(旱害) 때에 정성껏 이 산에 기우(祈雨)하고 관아로 돌아오던 차에 대우(大雨)가 쏟아졌고, 그 후 을미년(1595) 큰 가뭄에 이수록(李綬祿) 군수 역시 목욕재계하고 지성으로 기우(祈雨)해서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⑩ 연화산(蓮花山, 234.2m)

성연면에 있다. 비룡산으로부터 산의 맥이 북으로 뻗어 성연면, 지곡면, 팔봉면의 경계에서 연화산(蓮花山)을 이룩하였다. 이 연화산의 산줄기는 동서로 뻗어 성연면과 지곡면 사이에 대치봉(大峙峰)을 이루었고, 이 고개를 「대치고개」라고 한다. 대치고개는 성연면의 오사리와 지곡면의 화천리를 잇는 고개인데, 높이가 불과 해발 50~100m이내의 나즈막한 고개지만 서산지방에서 문화권적으로 지곡·대산권과 서산권으로 나누어 놓는 역할을 했던 고개이다.

연화산은 「호산록」에서는 연화산(烟花山)이라고 적고 있는데, 군의 서쪽 20리에 있으며, 이 산의 토품(土品)이 비옥해서 초목이 무성하며 산 아래의 백성들이 매년 화전(火田)으로 조(粟)를 재배하는데 그 이(利)가 평전(平田)보다 배(倍)나 된다고 적고 있다.

대치봉에서 북으로 뻗어 내리는 맥은 지곡면 대요리에 이르러 아마힐산(阿摩詰山), 일명 고수철산(古水鐵山)이 되는데, 산 아래에는 인조 때의 명장이며,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정묘호란 때 청군을 물리친 충무공(忠武公) 정충신(鄭忠信) 장군의 영정(影幀)과 유품을 모시는 진충사(振忠祠)와 장군의 묘(墓)가 있다.

⑪ 부성산(富城山, 117.1m)

지곡면에 있다. 대치봉에서 뻗어 나온 맥은 세 가닥으로 나뉘어, 한 가지는 지곡면 화천리와 무장리 사이에서 홀연히 솟아서 옥녀봉(玉女峰)이 되고, 가운데 가지는 지곡면 산성리에서 부성산(富城山)이 되고, 또 한 가지 맥은 중왕리에 이르러 망미산(望美山)이 된다.

이 중 부성산 아래 산성리는 신라 부성현(富城縣)이다.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은 진성여왕 때 부성태수(富城太守)가 되어 군을 다스렸다고 한다. 산상에는 석성(石城)의 고적(古蹟)이 있는데, 이르기를 고려 때 축성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산성리는 이미 삼한시대에 치리국국(致利鞠國)이라 하여 한 부족국가가 있었던 곳으로



〈사진〉 부성현(富城縣)이 자리했던 부성산

산상에는 석성(石城)의 고적이 있는데, 산아래 산성리는 삼한시대에 『치리국국』(致利鞠國)이라는 부족국가, 신라때는 부성현(富城縣)이 자리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라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5현을 모신 오현각(五賢閣)이 있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성산성은 이미 백제시대 이전에 축성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12년에 산성리 거사(居士) 최동연(崔棟淵)이 오현각(五賢閣) 2칸을 건립하고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원외랑(員外郎) 정신보(鄭臣保), 양열공(襄烈公) 정인경(鄭仁卿), 사암(思庵) 유숙(柳淑),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5현을 찬양하는 시문(詩文)을 김대덕 군수가 지어 적은 현판으로 걸었었다. 또 1921년에 최고운사(崔孤雲祠, 道忠祠)를 건립하였는데, 이곳의 최씨들은 최치원의 후손이라고 한다.

⑫ 망일산(望日山, 302.3m)

대산읍에 있다. 지곡면의 망미산맥이 북으로 달려 대산읍의 영탑리, 운산리, 대산리 경계에서 우뚝 솟아 망일산(望日山)이 된다. 망일산은 평지 중에 우뚝 솟아 그 모습이 자못 쾌활하고 호협하다. 기록에 보면 산정에는 망일사(望日寺)와 국사당(國祀堂)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산 전체가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망일산의 한 가지가 남으로 뻗어 건지산(乾之山)과 시루산(詩樓山)이 되어 망일산과 대치하여 영탑리가 되고, 그 동쪽으로 달리는 한 가지가 돌기한 삼형제봉(三兄弟峰) 아래는 운산리가 되며, 그 북으로 한 가지가 분연히 달리는 말의 형세



〈사진〉

평지에 우뚝 솟은 망일산

평지 중에 우뚝 솟아 그 모습이 자못 쾌활하고 호협하다. 『호산록』에서는 이 산을 가리켜 그 형체가 구룡보다 더 높고 크지 않지만 바다 가운데 가리우는 것이 없어서 『大山』이라 칭하는 것 같다고 적고 있다. 바람이 잔잔하고 개인 날에 이 산에 올라보면 충청도·경기도·황해도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이 산 아래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고, 지금은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로 뻗어 솟은 것이 진후봉(鎭後峰)이다. 이 진후봉은 옛 평신진영(平薪鎭營)의 뒷산이다. 이 산 밑은 현재 대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호산록」에서는 망일산을 대산(大山)이라 적고 있다. 그 기록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의 북쪽 35리에 있는데 목장(牧場)이 있다. 이 산은 바다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듯 해서 그 형체가 구룡보다 더 높고 크지 않지만 바다 가운데 가리우는 것이 없어서 대산(大山)이라 칭하는 것 같다. 바람이 잔잔하고 개인 날에 이 산에 올라보면 섬세한 파도도 일지 않고 바다가 맑은 거울 같아서 거의 천리를 볼 수 있는데, 충청도·경기도·황해도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관악산·청계산·삼각산이 마치 안상(案上)에 대하는 것 같으니 이 산의 이름이 이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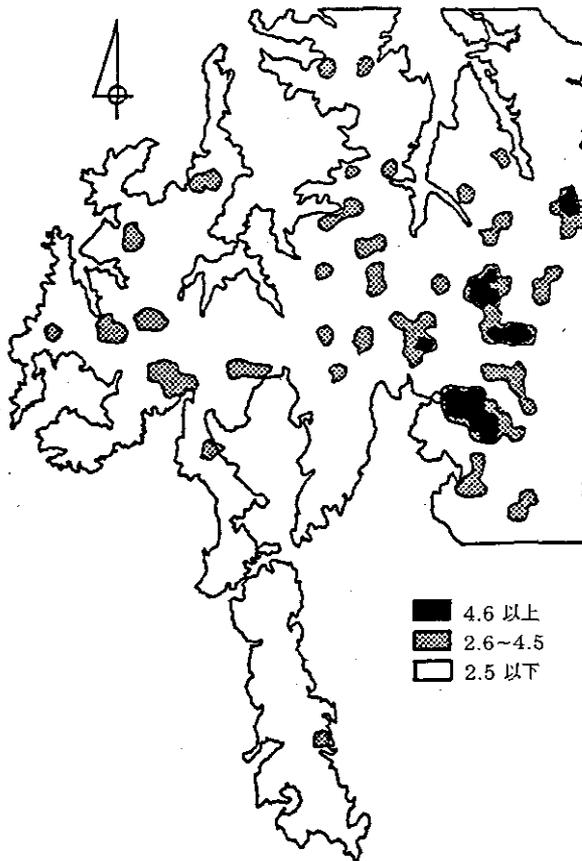
산맥의 한 가지가 대산리로부터 서쪽으로 뻗어서 대로리에서 몰니산(沒泥山)이 되는데, 산의 풍경이 절묘하게 아름답다. 이곳으로부터 일맥이 또 서쪽으로 달려 오지리의 자객산(紫客山)이 되고, 서북에서 큰 바다에 임하고 있다. 또 일맥은 북으로 기은리의 자지산(紫芝山)이 되고, 여기서 세갈래로 나누어져서 한 가지는 서쪽으로 달려 독곶리의 황금산(黃金山)이 되는데 바다중에 돌출하여 대소의 용굴(龍窟)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동북으로 뻗어서 다시 북으로 머리를 돌려 대죽리에

이르러 바다에 임하고 있다. 대죽리에서 황금산에 이르는 해안에는 대산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기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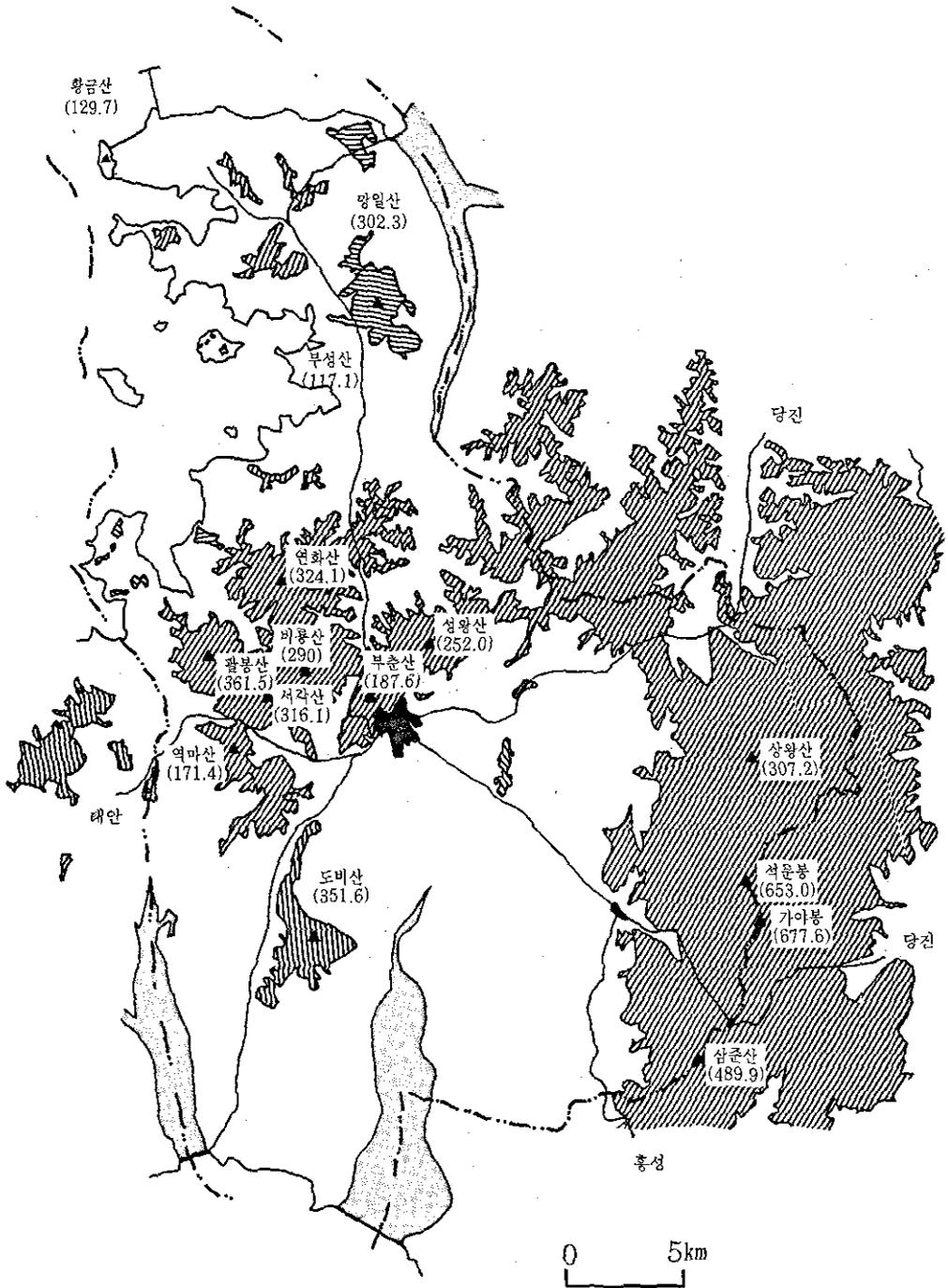
또 한 가지는 동쪽으로 달려 화곡리의 삼길산(三吉山)이 된다. 이 산 남쪽에는 해월암(海月庵)이 있다. 이 산에 오르면 당진·면천의 여러 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삼길포(三吉浦)의 바닷물 빛이 마치 한폭의 그림을 걸어 놓은 듯 해서 춘풍추월(春風秋月)에 이 산을 오르는 시인묵객(詩人墨客)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3) 하천과 들, 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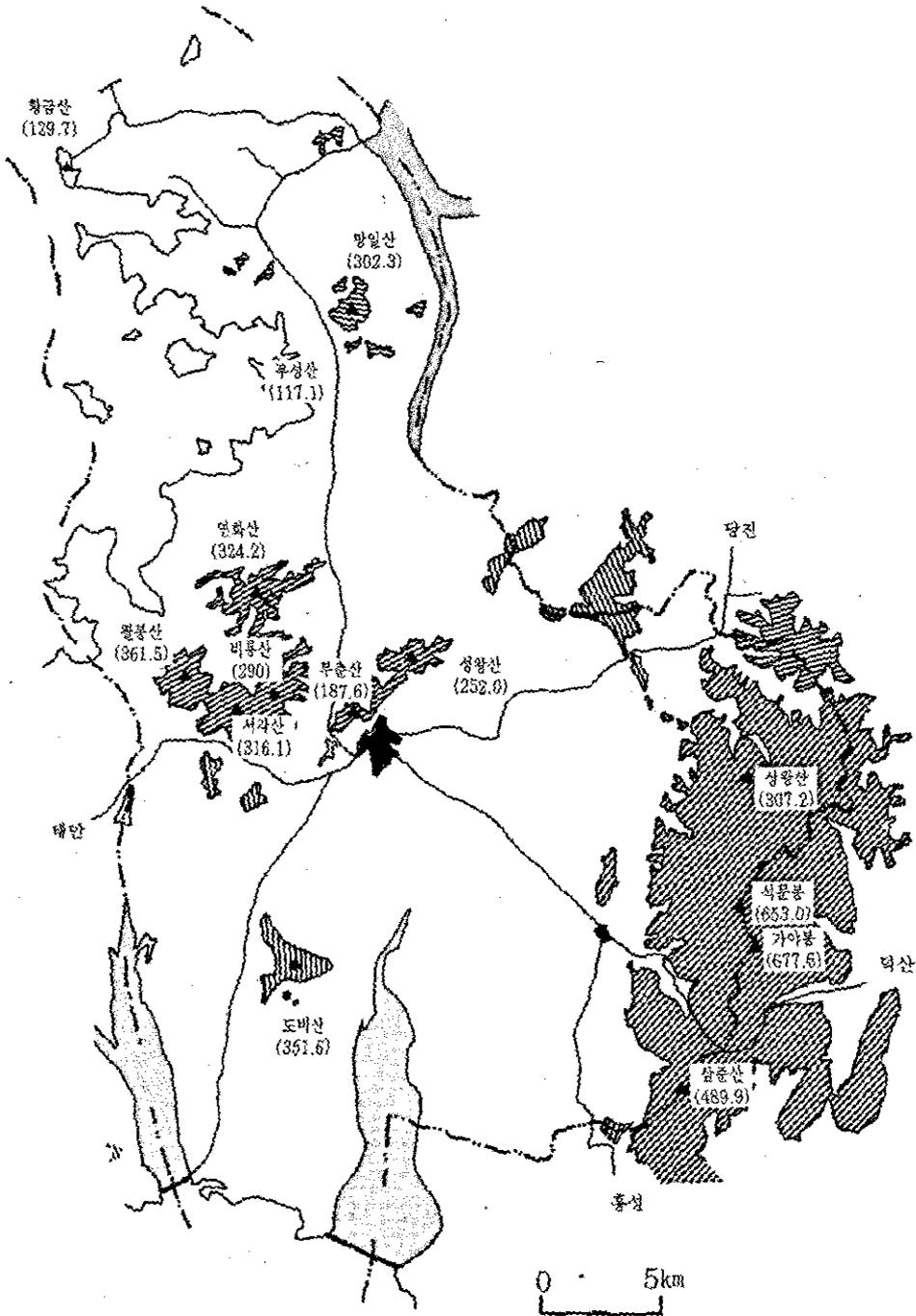
서산지역에는 큰 하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하천의 명칭도 주변의 지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명칭이 붙기도 한다. 또한 오래 가뭄이 계속되면 냇물이 거의 마르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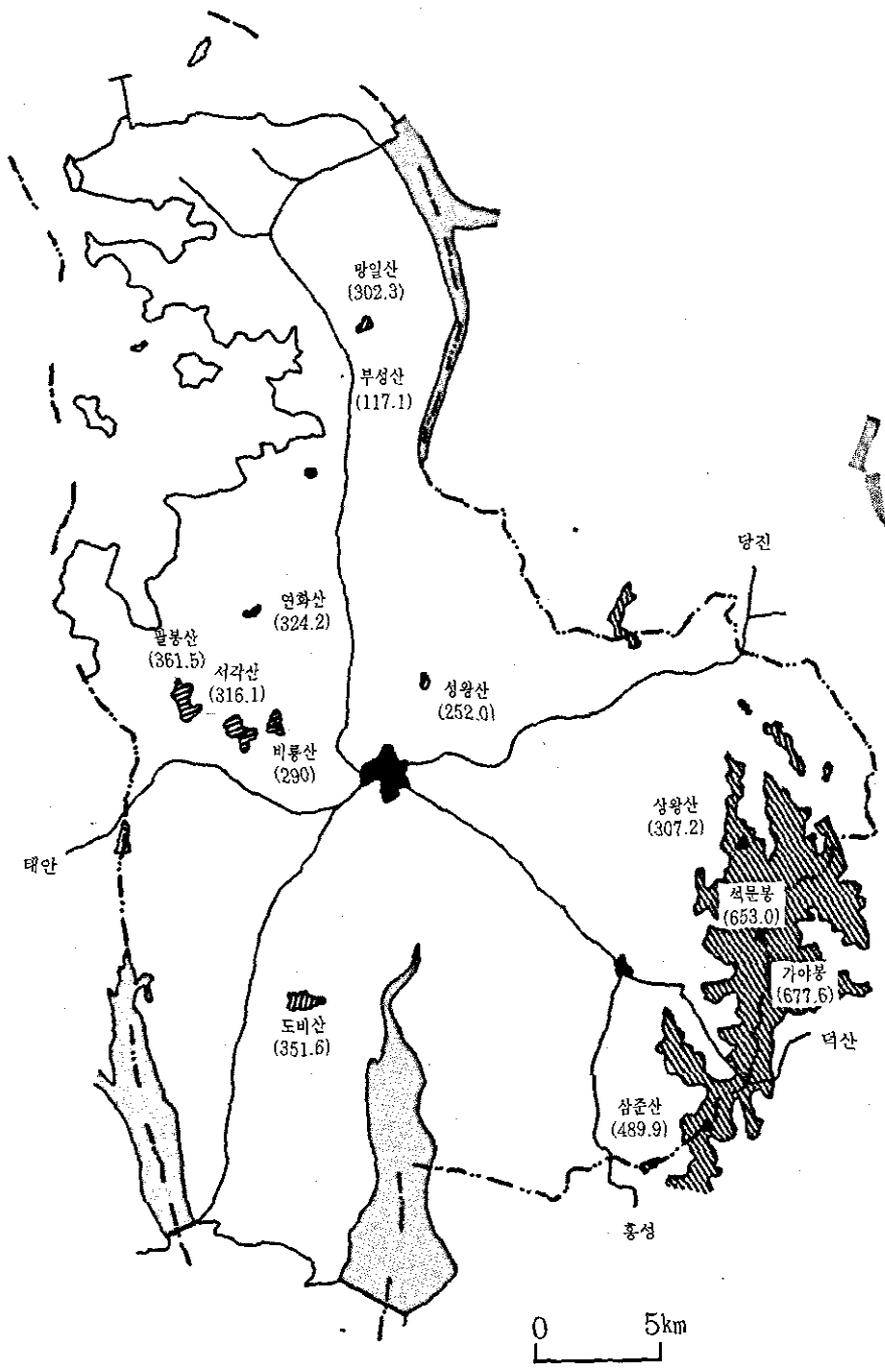
〈그림 3-1-6〉 서산의 하계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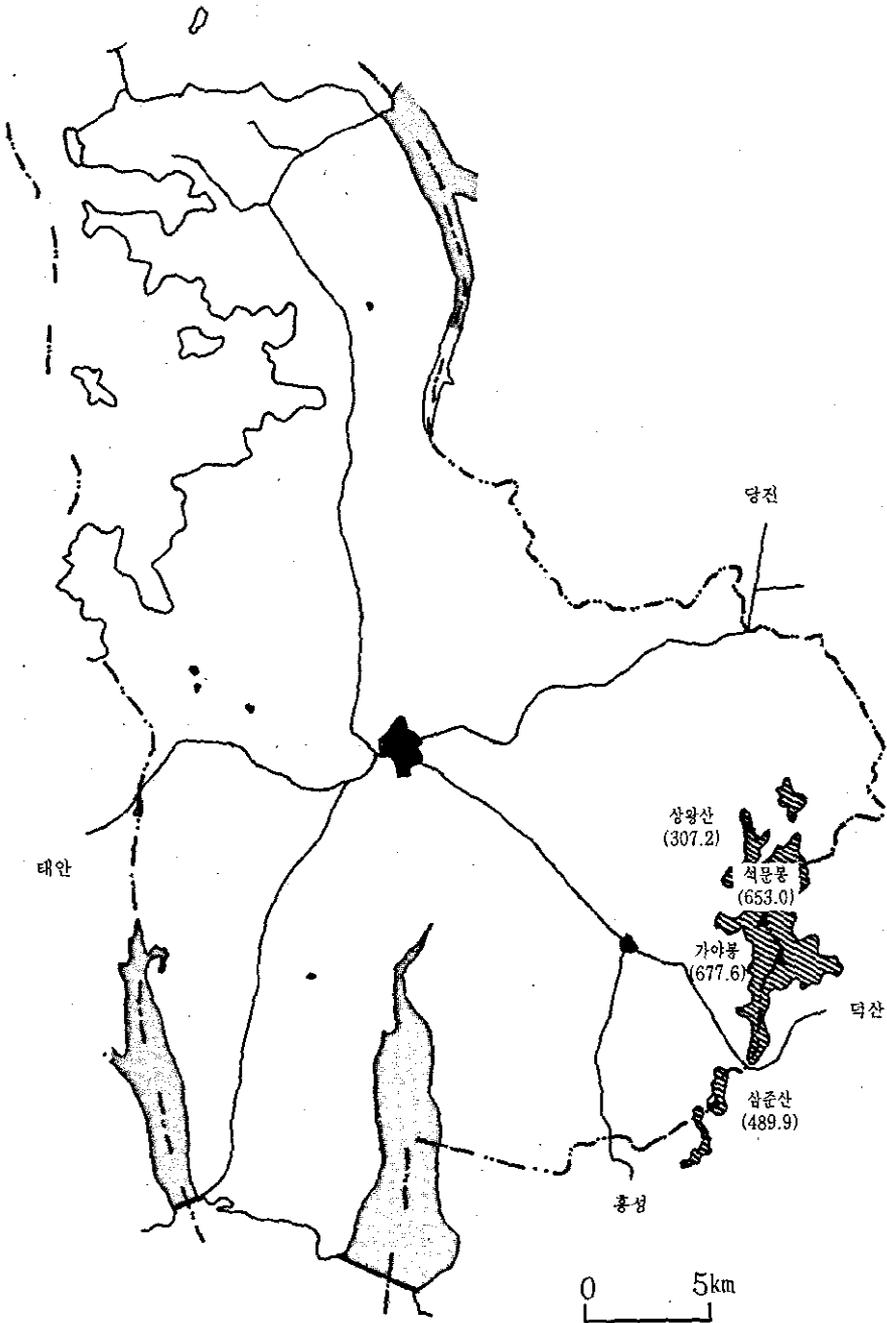
〈그림 3-1-2〉 서산의 산지(해발 50m이상)



〈그림 3-1-3〉 서산의 산지(해발 100m이상)



(그림 3-1-4) 서산의 산지(해발 200m이상)



〈그림 3-1-5〉 서산의 산지(해발 300m이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산지가 없고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인 서산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하천이 발달할 수 없다. 이는 서산지역의 하계밀도도(河系密度圖)를 그려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역의 하계밀도는 해발고도가 높은 가야산지의 서쪽사면을 제외하고는 $2.5\text{km}/\text{km}^2$ 이하의 지역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산지역에서 지표수(地表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계밀도가 낮다는 것은 또한 충적지(沖積地)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실 서산지역에서는 소규모의 개석곡지(開析谷地)를 제외하고는 하천충적지의 발달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극히 미약하다. 천수만지역이나 적들만지역, 그리고 대호지구에 넓은 들판이 형성돼 있는 것은 하천에 의한 충적작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후빙기 이후 해수면의 상승에 의한 충적활동과 최근 이들 지역에 방조제의 건설과 함께 매립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릉지가 대부분이고, 하계밀도가 낮은 서산지방에서는 과거 논(畓) 보다는 밭(田)으로의 개척이 위주였을 것이고, 또한 취락의 형성·발달에 있어서도 집촌(集村) 보다는 산촌(散村)으로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은 이러한 자연적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배경 때문에 서산지방에서는 수리시설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서산지방에서는 보(淤), 천방(川防), 저수지의 건설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야산맥 서쪽, 산지와 평지가 연결하는 경사변환점에는 산곡을 흘러 내려오는 계류에 댐을 막아 축조한 저수지들이 산록을 따라 거의 일직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서산군지」, 「호산록」 등의 자료와 국립지리원 발행 각종 지형도를 참고하여 서산시 지역의 하천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미천(海美川)

해미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가야봉, 연암산으로 둘러싸인 대곡리(大谷里) 골짜기인데, 그 아래에 산수저수지(山水貯水池)가 축조되어 있다. 여기서 해미천은 서쪽으로 흘러 해미면내 앞을 지나는데, 해미면내의 바로 동쪽에서 석문봉 아래 황락리의 황락저수지(皇洛貯水池)에서 내려오는 물은 합쳐져서 전천리·귀밀리를 지나 천수만에 유입한다.

해미천은 또한 귀밀리 이하의 하류지역에서는 음암면에서 내려오는 대교천·덕지천의 물과 서산시의 동쪽을 내려오는 청지천의 물을 합수해서 천수만에 들어간다. 이들 하천이 만나는 천수만 입구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다.

해미천은 과거에는 궁현보천(宮峴湫川) 또는 읍천(邑川)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1926년 「서산군지」에 보면, 궁현보천(宮峴湫川)의 근원은 해미면 대곡리인데, 서쪽으로 흘러내려 휴암리의 용왕보(龍王湫)를 이루고, 다시 응평리의 궁현보(宮峴湫) 물이 되어 귀밀리의 구서포(狗嶼浦)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읍천(邑川)에 대해서는 「해미구지」를 인용해서, 가야산에서 시작하여 본현(本縣) 양림포구(良林浦口)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② 대교천(大橋川)

음암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여러 갈래인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진군 정미면과의 접경을 이루는 은봉산(銀峰山)·간대산(良臺山)에서 발원한 물이 탑곡리·도당리를 흘러내리고, 운산면 동암산(銅岩山)에서 발원한 물은 가좌리를 흘러내리는데, 이들 물은 모두 성암저수지(星岩貯水池)에 집수되어 남쪽으로 흘러 성암리를 지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거성천(巨城川)인데, 거성천은 가야산 서쪽 용현리 서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흘러 원벌리·상성리·거성리를 지나면서 거성천을 이루어 성암리에서 성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수된다. 이 물이 대교천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데, 유계리 앞을 흐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홍천천(紅泉川, 일명 다리내)인데, 홍천천은 가야산 서쪽 사면 신창리 계곡(신창계)에서 발원한 물이 역시 서쪽으로 흘러 홍천리를 지나면서 홍천천을 이루어 유계리 윗쪽에서 대교천 본류에 합수한다. 따라서 대교천은 음암면의 거의 전역에 걸쳐 작은 지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류들은 모두 합쳐서 유계리 앞을 지나게 된다.

대교천은 특히 유계리(遊溪里) 앞에서 활처럼 굽으면서 깊은 수심(水深)을 이루는데, 이 굴곡부에 용유대(龍遊臺)와 단구대(丹丘臺)가 있다. 그리고 유계리 아래 현 해미~서산을 잇는 29번 도로에 걸쳐 있는 다리를 대교(大橋, 한다리)라고 한다. 대교 밑을 지난 대교천은 귀밀리에서 해미천과 합류하여 천수만에 들어간다.

유계리는 안주목사(安州牧使)를 지냈던 김연(金堧) 이후 경주 김씨(慶州金氏)들의 근거지가 되었는데, 이후 여기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 유계리 김씨들은 명문거족이 되었다.

이들 유계리 김씨들을 일명 '한다리(大橋)김씨'라고도 부른다. 용유대와 단구대는 이들 김씨들과 선비들의 낚시터와 유람(遊覽) 장소였다.

이렇듯 유계리 부근은 명문거족과 관련한 명소(名所)가 되었으므로 각종 문헌자료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호산록」, 「서산군지」 등의 자료에는 「용유천」(龍遊川), 「대교천」(大橋川)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같은 하천을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달리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유

대 앞을 흐르므로 「용유천」이라 하고, 대교(한다리) 밑을 흐르므로 「대교천」이라 부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용유천에 대해 「서산구지」에서는 군의 동쪽 25리에 있다 하고, 「여지승람」에서는 군의 동쪽 18리에 있다 하고, 「호산록」에서는 군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용유천」에 대해 「호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의 동쪽 15리에 있는데, 내의 아래에 병영(兵營) 해전(蟹箭, 깃발)이 있다. 본읍에는 병영 해전이 3곳 있는데, 전주(箭主)와 감고(監考)등이 본읍 백성들과 서로 끼리는 틈이 있어서, 병영의 세(勢)를 업고서 병사에게 거짓 보고해서 혹자는 간히어 곤장을 맞기도 하고 혹자는 몇 배로 징수당하기도 해서, 그 폐단이 끝이 없이 일어나서 비록 어전 밖의 간섭할 수 없는 곳에서 잡은 것이라도 모두 어전 안에서 잡은 것이라고 거짓 보고해서, 본읍 백성들이 전주와 감고 보기를 호랑이 보듯하고 해전 보기를 함정(陷筭) 보듯해서 바라만 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또 「대교천」에 대해 「호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의 동쪽 25리에 있는데, 다리 위나 다리 아래가 모두 백석청천(白石靑川)이며, 다리 역시 석교(石橋)이다. 다리 아래에 발을 드리우고 맑게 흘러가는 물을 굽어보면 눈같은 비늘을 가진 고기들이 무수히 떼지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냇물 가운데서 유영(游泳)하는 것을 보면 속세를 떠난 듯 하다.

③ 덕지천(德之川)

음암면에 있다. 일명 도당천이라고도 한다. 물의 근원이 음암면 면사무소가 있는 도당리 남쪽의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부장리·신장리를 거쳐 덕지천 동에서 해미천·대교천이 합수되어 내려오는 물과 합쳐 천수만에 들어가고 있다.

④ 청지천(靑之川)

서산시에 있다. 물의 근원이 음암면 울목리 대미산(臺薇山)인데, 여기서 서남쪽으로 흘러 잠홍저수지(潛紅貯水池)에 들어가고, 서산시 잠홍동·석림동·수석동·석남동·오남동·양대동을 지나 천수만에 유입한다.

청지천은 서산시의 동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지대에 넓은 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석림동과 수석동 사이의 들을 '수박밭'이라 하고, 석남동 남원(南院) 앞의 들을 '고방다리들'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남원 앞까지 바다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너

더리 벌'에 놓여 있는 「널다리」(板橋, 너더리교)를 건너고, 청지천의 「남한다리」나 그 아래의 「고방교」를 지나 남원으로 왕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청지천과 해미천이 만나는 훨씬 아래쪽 천수만에 까지 간척을 하여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양대동 앞의 들은 간척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척평야이다.

「호산록」의 역원·교량조에는 「남원」(南院)과 「판교」(板橋)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원(南院): 저지원(猪旨院)이 폐지된 후 원직이었던 남윤성(南允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운대(望雲臺) 아래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자칭 원주(院主)라 칭하고 원(院) 한칸을 지어서 왕래하는 행인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이(利)를 취하였기 때문에 「남원」(이곳 사람들은 「남한」이라 부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판교(板橋): 군 남쪽 7리에 있는데, 다리 북쪽에는 망운대(望雲臺)가 있고 다리의 서쪽에는 사우정(四友亭)이 있다. 충청일로(忠淸一路), 서산·태안에 왕래하는 자 모두가 다리를 건너 후에야 방향을 나누어 서북으로 가게 된다.

한편, 1926년 「서산군지」에서는 청지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산 동쪽에 있다. 근원이 음암면 울목리 대미산 서남에서 나와 상홍교(上紅橋)에 들어가 상홍리를 비스듬이 흘러 왕자제언(旺字堤堰)이 되고, 수석리 및 석남리를 지나 남원보(南院湫), 고방보(高方湫)가 되고, 주교포(舟橋浦)에 들어간다.

서산 사람들은 석남동 남원 앞의 들을 '너더리들'이라 하고, 여기에 놓여 있던 다리를 '널다리'라고 한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판교(板橋)가 된다. 또 이 부근을 '배다리'라고도 부른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주교(舟橋)가 된다. 따라서 「판교」·「주교」는 모두 청지천의 하류지역에 놓여 있던 다리를 말하고, 이곳의 하천을 「판교천」·「주교천」이라 부르는 것이다.

⑤ 야당리천(野堂里川)

인지면에 있다. 물의 근원이 두갈래 이다. 하나는 비룡산 아래의 갈산동이고, 다른 하나는 차리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갈산동 원출의 물은 풍전리 앞들을 남류하여 개양보(開仰湫), 송급보(松急湫), 전보(前湫)가 되는데, 지금은 풍전저수지(豐田貯水池)로 개발되었다. 차리 원출의 물은 화수리를 동류하여 석보(石湫), 순경이보(順景伊湫)가 되고, 둔당리 앞들에 이르러 갈산동 원출의 물과 합해서 둔산보(菴山

湫), 야당리 앞들에서 소보(小湫)를 이루고 공장동포(公長洞浦)에 유입한다.

야당리 앞들을 '구레들'이라 하고, 그 아래에는 5·16 군사혁명 이후 간석지를 간척하여 이룩한 서산자활정착지(瑞山自活定着地)가 있다.

이 야당리천은 「호산록」에 기록된 본길천(本吉川)이 아닌가 한다. 「호산록」에서는 본길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의 서쪽 15리에 있다. 은구어(銀口漁)가 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냇물이 험해서 종일토록 그물질을 해도 10여마리 정도를 잡을 뿐이다.

⑥ 남정천(南井川)

고북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용암리 산곡이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흘러내려 신상리에서 곡장보(曲長湫)를 이루고 다시 남정리에 와서 연장보(延長湫)와 금도보(金島湫)를 이루고 천수만에 유입한다.

⑦ 양재천(良才川)

고북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연암산 아래의 초록리 산곡인데, 서남쪽으로 흘러 남정교 아래에서 남정천에 합류한다.

⑧ 기포리천(機浦里川)

고북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연암산 아래의 가구리·초록리 산곡이다. 여기서 서쪽으로 흘러 기포리에서 가보(可湫)를 이루고, 남정천에 합류하여 천수만에 유입한다. 가구리 앞들을 '황등들'이라고 부른다.

⑨ 양천리천(楊川里川)

고북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연암산과 삼준산 사이의 산곡이다. 장요리와 신송리 사이에 고북제(高北堤)가 축조되어 있다. 홍성군 갈산면과의 경계에 있는 봉화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지류에는 신송지(新松池)가 있다.

고북제의 물은 남서쪽으로 흘러 양천리·봉생리를 지나 천수만에 유입한다.

⑩ 원평천(院坪川)

운산면에 있다. 가야산지 북동부 예산군 봉산면과 접경하는 해발 150m의 계곡

(원평리 계곡, 와우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원평(院坪)을 지나므로 원평천이라 한다. 원평천은 고평리에서 고평저수지(高豐貯水池)에 흘러드는데, 서산시 관내에서는 가장 깊은 골짜기를 흐르는 계곡수(溪谷水)를 이룬다. 운산에서 이 원평천 계곡을 따라 '실티재'를 넘어 예산군 덕산으로 가는 길은 최근에 포장되었다. 고평저수지 아래를 용장천(또는 역천)이라고 한다.

⑪ 용장천(龍障川, 또는 역천 驛川)

운산면에 있다. 원평천은 고평저수지로 흘러들기 직전 용현리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과 합류하여 고평저수지에 유입한다. 용현리 계곡에는 서산마애불이 있어 유명한 곳이다.

고풍저수지 아래 운산면 용장리를 지나는 하천을 용장천이라 한다. 용장천은 북동으로 흘러 당진의 채운포(彩雲浦)로 흘러드는데, 당진에서는 역천(驛川)이라고 한다.

⑫ 성연천(聖淵川)

성연면에 있다. 성연면은 서산의 뒷쪽에 위치 하는데, 성연면을 흐르는 성연천은 근원이 여러 갈래이다. 성왕산 - 부흥산 - 부춘산으로 연결되는 산지의 북쪽 산록을 흘러내리는 물과 비룡산 - 연화산으로 연결되는 산지의 동쪽 산록을 흘러내리는 물이 북으로 흘러 성연면의 중심지인 평리(坪里)를 지나 명천리(鳴川里) 앞에서 명천(鳴川)을 합해서 명천포구(서산만)에 유입한다. 과거에는 성연천과 명천천은 독자적으로 서산만에 유입하였으나 현재는 서산만 어구가 모두 간척되었다. 특히 대호방조제가 건설된 후로는 더욱 그러하다. 연화산 아래의 고남리에는 고남저수지(古南貯水池)가 있고, 그 아래의 들을 '오지들', 평리 앞의 들을 '마루들'이라고 한다.

「호산록」에는 성연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군의 북쪽 7리에 있는데, 북으로 흘러 명천포(鳴川浦)에 들어가서 바다에 달한다. 포구에는 큰 여울이 있는데, 바다 속의 수어(秀魚, 송어)가 조수물을 따라 여울로 올라와서 이 여울 속에서 크게 자라다가 사람들에게 무수히 잡히는데, 그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려는 자, 제사음식을 마련하려는 자들이 가장 이롭게 여기는데, 지금은 관(官)에서 사사roi 잡는 것을 금하고 여울직이(灘直)를 많이 정해 놓았다. 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후세에 산림이고 하천이고 연못이고 다 금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⑬ 명천(鳴川)

성연면에 있다. 물의 근원이 음암면 문양리에서 나와 서북으로 흘러 성연면 명천리를 지나 명천포 앞에서 성연천과 합류한다.

⑭ 화천천(花川川)

지곡면에 있다. 물의 근원이 연화산 동쪽 화방산(花芳山)계곡에서 나와 지곡면의 중심지인 화천리를 지나 북동으로 흘러 청룡보(靑龍湫)를 이루고, 대호지호(大湖芝湖)로 흘러든다.

⑮ 구진천(舊鎭川)

대산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망일산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흘러 대산읍의 중앙을 지나 가로림만(加露林灣)으로 흘러든다.

⑯ 양길천(陽吉川)

팔봉면에 있다. 물의 근원이 서각산(금강산)·비룡산 아래 금학리이다. 여기서 서북으로 흘러 양길리를 지나 가로림만의 방길포(防吉浦)로 들어간다.

⑰ 장검천(長劍川)

부석면에 있다. 물의 근원이 부석면의 천금산(天金山) 아래 황골이다. 여기서 서남으로 흘러내려 월계리와 갈마리를 지나 적돌만(積沔灣)으로 들어간다.

⑱ 흥인교천(興仁橋川)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이다. 물의 근원이 태안읍 오석산(烏石山) 동쪽 계곡에서 나와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계지대를 흐르는데 인평저수지(仁坪貯水池)에 흘러들고, 이어서 적돌만에 유입한다. 이 흥인교천은 고려·조선시대에 삼남의 세곡미(稅穀米)를 한양으로 운반하기 위해 가로림만과 적돌만을 연결하는 굴포운하(가적운하, 加積運河)의 개착을 시도했던 곳으로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4) 해안지형, 섬

서산의 지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해안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서산의 해안지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먼저 해안지형의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다음에 서산의 남쪽에서 천수만의 해안지형, 북쪽에서 대산반

도 독곶지역의 해안지형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서산의 동쪽에는 가야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고,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구릉성산지가 달리면서 그 중앙부에서 다시 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북으로는 대산반도, 남쪽으로는 부석반도를 이루어 놓고 있다. 서산의 북쪽에서는 가로림만과 서산만이, 남쪽에서는 천수만과 적돌만이 내륙 깊숙히 파고들어 있어 서산지방의 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해안선의 길이가 긴 이른바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서산지방은 특히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하며, 연안의 조차(潮差)가 크고, 외해의 파랑(波浪)을 직접 받으며, 해안으로 토사를 공급할만한 하천의 유입이 크지 못하다는 여러 자연적환경으로 인해서 지형학적으로 주목을 끄는 여러 해안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오랜 옛날부터 바다를 개척하여 왔고, 최근에는 만(灣)의 입구에 대형 방조제를 건설하고 해안을 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형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또한 특징이다.

해안(coast)이란 육지와 바다와 대기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좁고 긴 지대를 가리키며,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도 이에 포함된다. 해안지형이란 바로 이러한 해안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 지형을 말한다. 해안지형은 크게 해안침식지형(海岸侵蝕地形)과 해안퇴적지형(海岸堆積地形)으로 나눌 수 있다.

해안 침식지형은 해식애(海蝕崖, sea cliff)와 파식대(波蝕臺, shore platform)가 기본이다. 해식(海蝕) 또는 파식(波蝕, wave erosion)에 의한 각종 해안침식지형은 산지나 구릉지가 바다로 돌출하며 외해에서 밀려오는 큰 파랑을 잘 받아들이는 해안에서 주로 발달한다. 파식에 의하여 기반암이 노출된 해안은 암석해안(rocky coast)이라고 부르며, 암석해안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침식지형은 해식애와 파식대이다. 해식애는 바닷가의 절벽, 파식대는 해식애 밑에 나타나는 평평한 침식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두 지형은 서로 결부된 상황하에서 발달하기도 한다.

해식애(海蝕崖)는 파식에 의하여 발달·유지된다. 그러나 파식은 해식애의 기저부에서만 가해지며, 그 위의 부분은 내륙 지방에서와 같이 풍화작용과 매스무브먼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식만이 이것을 발달·유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식애가 후퇴할 때는 차별침식의 결과로 경암부(硬岩部)는 바다로 돌출하거나 해안선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에 작은 바위섬으로 떨어져 남게 된다. 육지에서 분리된 이러한 바위섬을 시스택(sea stack)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연암부(軟岩部)는 침식을 많이 받아 해식동(sea cave)이나 시아치(sea arch)를 이룰 수도 있다. 웅장한 해식애나 해식동은 부산의 태종대, 거제도의 해금강에서와 같이 주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해식애는 노년기의 구릉성지형이 탁월한 서해안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바다

로 돌출한 구릉의 말단부, 즉 헤드랜드에 발달되어 있는 해식애는 단단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체로 안정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주요 헤드랜드와 헤드랜드 사이의 만입에 면한 그 연변부나 다소 후미진 해안의 해식애는 기반암이 풍화작용을 심하게 받아 불안정하며, 폭풍시에 침식을 받아 활발히 후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축대를 쌓아 해안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수가 있다. 해수욕장으로 개발된 만리포와 천리포 사이의 해안에서 그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파식대(波蝕臺)는 주로 파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날 때는 풍화작용이 파식을 도우며 석회암 해안에서는 용식(溶蝕)이 가세되기도 한다. 파식대의 경사는 조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조차가 15m에 이르는 해안에서는 5° 내외의 파식대가, 대조차가 2.5m미만의 해안에서는 거의 수평적인 파식대가 형성된다. 또 화강암과 같이 등질적 암석에서는 표면이 매끈한 파식대가 형성되지만, 지층이 다소 기울어져 있어서 국부적으로 경연차(硬軟差)가 심하게 나타나는 퇴적암이나 변성퇴적암에서는 표면이 거칠어서 보행이 어려운 파식대가 형성된다.

파식대의 형성작용으로는 굴식(掘蝕, guarring)이 중요하다. 굴식은 파랑이 충격을 가하는 파식대 안쪽에서 활발히 일어나며, 마식(磨蝕)은 그 바깥쪽에서 파식대의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한다. 조차가 큰 해안에서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만나는 부분이 대체로 대조시의 고조위와 일치하며, 썰물 때는 전체 파식대가 완전히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파식대는 조차가 큰 해안, 외해에 노출된 해안, 구릉성 해안에서 넓게 발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해안은 조차가 크고 구릉지가 해안을 따라 널리 분포한다. 태안반도나 변산반도와 같이 외해에 노출된 해안은 파식대의 발달이 매우 탁월하여 너비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예도 있다.

파식대는 해식애가 후퇴됨으로서 넓혀진다. 그리고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파식

〈사진〉 해식애 · 파식대 ·

시스텍(sea stack)

해식애 · 파식대 · 시스텍은 해안침식지형의 전형이다. 가로림만에서는 이들 지형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산읍 오지리)



이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가해지지 않으며, 후빙기의 해면이 현재의 높이에 가까워진 이후의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그리하여, 이와같이 넓은 파식대는 최후간빙기의 고해면하에서 이미 그 윤곽이 형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지반운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해안에서는 최후간빙기의 해면이 현재의 그것보다 다소 높았을 뿐 대략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것 같다.

해안퇴적지형은 비치(海濱, beach), 해안사구(海岸砂丘, coastal dune), 사취(砂嘴, spit), 해안사주(海岸砂洲, offshore island 또는 barrier island), 간석지(干潟地, 갯벌, tidal mud-flat) 등이 대표적 지형이다. 파랑, 연안류, 조류 등은 해안에서 토사를 침식·운반·퇴적하면서 각종 퇴적지형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파랑의 에너지 수준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낮은 곳에서는 퇴적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토사가 쌓이려면 토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파식대나 해식애가 깎일 때 생산되는 토사는 에너지 수준이 낮은 주변의 만입으로 운반·퇴적될 수 있다. 한편 해안으로는 하천에 의해서도 다량의 토사가 흘러든다. 퇴적물의 유입이 많은 해안에는 파랑의 에너지 수준과는 관계없이도 해안퇴적지형이 형성된다.

파랑(波浪)은 일반적으로 모래와 같은 조립퇴적물을 해안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사빈을 형성한다. 한편 조류(潮流)는 점토와 같은 미립퇴적물을 멀리 운반하면서 파랑이 거칠게 일지 않는 후미진 해안에 쌓아 갯펄을 형성한다. 해안지방에서는 바람도 중요한 지형형성의 기구로서 작용한다. 바람은 모래를 운반·퇴적하면서 해안사구를 형성한다.

서해안은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조차가 커서 사빈의 발달이 빈약하다. 다만 태안반도·안면도·변산반도처럼 바다로 돌출해 있어서 외해로부터 큰 파랑이 직접 와 닿는 해안과 일부섬에 비교적 깨끗한 사빈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 사빈은 대개 변산해수욕장이나 만리포해수욕장처럼 만입의 안쪽에 초승달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사빈은 주로 연안의 침식물질이나 바다에서 밀려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래가 부족하여 침식을 받아 후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만리포·몽산포·대천·무창포·변산 등의 해수욕장에는 콘크리트 구조물(sea wall)을 설치하여 사빈의 후퇴를 막는 한편 해수욕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사빈(砂濱)의 뒤에는 해안사구(海岸砂丘)가 나타난다. 해안사구는 식생이 정착한 모래언덕으로 사빈에서 모래가 바람에 불려와 쌓여 형성된 지형이다.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은 대개 사구위에 세워져 있다. 사구는 대부분 해송 또는 흑송으로 덮혀있다. 사구의 송림은 방풍림으로 조성된 것이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사빈과는 달리 해안사구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태안반도·안면도·임자도 등 서해안의 곳곳에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대산반도의 독곶에도 해안사구가 발달하여 있었으나 현재는 삼성·현대석유화학단지



〈사진〉 독곶의 사구

서해안의 사구는 주로 북서계절풍에 의해 형성된다. 사구위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대산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전 독곶에는 해발 50m 내외의 거대한 사구가 형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어서면서 그 모습이 없어졌다.

간석지(干潟地) 또는 갯펄은 만조시에 수면 밑에 잠기고 간조시에 수면위로 드러나는 해안퇴적 지형이다. 사빈과는 달리 표면이 극히 평평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파랑이 부서지지 않으며, 따라서 빨이 쌓일 수 있다. 물은 대개 갯골을 따라 들어와서 간석지의 표면을 조용히 덮어 간다. 간석지의 퇴적물질은 점토·실트·모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면이 잔잔한 만의 갯펄은 점토, 즉 빨로만 이루어졌다.

갯펄은 퇴적물질이 쌓임에 따라 위로 성장하는 한편 바다쪽으로 넓혀진다. 그리



〈사진〉 간석지

서산지방의 해안지역을 따라 가장 널리 나타나는 해안지형은 간석지(干潟地)이다. 간석지(갯펄)은 만조시에 수면 밑에 잠기고 간조시에 수면위로 드러나는 해안퇴적지형이다. 간석지는 예로부터 농경지, 염전, 양식장으로 이용되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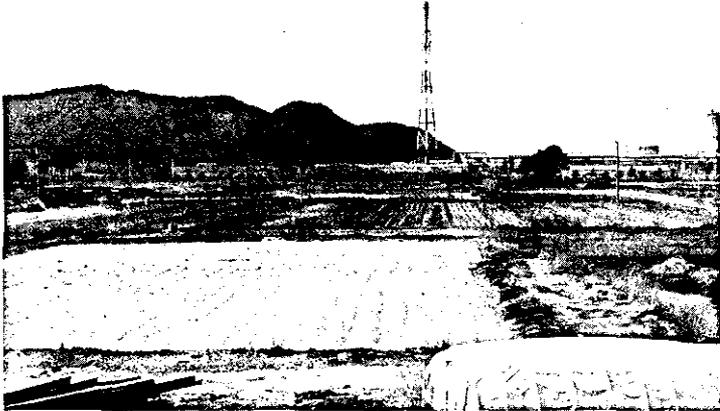
〈사진〉 염생습지

갯벌은 퇴적물질이 쌓임에 따라 위로 성장하는 한편 바다쪽으로 넓어진다. 대조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지면이 높아지면 '나문재'와 같은 염생식물이 정착하여 염생습지로 변한다. 이러한 땅은 예로부터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이용해 왔다.



고 대조시에만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지면이 높아지면 '나문재'와 같은 염생식물이 정착하여 염생습지(鹽生濕地)로 변한다. 이러한 땅은 예로부터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이용해 왔다. 전통적인 방조제는 개흙을 파올려 만들었다. 방조제를 쌓으면 뺨이 그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쌓여 간척하기 알맞은 염생습지가 또 발달한다. 이러한 땅이 생기고 방조제가 축조되면, 간척지는 확장되고, 구방조제는 농경지 가운데에 유물로서 남게 된다.

조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염생습지가 넓게 분포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적인 토목기술로 대규모 간척지가 곳곳에 조성됨에 따라 염생습지는



〈사진〉 황금산 육계도

사취 또는 사주로 육지와 이어진 섬을 육계도라 한다. 대산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전 황금산의 남쪽과 독곶리 사이에는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육계사주가 발달하여 있었다. 황금산에는 자연학습장이 있다.



〈사진〉 오지리의 육계사주

오지리 '벗말'의 윗쪽으로 동서방향의 육계사주가 발달하여 있다. 뒤에 보이는 산은 황금산이다. '벗말'은 '벗'이 있는 마을, 즉 소금을 생산하는 마을이란 뜻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 중장비가 동원되는 오늘날의 대대적인 간척사업에서는 천수만이나 계화도에서와 같이 염생식물이 정착하지 않는 간척지도 방조제로 둘러막아 농경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간척지는 염전으로도 이용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의 염전은 폐전되었다. 초대형간척사업에서는 농경지 이외에 공장부지와 주거용지도 조성되고 있다.

사취(砂嘴, spit)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하여 모래가 해안을 따라 운반되다가 바다쪽으로 계속 내다 쌓여 형성되는 해안퇴적지형인데, 한쪽 끝이 모래의 공급원인 육지에 붙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사취가 길게 성장하여 해안의 만입을 완전히 가로막으면 만구사주(灣口砂洲, bay-mouth bar)가 되며, 그 뒤에는 석호(潟湖, lagoon)가 생긴다. 그리고 육지에서 뺄어나간 사취가 섬으로 이어지면 그것을 육계사주(陸繫砂洲, tombolo), 육지에 연결된 섬을 육계도(陸繫島, land-tide island)라고 부른다. 육계도는 태안반도와 안면도에도 많다. 그러나 사주가 짧고 사주 배후의 간척지가 농경지로 간척되어 육계도의 인상을 풍기지 않게 된 것이 보통이다. 안면도의 규사는 사취에서 채굴된다.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日出峰)은 전형적인 육계도이다. 대산반도의 독곶과 황금산 사이는 육계사주로 연결된 육계도이다.

① 천수만(淺水灣)의 해안지형

㉞ 간척지

서산지방의 해안지역을 따라 가장 널리 나타나는 해안퇴적지형은 간척지(干潟地)이다.

조차가 큰 해안에 널리 나타나는 간석지는 조류의 운반물질이 쌓여 이루어지는 해안퇴적 지형의 하나로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산지역에서 간석지의 분포는 <표 3-1-2> 와 같다. <표 3-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시 지역에서 간석지의 분포가 많은 곳은 부석면,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고북면의 지역이다. 천수만은 서산시와 홍성군에 접해 있는데, 위도상으로 북위 36° 25' ~ 36° 45', 동경 126° 17' ~ 126° 33'에 위치하고 있다.

천수만에서의 조차는 대조차가 6.2m, 소조차가 2.8m에 달한다. 천수만의 넓이는 대략 375km²이고, 이 중 약 절반이 간석지(干潟地)로 되어 있다.

<표 3-1-2> 서산시 지역의 간석지 분포

지역	면적	지역	면적
대산읍	3,645	인지면	176
지곡면	2,696	서산시	352
성연면	13	해미면	722
팔봉면	1,399	고북면	1,264
부석면	4,508	계	14,755

자료 : 건설부 간척자원용도 지정계획조사 1979

○ 조류와 그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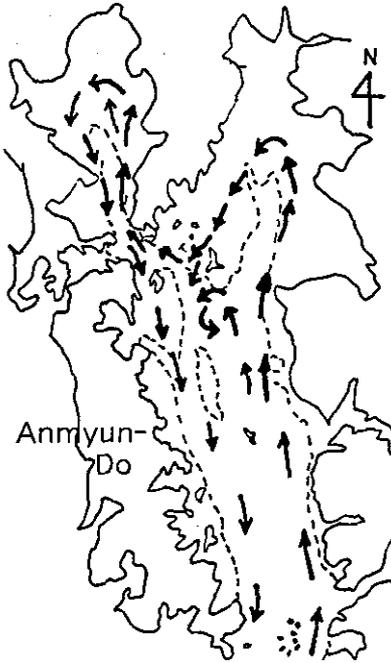
천수만에서의 조류와 그 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지만, 조류는 간석지 지형을 비롯한 기타의 해안지형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천수만은 만구(灣口)는 남향이고 북쪽을 향해서 만입되는 거의 남북방향의 만이다. 이 천수만은 여러 지형조사에 의하면 후빙기의 해수면상승에 의한 해진(海進)에 의해 침수되어 만(灣)으로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 계곡은 이미 해진이 있기 이전에 구조선에 따라 차별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해심도(海深圖)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만내(灣內)는 만구보다 더 수심이 깊으며, 만구에서 만내로 향해가면서 V字谷이나 U字谷의 형태가 아니라 조수하천의 하류 하천횡단면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소위 W자형의 만저(灣底)로 되어 있다.

죽도(竹島)와 홍성군의 해안 사이의 해저는 소위 밀물길(flow channel)이고, 죽도와 안면도 사이의 해저는 소의 썰물길(ebb channel)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channel이 있음은 그 주변의 해안지형과 tidal channel의 형태 그리고 sand wave의 형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그림 3-1-8).

죽도와 홍성군의 해안선 사이의 밀물길을 따라 북상하는 밀물은 홍성군의 해안

〈그림 3-1-8〉 천수만의 조류



선에 의하여 많은 해안퇴적지형과 침식지형, 예를 들면, 육계사주(tombolo), 사취(spit), 분기사취(recurved spit), 석호(lagoon), 연안사주(offshore bar), 단애(cliff)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퇴적지형을 만드는 퇴적물은 해저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 해안의 침식에 의해서 생성된 침식생성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천수만 지역에서 동향해안선(東向海岸線)과 서향해안선(西向海岸線)의 지형단면을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홍성군의 해안선은 공격사면으로서 조립(粗粒)의 퇴적물이 덮혀 있거나 아니면 cliff가 형성된 곳이 많다.

상술한 지역을 따라 복잡한 조류는 서산시 입구의 간석지 근처에서 크게 방향을 바꾸어 부석면 동쪽 연안의 썰물길을 따라서 남향하

여 안면도와 죽도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서해로 유출된다. 이렇게 유출되는 썰물은 조류방향의 변경이후 상당한 시간 적돌만으로 유입하는 밀물에 의해서 제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밀물과 썰물의 혼합으로 간월도(看月島) 주위에서 난류현상(亂流現象)이 강하게 일어나며, 이 현상이 간월도 주위의 간석지 퇴적물이 고결(固結)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곳의 난류(亂流)는 간월도 남방에 완만하고 넓은 와지(窪地)를 형성하며, 이 현상이 천수만에서 입구쪽 보다 안쪽이 일반적으로 더 깊은 수심을 갖도록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적돌만(積沓灣) 내에서의 조수의 순환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즉, 유입한 밀물은 처음 coriolis력에 의해서 부석면 해안선 쪽으로 기울어지며, 유출하는 썰물은 남면(南面)의 해안선을 따라 남류한다. 적돌만과 천수만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썰물은 일단 황도(黃島) 근처에서 합류하면서 남류한다. 이때 이러한 밀물의 영향으로 유수의 shadow area(혹은 lee side)에 해당하는 황도 남쪽에 큰 간석지를 형성해 놓았다. 황도와 죽도 사이에 형성되는 silt와 clay로 주로 구성된 muddy tidal falt는 천수만의 횡단면을 그려볼 때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편재하고 있는데, 이는 밀물의 침식력이 썰물의 그것보다 이 근처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간석지의 퇴적물

천수만 간석지 퇴적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silt와 clay의 백분율을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3-1-9>이다. 이 그림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퇴적물 중에 silt와 clay의 백분율이 약 30~80%를 차지하는 간석지가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ilt와 clay가 30%이하 되는 곳, 즉 sand가 많은 곳은 가장 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립질의 퇴적물은 beach 전면(前面)에 분포하고 있어서 육성퇴적물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sand는 이 뿐만 아니라 간월도나 황도의 주위에서와 같이 조류(潮流)의 유속이 강하거나 난류현상(亂流現象)이 강력히 발생하여 silt나 clay가 퇴적하지 못하고 입자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sand만이 퇴적되는 곳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silt와 clay의 함량이 80% 이상이 되는 퇴적물(점토질 간석지)은 천수만내의 동안(東岸)에 치우쳐 있든지 아니면 만의 중간지점에 도상(島狀)으로 퇴적되어 있다. 만외의 해저에서 공급되는 silt나 clay가 이곳에 덮혀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 간석지의 지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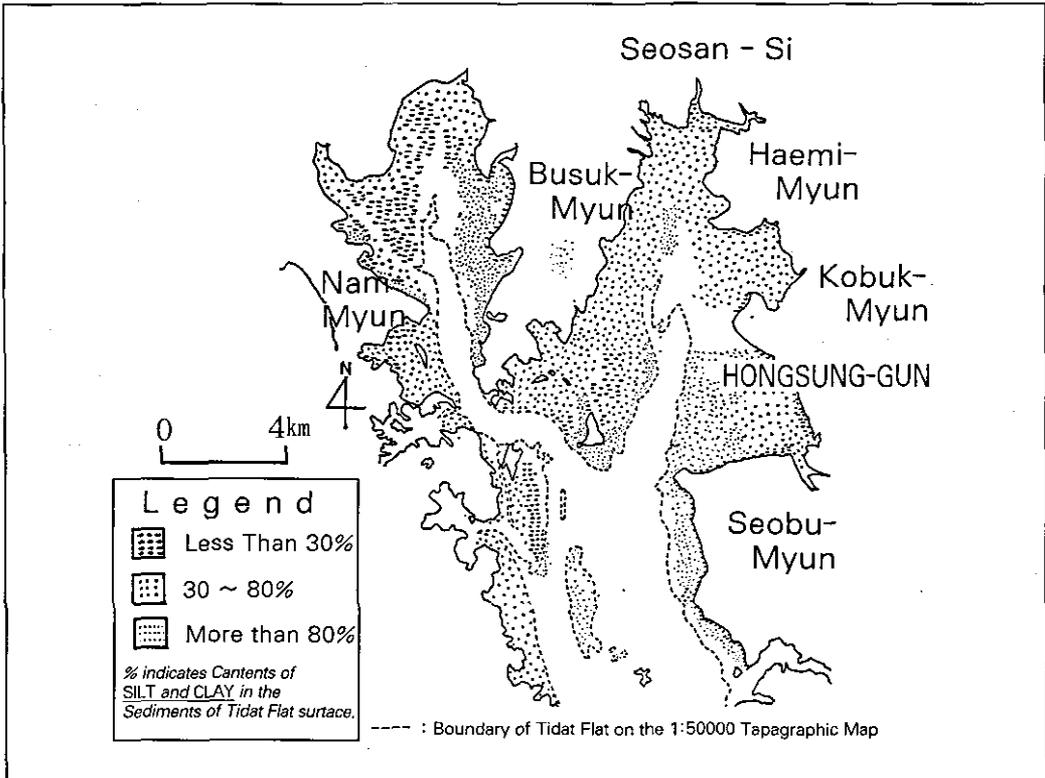
간석지에는 생물이나 파랑 혹은 조류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미지형(微地形)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갯골(tidal channel 혹은 tidal creek)이다. 갯골은 크게 구하천의 유로에 따라 형성되는 것과 간석지 표면에서 순수하게 2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천수만 지역에서 구하천의 유로에 따라 발달된 갯골은 육지의 하천과 연결된 수개에 불과 하고 대부분의 갯골은 간석지 표면에 2차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갯골은 주로 silt나 clay의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점토질 간석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퇴적물의 입자가 크면 클수록 갯골의 밀도는 증가한다.

○ 간석지의 구분

간석지는 여러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퇴적물의 입경(粒徑)과 퇴적물의 기원(起源)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간석지는 silt와 clay가 가장 중요한 퇴적물 구성입경이므로, 이들의 함량에 의해서 구분할 때, 천수만지역에서는 <그림 3-1-9>에서 보듯이 silt와 clay의 함량이 전퇴적물의 30% 이하를 차지할 때는 이를 사질간석지(砂質干潟地), 80% 이상을 차지할 때는 점토질간석지(粘土質干潟地), 그 중간인 30~80% 내의일 때는 이를 혼성간석지(混成干潟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질간석지는 beach의 前面이나 난류(亂流) 혹은 조류(潮流)의 작용이 강한 곳에 발달하며, 점토질간석지는 해저로부터 퇴적물 공급을 쉽게 받을수 있는 곳에 잘 발달된다. 그런데 천수만지역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간석지는 혼성간석지이다. 그 넓이는 천수만 총 간



〈그림 3-1-9〉 천수만의 간석지 퇴적물

석지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간석지를 구성하는 퇴적물의 기원에 의한 구분에서는 육성간석지, 해성간석지, 혼성간석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기타 해안지형

○ 해안사구와 beach

천수만지역에서 간석지 다음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은 해안사구(coastal sand dune)와 비치(beach)이다.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수만지역에서도 서쪽으로 향한 해안에서만 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 해안사구는 전면에서 beach와 연속되어 있어서 실제 야외관찰에서 조차 그 정확한 경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beach는 근본적으로 취송류(吹送流)나 wave에 의해서 형성되고,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만드는 지형이므로 이 두 지형은 사실상 구별되는 것이다.

천수만지역의 해안사구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평행사구이며, 해안에서 먼 곳일수록 식생으로 잘 피복되어 있다. 이러한 평행사구 사이의 swale은 큰 홍수 때는 침수될 수 있는 늪지인데, 천수만지역이나 기타 우리나라 서해안의 여러 해안지역에서는 이 swale에 취락이 선상(線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취락의 형태를 통해 swale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안사구는 제4기의 최후빙기인 würm빙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하강하였을 때에 그 당시의 해저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운반·퇴적되어 생겼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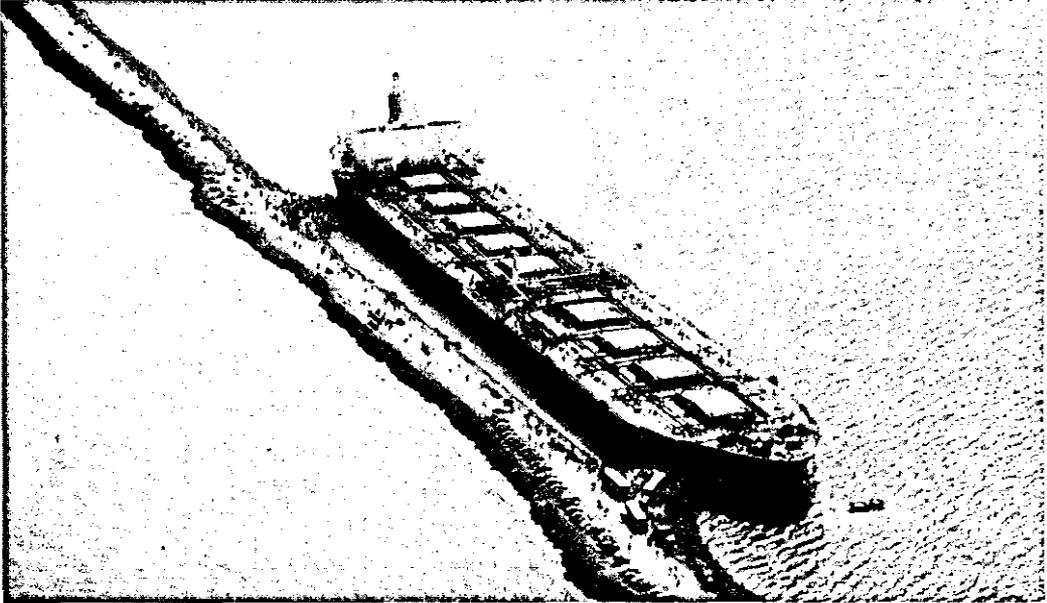
반면, beach는 해수면이 현 수준에 달한 이후에 취송류와 wave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beach전면의 간석지 보다는 훨씬 더 조립질의 퇴적물(medium sand, coarse sand)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경사도 간석지 보다는 훨씬 더 급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beach가 천수만지역에 널리 분포하고는 있지만, beach 퇴적물로 보이는 조립질의 퇴적물 중에는 바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육지에서 풍화된 산물이 매스무브먼트에 의해서 운반되어와 해안선을 따라 퇴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cliff의 후퇴가 분명히 보이는 지역이나 암석해안에서 잘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beach 퇴적물과 육성퇴적물의 구분은 쉽지가 않다.

○ 사취(spit, recurved spit)

천수만지역에서 해안사구와 비치 다음으로 많이 관찰되는 해안지형은 사취이다. 사취는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천수만지역에서 가장 잘 발견되는 것은 recurved spit이다. 이는 이 사취가 형성된 지점 근처의 취송류와 조류 그리고 wave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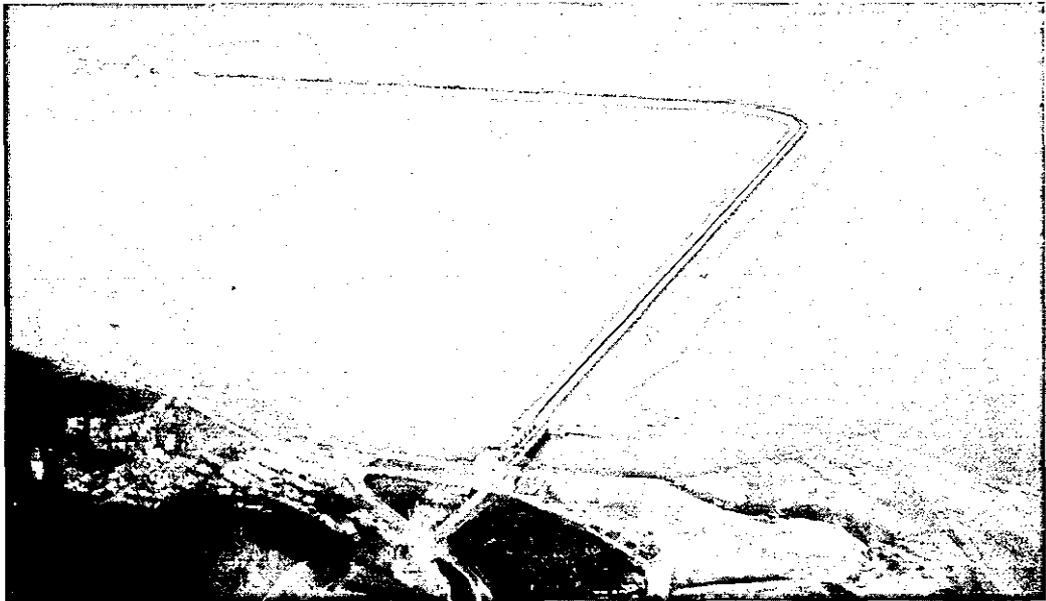
천수만지역에서는 대체로 홍성군 쪽의 해안에 발달된 사취는 만내(灣內)로 그 끝이 향하고 있어 밀물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남면과 안면도 해안에서는 그 끝이 만외(灣外)로 향하고 있어서 썰물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홍성군 서부면의 곳에 발달하고 있는 사취는 길이 약 2 km 이상이나 되는데, 간석지의 외연부를 따라 발달하고 있어 간석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장대한 사취는 이 근처의 조류가 아주 강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취를 형성할 수 있는 퇴적물이 해안의 단애에서 침식에 의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기타의 해안지형으로는 tombolo와 비슷한 형태의 퇴적지형이 부석면 남안의 간월도와 간월도 북쪽의 작은 섬을 연결하는 긴 퇴적지에서 발견된다. 이 퇴적지의 퇴적물은 간월도의 해안침식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원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조립질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저사구(sand wave)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해저사구는 sand 이상의 조립질 퇴적물의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하고



〈사진〉 서산 A지구 방조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 스웨덴의 교철선을 사다가 막았다.



〈사진〉 대호지구 방조제

동양 최대의 대호방조제는 총매립면적 7,700ha, 그 중 4,000ha의 담수호와 3,700ha의 농경지로서 1988년에 완공되었다.

조류가 상당한 유속을 가지고 있어야 생성된다. 대체적으로 해저사구는 퇴적물의 입도·형태·비중, 조류의 속도, 수온 등 여러가지 현상의 복합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어떤 때는 유선(流線)에 대하여 수직으로, 또 어떤 때는 사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속이 강하고 조립질 퇴적물의 공급이 충분할 때는 유선에 대해서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지만, 유속이 아주 강하거나 퇴적물의 공급이 충분치 못할 때는 유선과 평행인 sand wave가 형성된다. 천수만지역에서는 홍성군 서부면의 간석지 외연부에 동서방향으로 발달된 sand wave가 보이고, 또 안면도와 남서쪽의 간석지 외연부에서도 이러한 sand wave가 관찰되지만 그 규모는 작은 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천수만지역의 해안지형은 천수만과 적돌만 입구에 건설한 대형 방조제가 건설되기 이전의 해안환경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해안환경이 많이 변해져 있으리라 판단된다. 천수만지역의 해안환경이 어떻게 변해져 있어 어떤 해안지형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논할 수가 없다. 이러한 변화는 서산의 북쪽 해안인 대호방조제 및 대산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서산 A지구방조제는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사이에 1984년 2월에 완공된 것으로, 그 길이는 6,476m, 저수지의 총저수량은 1억4,493만톤, 담수면적은 3,220ha이다. 이보다 앞서 1982년 10월에 완공된 서산 B지구방조제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와 안면읍 남면 덕암리 사이를 막은 것으로 그 길이는 1,228m, 저수지의 총저수량은 9,367만톤, 담수면적은 1,702ha이다. 대호방조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에서 도비도까지의 3,253m(1호방조제) 구간과 도비도에서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까지의 4,554m(2호방조제) 구간에 방조제를 1984년 11월에 완공한 것으로 1억 2,200만톤의 저수량을 갖는다. 이 저수지의 건설로 3,700ha의 농경지를 확장하고 2,860ha에 달하는 농지의 수리관개를 개선했으며 1,140ha에 달하는 농지를 경지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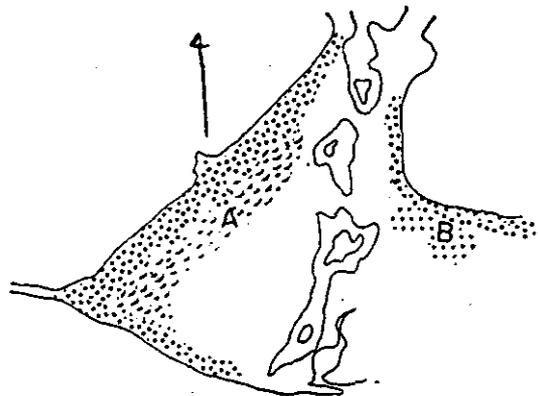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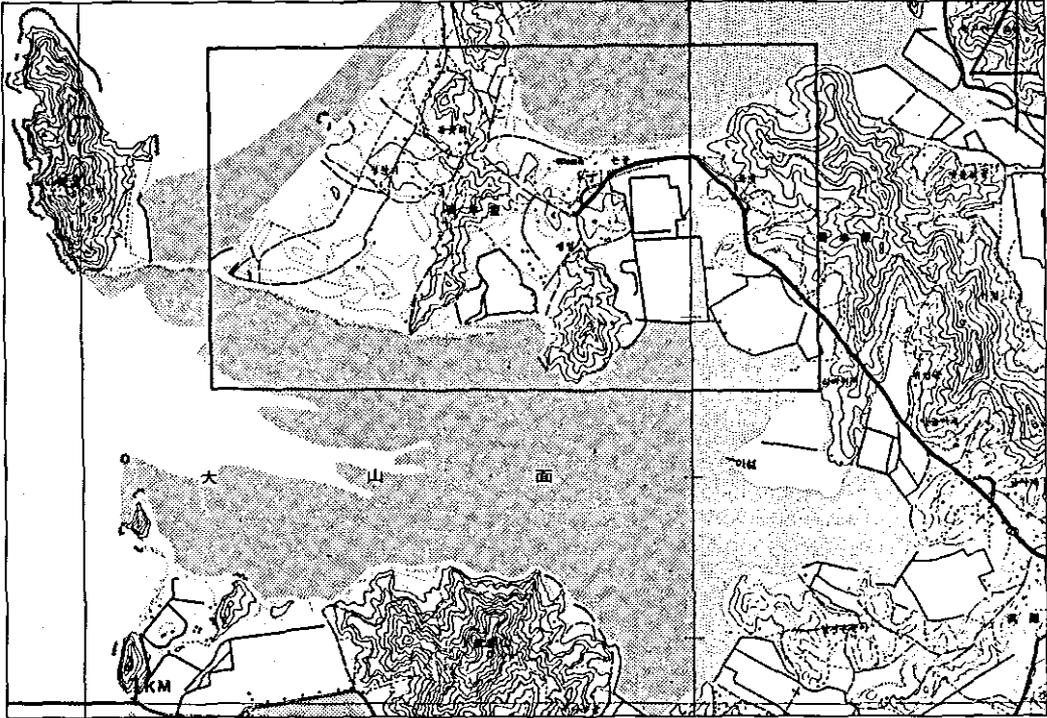
② 대산반도의 해안지형

대산읍 독곶리(獨串里)와 오지리(吾池里)의 해안에는 육계사주(tombolo)와 육계도(land-tied island)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곳은 외해에서 불어오는 북서계 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다(그림 3-1-10).

황금산(黃金山)의 남쪽과 독곶리 사이에는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육계사주가 발달하여 있다. 샘벌에 있는 서산제염전(瑞山製鹽田) 아래쪽에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뻗는 사취(spit)가 보인다. 독곶리와 목벚을 연결하는 도로도 규모가 큰 육계사주 위에 건설된 것이다. 그 남쪽의 염전은 구간석지를 간척한 곳이다.

오지리의 별말과 그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 사이에도 육계사주가 발달하여 있

〈그림 3-1-10〉 독곶파 오지리의 지형도



〈그림 3-1-11〉 독곶의 사구

다. 이들 육계사주의 방향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파랑으로부터 보호되는 쪽이다.

독곶리 서쪽의 정착지와 그 해안일대에는 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곳의 사구열(砂丘列, beach ridge)이 바다쪽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발달한 일종의 해안 평야로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독곶리 사구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에 속하는

편암으로 되어 있다.

독곶사구는 크게 A지역과 B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1-11). 이들 두 지역 사이에는 해발 50m 내외의 구릉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구릉상에는 1m 내외의 사구퇴적물이 덮혀 있는 곳이 많다. A지역은 황금산과 육계사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전방사구(前方砂丘)와 리지(ridg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구가 평탄화되어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B지역에는 사주위에 전방사구가 생성되어 있고, 이 전방사구는 인공림에 의해서 현재는 점차 고정화 되어가고 있다. 사주 뒤의 석호(潟湖)는 퇴적물로 매몰되어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대산반도 북서단의 독곶리 사구와 사주도 최근 해안을 매립하고 건설한 삼성화학 공업단지의 건설로 과거의 지형이 크게 변형되었다.

③ 서산시 지역의 섬

서산지방의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해안이라서 해안의 총 길이가 길고 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서산군과 태안군이 분리되기 이전 서산군의 해안선은 816.6km이었고, 201개의 섬이 있었는데 그중 유인도는 21개이었고 무인도가 180개였다. 그러나 서산 A·B지구방조제와 대호지구방조제가 건설되고 서산시·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어 나간 지금은 해안선의 길이도 줄어들고 섬의 수도 적어지게 되었다. 1996년 현재 서산시관내의 해안선은 98.1km이고 26개의 섬이 있다. 그중 4개가 유인도이고 나머지 22개는 무인도이다. 가장 큰 섬은 용도(熊島)로서 197명이 살고 있다.

도서현황은 <표 3-1-3>와 같다.

2. 기상과 기후

1) 기후 특성

태안반도는 충남의 북서부에 돌출해 있지만,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 분포에 있어서 대략 대전지방과 비슷하다. 따라서 해안지방에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난지성식물이 자라고, 농가 주변에서 대나무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상대습도, 일조시수, 증발량에 있어서는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높다. 서산지방에 염전의 발달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서산지방의 해안에 사빈과 사구의 발달이 많은 것은 북서풍과 관계가 깊다. 북서풍은 해안지방에 눈을 몰아오기도 한다. 해안지방의 여름철 탁월풍은 남서

〈 표 3-1-3 〉 서산시 관내의 도서현황

행정구역		도서명	구분	면적	인구			가구수
읍·면	리				남	여	계	
대산	응도	응도	유인	1.5800	95	102	197	54
	대로	매도	무인	0.0064	-	-	-	-
	"	위명애섬	무인	0.0042	-	-	-	-
	"	아래명애섬	무인	0.0019	-	-	-	-
	오지	숨도	무인	0.0018	-	-	-	-
	"	조도	무인	0.0153	-	-	-	-
	"	옥도	무인	0.0234	-	-	-	-
	대죽	혹어도	무인	0.1559	-	-	-	-
	"	항도	무인	0.0044	-	-	-	-
	부석 팔봉	창리	묘도	무인	0.0154	-	-	-
호리		장구도	무인	0.0009	-	-	-	-
"		할매도	무인	0.0018	-	-	-	-
"		쌍1도	무인	0.0064	-	-	-	-
"		쌍2도	무인	0.0037	-	-	-	-
지곡	고파도	고파도	유인	1.0430	55	50	105	38
	도성	우도	유인	0.0560	21	19	40	20
	"	저도	무인	0.1160	-	-	-	-
	"	분점도	유인	0.0200	11	16	27	12
	"	계도	무인	0.0110	-	-	-	-
	"	죽도	무인	0.0150	-	-	-	-
	"	속도	무인	0.0030	-	-	-	-
	"	소우도	무인	0.0270	-	-	-	-
	"	박도	무인	0.0010	-	-	-	-
	중왕	매도	무인	0.0030	-	-	-	-
	"	안도	무인	0.0360	-	-	-	-
	환성	도두리도	무인	0.0070	-	-	-	-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1996)

풍이다. 남서풍은 북서풍 보다 세력이 아주 약하다.

2) 기온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1.5℃로서 대전지방과 비슷하다. 이를 충남의 다른지방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연평균기온은 11.0~12.0℃로서 지역적인 기온차가 1℃정도 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서부지방이 높고 북동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등온선이 부여·논산·대전지역에서 북동 내륙쪽으로 구부러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차령산맥, 계룡산지, 금산고원으로 연결되는 내륙분지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바다쪽이 내륙쪽 보다 기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바다가 거대한 기온조절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름 기온인 8월 평균기온에 있어서는 서산지방이 24.5~25.0℃ 범위이다. 충남 전체로 볼 때에는 24.5~25.5℃ 범위로서 남북간의 기온차가 1℃ 정도이고 동서간의 기온 등치선이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여름 기온은 연평균기온이나 겨울평균기온에 비하여 남북간의 기온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겨울 기온인 1월 평균기온은 서산지방이 -1.5~-2.0℃ 범위이다. 이를 충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등치선들이 모두 북서-남동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바다에 면해 있으면 위도가 높아도 위도가 낮은 내륙지방보다 겨울에 기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서쪽의 서산지방과 남동내륙에 위치하는 대전·금산지방의 1월 평균기온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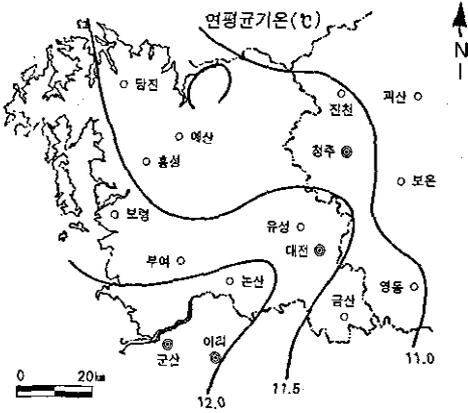
3) 강수량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방의 연평균강수량은 1,150mm 정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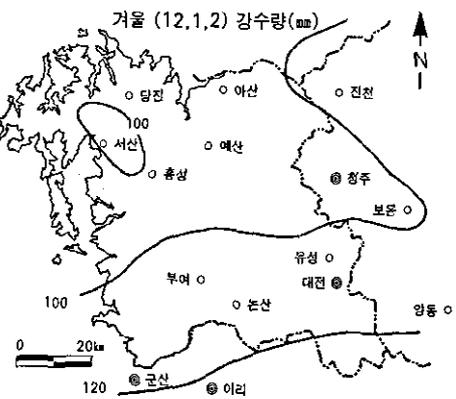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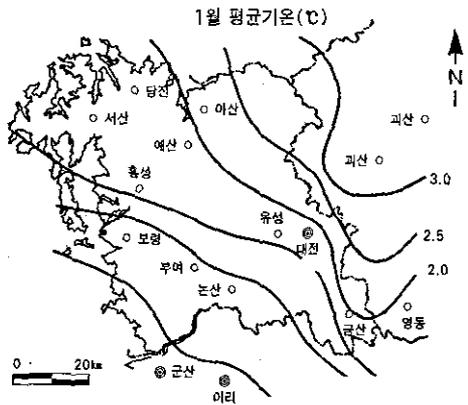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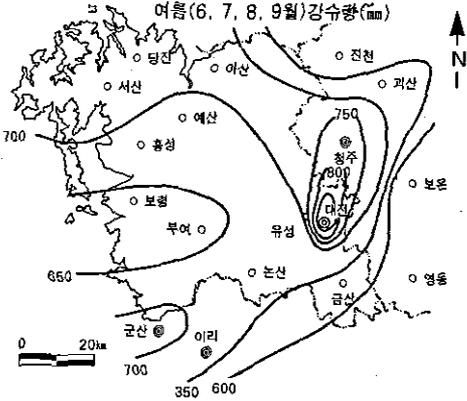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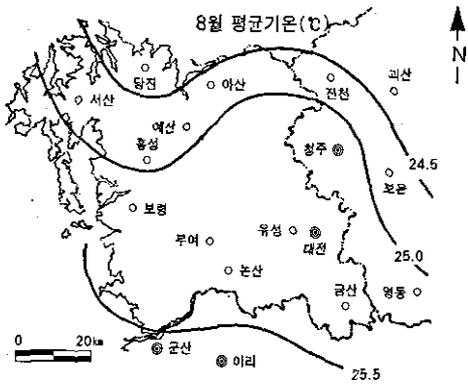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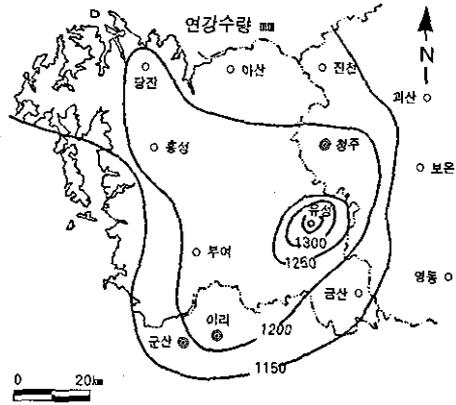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연평균강수량은 1,200mm 정도로서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과 비슷하며,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안선을 따라 바다에 면한 해안지역은 내륙지방 보다 약간 적은 양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이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지대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것을 이용하여 염전개발(천일제염)에 이용하고 있다. 유성의 연평균강수량이 1,300mm를 넘는 것이 주목되며, 이는 내륙의 국지적인 현상이다.

서산지방 여름철(6월~9월)의 강수량은 700mm 정도로서, 여름철에 연강수량의

〈그림 3-2-1〉 서산의 기온 분포



〈그림 3-2-2〉 연평균 강수량 분포도



약 20%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강수의 특색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보령·부여 등지의 충남 중서부 해안지역의 강수량이 적은 반면 차령산맥의 북쪽 태안반도로부터 남동부의 금산에 이르는 지역이 대상(帶狀)의 다우지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전·청주지역이 다우지를 이루는 것은 국지적인 현상이다.

서산지방 겨울철(12월~2월)의 강수량은 100mm 정도이다. 이러한 낮은 연강수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충남의 겨울철 강수량의 분포는 여름철에 비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적지만, 북서부의 태안반도로부터 남동부의 금산지역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이 차령산지의 지형성 강우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4) 바람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대륙에 고기압, 해양에 저기압이 발달함에 따라 서고동저의 기압배치가 되어 북서계절풍이 불고, 여름에는 반대로 대륙에 저기압, 해양에 고기압이 발달하므로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되어 남동 내지 남서계절풍이 많이 분다. 겨울계절풍은 한랭건조한 바람으로 추위와 건기를 가져오며, 여름계절풍은 고온다습하여 더위와 습기를 가져온다. 계절풍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부는 탁월풍이지만,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마다 각기 다른 지방풍이 분다. 지표면으로부터 1,000m 높이 이상의 바람은 지면마찰이 없어 일정하게 불지만, 지표면의 바람은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지방마다 각기 다른 지방풍이 불게 된다.

〈표 3-2-1〉 충청남도 주요지역의 월평균풍속(0.1m/s)

지역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瑞 山	23	26	27	29	25	22	24	22	19	19	22	23	23
洪 城	19	24	24	28	23	20	20	20	16	17	20	18	21
保 寧	20	23	24	29	23	21	24	24	18	19	23	21	22
唐 津	22	27	27	31	24	19	21	21	16	18	24	24	23
牙 山	17	22	22	24	20	17	18	16	14	16	18	16	18
扶 餘	15	18	15	20	18	15	17	15	13	14	15	14	16
大 田	15	18	22	25	23	20	19	18	15	13	13	13	18
錦 山	15	18	20	22	19	17	16	15	13	14	16	14	17
儒 城	12	15	17	21	19	17	16	15	12	11	13	11	15
論 山	11	14	15	18	17	15	15	13	11	10	11	10	13

충청 해안지방, 특히 태안반도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북서풍이 세차게 불며, 사빈과 해안사구의 발달도 북서풍과 관련이 깊다. 북서풍은 해안지방에 눈을 몰아오기도 한다. 해안지방의 여름철 탁월풍은 남서풍이다. 남서풍은 북서풍 보다 세력이 훨씬 약하다. 서산지방의 연중 평균풍속은 23m/s, 당진은 23m/s, 보령은 22m/s이다. 따라서 해안지방이 내륙지방 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겨울철 북서계절풍과 관련이 깊다.

충남에서 바람은 계절별로는 봄철에 가장 강하게 불지만, 여름에 열대성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하기도 한다. 충청남도 주요지역의 월평균 풍속은 <표 3-2-1>과 같다.

5) 계절의 추이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지역에 속하여 4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대체로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과 가을이 짧으며, 북부내륙 일수록 겨울이 길고, 남쪽 일수록 여름이 길다. 이런 계절의 특색은 의식주생활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온돌을 사용하고, 김장을 담그며, 솜옷이나 삼베옷을 입었던 것은 이런 계절에 적응한 생활양식이다. 또 가옥구조나 취락의 입지에도 계절의 특색이 반영되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동식물의 활동에서 먼저 알 수 있다. 봄철의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의 개화일과 제비가 처음 온 날, 매미가 처음 우는 때 등은 계절의 변화를 잘 알려준다.

이러한 계절의 추이는 서리, 눈, 얼음, 안개 등의 일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충청남도의 각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는 첫날과 마지막날, 얼음이 어는 첫날과 마지막날은 <표 3-2-2>과 같다.

<표 3-2-2> 충청남도 주요지역의 서리·얼음일수

구 분 지 역	서 리		얼 음	
	첫 날	마지막날	첫 날	마지막날
서 산	10. 6	4. 28	10. 22	4. 19
청 양	10. 1	4. 25	10. 25	4. 16
보 령	10. 27	4. 19	11. 2	4. 13
아 산	10. 22	4. 22	11. 1	4. 10
부 여	10. 20	4. 17	10. 31	4. 12
유 성	10. 9	4. 16	10. 26	4. 10

3. 토양과 식생

1) 토양

서산지방의 토양을 논토양, 밭토양, 과수 및 상전토양, 초지토양, 임지토양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급지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3-3-1> ~ <표 3-3-5> 와 같다.

<표 3-3-1> 논토양

구 분	1 급 지	2 급 지	3 급 지	4 급 지
토 성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단, 배수양호 및 매우 양호한 사질은 제외)
유효토심	> 100	100~50	50~20	20~10
석력함량(%)	0~10	0~10	10~35	> 35
염농도 (%)	-	< 0.3	0.3~0.5	0.5~1.0
유산질의 집적층(cm)	> 100	100~50	50~20	20~10
경 사 (%)	< 2	2~7	7~15	15~30
토양 배수	약 간 양 호 약 간 불 량 (단, 지면에서 50cm 이상이 회색화된 것에 한함)	약 간 양 호 약 간 불 량	양 호 약 간 양 호 약 간 불 량 불 량	양 호 약 간 양 호 약 간 불 량 불 량

1급지 : 토지생산력이 높고 집약적 경영이 토양관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양.

2급지 : 토양생산력이 보통이고 집약적 경영은 용이하나 토양관리에는 다소 제한을 받는 토양.

3급지 : 토지생산력이 낮고 토양관리 및 작물재배에 심한 제한을 받는 토양.

4급지 : 토지생산력이 매우 낮고 토양관리 및 작물재배에 매우 심한 제한을 받는 토양.

〈표 3-3-2〉 밭토양

구 분	1 급 지	2 급 지	3 급 지	4 급 지
토 성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유효토심	> 100	100~50	50~20	< 20
석력함량(%)	< 10	10~35	10~35	> 35
암반노출	없 음	없 음	돌이 있음	바위가 있음
경 사 (%)	< 2	< 7	7~15	15~30
침 식 정 도	없음~약간있음	있 음	있 음	심 합
토양배수	양 호	양 호 약간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표 3-3-3〉 과수 및 상전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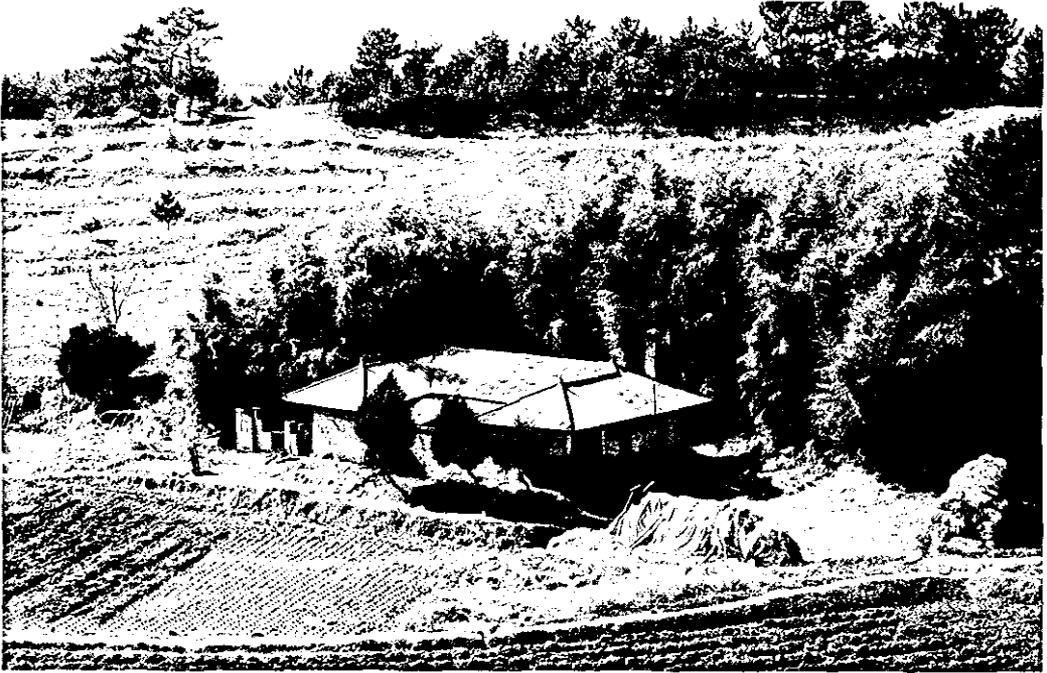
구 분	1 급 지	2 급 지	3 급 지	4 급 지
토 성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유효토심	> 100	100~50	50~20	< 20
석력함량(%)	< 10	10~35	10~35	> 35
암반노출	없 음	없 음	돌이 있음	바위가 있음
경 사 (%)	< 7	< 15	15~30	30~60
침 식 정 도	없음~약간있음	있 음	심 합	심 합
토양배수	양 호	양 호 약간양호	양 호 약간양호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표 3-3-4〉 초지토양

구 분	1 급 지	2 급 지	3 급 지	4 급 지
토 성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유효토심	> 100	100~50	50~20	20~10
석력함양(%)	< 15	10~35	> 35	> 35
암반노출	없 음	없 음	들이 있음	바위가 있음
경 사 (%)	< 15	< 30	30~60	60~100
침식정도	약간있음	있 음	심 함	심 함
토양배수	양 호	양 호 약간양호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매우양호

〈표 3-3-5〉 임지토양

구 분	1 급 지	2 급 지	3 급 지	4 급 지
토 성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마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유효토심	> 100	100~50	50~20	50~20
석력함양(%)	0~10	10~35	> 35	> 35
암반노출	없 음	들이 있음	바위가 있음	바위가 있음
경 사 (%)	< 15	< 30	< 60	1000
침식정도	약간있음	있 음	심 함	심 함
토양배수	양 호 약간양호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매우양호 양 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사진〉 대나무 숲

서산지방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 같은 위도의 다른 지방보다 기온이 높다. 농가 주변에서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식생

서산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유림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가야산지와 서산의 모든 구릉지 위에서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대표적인 식생군락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 해안지방에서는 흑송(해송)이 많다.

서산지방은 충남의 북서부에 돌출해 있지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은 위도의 지역에 비해 난지성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난지성식물이 자라고, 농가주변에서 대나무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4절 인구의 취락

1. 인구

- 1) 인구개황
- 2) 인구의 증감
- 3)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 4) 인구이동
- 5) 인구동태
- 6) 인구구성

2. 취락

- 1) 가옥
- 2) 촌락
- 3) 도시



(집필자 : 이문종 · 최원희)

제4절 인구의 추락

1. 인 구

1) 인구개황

1995년 현재 서산시의 총인구는 142,331명(남 71,778명, 여 70,553명)으로 총남인구의 7.7%를 점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증감율은 1.4%이고, 인구밀도는 192/km²이다. 세대수는 41,462세대로서 세대당 인구는 3.4인 이다.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는 <표 4-1-1>과 같다.

2) 인구의 증감

조선말엽에 이르기까지 매우 미미한 인구의 증가를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기 시작했고, 8·15해방과 6·25동란을 계기로 대규모적인 사회적증가, 휴전 후의 높은 자연적증가 단계를 거쳐 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계속 높은 인구증가 현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부터 이루어졌던 급격한 공업화는 다수의 농어촌인구가 도시지역 및 개발지구를 향하여 대량 이동하는 이른바 농어촌인구의 도시이동(Rural-Urban Migration)현상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리하여 도시지역의 인구과밀화와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밀화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76~1995년까지 서산의 인구증감의 추이를 보면 <표 4-1-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서산의 인구는 1976년 266,669명을 절정으로하여 그 이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1981년, 1982년, 1990년만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추이는 위에서 언급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농어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1989년 이후 서산의 절대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1989.1.1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종래의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때 서산은 서산시와 서산군으로 행정구역이 또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95.1.1에는 다

〈표 4-1-1〉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연 별 및 읍면동별	세 대 수	인 구 수			인구밀도 (명/km ²)	세 대 당 인 구
		남	여	계		
1991	35,779	76,461	69,091	145,552	367	4.0
1992	38,055	71,432	70,257	141,689	230	3.7
1993	39,048	71,133	69,653	140,786	221	3.6
1994	39,665	70,720	69,611	140,331	220	3.5
1995	41,462	71,778	70,533	142,331	192	3.4
대 산 읍	5,626	9,410	8,772	18,182	175	3.2
인 지 면	1,594	2,891	2,895	5,786	162	3.6
부 석 면	2,588	4,771	4,549	9,320	75	3.6
팔 봉 면	1,457	2,679	2,593	5,272	102	3.6
지 곡 면	1,585	2,883	2,816	5,699	98	3.5
성 연 면	1,148	2,090	2,027	4,117	94	3.6
음 압 면	2,434	4,343	4,164	8,507	193	3.5
운 산 면	2,235	3,971	3,859	7,830	94	3.4
해 미 면	2,793	4,782	4,722	9,504	139	3.4
고 북 면	2,266	3,992	3,911	7,903	110	3.5
부 춘 동	3,507	5,969	6,031	12,000	1,270	3.4
동 문 동	4,574	7,817	7,914	15,731	1,904	3.4
활 성 동	2,699	4,365	4,417	8,782	17,564	3.2
수 석 동	3,624	5,903	3,978	11,881	1,350	3.3
석 남 동	2,727	4,843	4,795	9,629	533	3.5
오 산 동	605	1,078	1,110	2,188	196	3.6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1996)

시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어 서산시로 되었다. 따라서 1989년 부터는 시·군이 통합된 통계이다.

여기서 서산시의 인구의 시기별·지역별 인구증감의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시기는 조선시대, 근대적 인구센서스조사 이후로 나누어 살펴되, 근대적 인구센서스조사 이후는 대략 10년 단위로 나누고, 지역별 인구증감의 추이는 읍·면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조선시대

15세기 전반기인 세종 때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서산군 489호 1,887

(표 4-1-2) 서산시의 인구증감(1976~1995)

연도별	인구수	연평균인구 증감율	연도별	인구수	연평균인구 증감율
1976	266,669	0.4	1986	231,407	△ 1.9
1977	265,575	△ 0.4	1987	231,089	△ 0.1
1978	262,683	△ 1.0	1988	227,572	△ 1.5
1979	257,097	△ 2.2	1989	140,305	...
1980	249,242	△ 2.2	1990	148,522	5.8
1981	251,049	0.7	1991	145,552	△ 2.0
1982	252,637	0.6	1992	141,689	△ 2.7
1983	246,891	△ 4.0	1993	140,786	△ 0.6
1984	242,494	△ 1.8	1994	140,331	△ 0.3
1985	235,756	△ 2.9	1995	142,331	1.4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1996)

'91년부터 상주인구 폐지, 주민등록에 있는 인구 통계임. '89년부터는 시·군 통합자료임)

명, 태안군 173호 547명, 해미현 258호 855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대략 오늘의 서산시지역에 속하는 서산군과 해미면 지역에는 747호 2,742명이 살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인 영조때의 「여지도서」에 의하면, 서산군 6,473호 18,289명, 태안군 4,422호 14,808명, 해미현 2,597호 9,063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대략 오늘의 서산시 지역에 속하는 서산군과 해미현 지역에는 970호 27,352명이 살고 있었다.

조선시대 인구통계 중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정조13년(1789)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서산군 6,822호 28,137명, 태안군 4,094호 14,620명, 해미현 2,763호 9,698명으로, 대략 오늘의 서산시지역에 속하는 서산군과 해미현 지역에는 9,585호 37,835명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오늘의 서산지역에는 1만호가 안되는 호수(戶數)와 4만명이 안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인구통계는 자료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으나, 인구의 경향만은 짐작할 수 있고, 대단히 미미한 인구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적 센서스조사 이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제1회 간이 센서스조사였다. 그 후 일제에 의해 해방전까지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모두 5차례에 걸쳐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5.1에 실시한 총인구조사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속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그 후 1955.9.1 국제적 방법에 따라서 간이 센서스가 실시되었고, 1960. 12.1에 실시된 「인구주택국세조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주택조사였다. 196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구센서스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 1966.10.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의 상주거주자 전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조사항목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10%)에 의한 두 가지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매 10년 마다 서기년도의 끝수자가 0인 해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매 5년마다 간이인구센서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1960년 이전까지는 현재인구를 조사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상주인구를 조사하여 출생, 사망 등의 인구동태조사와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조사도 행하여지고 있다.

여기서 1925년부터 1995년까지 70년 동안 대략 10년 간격을 두고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해 서산시지역의 지역별 인구증감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서산의 인구증감의 변화를 시기별·지역별로 실감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증감형과 감소형을 다음과 같이 각각 5계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증가	[1. 0.0 ~ 0.9%	감소	[A. 0.0 ~ 0.9%
		2. 1.0 ~ 1.9%			B. 1.0 ~ 1.9%
		3. 2.0 ~ 2.9%			C. 2.0 ~ 2.9%
		4. 3.0 ~ 3.0%			D. 3.0 ~ 3.0%
		5. 4.0% 이상			E. 4.0% 이상

① 1925년~1935년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1935년 사이의 10년 동안 서산군의 인구는 약 1만 8백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1천 80명씩 증가한 셈이며,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증가율은 1.2%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서산군의 연평균증가율(1.2%)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은 서산면(2.3%), 인지면(1.3%), 대산면(1.4%), 해미면(1.4%), 고북면(1.5%)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바다에 면한 지역으로서 경지개혁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병탄한 후에 한반도를 그들의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기

〈표 4-1-3〉 지역별 인구증감(1925~1935)

구 분	1925	1935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 산 군	79,445	90,270	10,821	12.0	12.0	2
서 산 면	8,500	11,030	2,530	22.9	2.3	3
인 지 면	5,676	6,333	657	10.4	1.0	2
부 석 면	8,166	9,431	1,265	13.4	1.3	2
팔 봉 면	6,311	6,845	534	7.8	0.8	1
지 곡 면	5,695	6,272	577	9.2	0.9	1
대 산 면	6,414	7,471	1,057	14.1	1.4	2
성 연 면	4,995	5,333	338	6.3	0.6	1
음 압 면	8,079	8,730	651	7.5	0.8	1
운 산 면	9,507	10,037	530	5.3	0.5	1
해 미 면	9,161	10,564	1,403	13.3	1.3	2
고 북 면	6,995	8,224	1,229	14.9	1.5	2

1925 : 조선총독부, 간이국세조사결과표

1935 :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지로 삼고서 「산미증산계획」을 추진하여 황무지 개간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차 대륙 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한 야욕에서 인구의 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일제의 정책과 조선시대를 지나 인구가 급증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던 한국의 사정이 맞물려 서산지방에서도 이 시기에 들어와서 자연적 인구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다.

② 1935년~1944년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5~1944년까지 9년 동안 서산군의 인구는 약 1만3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1천4백명 이상씩 증가한 셈이고,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증가율은 1.4%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서산군의 연평균증가율(1.4%)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은 서산면(3.1%), 인지면(1.5%), 음압면(1.5%) 이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전기(1925~1935)보다 인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곳은 서산·인지·팔봉·성연·음암·운산면 이지만, 그 증가율은 그리 크지 못했고, 부석·지곡·대산·해미·고북면에서는 오히려 증가율이 전기 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의 증가율이 전기 보다 둔화된 것은 본 기간이 태평양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일제 말기로 많은 사람들이 징병·징용 등으로 뽑혀가서 희생되었거나 타

지로 이주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곡과 대산지방은 뱃길을 이용하여 인천과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다.

〈표 4-1-4〉 지역별 인구증감(1935~1944)

구 분	1935	1944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산군	90,270	103,503	13,233	12.8	1.4	2
서산면	11,030	15,354	4,324	28.2	3.1	4
인지면	6,333	7,313	980	13.4	1.5	2
부석면	9,431	10,578	1,147	10.8	1.2	2
팔봉면	6,845	7,673	828	10.8	1.2	2
지곡면	6,272	6,779	507	7.5	0.8	1
대산면	7,471	7,888	417	5.3	0.6	1
성연면	5,333	5,900	567	9.6	1.1	2
음암면	8,730	10,139	1,409	13.9	1.5	2
운산면	10,037	10,897	860	7.9	0.9	1
해미면	10,564	11,800	1,236	10.5	1.2	2
고북면	8,224	9,182	958	10.4	1.2	2

1944 : 조선 총독부, 인구결과 조사보고

〈표 4-1-5〉 지역별 인구증감(1944~1955)

구 분	1944	1955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산군	10,503	130,632	32,129	23.7	2.2	3
서산면	15,354	21,581	6,227	28.9	2.6	3
인지면	7,313	9,421	2,108	22.4	2.0	3
부석면	10,578	13,172	2,594	19.7	1.8	2
팔봉면	7,673	8,753	1,080	12.3	1.1	2
지곡면	6,779	8,237	1,458	17.7	1.6	2
대산면	7,888	11,446	3,558	31.1	2.8	3
성연면	5,900	7,618	1,718	22.6	2.1	3
음암면	10,139	13,100	2,961	22.6	2.1	3
운산면	10,897	14,298	3,401	23.8	2.2	3
해미면	11,800	14,555	2,755	18.9	1.7	2
고북면	9,182	13,451	4,269	31.7	2.9	3

1944 : 조선 총독부, 인구결과 조사보고

③ 1944년~1955년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4~1955년에 이르는 11년 동안 서산군의 인구는 약 3만2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2천9백명씩 증가한 셈이며, 이 때의 연평균증가율은 2.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에는 1945년 8.15해방, 1950년의 6.25사변을 겪으면서도 전후에 많은 월남피난민과 난민들의 정착, 그리고 전후의 소위 「베이비 붐」(baby boom)현상에 의한 인구의 급증을 보였던 시기였다. 이 기간 중에 서산군 11개 읍면이 모두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서산읍과 고북면의 연평균증가율은 약 3%대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인구의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④ 1955년~1966년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1966년 사이의 11년 동안 서산군의 인구는 약 3만4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3천명 이상씩 증가한 셈이며, 이때의 연평균증가율은 1.8%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기간도 전기(1944~1955)에 이어 계속 인구의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이 기간중의 인구분포의 특징은 우리나라에 있어 공업화·도시화가 아직 크게 이룩되기 이전 농촌지역에 인구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이 기간 중에 특히 인구의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서산읍(2.6%)과 대산면(2.2

〈표 4-1-6〉지역별 인구증감(1955~1966)

구 분	1955	1966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 산 군	135,632	169,689	34,057	20.0	1.8	2
서 산 읍	21,581	30,063	8,482	28.2	2.6	3
인 지 면	9,421	11,935	2,514	21.1	1.9	2
부 석 면	13,172	16,507	3,335	20.2	1.8	2
팔 봉 면	8,753	10,429	1,676	16.1	1.5	2
지 곡 면	8,237	10,330	2,093	20.3	1.8	2
대 산 면	11,446	14,994	3,548	23.7	2.2	3
성 연 면	7,618	8,760	1,142	13.0	1.2	2
음 암 면	13,100	15,781	2,681	17.0	1.5	2
운 산 면	14,298	16,684	2,386	14.3	1.3	2
해 미 면	14,555	17,407	2,852	16.4	1.5	2
고 북 면	13,451	16,799	3,348	19.9	1.8	2

%) 이었다. 서산읍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은 1960년대 이후 포화상태에 있던 농촌지역의 인구가 먼저 그 지역의 중심지인 읍급도시지역으로 이출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농촌인구의 도시이동」(Rural-Urban Migration)현상과 관계가 깊다고 보며, 대산지역이 높은 원인은 해방 이후 천일제염을 비롯한 해만개척이 대산지역에서 크게 확장하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고 본다.

이 기간 중에 서산군의 연평균증가율(1.8%)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곳은 서산읍(2.6%)과 대산면(2.2%)을 비롯하여 인지면(1.9%), 부석면(1.8%), 지곡면(1.8%), 고북면(1.8) 이었다.

⑤ 1966년~1975년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1975년에 이르는 9년 동안에 서산군의 인구는 약 8천8백명이 감소해서 매년 약 980명씩 감소한 셈이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감소율은 0.6%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서산읍만은 약 8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900여명씩 증가한 셈이며, 연평균증가율이 2.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산읍을 제외한 군부지역 10개면은 모조리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인지(-2.4%), 음암(-2.2%), 성연(-1.7%), 운산(-1.5%) 등의 인구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기에 들어와서 농어촌인구의 도시이동현상이

〈표 4-1-7〉 지역별 인구증감(1966~1975)

구 분	1966	1975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 산 군	169,689	160,945	-8,753	-5.2	-0.6	A
서 산 읍	30,063	38,100	8,037	21.1	2.3	3
인 지 면	11,935	9,391	-2,544	-21.3	-2.4	C
부 석 면	16,507	15,173	-1,334	-8.1	-0.9	A
팔 봉 면	10,429	9,201	-1,228	-11.8	-1.3	B
지 곡 면	10,330	9,271	-1,059	-10.3	-1.1	B
대 산 면	14,994	14,399	-595	-4.0	-0.4	A
성 연 면	8,760	7,459	-1,301	-14.9	-1.7	B
음 암 면	15,781	12,688	-3,093	-19.6	-2.2	C
운 산 면	16,684	14,494	-2,190	-13.2	-1.5	B
해 미 면	17,407	16,102	-1,305	-7.5	-0.8	A
고 북 면	16,799	14,667	-2,310	-12.7	-1.4	B

1975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총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

전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이며, 공업화·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동 물결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서산읍만이 인구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농어촌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때 아직은 읍급지역이 그 주변 농어촌 인구의 흡수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인구의 도시지향 이동은 먼저 가까운 읍급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일반적 법칙인 것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전기(1955~1966)에 비해 인구증감의 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60~1966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이 2.7%라는 사상 유례없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던 것이 가족계획사업 등의 효과가 주효해서 1966~1970년 사이에는 1.9%, 1970년대 이후에는 1.7%로 둔화된 현상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⑥ 1975년~1985년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198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서산군의 인구는 약 1만6천명이 감소해서 매년 약 1천6백명씩 감소한 셈이며, 이 기간동안

〈표 4-1-8〉 지역별 인구증감(1975~1985)

구 분	1975	1985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 산 군	160,945	145,179	-15,766	-9.8	-1.0	B
서 산 읍	38,100	45,058	6,958	15.4	1.5	2
인 지 면	99,391	7,600	-1,791	-19.1	-1.9	B
부 석 면	15,173	12,792	-2,381	-15.7	-1.6	B
팔 봉 면	9,201	7,403	-1,798	-19.5	-2.0	C
지 곡 면	9,271	7,549	-1,722	-18.6	-1.9	B
대 산 면	14,399	11,980	-2,419	-16.8	-1.7	B
성 연 면	7,459	6,103	-1,356	-18.2	-1.9	B
읍 압 면	12,688	10,066	-2,622	-20.7	-2.1	C
운 산 면	14,494	11,046	-3,448	-23.8	-2.4	C
해 미 면	16,102	13,225	-2,877	-17.9	-1.8	B
고 북 면	14,667	12,357	-2,310	-15.7	-1.6	B

연평균감소율은 1.0% 이었다. 그러나 서산읍만은 약 7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700명씩 증가한 셈이며, 연평균증가율 1.5%를 나타냈다. 반면 서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은 전기(1966~1975)와 마찬가지로 모조리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산읍이 인구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전기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서산의 인구 흡수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가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때 초기에는 그 농어촌지역의 읍급중심지로 이동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서는 그 보다 규모가 더 큰 대도시지역이나 상공업지역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인구이동의 일반적 법칙인데, 서산의 경우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 기간 동안 서산군지역에서 인구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곳은 운산(-2.4%), 음암(-2.1%), 팔봉(-2.0%) 등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전기(1966~1975)에 비하여 인구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70년대 후반을 넘어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농어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유출현상이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⑦ 1985년~1995년

이 기간 동안에는 행정구역의 변천과 지역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기간이었다. 1989.1.1에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서산시와 서산군이 분리되었고, 종래 서산군에 속했던 태안지역의 8개 읍면이 태안군으로 분리·독립되었다. 또 대산반도지역에 대규모적인 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1991.12.1에는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1.1에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어 서산시로 되었다.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199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서산시·군의 인구는 약 5천명이 감소해서 매년 약 500명씩 감소한 셈이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감소율은 0.3%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서산시는 약 1만3천명이 증가해서 매년 약 1천3백명씩 증가해 온 셈이며, 연평균증가율 2.2%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어촌 중심지들이 인구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서산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산반도를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개발로 서산시는 그 지역적 중심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산군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약 1만8천명이 감소해서 매년 약 1천8백명씩 감소해 온 셈이며, 연평균감소율도 1.8%를 나타냈다. 군 지역에서 인구의 감소율이 특히 두드러진 곳은 고북(-3.4%), 성연(-3.0%), 팔봉(-2.6%), 운산(-2.6%), 해미(-2.6%) 등지인데, 군 지역 모두에서 전기(1975~1985)보다 인구의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60년대 이후 시작된 농어

촌지역 인구의 도시지향 이동이 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은 이제 그 존재 기반조차 무너질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산읍만은 약 5천명이 증가해서 연평균 증가율 2.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대산반도 지역에 '제2의 울산'이라 할 만한 대규모 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의 이동이 이곳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표 4-1-9〉 지역별 인구증감(1985~1995)

구 분	1985	1995	증 감 수	증 감 율	연 평 균 증 감 율	증 감 형
서산시·군	145,179	140,331	-4,848	-3.3	-0.3	A
서산시	45,058	57,960	13,902	22.3	2.2	3
서산군	100,121	82,371	-17,750	-17.7	-1.8	B
인지면	7,600	5,988	-1,612	-21.2	-2.1	C
부석면	12,792	9,675	-3,117	-24.4	-2.4	C
팔봉면	7,403	5,472	-1,931	-26.1	-2.6	C
지곡면	7,549	5,881	-1,668	-22.1	-2.2	C
대산읍	11,980	16,731	4,751	28.4	2.8	3
성연면	6,103	4,275	-1,828	-30.0	-3.0	D
음암면	10,066	8,337	-1,729	-17.2	-1.7	B
운산면	11,046	8,134	-2,912	-26.4	-2.6	C
해미면	13,225	9,761	-3,464	-26.2	-2.6	C
고북면	12,357	8,117	-4,240	-34.3	-3.4	D

※ 1989. 1. 1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 ※ 1991. 12. 1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

※ 1995. 1. 1 서산시·군통합 → 서산시

3)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인구분포와 인구밀도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인간생활양식, 경제의 발달단계, 개발의 정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구분포가 절대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반해 인구밀도는 상대적 양상을 나타낸다. 인구분포는 무엇보다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의 대소가 인구분포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밀도는 생활양식, 생산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수용력이 증대함에 따라 높아진다.

서산시의 인구밀도의 변화는 〈표 4-1-10〉과 같다. 〈표 4-1-10〉에서 보면 서산

〈표 4-1-10〉 인구밀도의 변화

1965년	297.9 人
1970년	298.0 人
1975년	274.9 人
1980년	256.1 人
1985년	240.0 人
1989년	240.0 人
1995년	220.4 人

시 지역의 인구밀도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산의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절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방조제의 건설이나 해안의 매립이 이루어진 부석면, 대산읍 등지에서는 과거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인구밀도에 있어서 단위면적(km²)에 대한 절대인구량으로 표시한 인구밀도를 절대적인구밀도 라고 한다. 1996년 현재 서산시의 지역별 절대적인구밀도는 〈표 4-1-11〉과 같다. 〈표 4-1-11〉에서 보면 서산시 지역의 평균인구밀도는 km²당 19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산시 지역이 1071.2인으로 절대적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음암면(193.4인), 대산읍(174.9인), 인지면(163.3인), 해미면(139.6인)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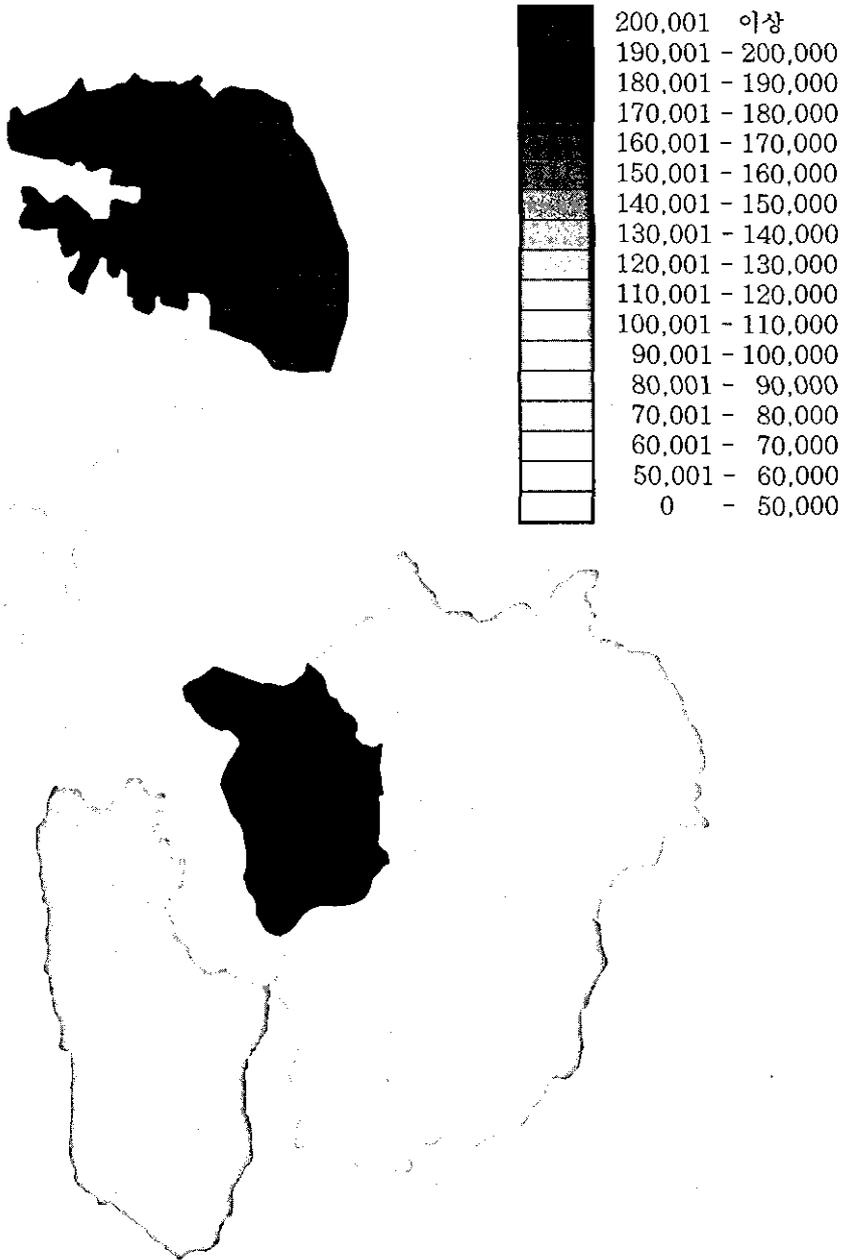
〈표 4-1-11〉 절대적 인구밀도(1996)

구 분	인 구	면적(km ²)	인구밀도 (인구수/km ²)	구 분	인 구	면적(km ²)	인구밀도 (인구수/km ²)
대산읍	18,182	103.94	174.9	고북면	7,903	71.80	110.1
인지면	5,786	35.44	163.3	부춘동	12,000	9.45	129.9
부석면	9,320	123.80	75.3	동문동	15,731	8.77	2,795.1
팔봉면	5,272	51.40	102.6	활성동	8,782		
지곡면	5,699	57.94	98.4	수석동	11,881	8.80	1,350.1
성연면	4,117	43.70	94.2	석남동	9,629	18.06	533.2
음암면	8,507	43.99	193.4	오산동	2,188	11.13	196.6
운산면	7,830	82.73	94.6				
해미면	9,507	68.08	139.6	계	142,331	739.03	192.6

그러나 인구밀도에 있어서 절대적인구밀도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경지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관계로 보는 지리적인구밀도 이다. 1996년 현재 서산시의 지역별 지리적인구밀도는 〈표 4-1-12〉과 같다. 〈표 4-1-12〉에서 보듯이 서산시 지역의 평균 지리적인구밀도는 ha당 5.0인 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산시가 21.2인으로 지리적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산읍(6.6인), 음암면(4.4인), 해미면(4.0인), 인지면(3.5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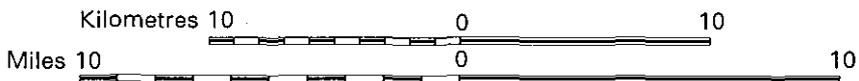
그리고 1996년 현재 서산시의 인구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4-1-1〉과 같다.

〈그림 4-1-1〉 인구분포도(1996).



인구분포도

1 : 250,000 Scale



〈표 4-1-12〉 지리적 인구밀도(1996)

구 분	인 구	면적(km ²)	인구밀도 (인구수/km ²)	구 분	인 구	면적(km ²)	인구밀도 (인구수/km ²)
대산읍	18,182	2,761	6.6	고북면	7,903	3,733	2.1
인지면	5,786	1,655	3.5	부춘동	12,000	212	56.6
부석면	9,320	6,534	1.4	동문동	15,731	435	56.4
팔봉면	5,272	1,491	3.5	활성동	8,782	539	22.0
지곡면	5,699	1,909	3.0	수석동	11,881	1,081	8.9
성연면	4,117	1,213	3.4	석남동	9,629	568	3.9
음암면	8,507	1,933	4.4	오산동	2,188		
운산면	7,830	2,032	3.9	계	142,331	28,470	5.0
해미면	9,507	2,374	4.0				

4) 인구이동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옛부터 인구의 이동이 있어 왔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산지방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황무지의 개간이나 해만의 개척 등 삶의 터전을 찾아서, 또는 6.25동란 이후 북한동포나 난민들의 서산지방에로의 대거 이주나 그 후의 이동, 1960년대 이후 농어촌 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등 수 많은 인구가 이입하고 이출하였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얼마만한 인구가 어떤 이유로 어느 지역으로 이입하고 이출하였는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다. 다만 최근의 인구이동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이나 상공업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농어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Rural-Urban Migration)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산공업단지 등 서해안개발의 붐을 타고 서산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남·여별, 시·도내, 시·도외별 전입과 전출을 알 수 있다. 서산시·군의 「통계연보」에 의하여 1991~1995년까지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을 보면 〈표 4-1-13〉과 같다. 〈표 4-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의 인구이동은 90년대에 들어 1년에 약 1만5천명에서 2만명 정도가 전입하고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도내의 전입과 전출이 시·도외의 전입과 전출보다 약간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13〉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1991~1995)

구 분	총 계		시·도내		시·도외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1991년	22,711	21,987	12,835	10,504	9,876	11,483
1992년	15,702	18,053	8,828	8,684	6,874	9,369
1993년	18,252	20,395	11,775	11,508	6,477	8,887
1994년	16,743	17,834	10,699	10,071	6,044	7,763
1995년	22,158	21,114	13,738	13,190	8,420	7,924

5) 인구동태

서산시·군의 「통계연보」에 의거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를 보면, 〈표 4-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 서산의 인구동태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가 출생하고, 약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혼인은 1년에 약 1,500~2,000명 정도이며, 이혼은 1년에 약 200명 정도인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혼의 숫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4〉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1991~1995)

구 분	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1991	5,290	2,045	1,094	1,978	173
1992	5,350	2,084	1,126	1,954	186
1993	5,386	2,129	1,110	1,900	247
1994	5,017	2,003	1,144	1,612	258
1995	4,963	2,035	1,114	1,574	240

6) 인구구성

인구구성은 각종 인구현상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구구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성별인구구성, 연령별인구구성, 산업별인구구성이다. 산업별인구구성은 대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단위지역에서는 그 통계를 얻기 어렵다. 성별인구구성과 연령별인구구성은 보통 하나의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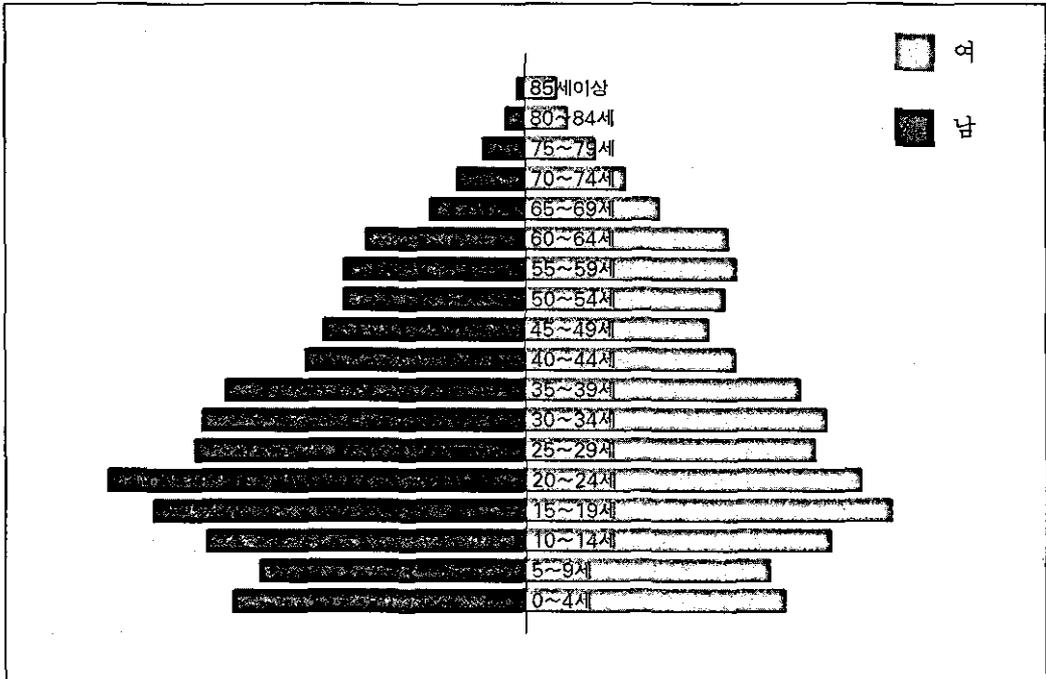
1996년 현재 서산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그려보면 〈그림 4-1-2〉과 같

다. 그런데 인구피라미드는 후진국일수록 삼각형 모양을, 선진국일수록 종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서산시의 인구성형도 대략 이와같이 후진국형인 삼각형모양에서 점차 선진국형인 종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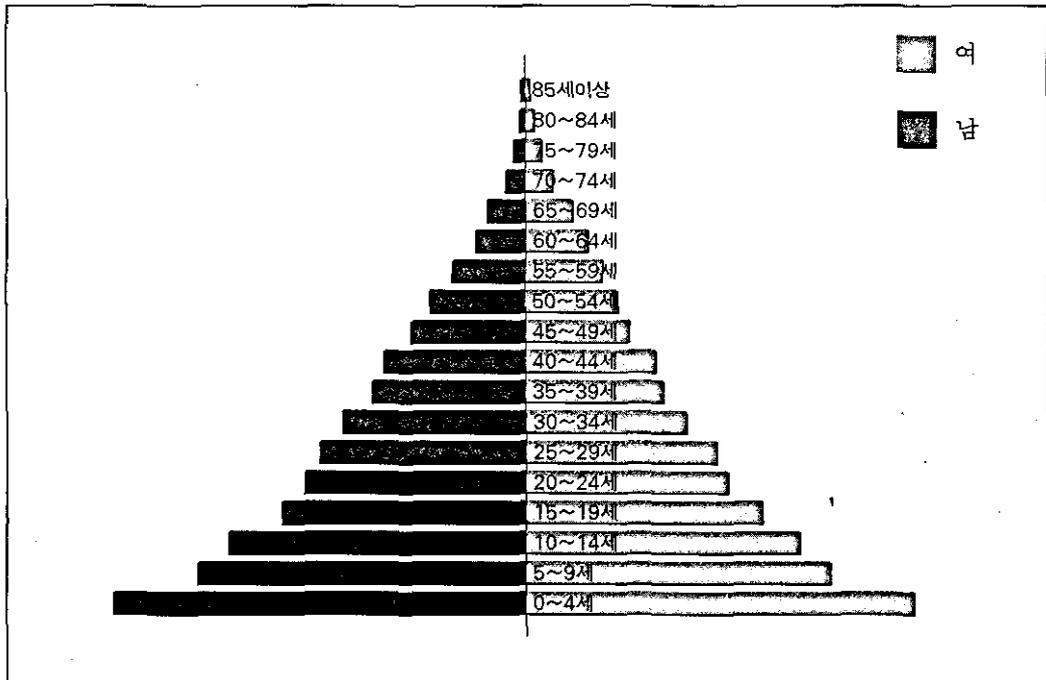
여기서 서산시의 인구피라미드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1925년, 1965년, 1975년, 1995년의 성별·연령별 인구피라미드를 그려보면 <그림 4-1-3>에서 <그림 4-1-6> 과 같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25년이나 1965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많고, 고령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전형적인 후진국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 남·녀의 성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이른바 남초(男超)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70년대를 넘어 80년대 90년대로 올수록 유소년층의 비율이 적어지고 장·노년층의 비율이 많아지는 이른바 선진국형인 종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의료시설의 증가 및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점차 유아출산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또 고령으로 갈수록 여자인구의 비율이 많은 것은 성인층일수록 남자의 사망이 여자의 사망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으로 올수록 유소년 층에서 남아의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한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의 인구피라미드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를 1995년 서산시 지역과 서산군 지역의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서산군지역에서 25세이상 54세에 이르는 이른바 생산연령층의 비율이 현격하게 적은 것은 70년대 이후 공업화·도시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때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남고 생산연령층이 이동하는 이른바 연령선택적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은 농촌지역에서 10세 이상 24세 까지의 소년·청년층의 구성비가 많은 것은 아직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기회가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령층도 최소한의 교육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노령화의 인구구성이 촉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해지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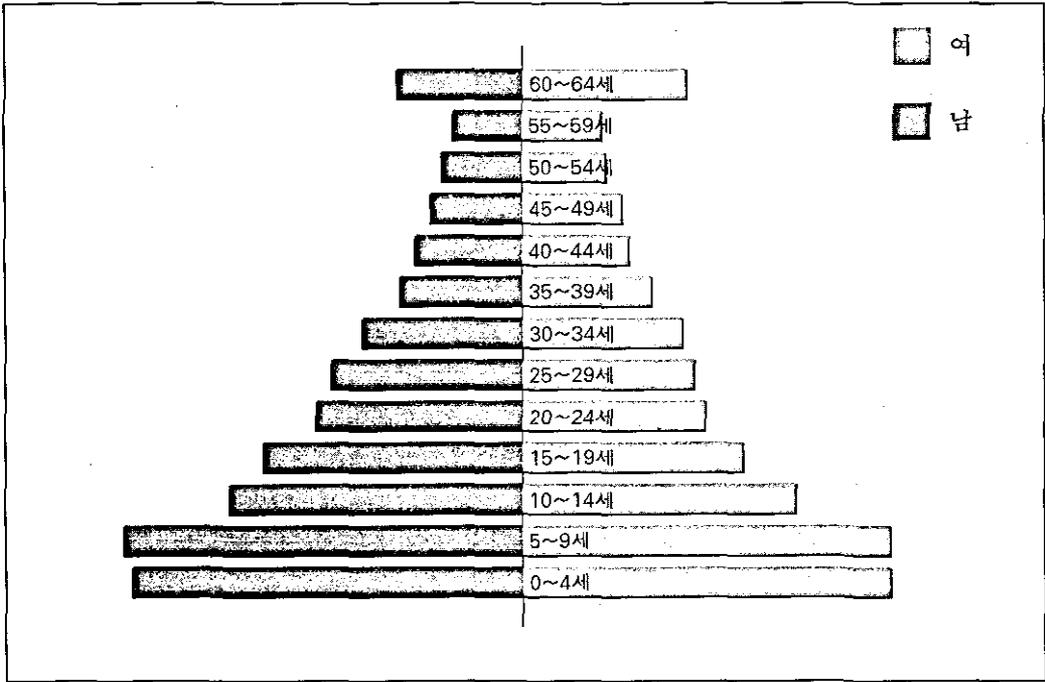
〈그림 4-1-2〉 서산시의 성별·연령별 인구피라미드(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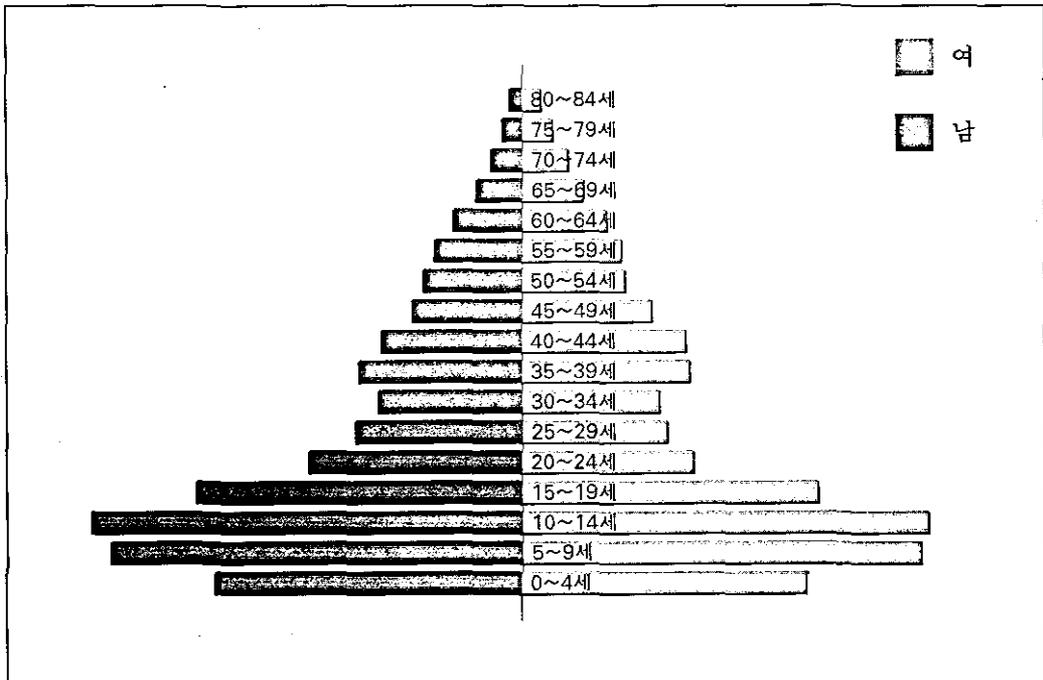
〈그림 4-1-3〉 성별·연령별 인구구성(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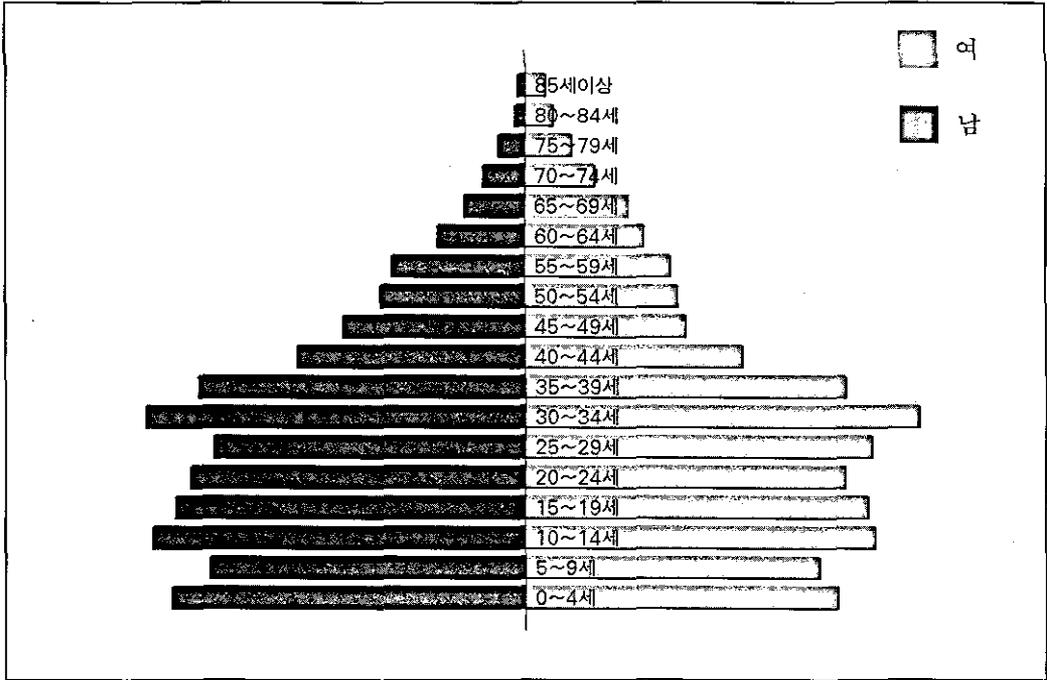
<그림 4-1-4> 성별·연령별 인구구성(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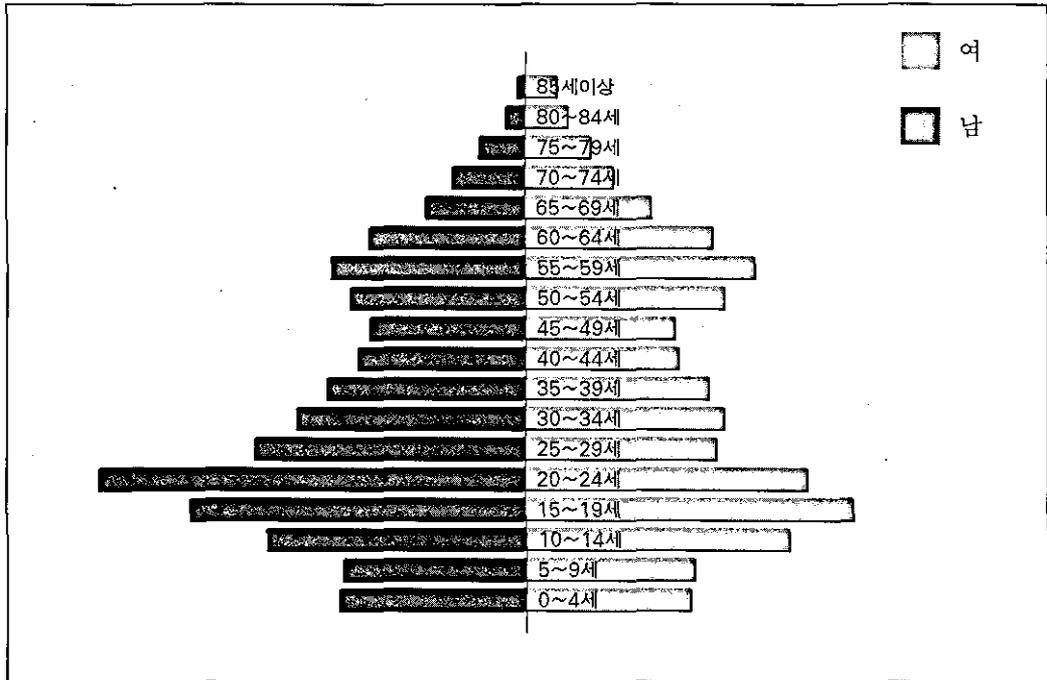
<그림 4-1-5> 성별·연령별 인구구성(1975)



〈그림 4-1-6〉 성별·연령별 인구구성(1995, 서산시)



〈그림 4-1-7〉 성별·연령별 인구구성(1995, 서산군)



2. 취락

인류생활의 단위는 가족이고 그것은 가옥을 근거로 하여 살지만, 가옥이 고립하여 있는 경우는 희소하고 대체로는 모여 촌락과 도시를 형성한다.

이것이 취락이며, 지리적으로는 단지 가옥의 집합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로·공지·기타 일상생활의 무대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류가 취락을 형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집단적 사회성에 기인하나 그것의 위치·형태·크기·구조·기능 등의 구체적 성격은 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제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 취락은 한번 형성되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착성을 나타내는 만큼 지리적으로 각 지역의 인간생활을 살피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취락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취락의 기본요소가 되는 가옥에 대하여 언급하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1) 가옥

(1) 전통가옥

서민들의 전통적인 살림집인 민가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생활공간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 온 건축물로, 그 재료나 형태 및 구조에는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옥의 특성을 살피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가옥의 재료와 구조이다.

① 가옥의 재료

일반적으로 전통가옥의 건축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부터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재료는 흙과 흙벽돌, 목재, 석재 등이었다. 또 벼농사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지붕의 재료로 가장 널리 쓰인 것은 볏짚으로서 초가는 과거 우리나라의 서민가옥을 대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룩된 경제건설은 우리나라의 가옥재료와 가옥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7년부터 추진되어 온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초가집이 기와집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흙과 목재 등의 건축재료는 벽돌집이나 콘크리트 가옥으로 변화되었으며, 대가족 중심의 농촌가옥은 핵가족 중심의 도시형 가옥으로 많이 개량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서산지방의 경우도 전국의 변화와 다름이 없는데, 현재 서산지방에서도 초가는 과거의 유물로서나 존재할 뿐이다.



〈사진〉 서산지방의 전형적 민가

서산지방 민가 형태는 기본적으로 一자, 혹은 ㄱ자형이다. 그러나 가옥 주변에 부속건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관상 전체적인 모습은 ㄷ자 혹은 ㄴ자형의 폐쇄적 가옥형태를 띠고 있다. 서산지방 대부분의 민가는 이런 형태이다

② 가옥의 입지, 형태, 구조

취락의 구성요소 가운데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옥이므로, 그것이 일정한 공간위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취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태안반도 가옥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지리원발행 1979년 1 : 5000 지형도 227매 총 34,436가옥에 대한 위치(입지)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표 4-2-1>과 같다.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반도 가옥의 입지는 구릉지에 약 43%, '골'에 약 36%가 입지하는 것으로 판독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조사된 전가옥의 약 76%가 입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태안반도 촌락의 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별도로 조사된 가옥 35,692동(棟)의 평면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一자형이 38.3%, ㄱ자형이 39.6%, ㄷ자형이 11.3%, ㄴ자형이 1.4%, ㄹ자형이 7.9%, 기타가 1.5%로 나타나서 태안반도 가옥의 평면형태는 一자 혹은 ㄱ자형이 기본임을 알 수 있다(표 4-2-2).

〈사진〉 서산 민가의 상징 굴뚝

서산지방에는 굴뚝을 높게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의식(가치관)이 강했던 것 같다. 「굴뚝경관」은 서산지방 민가 형태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서산시내에서도 우뚝한 굴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태안반도 민가에서는 본채 건물에 부속건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 혹은 7자 집 이라도 외관상의 전체 모습은 ㄷ자 혹은 ㄱ자 모양의 폐쇄적 가옥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민가는 -자 집, 7자 집, ㄷ자 집, ㄱ자 집, 「」자 집, 田자 집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내부구조의 기본은 온돌방, 마루방, 토간의 3공간으로 구분된다.

〈표 4-2-1〉 태안반도 가옥의 입지

位 置 (地 形)	家屋의 數	構成比率(%)
山 地	139	0.4
丘 陵 地	14,751	42.8
丘陵地와 丘陵地 사이의 低地(開析谷地)	1,018	3.0
丘陵地와 開析谷地の 境界地点	11,403	33.1
河成沖積地(氾濫原)	1,392	4.1
海成沖積地(干拓地)	581	1.7
海成沖積地(鹽 田)	252	0.7
丘陵地와 河成沖積地の 境界地点	1,131	3.3
丘陵地와 干拓地の 境界地点	3,050	8.9
丘陵地와 鹽田의 境界地点	169	0.5
海岸砂丘・砂嘴	83	0.2
岩石海岸	16	0.04
其 他	453	1.3
計	34,436	100

〈표 4-2-2〉 태안반도 가옥의 평면형태

유형	빈도	%	유형	빈도	%
	9,255	25.9		6,344	19.5
	1,714	4.8		3,019	8.5
	860	2.4		3,512	9.8
	1,852 (13,681)	5.2 (38.3)		666 (14,141)	1.9(39.6)
	2,230	6.2		370	1.0
	793	2.2		126 (496)	0.4(1.4)
	325	0.9	기타	540	1.5
	682 (4,030)	1.9 (11.3)	계	35,692	100
	2,804	7.9	.	.	.

※ 팔호안의 숫자는 소계임 본건물 부속건물

※ 家屋의 平面形態는 1979年 發行 1:5,000地形圖 위에서 判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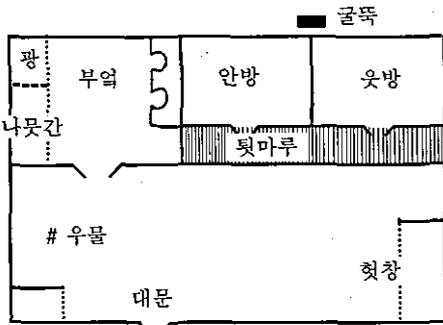
온돌방과 마루방은 거실로 사용되고 토간은 부엌과 광으로 사용된다. 온돌은 겨울의 추위에 보온할 수 있는 시설이고, 마루방은 여름의 더위에 대비하는 것으로 모두가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기후에서 생성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온돌은 필연적으로 부엌이나 아궁이를 요하게 되므로 온돌의 위치와 수는 가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가의 평면적인 가옥구조에서 방의 수, 배치가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민가에서 나타나는 칸배치 유형에는 3칸형, 4칸형, 5칸형, 6칸형의 4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서산지방 민가의 칸배치 유형과 그 내부구조에 대하여 요약·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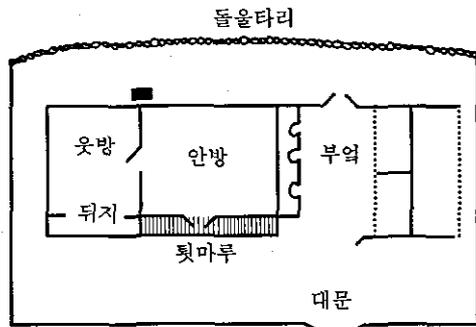
㉠ 3칸형

3칸형은 우리나라 민가의 가장 대표적인 가옥구조로서, 서산지방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평면배치는 「부엌-안방-옷방」의 방배열과 방앞에 뒷마루가 붙는 형태이다. 그러나 간혹 이와는 역순으로 「옷방-안방-부엌」의 방배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뒷마루가 안방의 전면에만 소규모로 붙어 있어서 마루의 기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1〉 -자 3칸형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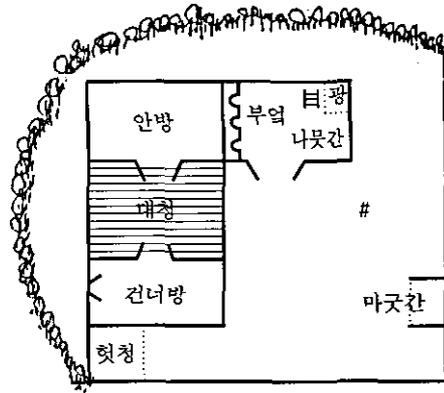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서산지방 3칸형은 거의 대부분이 -자형 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4-2-1)

㉠ 4칸형

서산지방 4칸형은 대체로 -자형 민가와 7자형 민가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자 4칸형은 -자 3칸형의 「부엌-안방-옷방」의 방배열에 건너방이 추가되어 「부엌-안방-옷방-건너방」의 방배열이 된다. 이러한 -자 4칸형은 -자 3칸형과 마찬가지로 뒷마루가 방의 앞면에 붙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30~40cm 정도의 흠터돌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뒷마루의 퇴화현상은 비바람이 심한 해안지대의 민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림 4-2-2〉 7자 4칸형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한편, 7자 4칸형은 「안방-부엌」의 2칸형을 기본으로하여 안방에 연결된 대침과 건너방을 곡부(曲部)로 발달시킨 것이다. 이와같은 -자 4칸형은 서산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그림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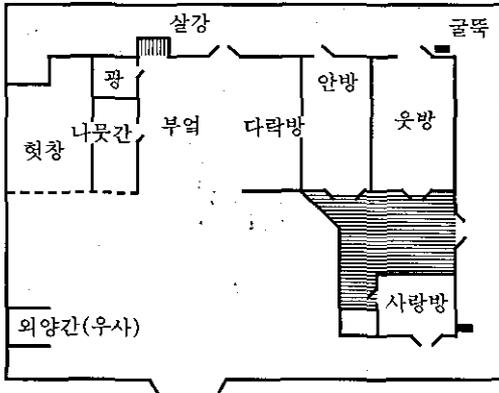
㉡ 5칸형

서산지방 5칸형은 대체로 2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엌-안방-옷방(음방)」의 -자 3칸 기본형에 대침과 사랑방이 곡부로 연결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엌-안방-옷방」의 -자 3칸 기본형에 대침과 건너방이 -자형으로 연결된 유형이다. 이러한 2가지의 칸배치유형 가운데 전자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일부지역에서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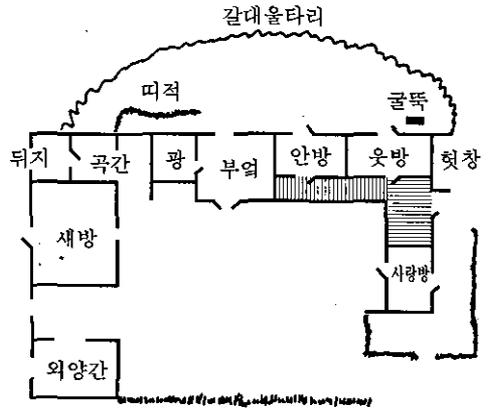
여기서 후자의 유형은 대청과 뒷마루가 전자보다 큰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5칸형은 동배치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ㄱ자형, ㄷ자형, 「」자형 민가에서 주로 나타난다(그림 4-2-3), (그림 4-2-4).

〈그림 4-2-3〉 ㄱ자 5칸형



서산시 교북면 용암리

〈그림 4-2-4〉 ㄷ자 5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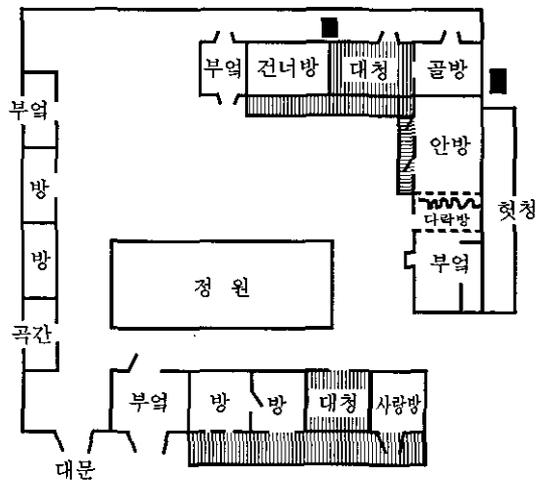
서산시 대신읍 독곶리

㊦ 6칸형

서산지방 6칸형 민가는 대체로 2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부엌-건너방」에 대청을 매개로 「골방-안방-부엌」이 곡부로 연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엌-안방-옷방」에 대청을 매개로 건너방과 사랑방이 곡부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6칸형의 2가지 유형 가운데 후자가 전자보다 많이 나타난다.

특히, 전자는 뒷마루가 대청을 지나 곡부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부엌이 내동(內棟)의 양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6칸형 평면구조는 동배치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자형과 ㄷ자형 민가에서 나타난다(그림 4-2-5).

이상과 같이 서산지방의 민가는 一자형, ㄱ자형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3칸형·4칸형·5칸형·6칸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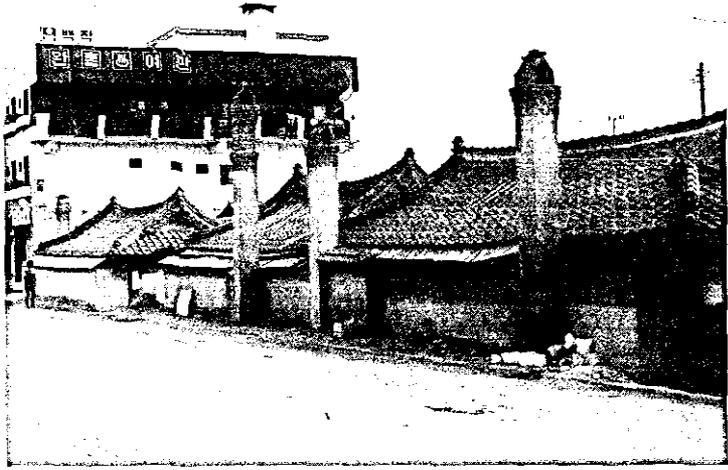


서산시 성연면 평리
〈그림 4-2-5〉 「」자 6칸형

〈사진〉

서산시내의 굴뚝(1983)

1980년대 까지도 서산시내에서도 높은 굴뚝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건너편.



로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또한 본채 건물에 부속건물이 다른지방에서 보다 많이 배치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자 혹은 7자형 집이라도 부속건물이 있을 경우 외관상의 전체 모습은 ㄷ자 혹은 ㄱ자 모양의 폐쇄적 가옥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가옥의 규모가 크다. 서산지방 민가에 부속건물이 많은 이유는 이곳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1호당 경지면적이 많은데다가 밭농사지역이고 또한 밭에서 생산되는 마늘, 생강 등의 농작물이 많아서 이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서산지방은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세차게 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방풍효과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진〉

양반주택의 전형 김기현 가옥



음암면 유계리, 중요 민속자료 제199호, 19세기 중엽에 건립된 전통 목조와가로, ㄷ자형의 안채와 7자형의 사랑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옥의 바깥쪽에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고, 안쪽에 안채와 광채, 그리고 후원에 별당(초원)이 배치된 전형적인 양반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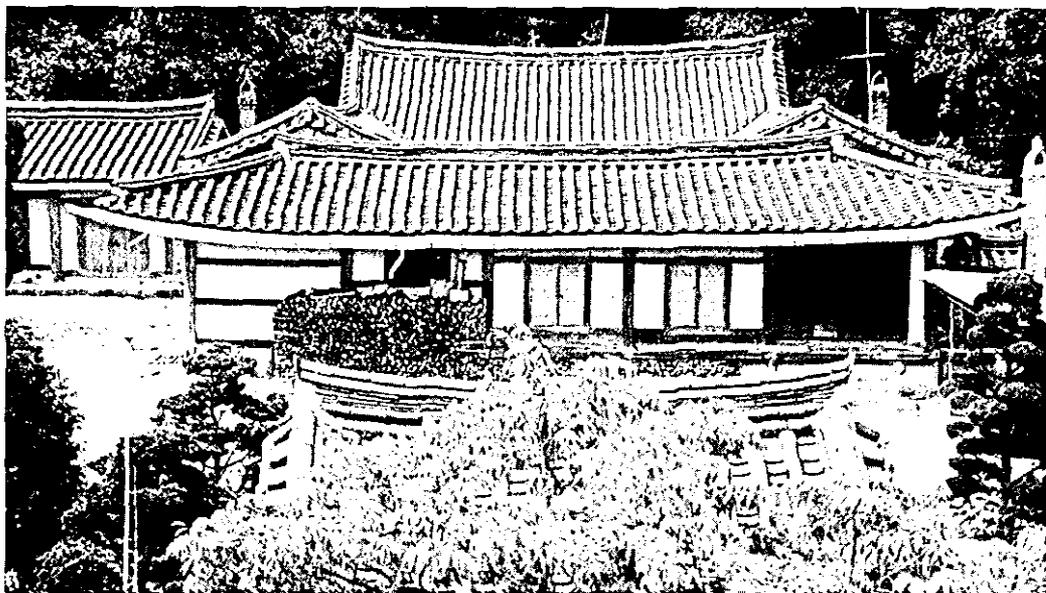
본다.

서산지방 전통민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굴뚝이다. 현재는 보일러시설의 보급으로 민가에서 굴뚝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뚝이 가옥경관의 한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민가에서 굴뚝이 갖는 성격은 굴뚝을 지붕위로 높게 뽑지 않고 처마 밑으로 아궁이의 연기가 감들게 하는 것이지만, 서산지방에서만은 오히려 굴뚝을 높게 세우고 여기에 각종 치장을 해서 미관상 아름답게 꾸미고, 때로는 부와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감마저 풍기게 함으로서 독특한 「굴뚝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 가옥에는 서민층 민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류층 주택도 있다. 서민층 민가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상류층 주택은 자연환경의 영향보다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규모나 구조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류층 주택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별도로 분리되고 별당, 사당, 정자 등이 있어 상류계급 특유의 생활공간 구조를 이루었다. 이는 특히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가족제도, 사회규범 및 관습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음암면 유계리 김기현씨 가옥(중요민속자료 제199호)은 19세기 중엽에 건립된 전통 목조와가로 ㄷ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전체적으로 뜰 ㄹ자형의 평면



<사진> 정순왕후의 생가

음암면 유계리, 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 조선 효종때의 문신 김홍육이 늙으신 부친 김적에 대한 효심이 지극함을 알고 왕이 하사한 가옥. 1649년에서 1659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집에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태어났다. 정순왕후는 김홍육의 4대손인 김한구의 딸이다.

을 이루면서 입구편에 대문간과 사랑채, 행랑채가 있고, 안채에는 광채와 후원에 초당이 배치된 가옥이다. 또 정순왕후생가(도 기념물 제68호)는 조선 효종 때의 문신 김홍욱이 늙으신 부친 김적에 대한 효심이 지극함을 알고 하사한 가옥으로 1649년부터 1659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순왕후는 이 집에서 영조 21년(1745)에 김한구의 딸(김홍욱의 4대손)로 태어나 영조 35년(1759)에 영조의 왕후가 되었다.

(2) 개량주택

1970년대부터 농촌지역에 파급된 「새마을운동」, 1977년부터 추진되어 온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공업화·도시화의 물결이 농촌지역에 침투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은 경제·사회적구조 뿐만 아니라 가옥구조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서산지방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소위 개량주택으로 새로이 농촌지역에 건축된 가옥은 재래의 전통적인 가옥과는 상당히 다른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량주택은 서구식이며, 도시형주택이고, 핵가족 중심의 주택이다. 따라서 전통가옥과 개량주택 사이에는 공간의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

전통가옥과 개량주택과의 평면상 기능의 가장 큰 차이는 대청공간에서 비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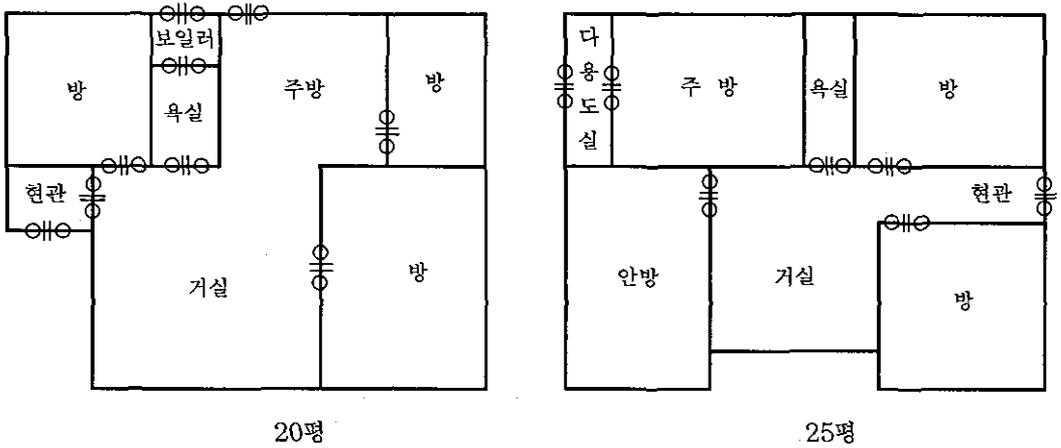
전통가옥에서의 대청마루는 안방과 건너방을 분리시키는 공간이라면, 개량주택(도시형주택)에서의 대청은 각 방을 연결시키는 공간기능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가옥이 대가족제도의 생활체제와 결부된 구조라면 개량주택은 핵가족 생



〈사진〉 개량주택

농촌지역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건축된 개량주택, 개량주택은 전통적인 농가주택과는 달리 서구식 주택이며, 도시형 주택이고, 복열형 주택이다.

〈그림 4-2-6〉 개량주택의 평면도



활체제와 관련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면구조의 변화는 부엌이 갖는 기능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가옥에서의 부엌은 토간으로 되어 있으며, 토간은 우천과 적설시의 작업장, 신탄 및 농산물 저장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통가옥내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공간이지만, 개량주택에서는 부엌은 취사기능 하나만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3) 아파트와 연립주택

최근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의 건설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의 급증, 교통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함, 도시지역보다 저렴한 지가와 부지확보의 수월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점차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지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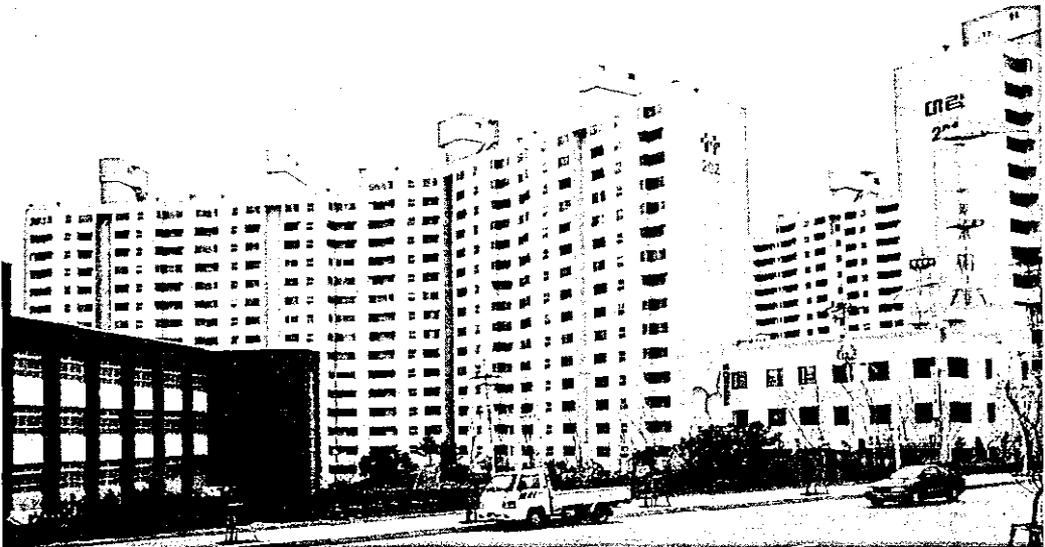
〈표 4-2-3〉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증가추세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1991
1992	7,548	2,383	1,259
1993	7,653	3,727	1,242
1994	26,172	7,480	2,587
1995	26,570	8,771	2,004

〈표 4-2-4〉 읍·면·동별 주택종류의 분포

연별 및 읍면동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1995	38,958	27,375	8,771	2,812		
대산읍	6,475	3,653	2,603	219		
인지면	1,738	1,606	89	43		
부석면	2,734	2,673	-	61		
팔봉면	1,341	1,341	-	-		
지곡면	1,503	1,486	-	17		
성연면	1,449	1,437	-	12		
음압면	2,296	1,878	102	316		
운산면	1,846	1,735	-	111		
해미면	2,223	1,669	18	536		
고북면	1,598	1,569	-	29		
부춘동	3,272	1,183	889	200		
동문동	4,426	2,348	1,506	572		
활성동	1,310	827	300	183		
수석동	3,413	1,265	1,812	336		
석남동	2,764	1,238	1,368	158		
오산동	570	467	84	19		

1996년 서산시 통계연보



〈사진〉 아파트

서산시의 주택보급율은 94%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택공사 서민아파트 1,928세대가 '96년 완공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이제 단순한 식량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정주공간(주거공간), 공산품생산공간, 레크레이션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산지방은 서산시의 확대와 대산공업단지의 건설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주택으로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서산시지역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증가추세는 <표 4-2-3>과 같고, 읍·면·동별 주택종류의 분포현황은 <표 4-2-4>과 같다.

2) 촌락

(1) 일반 촌락

① 촌락의 입지와 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안반도 지역에서의 가옥의 입지는 구릉지에 약 43%, '골'에 약 36%가 입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전체가옥의 약 76%가 입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옥의 입지가 태안반도지역에서는 산촌(散村)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의 촌락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는 집촌(集村)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일대에서는 산촌(散村)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인간의 거주역사가 오래되고 평탄한 구릉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지역에서 산촌(散村)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을 끌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산촌경관

서산지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촌경관(散村景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산촌경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가옥과 경지의 연결현상(連接現象), 개척되다 남아 있는 도상(島狀)의 나무 숲이 군데 군데 남아 있다.



태안반도지역에서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거주가 시작되었다. 삼한시대에는 오늘의 지곡지방에 「치리국국」(致利鞠國), 태안지방에 「신소도국」(臣蘇塗國)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고, 백제시대의 서산지방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교문화 수입의 선구적지역이었으며, 통일신라 때는 대당교역의 요지였다. 고려시대에는 읍치(邑治)의 이전, 송나라와의 교역,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주민의 유망(流亡) 등 여러 역사적 사실이 태안반도 취락의 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산의 읍치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지곡에서 현 서산(읍)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때부터 서산(읍)은 태안반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군현제도의 개편, 세곡미의 안전수송을 위한 운하의 개착, 임진·병자의 양대전란, 유교적 영향에 의한 동족촌의 형성 등 여러 역사적 사실이 태안반도 촌락의 형성에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고 본다.

태안반도지역에서 경지의 개척과 촌락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룩되기 시작한 것은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임진·병자의 양대전란을 겪고난 이후부터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황폐화되었던 경지를 복구·확대하기 위한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개간정책으로 조선후기까지는 상당한 지역에 걸쳐 개척이 진전되었다.

일제시대에 접어들면 인구의 증가,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등으로 임야와 해만의 개척이 촉진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6.25동란 중 북한피난민이나 난민집단의 대규모 정착, 그리고 특히 1960년대 미국의 무상지원양곡(PL480)에 의한 임야의 개간과 해만의 간척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태안반도 촌락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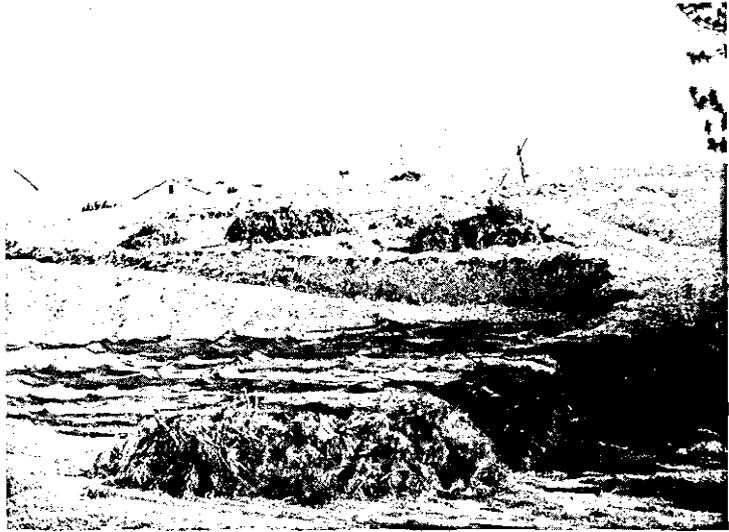
여기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서산지방의 촌락의 형성을 ①임야개척과 촌락형성, ②해만개척과 촌락형성, ③씨족집단과 촌락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촌락의 형성은 결국 인간집단에 의한 개척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서산지방의 촌락형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배경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첫째 : 현재의 서산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촌락이란 결국 임야로 덮여 있던 곳에 인간집단이 뛰어 들어가서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가옥과 경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형성의 역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지방에서는 최근까지도 나무를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임야개척의 현장을 도처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으며, 마을이나 가옥 주변에 개척되다 군데군데 남아 있는 도상(島狀)의 잔존림(殘存林), 그리고 이른바 산촌(散村) 경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가옥과 경지와의 연결현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는 점.

〈사진〉 임야개척

임야개척은 인간집단이 토지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을 가장 잘 살필수 있는 대표의 하나이다. 서산의 역사는 결국 「임야개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야산 개발은 특히 해방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개간할 때 베어낸 나무가 밭 한쪽에 쌓여 있다.



둘째 : 서산지방 촌락의 역사는 해만개척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태안반도의 해안은 해안선의 출입이 많고 간석지가 많아서 일찍부터 농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개척될수 있는 곳이 많았다. 태안반도 지방에서는 '어염시수' (漁鹽柴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와 소금, 소금을 구워내기 위한 땀감,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식수)이 있는 곳이면 촌락입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곳이었다. 실제로 태안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육지의 굴곡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주민들도 그 연대를 알지 못하는 오래된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고, 과거에 소금을 굽던 장소인 '벗터' 또는 '벗말'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산지방 촌락의 역사는 곧 「해만개척의 역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 한국 촌락을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때, 오늘의 우리나라 촌락의 원형(原型)을 동족촌(同族村)에서 찾아야 하며, 동족촌의 변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촌락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동족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곳에서는 특정 씨족이 어떤 곳에 입향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후, 그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 그들의 주변지역을 개척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곧 우리나라 촌락의 형성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가. 임야개척과 촌락형성

(1) 조선시대의 농지개간과 촌락

임진왜란을 겪고난 17세기 초 우리나라는 허다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경작면적의 감소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과 국가재정의 궁핍은 중대한 문제였다. 실제로 임진난 이전 경지면적은 150만결(結) 내지 170만결 정도이던 것이 임난 이후 광해군 시대에는 54만결 정도로 축소되어 있었다.

농촌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의 정부로서는 임진난 이후의 이러한 상황하에서 커다란 재정적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여 농경지를 확장하고 흩어졌던 농민들을 안주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양전사업(量田事業)과 개간사업(開墾事業)이었다.

이 때 정부의 개간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인정하여 개간을 장려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세하여 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간정책의 결과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산간지역이나 심지어 해택(海澤)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한광처(閒廣處)도 없다고 할만큼 전국의 토지가 개간·확장되어 있었다.

순조 26년(1825)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민정시찰의 임무를 띠고 안면도에 이르기까지 충청도 일원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한 내용중에,

비록 궁벽한 산골짜기나 바닷가의 한치의 땅이라도 모두 이미 개간되어 한두둑의 높고 있는 땅이라고는 없습니다.

(山峽地間 海澤之濱 寸土尺地 皆已起耕 實無一畝閒廣之地)

라고 보고할 만큼 개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촌락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인 영조때의 관찬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리별로 호수(戶數)와 구수(口數)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촌락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제 「여지도서」에 기록된 서산군·해미현의 리별 호·구수를 규모별로 뽑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0호 이상(팔호안은 호구수임)

서산군 : 大寺洞面 邑內里(118), 郡內面 驛里(132), 禾邊面 牛川里(131), 馬山面 葛馬串里(106)·不毛洞里(103), 大山面 令田里(106)·金生洞里(108)·竹葉里(122)

해미현 : 東面 驛里(103)

80호 이상~100호 미만

서산군 : 仁政面 公須洞里(85), 禾邊面 泰田里(89), 蘆旨面 牛山里(80) · 麻田里(82), 永豐倉面 墻北里(92), 冬音岩面 鞍峙里(89), 大山面 其隱串里(86)

해미현 : 東面 城內里(94) · 深谷里(94), 西面 杜陵洞里(80) · 桃李島里(80)

50호 이상~80호 미만

서산군 : 吾山面 德之川里(54), 郡內面 路上里(75) · 路下里(69), 仁政面 毛其大里(72), 禾邊面 倭懸里(56) · 大頭里(71), 蘆旨面 芒峙里(60) · 山北里(62) · 葛峙里(690), 永豐倉面 於隱洞里(954), 文峴面 松峙里(55) · 虎頭里(550) · 方吉里(75) · 大洞里(54) · 黑石里(60) · 蓮花里(53), 地谷面 黑店里(73) · 而沙里(58) · 大鳥串里(52), 聖淵面 沙場里(57) · 日豪里(58) · 坪村里(58) · 鳴川里(52), 冬音岩面 王峙郎里(57) · 求道洞里(57) · 葛洞里(78) · 伐里(68), 大山面 塔洞里(67) · 馬南里(76) · 吾池里 · 平薪鎭里(79)

해미현 : 東面 路上里(51), 二道面 安好里(54) · 水鐵店里(51), 鹽率面 烽底里(52) · 鋒里防里(52), 西面 造令律里(63)

15호 이상~50호 미만

서산군 : 大寺洞面 栗枝里(41) · 石旨里(26) · 南院里(41) · 南門外里(34), 豆峙面 富興洞里(31) · 山底里(34), 木果洞里(34), 蘆峙里(25) · 紅川里(37), 銅巖面 大橋里(24) · 注洞里(31) · 炭洞里(47) · 加土谷里(34) · 富多里(45) · 內洞里(19), 吾山面 獐洞里(22) · 內吾山里(49), 栗串面 余田里(19) · 九萬里(39), 郡內面 夜味洞里(46), 仁政面 都洞里(38) · 艾堂里(36) · 梁越里(33) · 山底里(35) · 東幕里(25), 禾邊面 山底里(25) · 大岑里(37) · 看月島里(48) · 馬龍橋里(47) · 沙店里(20) · 金掘里(28), 馬山面 土洞里(25) · 江境里(40) · 柯田里(35) · 沙場里(42) · 芒峙里(46), 蘆旨面 星山里(16) · 內洞里(33) · 東山里(35) · 竹寺里(24) · 金谷里(43), 永豐倉面 亭子里(32), 文峴面 德洞里(38) · 紅店里(16) · 苜卜里(28) · 地把洞里(16), 地谷面 於賢里(45) · 栗谷里(46) · 長而峙里(15) · 中村里(40) · 王山里(34) · 古水鐵里(16) · 猪走里(32) · 豆毛谷里(32) · 頓地里(22) · 熊島(25), 聖淵面 牙南里(23) · 三古介里(43) · 藍洞里(24) · 細橋里(480) · 葛古介里(23) · 葛峴里(35) · 馬鳴里(18) · 外城村里(22) · 內城村里(24) · 上率禮洞里(22) · 下率禮

洞里(48), 冬音岩面 文起里(17)·小冬音岩里(22)·獐洞里(32)·夫山里(28)·南堂里(20)·東巨里(22), 大山面 門串里(34)

해미현 : 東面 東門外里(36)·路下里(38)·日岳洞里(20)·水源洞里(17)·甌山里(25)·鶴岩里(15)·鳥洞里(16)·三峰里(28)·松峙里(20)·分紅里(18)·川邊里(31), 南面前川里(45)·貴密里(47)·舊良陵里(33)·新良陵里(18)·長城里(16)·道村里(25)·加佐洞里(31)·斜陽洞里(15)·猪城里(22), 二道面 長生洞里(16)·古音谷里(31)·八骨里(25)·中山里(22)·盆店里(25)·黑峴里(23)·場平里(33)·宿龍坪里(19)·會仙洞里(27)·佐世里(27), 一道面 余美里(45)·上炭洞里(23)·下炭洞里(38)·掘山里(38)·馬項里(31)·豆堂洞里(18)·鳳生里(34), 鹽率面 山底里(17)·德石洞里(17)·下城山里(40)·道伊洞里(36)·葛洞里(36)·下道叱洞里(15)·三古谷里(15)·升山里(21)·大鳥洞里(20), 西面 景峙里(17)·長旨里(18)·井谷里(24)·右峙里(20)·城浦里(21)·赤鮑里(15)·赤鼠里(44)·沙器所里(32)·出浦里(41)·出浦鮑里(28)·倉里(22)·古自川里(34)·馬沙里(31)

15호 미만

서산군 : 大寺洞面 校洞里(12)·塔洞里(5), 豆峙面 排峙洞里(10), 銅岩面 蘆乃洞里(11)·吾里洞里(4)·蘇耽里(11), 吾山面 南光之里(5), 蘆旨面 馬山里(9), 永豐倉面 古城里(11), 文峴面 古波島里(10), 地谷面 長而峙里(15)·部將洞里(7), 冬音岩面 芑山里(10)·古陽洞里(12)·開心洞里(12)·求水洞里(8)·加土谷里(12)·古昌洞里(11)

해미현 : 東面 造山里(13)·堂山里(11)·鶴岩里(15)·古縣里(14), 南面 雄梳城里(7)·堰內里(14)·船所里(3)·石浦里(11)·堂山里(13)·斜陽洞里(15)·機池里(9), 二道面 高色里(3)·江堂里(10)·軍莊洞里(7)·獐項里(14), 一道面 元堂洞里(13)·德谷里(10)·於是山里(12)·盆店里(7), 鹽率面 夢梅洞里(11)·方正洞里(7)·上道洞里(12)·下道叱洞里(15)·三古谷里(15), 西面 盆店里(9)·赤鮑里(15)

이상 「여지도서」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의 행정동리로 비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100호 이상의 규모가 큰 취락은 서산시의 읍내동·풍전동(역말), 부석면의 대두리·갈마리·가사리, 대산읍의 영담리·대산리·대죽리, 해미면의 동암리(역

말)로 나타나고 있다. 「여지도서」 당시의 총호수가 13,538호(서산군 6,620, 태안군 4,373, 해미현 2,591)인 것을 감안할 때 100호 이상의 규모를 갖는 취락이란 당시로서는 실로 대촌(大村)이었다.

이들은 행정중심지인 읍, 교통기능을 담당했던 역말, 방어기능을 담당했던 진취락(鎭聚落)이었다. 부석면의 대두리·갈마리·가사리는 적돌만에 면해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도 서산지방에서 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며, 대산지역은 조선시대에 목마장과 수군(水軍) 첨사(僉使)가 주둔했던 곳이며, 해안지역에서는 어업과 제염업이 성했던 곳이다. 또 이에 버금가는 80~100호 미만의 큰 취락들은 현재의 서산시 주변, 인지면·부석면 일대, 그리고 팔봉면·음암면 일부, 대산의 기은리 등이다. 서산에서는 '성전노답'(聖田蘆畚)이란 말이 있다. 즉, 밭(田)의 으뜸은 성연면이고, 논(畚)의 으뜸은 노지면(현 서산시 서부, 인지면 일대)이란 뜻이다. 이와같이 영농조건이 좋은 곳은 「여지도서」 당시인 18세기 중엽에도 이미 대촌(大村)을 형성하고 있었다.

② 50호 이상 80호 미만의 취락들은 대체로 산록이나 '골'에 입지하여 자연유수(自然流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어 수전농업(水田農業)으로서의 경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촌락들은 소하천유역의 경지를 생활기반으로 삼고 꼭지에 의존하는 형태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촌락입지유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입지와 규모의 유형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촌락들은 생성시기가 오래된 촌락으로 볼 수 있다.

③ 50호 이내의 소촌들은 자연유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구릉지위에 위치한 취락들이 대부분이다. 태안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구릉지는 개척의 역사가 늦어서 근래까지도 임지나 황무지로 남아 있던 곳이며, 이런 곳에서 가장 산촌(散村) 혹은 소촌적(小村的)인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호수를 통해 18세기 중엽 서산지방 촌락의 규모와 입지를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서산지방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산촌적인 형태와 집촌적인 형태의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촌락의 형성·발달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촌락의 발달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촌락의 형태는 산촌(散村) 내지 소촌(小村)의 형태에서 집촌(集村)의 형태로 진전되어 가리라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겠으나, 서산지방이라고 하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자연유수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었던 곳에서는 일찍부터 수전농업이 발달하여 집촌(集村)으로 발전해 온 반면, 자연유수의 구득이 어려운 구릉지 위에서는 개척의 역사가 지연되어 최근까지도 임지나 황무지로 남아 있게 되었고, 이런 곳에서 가장 소촌(小村) 혹은 산촌(散村)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임야 혹은 황무지는 소위 「한광처」(閒廣處)로 조선시대부터 무전민들의 개척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런 곳에서 가장 모식적인 임야개척에 의한 촌락형성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던 곳이었다. 따라서 개척의 유물인 도상(島狀)의 잔존림, 경지와 가옥의 연접현상,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는 집도 짓지 아니하고, 남에게 땅을 빌려주지도 않고 또 빌려받지도 않는다'는 서산지방 독특한 분가양식이나 택지선정방식 등 가장 산촌적인 요소와 경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도 바로 이런 곳이었다. 이 신개간지는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 토지자본의 상륙, 8.15해방과 6.25동란, 1960년대 이후의 정부의 농지확장정책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집단의 정착을 유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 전개과정을 형성해 왔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ㄴ) 일제시대 및 해방후의 임야개척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기 이전부터 전국토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의 임야에 대하여 조직적인 수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수차에 걸쳐 임야조사를 실시했다. 일제치하에서의 「조선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그들의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대목표였다.

일제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국유미개간지 취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노일전쟁을 전후한 1903~1904년 경부터이다. 이때부터 한일합병까지의 사이에 일본 대제벌의 토지투자가 적극화되어 조선흥업주식회사, 조선척식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한국의 국유미개간지를 취득하거나 황무지 개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1907년 「국유미개간지이용법」이 공포되어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간석지 등의 미개간지 개발이 촉진되었으나, 이것은 일인 식민회사의 토지점유만이 조장되었을 뿐, 조선말엽까지 무전의 농민들에게 인정되어 오던 「경작권」, 「개간권」, 「도지권」, 「입회권」 등이 박탈되었다.

일인의 토지점유는 1910~1918년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었는데, 역둔지(驛屯地)를 비롯하여 왕실소유지, 임야, 원야, 화전 등이 국유지로 편입되고, 이들 국유지의 상당한 부분이 일인토지회사에 불하된 것이다. 1909~1910년의 두해 동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미개간지의 면적은 8,727정보에 달했다. 그리고 한일합방의 해인 1910년 6월말까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토지의 총면적은 실로 2억8백9만6백29평(약 7만6천여정보)에 달하는 막대한 양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같이 일본자본의 상륙은 이미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전후에 적극화 되었고, 토지조사사업의 개시년도인 1918년부터 1934년까지는 전국에 걸쳐 적극적 개간

과 경지확장이 수행되었던 시기였다. 일인토지회사들은 이 기간중에 김제, 옥구, 금강유역, 낙동강, 남강하류, 북한의 용천, 정주 등지에서 대규모의 개간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서산지방에 진출했던 일본 토지자본으로는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가 있었다. 이 불이흥업주식회사는 1918년에 평북 용천에 농장을 세웠고, 1924~1925년에는 전북 옥구군에 불이모범농장(不二模範農場)을 세워 일인이주자들을 입식시켰던 굴지의 일인토지자본이었다. 불이흥업이 오늘의 해미·고북면 일대의 임야를 개간하고 「농장촌」을 건설하려 했던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 즉, 타지역의 개간보다는 비교적 늦게 진출한 셈이었다. 이 지역에 불이흥업이 관여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지역이 황무지였거나 국유미개간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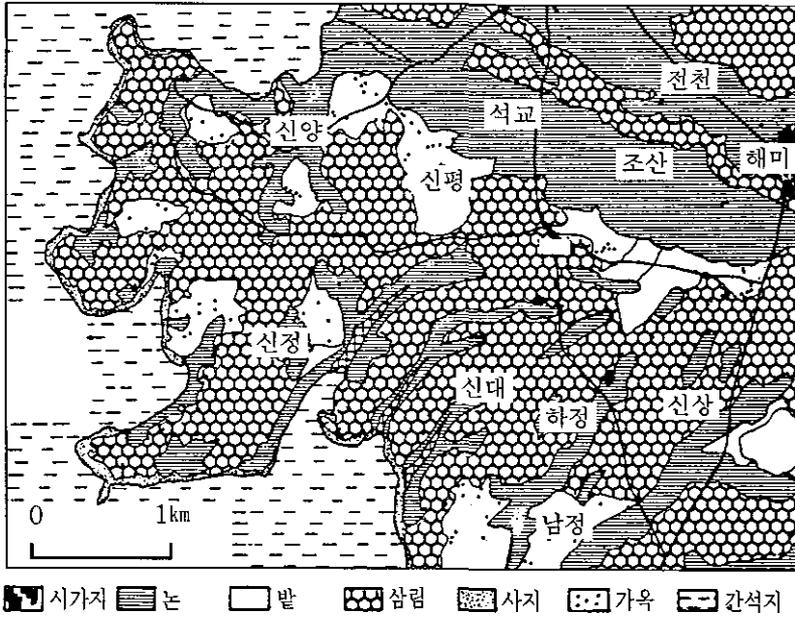
해방 후 일인소유의 토지는 동양척식회사를 승계한 「신한공사」나 불이흥업을 승계한 「해동공사」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해미·고북면 일대에서는 주로 해동공사의 주관 아래 토지의 불하, 임차, 매매가 이루어져 개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의 과도기로부터 6.25동란까지는 개간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 지역의 임야가 거의 개간되어 밭으로 바뀐 것은 6.25동란 이후이다.

〈그림 4-2-7〉과 〈그림 4-2-8〉은 해미·고북면일대 소위 「비행기들」이라고 불리는 구릉지의 상부에서 천수만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임야가 어떻게 경지·가옥으로 변해졌는가를 1919년의 지형도와 1985년의 지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1919년 지형도에서 보면 이른바 개석곡지(開析谷地)인 '골'에 남정(南井)·신정(新井)·고정(古井)·상정(上井)·하정(下井)의 취락이 있을 뿐, 해미·고북면 일대의 구릉지는 대부분 임야로 덮혀있던 것이 1985년의 지형도에서 보면 구릉지의 대부분이 논, 밭, 가옥으로 개척되고 임야는 일부지역에만 축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인간의 개척에 의해 임야가 그만큼 파괴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간에 의한 개척의 역사는 곧 삼림개척의 역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미·고북면일대의 이 「비행기들」이 최근에 공군 제20비행단의 기지로 바뀐 것은 지명이 갖는 아이러니칼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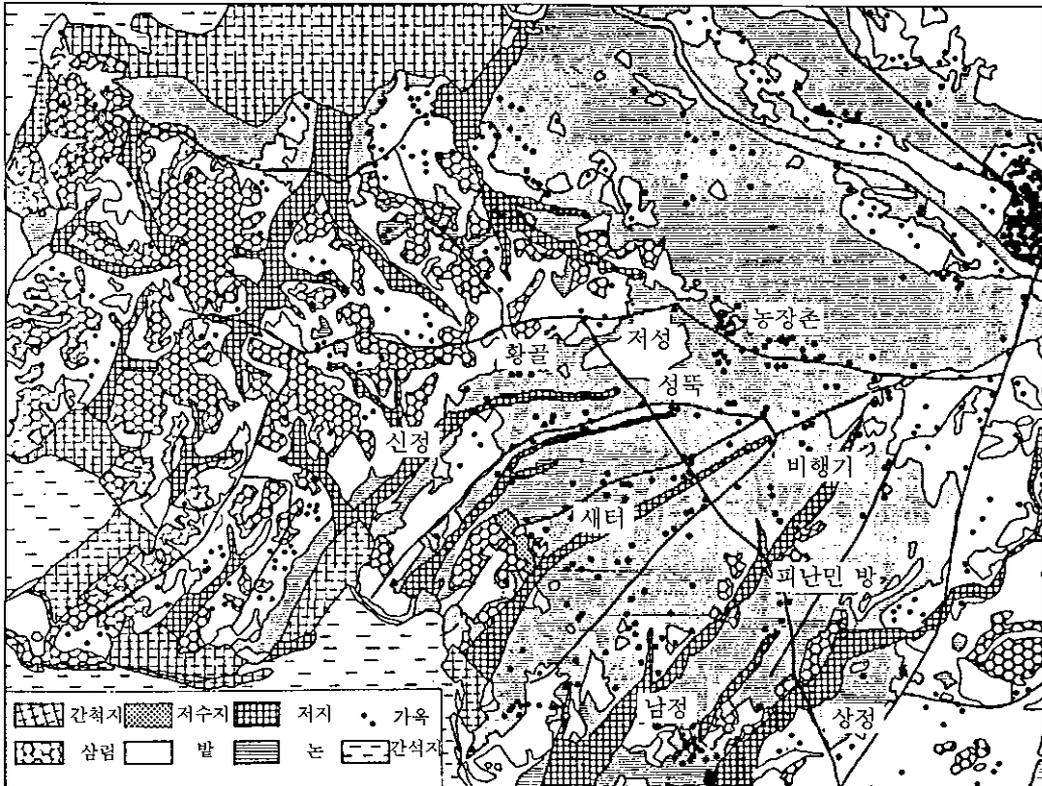
한편, 여기서 임야가 개간되어 밭(田), 논(畓), 집터(垜地)로 변한 구체적 예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4-2-9〉이다. 〈그림 4-2-9〉는 지곡면 도성리의 일부이다. 지곡면 도성리의 경우, 임야의 개간은 1930~1940년대, 1950-1960년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성리의 임야개간의 실예를 통해 서산지방 임야개척의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4-2-6〉와 〈표 4-2-6〉은 서산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보관중인 1962~1986년 사이의 임야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4년 동안 총 15,286,709평의 임야가 경지로 바뀌었고, 그 평균개간면적은 2,440평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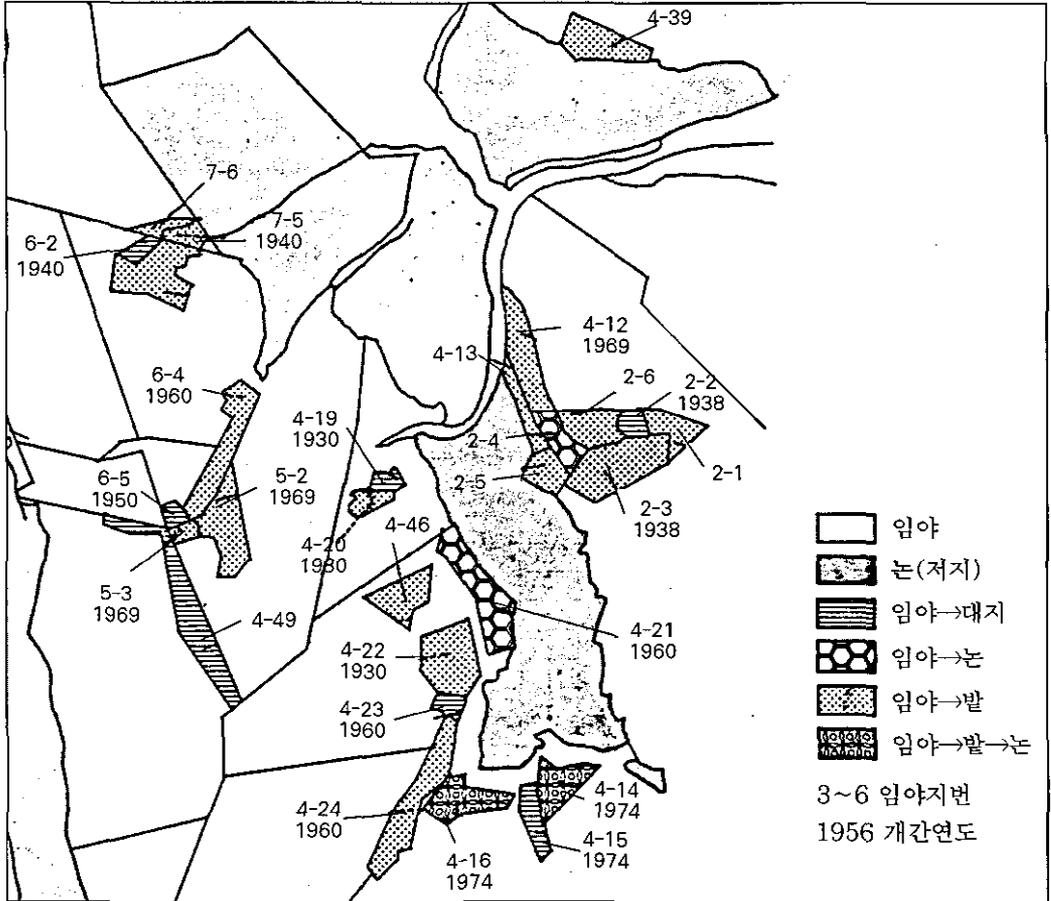
〈그림 4-2-7〉 해미·고북면일대의 임야개척과 촌락분포(1919)



〈그림 4-2-8〉 해미·고북면일대의 임야개척과 촌락분포(1985)



〈그림 4-2-9〉 임야개간의 실례(지곡면 도성리)



나고 있다.

임야개간의 실상을 보면 식량증산, 상전조성, 목초지개발을 위한 정부주도하의 대단위임야개발도 있었지만, 개인이 정부에 개간신청을 내서 임야를 개간하는 그야말로 인간에 의한 임야개척의 생생한 기록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개인소유의 경지를 확장하기 위한 임야개간도 있었겠지만 자식에게 가옥과 농토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임야개간도 있는 등 그 사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한편 〈표 4-2-5〉와 〈표 4-2-6〉를 볼 때, 서산의 임야개간 면적이 연도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임야개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1964~1966년 사이에 개간면적이 많은 이유는 당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지를 조성하는데 미국의 무상지원양곡(PL480)에 의한 보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PL480호 양곡의 보조는 우리나라 임야개척에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9년에 개간면적이 급감한 이유는

이 무렵에 PL480호 양곡의 보조가 중단된 데다가 피복물이 많은 임지의 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4~1978년 사이에 다소 임야개간면적이 증가하는 이유는 농지개간을 위한 촉진법이 개정되어 임야개간에 대한 제한이 완

(표 4-2-5) 서산군의 임야개간면적(1962~1986)

(단위 : 평)

연도	서산	태안	안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대산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남	근흥	소원	원북	이북	계
1962	149,790				130,200	55,800		19,500	15,000	166,926	31,140	27,000		82,950	21,510	79,200			779,016
1963	76,440	101,970	9,600	9,270	33,300		24,870	59,400	4,200	66,300	65,137	53,280	115,080	84,300	13,380	62,100	10,200	540	789,367
1964	153,430	261,355	300,901	57,480	44,730	47,970	33,360	129,570	24,810	222,160	250,017	97,160	171,800	113,140	105,330	73,590	68,910	70,550	2,227,963
1965	267,654	271,220	105,900	83,126	178,740	139,050	143,340	209,670	82,080	321,753	198,120	133,720	209,310	118,170	119,580	111,720	89,670	104,580	2,887,403
1966	47,895	248,512	15,000	27,870	108,525	73,200	35,670	116,560	43,464	141,584	134,400	35,610	90,580	118,820	295,462	36,327	44,160	68,080	1,681,719
1967	68,819	112,020		17,066	59,288	25,147	46,770	60,360	11,610	37,980	20,739	43,486	99,055	18,360	34,290	33,150	30,330	56,700	775,170
1968		98,619		24,090	90,796	16,740	32,880	27,960	14,850		4,380	390	51,270	112,029	94,349	99,900	104,040	82,590	854,883
1969	8,820	10,380			2,767	27,570							13,740						63,277
1970		31,770		5,850	5,700	7,740	2,190			7,890	24,077		14,100	4,110		5,700		2,400	111,527
1971	15,531	6,300		10,500	12,960					10,500		9,000	8,100	1,500		5,400			79,791
1972	1,500			3,900					3,000	3,000	4,110		5,700						21,210
1973	15,570	23,550		7,500	18,720	17,850	1,512	36,600		8,610	3,000	12,900	2,343	32,100					180,256
1974	36,942	40,860		33,060	93,090	18,091	9,840	27,660	21,630	24,690	18,780	40,770	41,306	28,560	7,200	9,930	12,480	13,650	478,539
1975	54,647	31,200	900	33,997	62,208	15,270	54,330	91,560	33,000	27,210	75,532	42,727	67,790	42,210	23,460	31,503	81,522	14,040	783,016
1976	26,886	92,123	15,720	48,552	125,775	103,425	31,770	67,572	18,600	36,125	1,959	62,412	181,072	11,430	45,169	46,068	13,440	9,000	937,098
1977	88,416	158,085	3,025	14,417	86,067	135,587	40,023	119,756	45,844	60,089	26,548	55,670	91,795	6,412	53,938	16,120	130,459	54,661	1,168,912
1978	8,135	30,634		4,778	41,355	30,737	41,163	18,904	4,295	27,795	13,007	11,749	48,738	1,004	17,180	11,674	4,415	16,586	332,149
1979		13,706	389		3,279	4,851	2,306		1,833	8,893	807		16,823	3,873	6,049		1,876		58,636
1980							2,999			1,731									10,779
1981	897	9,232	397	5,542						2,200			1,366	5,789	1,267		8,463		35,153
1982	1,200	11,848		3,448	1,270	2,056		1,815	1,005		1,203	6,454	3,025	1,754		3,262	998		38,338
1983	453	10,246		1,059	3,988	3,770		3,025		4,816		11,436	454	2,980	2,395			4,205	48,826
1984	34,643	26,205		13,184	15,111		22,995			9,611	3,086	4,172	20,466	16,675	17,346	8,302	21,159	2,006	214,961
1985	17,733	44,360		7,862	47,253	1,201	5,222	4,822	4,041	49,676	2,299	17,827	23,504	14,787	8,786	7,263	1,365	787	258,788
1986	34,255	92,071		25,598	79,185	15,657	8,011	21,119	1,301	88,262	13,099	25,699	22,376	51,631	24,914	10,204	9,511	4,721	527,614
계	1,109,656	1,705,845	449,775	435,275	1,236,472	731,305	537,643	1,015,722	330,563	1,324,139	891,440	689,042	1,299,158	864,930	878,375	650,475	630,698	605,196	15,285,709

자료 : 임야개간 허가이장(서산군 건설과 농지계)

〈표 4-2-6〉 서산군의 임야개간건수 및 평균개간면적(1962~1986)

(단위 : 평)

연도	읍면	서산	태안	안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대산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남	근흥	소원	원북	이북	계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개간면적	개간건수
1962	A	14				9	4		5	1	24	3	1		15	4	4			84
1962	B	10,699				14,466	13,950		3,900	15,000	6,955	10,380	27,000		5,530	5,377	19,800			9,274
1963	A	22	19	1	3	9		7	22	1	14	13	16	27	4	3	3	3	1	172
1963	B	3,474	5,366	9,600	3,090	3,700		3,552	2,700	4,200	4,735	5,010	3,330	4,262	21,075	4,460	8,871	3,400	540	4,589
1964	A	54	98	19	32	28	29	22	38	8	66	56	37	50	31	58	28	44	23	721
1964	B	2,841	251,355	16,836	1,796	1,597	1,654	1,544	3,409	3,101	3,366	4,465	2,626	3,436	4,250	1,816	2,628	1,566	3,071	3,090
1965	A	111	123	19	61	98	61	56	111	30	132	54	62	107	47	69	71	49	52	1,308
1965	B	2,411	2,205	5,573	1,362	1,921	2,279	2,559	1,888	2,736	2,437	3,668	2,156	1,956	2,514	1,733	1,573	1,830	2,011	2,207
1966	A	25	49	5	18	53	40	27	74	28	62	39	15	50	32	36	35	20	44	652
1966	B	1,915	5,071	3,000	1,548	2,047	1,830	1,321	1,575	1,552	2,283	3,446	2,374	1,811	3,713	8,207	1,037	2,208	1,547	2,579
1967	A	29	57		16	44	20	23	34	9	17	12	26	38	16	31	25	28	48	473
1967	B	2,373	1,965		1,067	1,347	1,257	2,033	1,775	1,290	2,234	1,728	1,673	2,607	1,148	1,106	1,326	1,083	1,181	1,638
1968	A		21		12	31	3	11	11	3		1	1	7	20	23	24	19	12	199
1968	B		4,696		2,007	2,928	5,580	2,989	2,541	4,950		4,380	390	7,954	5,601	4,102	4,162	5,475	6,882	4,295
1969	A	2	2			1	2							5						12
1969	B	4,410	5,190			2,767	13,785							2,748						5,273
1970	A		8		5	3	2	1			2	3		4	2		1		1	32
1970	B		3,971		1,170	1,900	3,870	2,190			3,945	8,025		3,525	2,055		5,700		2,400	3,485
1971	A	7	2		2	2					4		3	3	1		1			5
1971	B	2,218	3,150		5,250	6,480					2,625		3,000	2,700	1,500		5,400			3,191
1972	A	1			1					1	1	2		2						8
1972	B	1,500			3,900					3,000	3,000	2,056		2,850						2,651
1973	A	4	9		2	9	4	2	6		6	1	3	3	3					52
1973	B	3,892	2,616		3,750	2,080	4,462	756	6,100		1,435	3,000	4,300	781	10,700					3,466
1974	A	19	15		10	17	10	12	14	9	11	9	10	22	10	2	4	6	11	191
1974	B	1,944	2,724		3,306	5,476	1,809	820	1,976	2,403	2,245	2,087	4,077	1,878	2,856	3,600	2,483	2,080	1,241	2,505
1975	A	18	14	1	13	22	5	19	41	12	12	26	17	25	8	7	18	20	4	282
1975	B	3,036	2,229	900	5,230	2,828	3,054	2,859	2,233	2,750	2,268	2,905	2,513	2,712	5,276	3,351	1,750	4,076	3,510	2,776
1976	A	12	60	6	31	70	47	28	73	10	29	1	36	77	7	30	21	9	1	548
1976	B	2,240	1,535	2,620	1,566	1,796	2,201	1,134	925	1,860	1,246	1,959	1,733	2,351	1,632	1,505	2,193	1,493	9,000	1,710
1977	A	44	71	1	8	41	18	76	9	48	18	32	49	2	37	9	67	50	641	
1977	B	2,009	2,226	3,025	1,802	2,099	2,222	2,223	1,575	5,093	1,251	1,474	1,739	1,873	3,206	1,457	1,791	1,947	1,093	1,851
1978	A	7	16		5	23	17	24	7	2	15	4	5	17	1	9	7	3	8	170
1978	B	1,162	1,915		956	1,798	1,808	1,715	2,701	2,148	1,853	3,252	2,350	2,867	1,004	1,908	1,668	1,472	2,073	1,953
1979	A		6	1		2	3	2		1	4	1		4	3			1		28
1979	B		2,284	389		1,640	1,617	1,153		1,833	2,223	807		4,206	1,291			1,876		2,094
1980	A							1			1					2				4
1980	B							2,999			1,731					3,025				2,695
1981	A	1	3	1	2						1			1	2	2		6		19
1981	B	897	3,077	397	2,771						2,200			1,366	2,895	634		1,411		1,850
1982	A	1	6		3	1	2		1	2		2	12	1	1		2	1		35
1982	B	1,200	1,975		1,149	1,270	1,028		1,815	503		602	538	3,025	1,754		1,631	998		1,095
1983	A	1	6		1	3	5		1		5		7	2	7	3			3	44
1983	B	453	1,708		1,059	1,329	754		3,025		963		1,634	227	426	798			1,402	1,110
1984	A	13	18		9	12		1			7	3	8	18	8	12	6	14	1	130
1984	B	2,665	1,456		1,465	1,259		22,995			1,373	1,029	522	1,137	2,084	1,446	1,384	1,511	2,006	1,654
1985	A	7	28		5	30	1	4	4	3	26	1	12	8	14	6	4	3	1	157
1985	B	2,533	1,584		1,572	1,575	1,201	1,306	1,206	1,347	1,911	2,299	1,486	2,938	1,056	1,464	1,816	455	787	1,650
1986	A	17	79		13	54	13	6	9	1	34	4	12	17	35	17	6	5	6	328
1986	B	2,015	1,165		1,969	1,466	1,204	1,335	2,347	1,301	2,263	3,275	2,142	1,316	1,475	1,466	1,701	1,902	787	1,608
1986	합	409	697	53	250	652	326	263	526	130	517	253	914	536	280	344	272	295	266	6,263
1986	합	2,713	2,447	6,486	1,741	2,239	2,243	2,044	1,931	2,542	2,561	3,523	2,194	2,423	3,326	2,553	2,391	2,137	1,899	2,440

개간건수(A), 평균개간면적(B)

자료 : 임야개간 허가이장(서산군 건설과 농지계)

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979~1983년 사이에 개간면적이 다시 급감하는 이유는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다시 개간면적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계화영농을 위한 대단위농지조성이 이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해만개척과 촌락형성

(ㄱ) 우리나라의 해만개척약사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인 고려 고종 35년(1248)에 병마판관 김방경(金方慶)이 안주의 갈대섬(葦島)에 제언을 축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몽고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에 피난하여 있던 고종43년(1256)에 강화의 제포·와포·초포·이포 등에 제언을 축조하여 군량미와 백성들의 식량을 조달하였던 사실이 우리나라 해만개척의 시작인 것 같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약 100년간은 국력의 강화와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치수와 수리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인조에서 정조에 이르는 160년간은 조선시대 치수사업의 부흥기로서 조선시대 최대의 어지둔보(於之屯淤)는 인조 21년(1643)에 완성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의 간척사업은 일본 자체의 식량부족과 태평양전쟁에 따른 「산미증산계획」이 수립되면서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예를들어 1917~1938년 사이에 완공된 간척지면적만 하여도 178개지구 40,880정보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1929년에는 개간간척지 이주장려보조규칙이 제정·공포되고 간척사업의 보조율이 50% 인상되는 등 지원조치가 강구되어 개인 차원의 간척사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대초까지는 경제적 불황과 국가의 재정난 등으로 신규사업 보다는 일본인에 의해 착수되었던 미완공지구의 준공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953년 부터는 UNKRA, FAO 등의 외원에 힘입어 500ha 규모의 강화지구 간척지가 조성되는 등 간척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민간차원의 소규모적 간척사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의 전개와 함께 대국토건설을 지향했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간척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무상지원양곡(PL480)이 지원됨에 따라 1962~1971년의 10개년 사이에 간척면허건수만도 무려 3,168건(민간 3,064건)에 달하였고, 준공건수 또한 1,656건(민간 1,625건)에 이르는 등 「간척붐」이 조성되었다. 당시에 착공된 동진강 수리간척사업(4,000ha)은 동양 최대의 역사였다. 그러나 1971년 부터는 무상지원양곡이 중단된데다가 국가의 경제정책 또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차원으로 추진되던 간척사업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식량증산

을 위한 간척사업 보다는 공장건설을 위한 매립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간척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힘입어 아산, 삼교천, 영산강, 대호지, 서산지구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대단위 농경지조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ㄴ) 태안반도의 해만개척

태안반도의 해만개척도 우리나라 해만개척의 역사와 대체로 맥을 같이해서 진전되어 왔다.

간척지는 조차가 크고, 큰 파도의 영향이 적으며, 해저경사가 완만한 해안에 잘 발달하는 해안퇴적지형이다. 태안반도 해안지역에는 이러한 간척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간척지는 농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간척지는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여 저위간척지(subtidal flat), 조간대(intertidal flat), 고위간척지(supratidal flat)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활발하게 간척되고 있는 부분은 조간대(潮間帶)이다.

일반적으로 고위간척지의 배후에는 염생식물이 성장하는 염생습지(鹽生濕地, salt marsh)가 발달한다. 염생습지에 개흙(mud)의 퇴적율이 증가하여 높은 조수 때에도 침수되는 횡수가 줄어들고 염생습지가 완전히 성숙되면 개흙의 퇴적율이 감퇴되는데, 여기에 방조제를 축조하면 훌륭한 농경지를 만들 수 있다. 간척지에 방조제를 축조하면 방조제 전면에는 다시 새로운 간척지가 형성된다. 이것은 개흙이 방조제 외측에 계속 퇴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다시 방조제를 축조하





〈사진〉 염전

소금의 생산은 과거 서산의 주요 품목이었다. 간석지를 간척할 경우 물(水)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논(沓)으로, 물을 얻기 어려운 곳이면 대개 염전(鹽田)으로 개척되었다.

여 또다시 새로운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근대적인 토목공사에 의한 대대적인 간척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인 20세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서해안에는 염생습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염생습지

는 전근대사회의 개척민들에게 경지확대의 좋은 장소가 되었다. 개척민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뒷쪽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차례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경지를 확대하여 나갔다. 사실 태안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는 주민들도 그 연대를 알지 못하는 오래된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에 연속된 해만의 개척역사는 곧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해만개척

서산지방 촌락의 형성은 「해만개척의 역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골’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은 흔히 위로부터 아래(바다)로 향하여 차례로 개척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사진〉에서 중앙의 도로는 과거에는 바닷물의 침수를 막는 제방이었다. 해만개척이 진행됨에 따라 아래에 염전이 만들어지고 도로 위와 아래는 농경지로 완성되었다.

(대산읍 기은리 금마재)



일제시대에는 비록 식민지 수탈이 목

적이기는 하였지만 일본자본의 상륙, 수리사업의 개선, 산미증산계획 등에 촉진되어 해만개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표 4-2-7>은 1918년부터 1931년 사이에 이루어진 서산군의 공유수면매립면적이다. 이 시기는 특히 산미증산계획이 고조되던 시기이다. 여기서 1927년 이후는 준공면적이 아니고 매립허가면적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태안반도 지역에서 해만이 개척되어 가는 경향은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매립허가면적도 일단 경지화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표 4-2-7>에서 보듯이 이 기간중에 총 약 6,000만평이 개척되었는데, 지역별로는 안면·해미지역에서 두드러지고, 남면·근흥·소원·태안 등지에서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서산군의 공유수면 매립면적(畝: 1918~1931)

(단위: 평)

연도	서산	태안	안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대산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남	근흥	소원	원북	이북	계
1918						9,703						615							10,318
1919		17,728	60,208									10,339							88,275
1920												48,728				11,218	6,908		66,854
1921			94,372									29,726							124,098
1922			302,007									1,300		165,522		21,727		490,556	
1923			266,628									5,320						271,948	
1924	131,606						15,807				4,327					100,254		252,264	
1925			384,462		719,108	5,134,800						101,351	14,217				286,015	6,639,933	
1926			1,502,597					4,081,029		657,516		275,267	23,200	237,121			863,829	7,650,559	
** 1927		201,226	446,584		838,400			8,632				106,656	44,912	621,532			32,256	2,300,197	
1928		106,317	106,416					328,626		168,107				1,462,794	259,939		7,401	2,449,600	
1929	16,02632		75,842			5,134,800						86,303					21,359,577		
1930		* 19,225,300	20,822									25,026	30,305	13,820				19,315,200	
1931			56,713											64,600				121,313	
計	16,194,238	19,562,580	3,318,651		1,557,508	10,279,303	15,807	4,428,287		106,671	672,991	1,561,211	1,208,230	129,159	1,189,500	61,134,794			920,658

* 三好和三郎이 부석면·태안면에 걸쳐 1930. 12. 31까지 매립(埋立)한 16,242,000평을 편의상 태안면에 포함시킴.

** 1927年 이후는 매립허가 면적임.

자료: 서산군지(1927)

<표 4-2-8>은 1952년부터 1986년 말 까지 34년 동안의 공유수면매립현황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총 약 1,000만평 정도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이를 연도별·지역별로 보면 8.15해방 이후 50년대초까지는 간척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5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는 공업화의

전개와 대국토건설을 지향했던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특히 미국으로 부터의 무상지원양곡(PL480)이 지원됨에 따라 「간척분」이 조성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외원양곡의 지원이 중단된데다가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개발계획으로의 전환과 함께 농업용 간척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재검토, 그리고 더욱 80년대에는 간척지 개발방식이 대단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에

〈표 4-2-8〉 서산군의 공유수면 매립 현황(1952~1986)

연도	유역	태안	안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대산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부	남	근흥	소원	원북	이북	서산	계
1952		31,055																		31,055
1953		16,917															11,745			56,657
1954			35,374										44,149							79,923
1955			71,236										49,781							125,181
1956			84,800										19,659		189,350		47,261			341,070
1957		48,922	20,924		122,827		78,101	231,386												502,160
1958			129,800			15,017	74,996						410,353	170,614				19,549		820,328
1959			74,996		37,182								405,895	74,137	126,824	217,024	189,105			929,853
1960		13,701	8,071		39,850			45,913				760		20,885			2,544			123,724
1961					47,085								913	29,462		3,558				31,018
1962								2,751	15,962						53,414					72,127
1963						19,332	25,197					18,795		1,716						65,040
1964		14,991					50,544	19,071	6,057					2,487		18,050	176,799	22,716		589,519
1965			11,160				19,278	6,057				32,933		4,866		882	28,521	16,046		126,683
1966		43,181	7,818		3,109	139	23,539	72,646	8,317				25,250	2,964	669	165,843	90,344	113,456	4,662	1,123,874
1967			3,552				21,553	88,523						205,297		13,446				333,401
1968			91,273			82,222	27,717	9,923							8,214			30,199		249,548
1969		42,543	39,234			86,563	22,506	169,968	27,788				64,376	8,214	65,408	26,506	132,863			686,049
1970						8,823	18,038										2,040	35,689		64,590
1971			58,488				62,407							66,060		10,673				197,628
1972							61,349													61,349
1973																227,930				227,930
1974			697,150													88,946				786,103
1975																116,214				116,214
1976			227,143																	227,143
1977																				
1978			209,112				486,658													695,770
1979		3,744	47,400			23,404		10,508					73,983		23,853					182,892
1980			152,678																	152,678
1981			310,364										414,000							724,364
1982			541,626															7,502		549,128
1983								31,947												31,947
1984													30,820		1,894					32,714
1985																		1,211		1,211
1986			395,094																	395,094
계		349,974	3,285,492	0	254,217	263,495	971,972	1,369,471	52,067	0	0	52,488	43,058	1,441,858	315,262	1,051,007	545,672	614,597	4,662	11,017,029

의한 간척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 기간중에 간척이 크게 이루어진 곳은 안면·대산·남면·소원 등지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는 지곡·이원·원북·태안·근흥 등지에서 간척이 많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표 4-2-7>, <표 4-2-8>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순전히 개인이 정부에 매립허가신청을 내서 경지로 만든 것이므로 태안반도의 생생한 해만개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속에는 누락된 것, 중복된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에는 지형도 작업을 통해 해안선의 변화(단축)와 간척지의 확대를 사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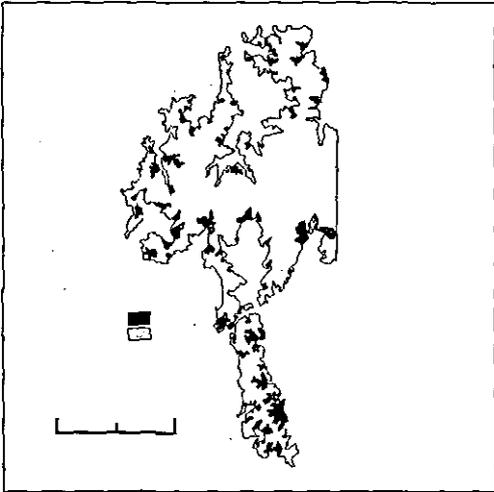
<표 4-2-9>는 1919년과 1979년 발행 1 : 50,000 지형도의 해안선을 그리고

<표 4-2-9> 매립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 및 간척면적(1919~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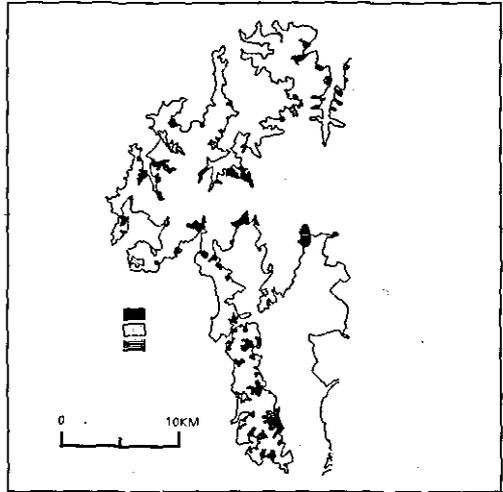
구분 도 폭	해안선의 길이 (km)			간척면적 (km ²)		
	1919년	1979년	단축된거리	간척농지	염 전	계
산 전 리	292.5	200	92.5	7.0	5.0625	12.0625
안 흥	180.9	98.8	82.1	13.375	2.625	16.0
안면도북부	235.6	136.2	99.4	8.6875	2.5625	11.25
안면도남부	166.5	82.1	84.4	4.5625	4.6875	9.25
서 산	64.9	46.7	18.2	16.0	5.0	21.0
방 축 리	63.2	44.0	19.2	2.6875	1.8125	4.5
계	1,003.6	607.8	395.8	52.3125	21.75	74.0625

이를 서로 겹쳐서 그 변화를 비교하고, 해안선의 변화가 특히 심한 곳의 지형을 판독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염전용간척지와 농업용간척지로 분류하고, 간척된 면적을 방안법(方眼法)에 의하여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표 4-2-9>에 나타난 결과는 일제시대 초기 이전에 간척으로 단축된 해안선 및 간척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4-2-9>에서 보면, 1919년 지형도에서의 해안선의 길이는 1,003.6km이던 것이 1979년 지형도에서는 607.8km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395.8km(40%)나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안반도에 있어서 인간집단에 의해 해만개척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사실을 실감있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태안반도의 역사는 해만개척의 역사라고 규정지을만 하다. 또 <표 4-2-9>에서 간척된 내용을 보면 가로림만에 해당하는 산전리 도폭, 안면도 남부 도폭에서는 농업용간척지에 비해 염전용간척지의 면적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안흥·안면도 북부·서산 등의 도폭에서는 농업용간척지의 면적이 월등히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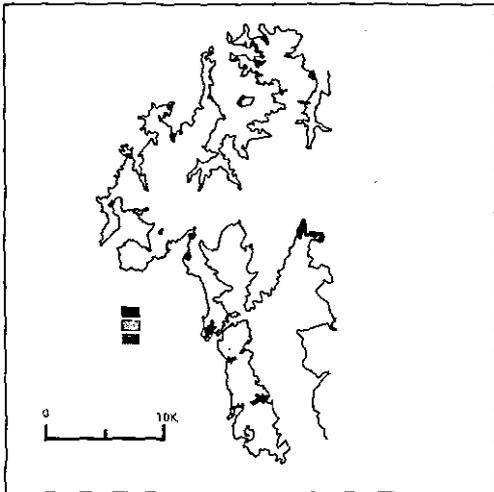
〈그림 4-2-10〉 태안반도의 해만간척(1919-1979년)



태안반도의 해만간척(1919~1979년)



농업용 간척지의 확대과정



염전용 간척지의 확대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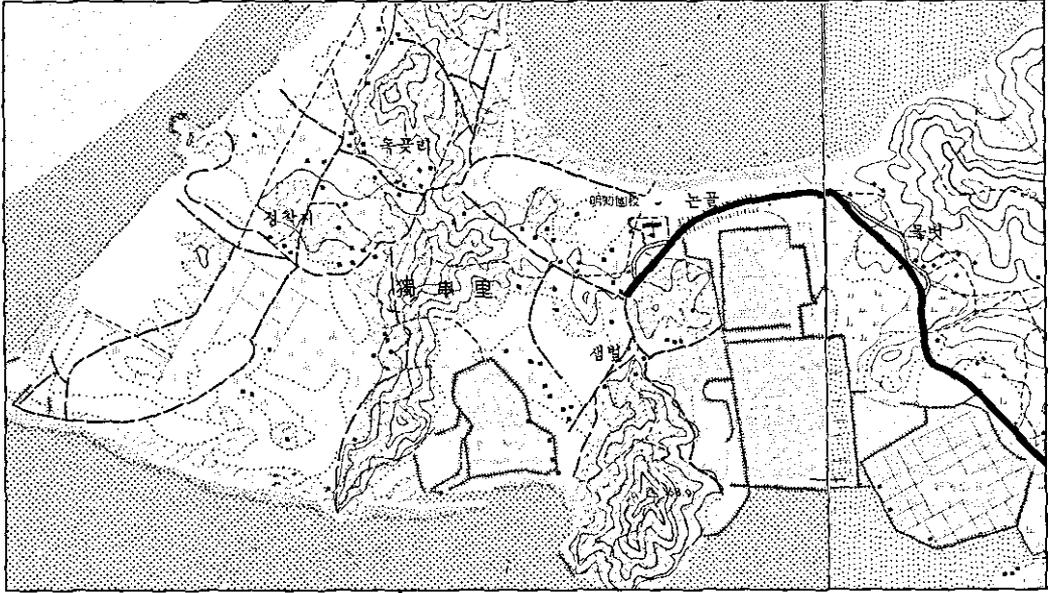
타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림 4-2-10〉은 현재의 1 : 50,000 지형도 위에서 농업용간척지와 염전용간척지를 판별해 내고, 이것이 대략 언제 개척이 되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해만개척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내용을 지형도 위에 표시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다. 간척이란 한 두 해에 한 두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러 해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므로 명확한 구분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대체적인 해만개척의 역사를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4-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전은 주로 가로림만 일대와 안면도의 중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농업용간척지는 태안반도의 중부 천수만에 면해 있는 지역과 안면도 일원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만개척의 예 : 대산읍 독곶부락의 경우

〈그림 4-2-11〉 독곶지역의 지형도(1:50,000)



대산반도의 북서단에 위치한 독곶부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속하는 곳으로서, '수등말', '동작말', '섬팔', '논팔', '큰들', '목벚'의 6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된다(그림4-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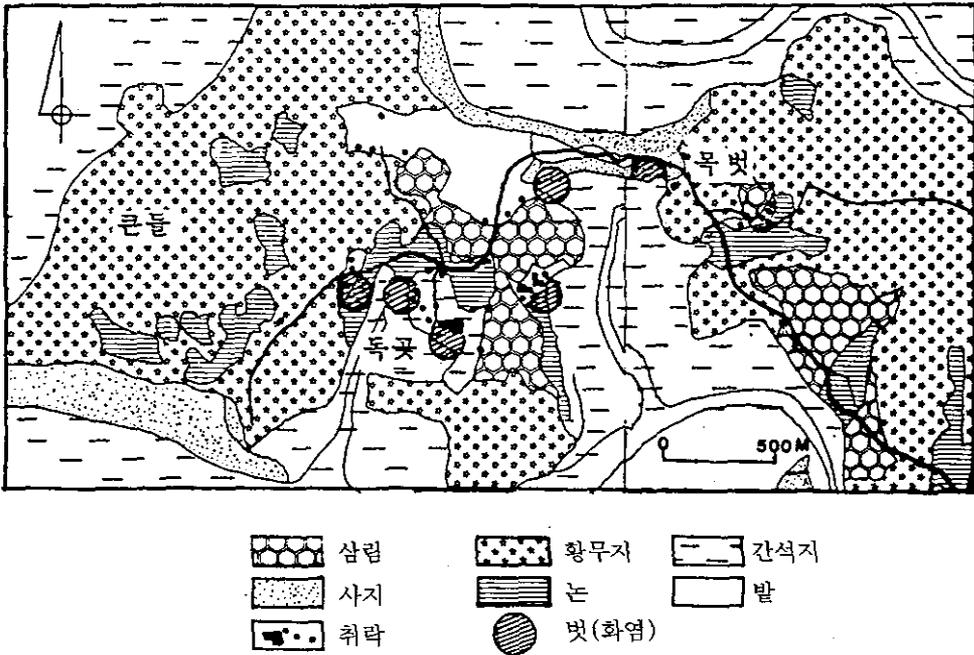
목벚과 독곶 사이, 독곶과 황금산 사이에는 육계사주가 발달되어 있고, 이외에도 곳곳에 사취와 석호가 발달하여 독곶일대의 만입은 파랑이 잔잔하여 간석지가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독곶일대의 해만개척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독곶리 일대에서의 해만과 관련한 생산활동은 어업(漁業)과 제염업(製鹽業)이었다. 일제시대 초기까지 독곶부락에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던 가구는 3~4호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 기술 또한 유치하여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만든 '살'을 이용한 어전어업(漁箭漁業) 내지 연안어업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주요 어종은 굴, 조개, 숭어, 조기 등 서해안에서 널리 잡히는 것들이었고, 독곶부락 주민들은 이를 서산으로 지고 가서 팔았다.

그러나 독곶부락의 형성·발달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소금의 생산이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소금(鹽)은 쌀, 면화와 더불어 인간 생활의 주요 필수품이었다. 그러므로 독곶지역에서 소금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생업이었다.

천일제염(天日製鹽)이 도입되기 이전 독곶부락에서는 화염법(火鹽法)에 의한 소금의 생산이 성하였다. 화염(火鹽)이란 가마에 바닷물을 붓고 불을 때서 소금을 얻는 방법으로서,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해안지역에서는 이 방법

〈그림 4-2-12〉 해안개척과 가옥분포(1919년) (독곶지역)



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화염을 많이 하던 곳에는 ‘벳’, ‘벳말’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데, 독곶도 이 중의 하나이다.

〈그림 4-2-12〉는 일제시대인 1919년의 지도를 이용하여 독곶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에서 보면 ‘벳’의 위치와 취락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4-2-12〉에서 보면, 독곶리 일대에는 이미 상당히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취락은 해안저지에 분포되어 있고,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밀집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곳도 3곳이나 된다. 취락의 주위에는 구석호였던 곳을 간척한 곳과 작은 만입을 간척한 곳에 농경지가 좁게 분포되어 있을 뿐, 이정도의 취락을 지탱할 만한 별다른 경지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취락은 바로 화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초기의 독곶부락은 80호 정도의 취락이었는데, 이 중 4~6호는 화염업을 전업으로 하였고, 나머지 가구도 각자의 ‘갈밭’을 가지고 있어서 염업과 어업을 겸업으로 하는 형태였다.

독곶부락에서 화염의 과정은 조금 때 갈밭을 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조시에나 바닷물에 잠기는 비교적 고도가 높은 간석지의 상단부를 골라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때에 썩래로 바닥을 갈고(이를 ‘썩래질’이라 함), 덩어리를 부수어서 곱게하는 작업(이를 ‘나래질’이라 함)을 반복하여 간석지 개흙의 염도(鹽度)

를 높인다. 이 일이 끝나면 고운 개흙을 갈밭 한 가운데 있는 갈통의 주위로 긁어 모은다. 갈통은 목재로 만들며, 폭 150cm 높이 180cm 정도이다. 이들 작업은 조금 때부터 시작하여 사리가 가까워 올 때까지 끝내야 한다.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며, 이때 갈통 주위에 있는 갈질을 끝낸 고운 흙더미를 통과한 바닷물이 갈통속에 고이게 된다. 이 때에는 두레박으로 바닷물을 퍼서 갈질한 흙더미위에 부어서 갈통속으로 고이게 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따라서 갈통 속의 바닷물은 염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갈 들인다'고 한다. 갈통 속의 바닷물은 '벗' 옆에 있는 각자의 구덩이에 보관된다. 벗은 화염용 가마가 걸려있는 건물을 말한다. 화염용 가마는 쇠가마가 사용되는데, 쇠가마가 나오기 이전에는 굴껍질을 뺀 고운 흙과 버무려서 백회처럼 만들어 발라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굴껍질 가마는 불을 때면 터지는 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각자의 구덩이에 보관된 바닷물은 차례가 되면 벗의 가마로 운반하여 제염하였다. 벗과 구덩이의 사이에는 경사진 수로를 만들어서 구덩이에서 벗으로 갈통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화염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연료공급의 문제였다. 벗에서 때는 화목은 각자가 준비하여야 했는데, 연료는 보통 갈통 하나에 25지게 정도의 나무가 필요했다. 화목은 주로 부근의 야산에서 구했지만, 멀게는 인근의 섬에서 풍선을 이용하여 운반해 오기도 하였다. 화목의 공급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풀잎은 물론 나무의 뿌리까지도 캐서 사용하였다. 일제시대의 지형도에서 독곶이나 목벗 주변의 야산은 대부분 황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화염용 연료를 얻기 위해 부근의 삼림을 많이 훼손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화염용 연료채취를 위한 삼림의 훼손은 다른 측면에서는 구릉지위에서의 경지개척을 용이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화염의 과정에는 독특한 소유·분업·유통의 관행이 있었다. 보통 갈통 하나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9섬 정도였는데, 이 중 1섬은 벗의 주인인 '벌주'에게 벗의 사용료로 지불하였다. 하나의 벗에는 10개 이상의 갈밭이 딸렸으므로, 벗 하나에 딸린 갈밭은 보통 수십 정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독곶부락의 소금은 내륙쪽으로는 홍성까지, 그리고 해로로는 인천까지 운반되었다. 인천쪽으로는 주기적으로 소금을 실어나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천 등 먼 지역으로의 소금의 운송은 주로 가을철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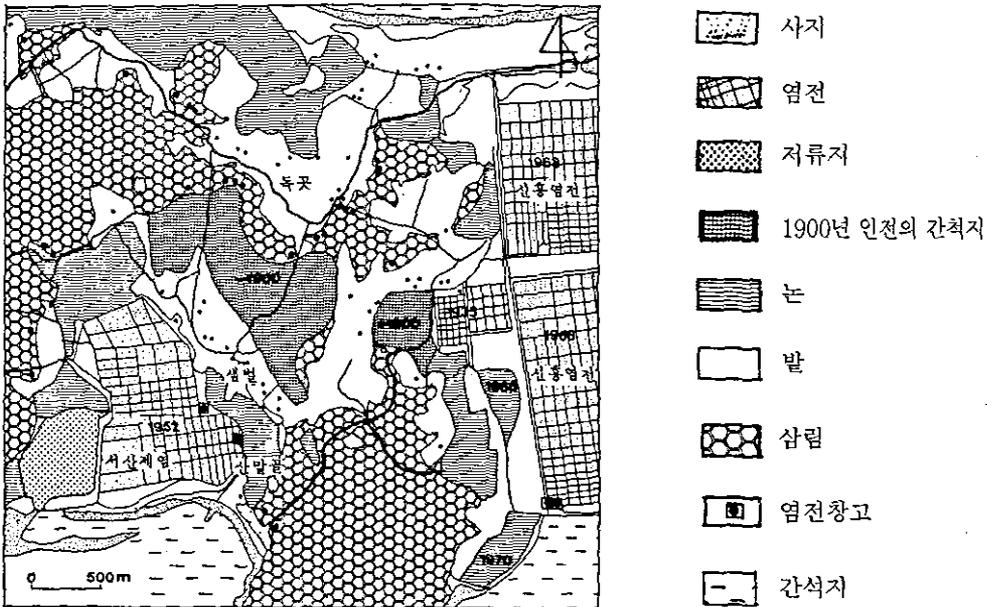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염벗과 갈통의 소유자는 부유한 편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염전에서 노동하는 형태였다. 갈밭을 가는 일에서부터 소금을 판매하는 일까지 화염의 전과정은 가족노동 중심으로 행하여졌으며, 독곶지역에서는 다른 생산활동에 비하여 제염업이 가장 널리 보급된, 그리고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닌 산업이었다. 이와같이 화염업은 독곶부락을 형성·발달시키면서 취락의 정착성을 강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독곶지역에 있어서 화염업이 성했던 이유는 조차가 커서 갈을 들고 갈통에 바닷물을 받기가 쉬웠고, 큰 하천이 없고 바다가 얕아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바닷물의 염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으며, 부근의 야산에서 연료를 구하기 쉽고 경지부족과 자연수의 결핍으로 농업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결국 화염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이 그 배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이르러 천일제염법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화염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화염에 종사하던 독곶부락은 그 기능과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2-13〉은 독곶지역에 있어서 천일제염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화염을 행하던 곳에 천일염전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염전관리인과 염전창고, 염부숙소 등이 염전의 내부와 그 주변에 들어서게 되어 종래의 염전취락과 겹쳐지게 되었다. 또한 염전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기존촌락민들과의 교류도 밀접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래 어전어업과 화염업에 바탕을 두고 있던 독곶부락은 인근의 구릉지 위로 개척하여 올라가면서 2차적인 확대·발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릉지 위로 올라와서는 서산지방 일반 농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야를 개척하고 거기에 가옥과 경지를 확대하여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취락의 형태는 종래의 바닷가 어전이나 염벚 중심의 집촌형태에서 구릉지 위의 산촌형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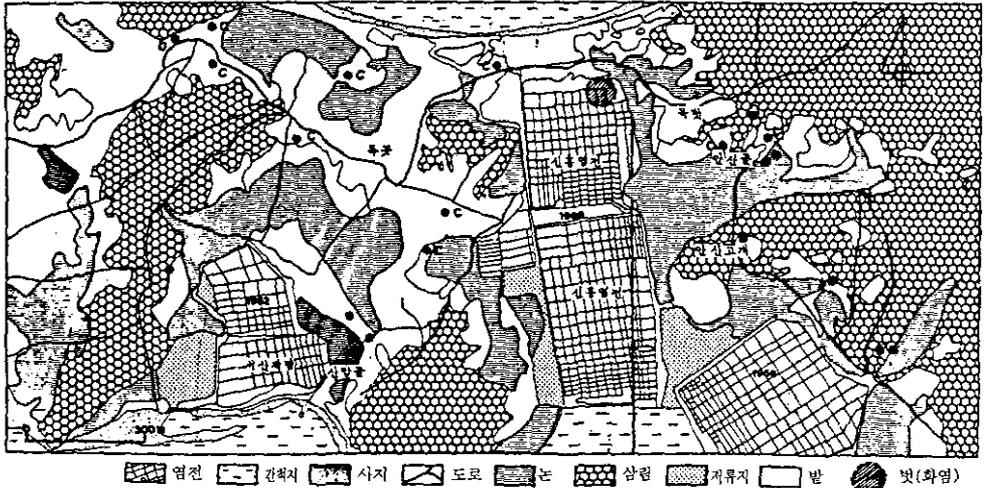
〈그림 4-2-13〉 해안개척과 가옥분포(1979) (독곶지역)



이러한 과정은 목벳 안산골의 김해 김씨들의 확산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림 4-2-14). 목벳이란 '목', 즉, 육계사주에 벳이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원래 안산골의 주민들은 구릉지위의 '골'을 개척함과 동시에 화염벳에서의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화염벳의 전면에 천일염전이 조성되면서 화염을 행할 수 없게 되자 안산골 주민들은 자체의 생산력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산골 김해 김씨들은 <그림 4-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고개 남쪽의 구릉지와 독곶부락 배후에 있는 구릉지로 개척하여 들어갔다. 그리하여 초기의 소촌적이었던 안산골 당시의 촌락경관은 임야개척에 따른 취락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부터는 보다 산촌화(散村化)되는 경향으로 진전되어 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곶리 일대는 어전어업과 화염업을 바탕으로 바닷

<그림 4-2-14> 목벳부락 김해 김씨들의 거주지확산과 삼림개척(A代 → B代 → C代 → D代)



가 만입의 집촌형태에서 천일염전이 도입되면서 인근의 구릉지 위로 2차적인 확산이 전개되면서 부터는 임야개척과 관련해서 산촌적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독곶지역에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대산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독곶리일대는 서해안시대를 여는 임해공업단지로 놀라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씨족집단과 촌락형성

(가) 서산의 새거씨족

특정 씨족이 어느 곳에 입항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후, 그의 자손이 대를 이어가며 주변을 개척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동족적요소

〈표 4-2-10〉 15세기의 성씨분포

지 방	임 내	성 씨 분 포	계
태안군		토성3(李方廉) 속성1(賈) 촌락성4(黃明高朴)	8
서산군		토성5(柳宋杜文全) 촌성1(房) 속성1(朴)	7
"	지 곡 현 (地 谷 縣)	성3(安李文) 촌성1(朴)	
"	망 북 평 향 (亡 福 平 鄉)	속성1(柳)	
"	망 광 지 향 (亡 廣 地 鄉)	속성1(廉)	
"	망 안 면 소 (亡 安 眠 所)	성1(柳)	
"	망 화 변 소 (亡 禾 邊 所)	속성2(柳宋)	
"	망 인 정 부 곡 (亡 仁 政 部 曲)	속성1(李)	
"	망 조 립 부 곡 (亡 助 立 部 曲)	속성1(羅)	
"	망 성 연 부 곡 (亡 聖 淵 部 曲)	속성2(金河)	
해미현	정 해 현 (貞 海 縣)	성4(白韓仇尹)	
"	망 사 곡 소 (亡 寺 谷 所)	성2(廉韓)	
"	여 미 현 (餘 美 縣)	성4(郭朴明余)	
"	망 염 솔 부 곡 (亡 鹽 率 部 曲)	성3(朴明余)	

자료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곳에서는 촌락의 형성과정을 살피는 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 보면 각 고을마다 성씨들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토성(土姓)은 토박이 성, 즉 고려초에 성씨의 분정시 그곳에 토착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씨족, 또는 그곳을 본관(本貫)으로 하면서 읍사(邑司)를 구성하였던 성씨 집단이었다. 토성은 본래 지역적 의미의 '土'와 씨족적 의미의 '姓'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토성문제는 혈연과 지연이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여기서 「실지」소재 태안군, 서산군, 해미현의 성씨를 뽑아 정리하면 〈표 4-2-10〉와 같다. 〈표 4-2-10〉에서 보면 태안군에는 임내성(任內姓)은 없고 본군 토성만이 8개 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토성의 이(李), 속성의 가(賈), 촌락성의 명(明)씨가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가(賈)씨와 명(明)씨는 그 기원을 중국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태안군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가(賈)씨는 속성(續姓)으로 기록되어 있고, 명(明)씨는 촌락성(村落姓)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明)씨의 토성 분정이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성(土姓)의 이(李)는 혹시 태안을

본관으로 하고 원(元)을 배경으로 출세하였던 이대순계(李大順系)가 아닌가 한다. 이대순은 태안 이씨이며, 그로 인해 본관이 승격되고 그의 동생 이공세(李公世)와 이공보(李公甫)는 각각 판삼사사(判三司事)와 평리(評理)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하는 자 가운데는 군현토성 출신이 간혹 있었다.

서산군의 본군 토성은 유(柳)씨를 비롯한 5개 성씨, 촌성 1, 속성 1로 기록되고 있으며, 임내인 지곡현에는 현성이 3, 촌성이 1로 기록되고 있다. 또 향·소·부곡에는 토성이 없고 모두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실지」편찬 당시까지는 향·소·부곡에 모두 '亡'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구역의 편제, 신분의 승강에 변화가 많았음도 짐작할 수 있다. 서산에서는 유(柳)씨가 고려 말에 사족(士族)으로 성장하였는데 재지 세력은 호장(戶長)을 세습하고 있었다. 충혜왕 때 출사한 유숙(柳淑)은 과거를 거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가 되었는데, 그는 신돈(辛旽)에 의해 피살되었으나 곧 신원되어 공민왕 조정에 배향되었고 그의 아들 유실(柳實)은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었다. 유숙은 출사 후에도 본관인 서산에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곳에는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에도 서산지방에는 서령 류씨(瑞寧柳氏)가 대성집단을 이루고 있다. 정인경(鄭仁卿)은 서산 정씨로서 몽고 침입시 종군하여 전공을 세워 대정(隊正)이 되었고 다시 설인(舌人)으로 고려와 원나라간을 왕래하면서 최고 관직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정신보(鄭臣保)는 본시 송나라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이었는데, 송나라가 원나라에 망하게 되자 바다를 건너 서산땅 간월도(看月島)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가 곧 서산정씨의 시조이다.

해미현에서는 본현성은 없고 속현이나 소·부곡의 성만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편찬 당시까지는 본현의 성씨 형성보다 속현의 성씨 형성이 앞서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산의 「실지」소재 성씨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토성의 분포와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재지 세력의 형성을 살펴보았거니와 「실지」소재 각 읍의 성씨조는 바로 고려시대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관제도의 구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성관도 고려후기 이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의 변혁을 초래하게 되어 종래 토성의 토착적 의미가 희박해지고 사족의 본관이 거주지와 유리됨으로써 오로지 본관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실지」에서 성씨의 대종을 이루던 토성의 용례가 뒤에 나오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의 성씨조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어쨌든 서산지방에서도 「실지」나 「승람」에 보이는 성씨가 현재의 성씨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예(柳氏, 房氏, 杜氏)로 보아 이 지역에서의 세거씨족으로 거주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같은 씨족으로 형성된 동족촌(同族村)은 이미 고려초의 토성 분정과정

에서 그 소지가 마련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송조사상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동족적요소가 공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촌락을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때, 동족촌의 형성·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26년 「서산군지」에는 자연촌 단위로 군내 총 84개의 동족촌이 조사되어 있다. 이들의 발생년대와 인구규모를 정리해 보면 <표 4-2-11>, <표 4-2-1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서산지방 동족촌의 발생년대는 300~500년, 또는 300년 이내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200·300명 이상이 되는 곳도 있지만, 동족촌 성립의 역사가 수 백년 되는 곳인데도 50명 이하의 지역도 상당수이고, 어느 곳은 20·30명 정도의 소촌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동족촌이 형성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의 수도 증가하고 거주공간

<표 4-2-11> 지역별 동족촌의 발생년대

발생년대 지역	500년 이상	300~500	100~300	100년 미만	不 明	計
인 지	1	2				3
부 석	2	1				3
팔 봉		2	3			7
지 곡		1	2			3
대 산		2	3		6	12
성 연		5				5
음 압	2	1	2			5
운 산		1	1			2
해 미	1	3	3			7
고 북		4	5			9
안 면		1	3			4
남		3				3
태 안		6	1			7
근 흥		1	3			4
소 원		2	1			3
원 북	1	3	3			7
이 북		1				1
계	9	39	30	1	6	85

※ 자료 : 서산군지(1926)

※ 1대는 30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4-2-12〉 지역별 동족촌의 인구규모

인구(人) 지역	50이하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이상	計
인 지	1				1		1	3
부 석		1						3
팔 봉		3	1	1	1	1		7
지 곡	2	1						3
대 산	9	3						12
성 연	3		1		1			5
음 압	2	2						4
운 산	2							2
해 미		3		3				7
고 북	6	3						9
안 면		1		3				4
남				1			2	3
태 안	2	3		2				7
근 흥		4						4
소 원				1	1			2
원 북	1	5				1		7
이 북	1							1
계	29	29	2	11	4	3	5	83

* 자료 : 서산군지(1926) * 음압의 大橋金氏와 所遠의 道川尹氏 마을은 통계에서 除外

도 확대되어 집촌의 형태를 이루어 간다고 보는 것이 동족촌 형성의 일반적 경향이겠으나, 서산지방의 경우 이러한 현상과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산지방의 경우 동족촌의 형성은 파벌 단위로 형성되는 동족의 자연적 집중이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자연촌의 형성은 파벌 집중 혹은 지형단위 등에 적용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짐으로서 산촌(散村) 혹은 소촌(小村)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특색있는 씨족의 인구증가와 거주지확대

씨족집단에 의해 촌락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3개의 씨족을 선정하였다. 병자호란을 피하여 대산으로 낙향하고 여기에 정착·확대해간 사례로서 대산을 대로리의 광암 김씨(廣岩金氏), 양반사족인 음암면 유계리의 경주 김

씨(鶴洲公派), 그리고 서산을 본관으로 하는 서산 최대의 성씨집단인 서령 류씨(瑞寧派)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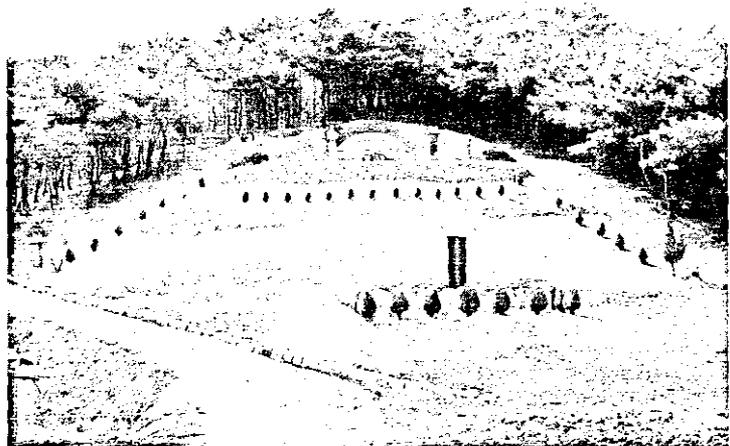
인구가 증가해 가고 거주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을 살피기 위하여 각 씨족의 족보(族譜)를 가지고 먼저 세계표(世系表)를 만들고, 세계표 위에 나타난 각자의 수를 세어서 그 씨족의 증가 수를 알아냈다. 그리고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거주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근친자(近親者)는 사자(死者)를 그의 거주지 부근에 매장하는 고품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묘지의 위치를 참조하고, 아울러 가계의 내력을 잘 아는 후손과의 직접면담을 통해서 자기 선조들의 거주지의 위치를 판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또한 시대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거주지의 공간적 확대문제를 연관시켜 살피기 위해서 광암 김씨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이를 실증하였다.

● 광암 김씨

여기서 광암 김씨는 경주 김씨 계성군파(鷄城君派)의 일부파이다. 계성군파는 고려 예종때의 김인관(金仁瑄)을 시조로 하는 경주 김씨의 일부파로서, 인관의 11세손이고 조선 중종반정때 공신인 김임(金任)이 곧 계성군이다. 계성군의 6세손인 의선(儀善, 통정대부)이 광암 김씨의 입향조이다. 의선은 경기도 포천에서 병자호란을 피하여 평신도(平薪島, 현 대산읍 개화동)를 거쳐 현재의 대산읍 대로리 '큰 광암골'에 정착하였는데, 그 연대는 대략 1630년경 이라고 추정된다.

1968년(戊申) 7월에 간행된 「경주김씨계성군파보」에 의하여 광암 김씨의 인구 증가를 계산해보면 입향조이래 총 68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가 모두 촌락형성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하여 1949년생 까지를 계산의 범위에 넣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1949년생이면 이미 6.25사변 이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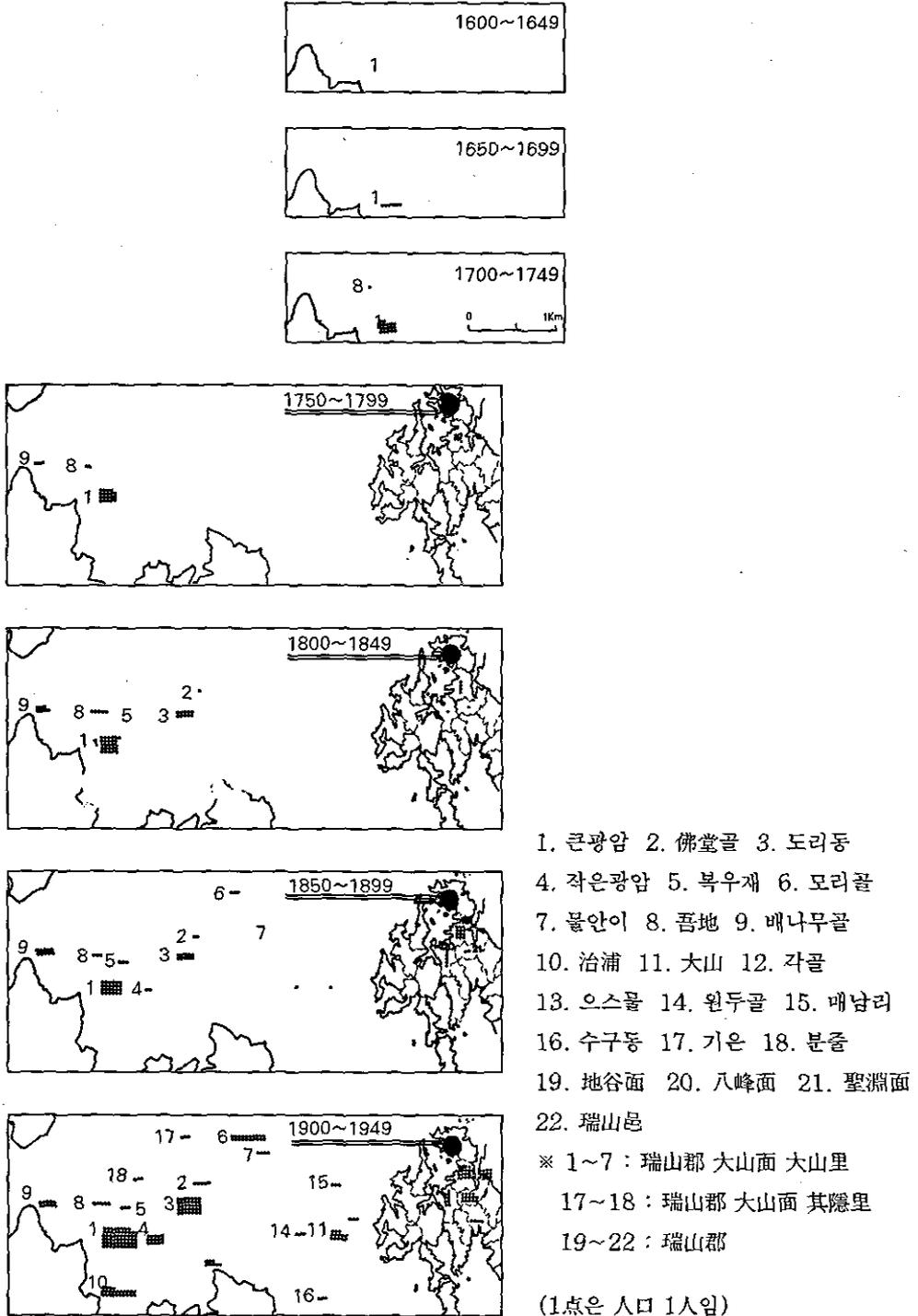
광암김씨 입향조 묘

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현재 40대 중반에 이르고 있는 연령집단이므로 이들은 상속이나 분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본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주지의 확대를 이룩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4-2-13〉 광암 김씨의 인구증가(1600~1949)

地域別		年代別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計
		1649	1699	1749	1799	1849	1899	1949			
서	대	대로리	두루골(桃李洞)					10	10	10	55
			불당골					1	2	5	8
			큰광암(큰말포함)	1	6	17	19	26	24	58	151
			작은광암						2	15	17
			복우재(伏牛峴)					1	3	3	7
			모리골						3	22	25
			물안이						1	4	5
	산	오지리	뽕池			1	2	5	3	5	16
			배나무골				1	7	10	12	32
			치포(지레나미)						2	14	16
	면	대산리	대산						1	13	14
			각골							3	3
			으스물							8	8
			원두골(元頭谷)						1	3	4
			매남리							3	3
			수구동							3	3
시	기은리	기은꽃이							3	3	
		분줄						1	3	4	
지		꼭				1	4	12	34	51	
팔		봉					1	5	9	15	
성		연					1	2	14	17	
서		산							4	4	
공		주					1	6	15	22	
홍		성						2	5	7	
당		진							5	5	
서		울							7	7	
총		계	1	6	18	25	57	90	305	502	

〈그림 4-2-15〉 광암 김씨의 인구증가 및 거주지 확산(1600~1949)



〈표 4-2-13〉과 〈그림 4-2-15〉는 광암 김씨의 인구증가와 거주지 확산을 연관시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표 4-2-13〉과 〈그림 4-2-15〉에서 보면 입향조로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년 동안 광암 김씨는 502명의 인구증가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나 분가 등에 의해 가구·가옥을 가졌으리라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촌락형성과 거주지의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 대를 이어오며 주변이 개척되어 가옥과 경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아울러 광암 김씨의 경우, 190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대산읍 지역의 범위내에서 자연촌 단위의 거주지 확대가 이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7세기초에 '큰광암'에 최초의 정착이 이루어진 이후 50년이 경과한 17세기 중엽에 6명, 100년이 경과한 18세기 초에 17명이라는 매우 미미한 인구증가로 인해 광암 김씨의 거주지역은 아직 '큰광암'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가 촌외로의 거주지 확산은 입향한지 약 1세기가 경과한 18세기초에 비로소 인근에 있는 '오지(吾池)'로의 최초의 거주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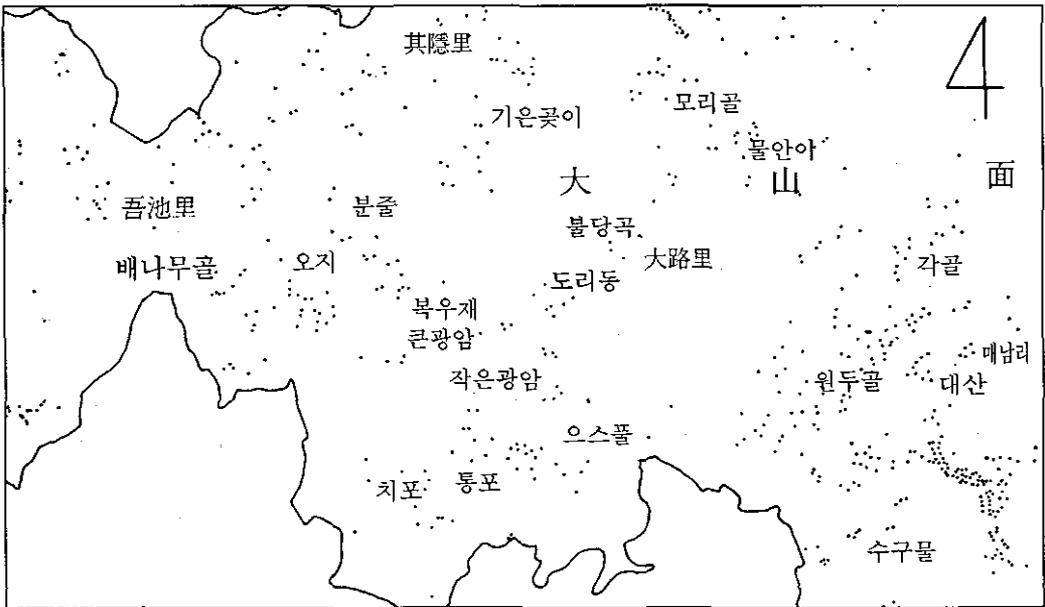
대산읍 지역에서의 광암 김씨의 거주지 확산은 최초의 정착지인 큰광암과 그 주변으로의 확산, 오지와 그 주변으로의 확산, 그리고 대산과 기은리 지역으로의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큰광암 지역에서의 인구증가는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뚜렷한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 무렵부터 큰광암에서 '두루골(桃樓洞)', '불당골', '복우재(伏牛峴)', '작은광암', '모리골', '물안이' 등으로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졌다. 오지로의 거주지 분화는 18세기 초에 큰광암으로부터 분화되었고, 여기서 다시 18세기 후반에 '배나무골', 19세기 후반에 '치포(治浦, 지레니미)'로 2차, 3차의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졌다. 대산지역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대산', '원두골(元頭谷)', '각골', '으스물', '매남', '수구동'으로, 기은리 지역으로는 '분줄', '기은꽃이' 등으로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졌다.

한편 대산읍의 범위를 넘어 군내 지역으로의 거주지 확산을 보면 대산읍에 인접해 있는 지곡면으로의 확산이 가장 많은데, 1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팔봉, 성연면으로 확대되었고, 멀리 공주군으로의 확산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홍성군으로, 서산시·당진·서울 등지로의 확산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자연부락은 혈연과 지연의 연관 속에 몇 개의 일차적 분산이 주지를 중심으로 다시 2차, 3차의 분가적 확산이 계속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가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질 때, 대체로 적장자(嫡長子)는 잔류하고 2남 이하가 분가하는 것이 관례이며, 동족의 세포분열에 의한 세대확산이 촌락지역 체계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16〉은 1979년 현재 1 : 25,000 지형도 위에서 가옥의 분포만을 도화한 것이다. 이 지역은 주로 광암 김씨들에 의해 형성된 자연부락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림 4-2-16〉에서 보듯이 산촌(散村) 혹은 소촌(小村)의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이 광암 김씨의 경우, 최초의 입향조의 정착지에 가옥이 집중하여 집촌(集村)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광암 김씨는 17세기 초에 입향하여 약 300년간 가옥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1900년대에 이르러 인구가 급증하지만, 지형단위 등에 적용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향조의 정착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촌락의 형태는 집촌화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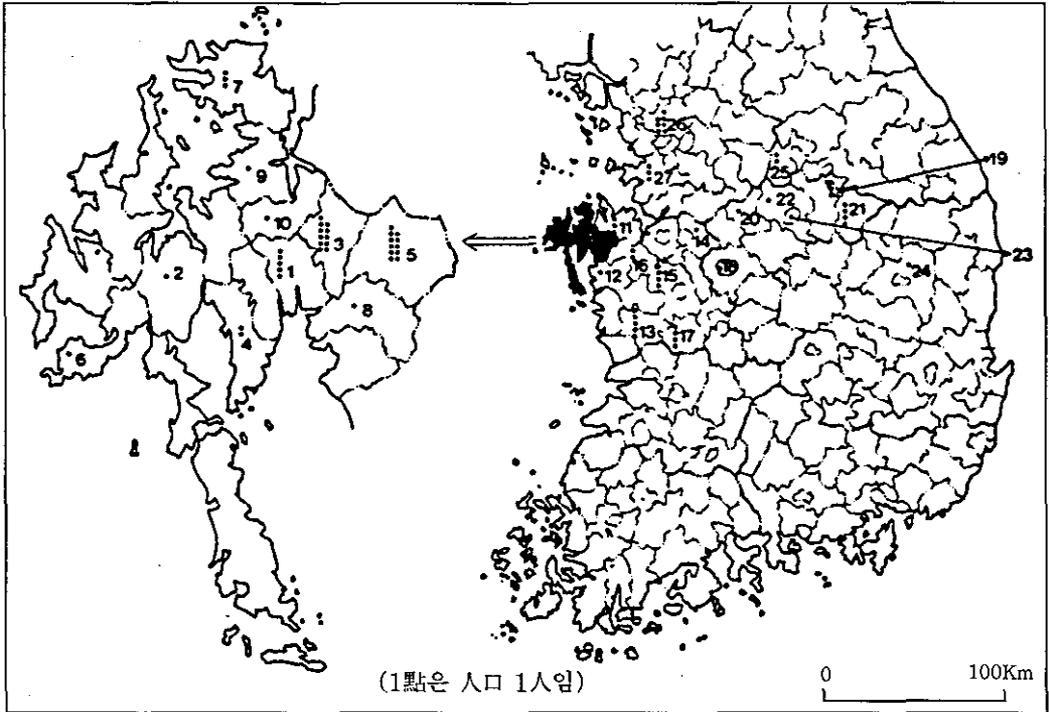
〈그림 4-2-16〉 광암일대의 가옥분포(1979)



● 경주 김씨(학주공파)

학주공(鶴洲公)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의 가계는 고려 예종때의 김인관을 1세로 하는 경주 김씨의 일분파인데, 인관의 9세손 자수(自粹, 桑村公)를 중시조로 하고 있다. 자수의 4세손인 양수(良秀, 判官公)의 묘를 현 서산시 운산면에 두고 있고 그의 배위인 황씨부인이 대교촌(大橋村, 한다리)으로 입향함으로써 서산 지방과 관계를 맺게 된다. 또 양수의 아들인 연(堧, 安州牧使)의 묘소도 대교촌에 두게 됨으로써 그 자손이 세거하게 되었다. 연의 손자인 적(積, 丹丘子公)은 홍익

〈그림 4-2-17〉 경주김씨(학주 문정공파)의 인구증가 및 거주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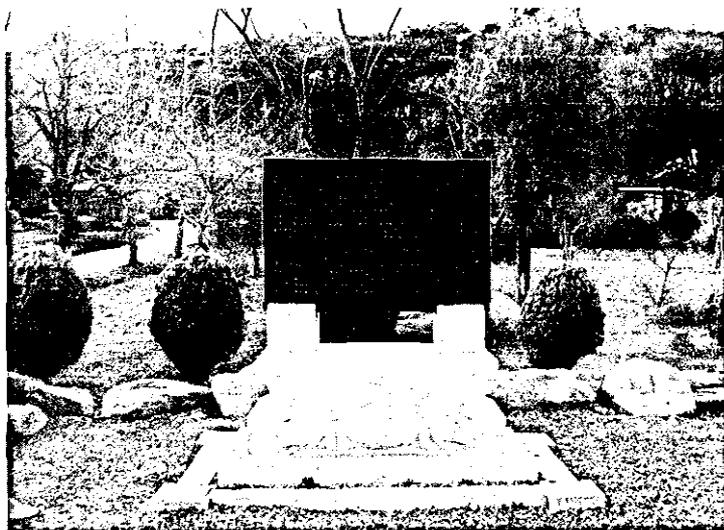


1. 瑞山邑 2. 泰安邑 3. 淸岩面 4. 浮石面 5. 雲山面 6. 斤興面 7. 大山 8. 海美面 9. 地谷面 10. 聖淵면 11. 唐津郡 12. 洪城郡 13. 扶餘郡 14. 天原郡 15. 公州郡 16. 禮山郡 17. 論山郡 18. 淸州市 19. 堤川郡 20. 陰城郡 21. 丹陽郡 22. 中原郡 23. 忠州郡 24. 安東郡 25. 原城郡 26. 서울特別市 27. 華城郡 ※1~10 : 瑞山郡

(弘翼, 忠愍公), 홍양(弘亮, 聘仕郎公), 홍필(弘弼, 敎官公), 홍욱(弘郁, 鶴洲文貞公)의 4남을 두었는데, 특히 홍익과 홍욱의 후손들이 주로 서산지방에 세거함으로써 서산지방 경주 김씨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들은 음암면 대교리(한다리)에 본거를 두었으므로 일명 '한다리 김씨'라고도 부른다. 한다리 김씨는 많은 현관(顯官)을 배출한 사족으로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는 바로 한다리(유계리)에서 탄생하였으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도 학주공 김홍욱(金弘郁)의 직계 후손이다.

1976년(丙辰) 발행 「경주 김씨파보」에 의하여 학주공 김홍욱 이래의 경주 김씨는 총 3,495명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이들의 시대별 인구증가나 선조때부터 살아온 거주지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가계계통상 가장 가까운 친족끼리 모여사는 경향이 있고, 이주를 할 때에도 같은 친족끼리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족보에는 이들이 모여 사는 소 그룹으로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족보상에 나타난 이 거주지 기록을 가지고 지도화함으로

〈사진〉 유계리 경주김씨
마을 유래비



유계리 김씨는 일명 「한 다리 김씨」라고도 부른다. 이들 김씨들에서 많은 현관이 배출되었다. 영조의 왕비 정순왕후도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서 학주공과 김씨들의 거주지 확산양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하여 작성된 것이 〈그림 4-2-1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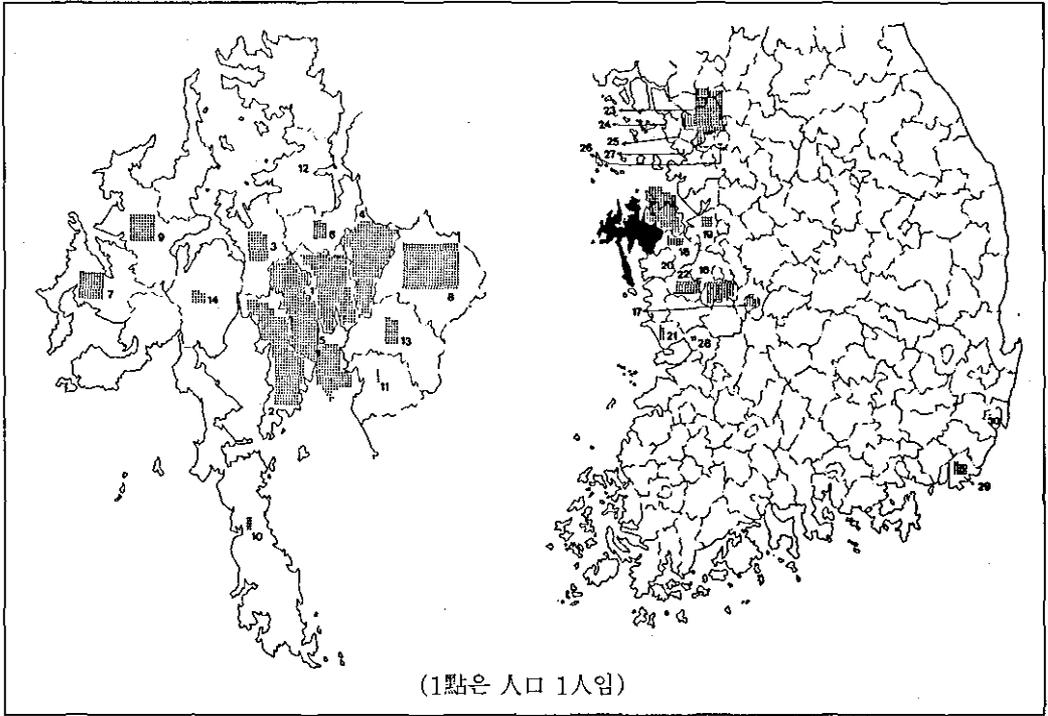
〈그림 4-2-17〉에서 보듯이 학주공과 김씨들은 본래의 근거지인 음암면(한다리)과 그 주변인 서산시, 운산면 등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어느 한 두개 마을에 거주지가 제한되어 집중 분포하지 않고, 서산시 일원에 걸쳐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산시 관내 뿐만 아니라 충청, 경기, 강원 등 우리나라 중부권에 걸쳐 광범위하게 거주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주공 김씨들과 같은 명문거족(名門巨族)들은 어디에서나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명문거족일수록 이주에 있어서도 중·장거리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서령 류씨

서령 류씨는 유차달(柳車達, 大丞公)을 시조로 하는 문화 류씨의 일파로서, 차달의 10세손인 성간(成澗, 瑞寧府院君)을 시조로 한다. 성간의 후손으로 공민왕 때의 유숙(柳淑, 文僖公)과 유방택(柳方澤, 靖肅公)은 4촌으로 서산지방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족이었다. 유방택은 성간의 6세손인데, 이들 두사람의 후손들이 서산 파의 주류를 이루는데 그중에서도 방택의 3자인 백순(伯淳, 文肅公)의 후손이 대종을 이루는 많은 수이다.

1980년(庚申) 발행 「서령류씨족보」에 의거 백순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산파의 후손들은 총 25,152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시대별 인구증가나 과거로부

〈그림 4-2-18〉 서령류씨(서산파)의 인구증가 및 거주지확산



〈사진〉 서령 류씨의 정신적 지주 송곡향현사(松谷鄉賢祠)

터 살아온 거주지의 확산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경주 김씨 학주공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족보상에 나타난 현재의 거주지를 지도화함으로써 서산파의 거주공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리하여 작성된 것이 <그림 4-2-18>이다.

<그림 4-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을 본관으로 하는 서령 류씨 중 서산파는 서산시, 인지·부석·음암·운산면 등에 집중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산에 인접하고 있는 당진군, 그리고 서울·인천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령 류씨는 서산을 본관으로하여 고려 때부터 서산의 재지세력(호족)으로 성장해온 씨족집단이다. 그러므로 「실지」에도 서산군의 토성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후의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의 성씨조에서도 계속 서산군의 중요성씨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서령 류씨는 거주역사에 있어서나 인구수에 있어서나 서산을 대표하는 성씨집단인 것이다.

이상에서 서산의 세거씨족 중 3개 씨족을 선정하여 세대의 증식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거주지의 확산을 살펴봄으로써 씨족집단과 관련해서 촌락형성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였거니와, 동족의 세포분열에 의한 분가적 확산은 서산지방의 자연촌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사실, 그러나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촌화과정을 밟지 않고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족세가 강한 씨족은 거주지의 확산에 있어서도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씨족들은 한 자연촌 단위로 동족촌을 이루고 거주지의 확산에 있어서도 그 인근지역으로 개척해 나감으로써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② 촌락의 존재양상

가. 자연부락

우리나라 촌락은 거의 다 자연발생적 촌락이며, 이러한 점에서 서산의 촌락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발생적 촌락은 자연환경에 인간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적응한 형태로서, 우리는 이를 '자연촌락' 혹은 '자연부락'이라고 부른다. 자연촌락은 촌락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을'이라 부르며, 행정적 파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자연부락은 촌락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단위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지표 위에 분포하고 있는 촌락의 모습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95년 현재 서산시의 행정동·법정동, 행정리·법정리, 자연부락의 수는 <표 4-2-14>와 같다. <표 4-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시 지역에서는 1km²의 범위 안에 0.9개의 자연부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충청남도의 평균자연부락

수가 1.16, 서천군의 2.20, 논산시의 1.86, 예산군의 1.46에 비해 면적당 마을의 분포가 조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앞에서도 보아 온 바와 같이 서산시 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취락의 형태가 산촌형(散村型)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촌락의 존재양상을 시내지역과 면부지역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

〈표 4-2-14〉 서산시의 자연부락

연 별 및 읍면동별	면 적	구 성 비	동		리		통	반	자연부락	출장소 시
			행정	법정	행정	법정				
1991	614.3	100	6	14	25	12	55	1,224	676	-
1992	615.98	100	6	14	7	5	56	1,206	658	-
1993	636.65	100	6	14	25	12	56	1,208	658	-
1994	636.6	100	6	14	251	125	63	1,242	658	
1995	739.03	100	6	14	254	125	68	1,318	658	
대산읍	103.94	14			30	10		112	36	
인지면	35.44	5			20	10		71	33	
부석면	123.80	17			26	14		105	55	
팔봉면	51.40	7			22	9		57	27	
지곡면	57.94	8			21	9		64	41	
성연면	43.70	6			21	9		58	40	
음암면	43.99	6			27	10		111	70	
운산면	82.73	11			29	19		117	82	
해미면	68.08	9			29	22		104	80	
고북면	71.80	10			29	13		87	78	
부춘동	9.45	1	1	2			14	83	26	
동문동	8.77	1	1	3(1)			13	96	20	
활성동			1	1(1)			9	64	5	
수석동	8.80	1	1	2			14	87	12	
석남동	18.06	2	1	4			12	78	32	
오산동	11.13	2	1	3			6	24	21	

자료 : 총무과 주) ()는 중복 시·군 통합 자료임.

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동문동과 활성동은 완전히 시가지화 되어 있고, 부춘동도 많은 부분이 도시화 되어 있다. 다만, 수석동·석남동·오산동은 아직 시가지화 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지만 이들 지역도 빠른 속도로 도시화 하고 있다. 그러므

로 여기서는 면부지역에서만 그 존재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면적당(km²) 자연부락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음암(1.6), 해미(1.2), 고북(1.1), 운산(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서산의 동·남부지역에 자연마을의 분포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대산읍(0.3), 부석(0.4), 팔봉(0.5)지역에서는 자연부락의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 서산의 북서부지역에서 마을의 분포가 조밀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태안반도 지역의 가옥밀도도 <그림 4-2-19>를 통해서도 그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4-2-19>는 1 : 25,000 지형도 위에서 실면적 1km²속에 포함되는 가옥의 수를 계산하여 그것을 등밀도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반도 지역은 산촌탁월형임을 알 수 있고, 특히 동남부지역보다 북서부지역에서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옥이나 자연부락의 분포양상은 또한 앞에서 본 <그림 3-1-6>의 하계밀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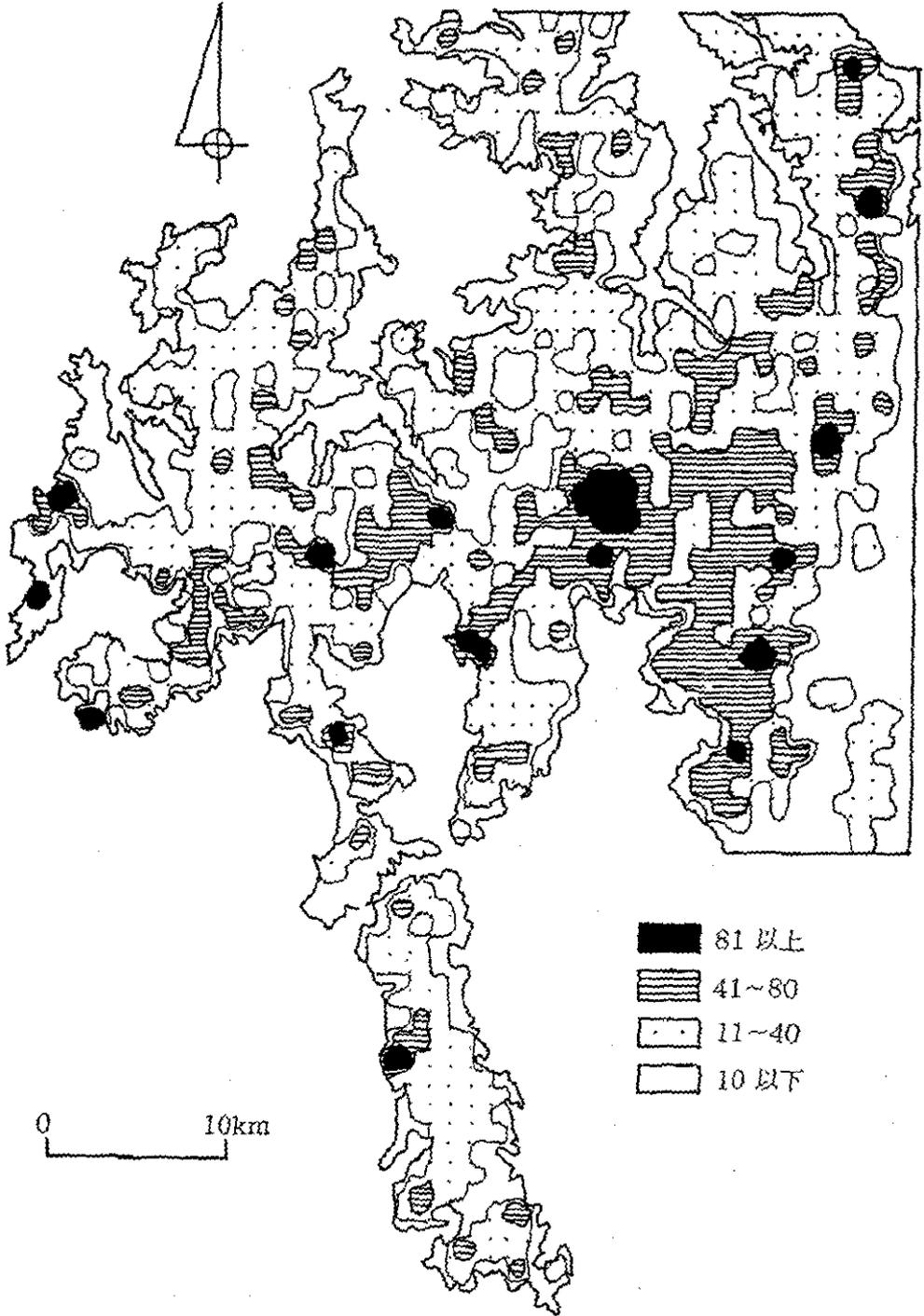
이상은 자연부락의 수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촌락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즉, 1개 행정리가 포함하고 있는 자연부락의 수로 보면 운산(2.8), 해미(2.8), 고북(2.7), 음암(2.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1개 법정리가 포함하고 있는 자연부락의 수로 보면 음암(7.0), 고북(6.0), 지곡(4.6), 성연(4.4), 운산(4.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경지의 규모, 형태, 배열

서산시의 자연부락에서 경지의 일반적인 형상은 어떠한가, 얼마만한 규모의 경지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 경지의 배열패턴은 어떠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지의 자연적 구획단위를 논는 경우 '배미' 혹은 '다랭이'라 부르고, 밭의 경우 '떼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논 한 배미는 관개 및 경작의 단위, 밭 한 떼기는 밭가는 일과 경작의 단위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논과 밭의 형태는 각기 '골', '들', '벌' 등의 지형 조건에 따라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논은 관개가 선행조건이므로 논바닥을 반드시 평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물은 맨 위에 있는 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낮은 곳에 있는 논으로 급수해야 하므로 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논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세가 험할수록 논 한 배미의 크기는 작아질 뿐 아니라 그 형상 또한 주위의 등고선의 방향을 더욱 강하게 닮게 된다. 반면, 밭은 논과 같이 관개를 목적으로 바닥을 반드시 평탄하게 할 필요가 적으므로 웬만한 경사는 무시하고 경지의 단위를 뜯 수 있다. 밭은 쟁기(犁)로 갈거나 파종을 하거나 추수할 때 돌아서는 횡수를 줄임으로서 노동력을 절약하려면 경지의 모양을 곧고 길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평탄도를 가진 지면이라면 밭은 논보다 형상의 규칙성이 더

(그림 4-2-19) 태안반도의 가속밀도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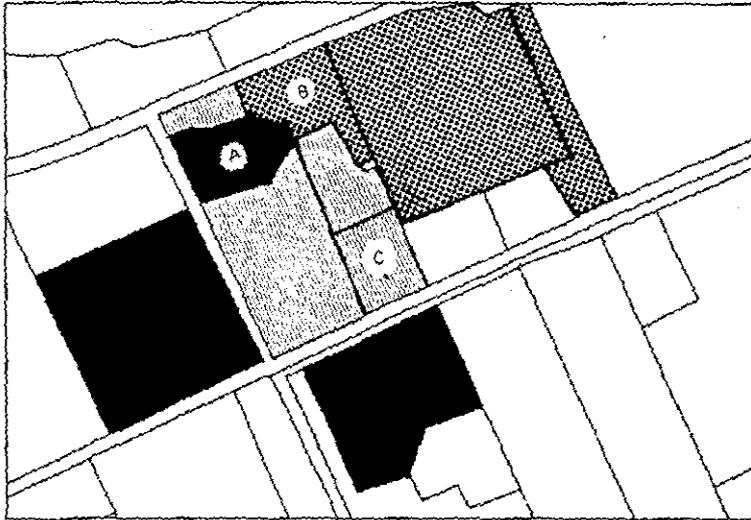
1995년 현재 서산시의 논과 밭의 면적, 가구당 경지면적은 <표 4-2-15>와 같다. <표 4-2-15>에서보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총경지면적은 28,470ha인데, 이 중 논이 20,298ha, 밭이 8,172ha로서 논이 밭보다 많다. 이 중 총경지면적이 많은 곳은 부석·고북·대산·해미·운산·음암·팔봉·인지의 순이며, 이 중 논이 많은 곳으로는 부석·고북·대산·해미·운산·팔봉·인지·음암의 순서이며, 밭은 부석·음암·고북·대산·팔봉·해미·인지의 순서로 많다. 가구당 경지면적으로 보면, 서산시의 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은 187.5a로서, 충남 평균인 140a 보다 많고,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서산시가 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이 가장 많다. 서산시에 있어서 가구당 총경지면적은 부석·고북·대산·석남동·해미·팔봉의 순이며, 논은 부석·고북·석남동·대산·해미·팔봉의 순이며, 밭은 수석동·음암·동문동·활성동, 부석·팔봉·오산동의 순으로 많다.

다음에 경지가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표 4-2-15> 서산시의 논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구 분	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a)		
				계	논	밭
1995	28,470	20,298	8,172	187.5	133.7	53.8
대 산 읍	2,761	2,011	750	183.3	133.5	49.8
인 지 면	1,655	1,071	584	138.6	89.6	48.9
부 석 면	6,534	5,459	1,075	349.4	291.9	57.4
팔 봉 면	1,909	1,266	643	167.0	110.7	56.2
성 연 면	1,213	767	446	130.1	82.2	47.8
음 암 면	1,933	1,019	914	128.0	67.5	60.5
운 산 면	2,032	1,322	710	122.4	79.6	42.7
해 미 면	2,374	1,785	589	177.5	133.5	44.0
고 북 면	3,733	2,982	751	238.9	190.9	48.0
부 춘 동	212	123	89	109.8	63.7	46.1
동 문 동	435	240	195	132.2	72.9	59.2
활 성 동						
수 석 동	539	297	242	142.9	78.7	64.1
석 남 동	1,81	822	259	182.9	139.0	43.8
오 산 동	568	362	206	143.7	91.6	52.1

1996년 서산시 통계연보



(그림 4-2-20)

농가(A, B, C)와 그들의
보유경지(농장촌)

집촌형태의 지역에서는 가옥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 있고, 마을의 주변에 각 가옥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의 일반적인 배열패턴이다. 서산의 경우도 집촌형태의 지역에서는 이와 매우 한가지다. 그러나 산촌형태의 지역에서는 가옥과 가옥의 결합보다는 가옥과 경지와의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각 농가는 그들의 소유경지를 가옥에 연결시켜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지는 한 덩어리외 큰 경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가옥과 경지와의 관계가 산촌의 특징을 밝혀주는 가장 기본적인 경관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지역에서 산촌의 경관형태를 잘 볼 수 있는 고북면 신상리의 「농장촌」일대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농장촌」일대에서는 (그림 4-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옥과 경지와의 연결현상(Hofanschluss)과 한 덩어리의 보유경지(Einodflur)현상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가옥 부근에 2~3개로 나누어진 경지가 비교적 가깝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이것은 초기의 개간과 입식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하여 전체적인 계획성에 의한 가옥의 배열같은 과정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농장촌」일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관형태는 서산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대의 입야개간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③ 경지정리

우리나라의 농토는 일제시대에 새로 개척된 평야지대의 농경지를 제외하면, 작은 지편(地片)으로 세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다. 그것은 경지가 조성될 때 지형적 조건, 농업기술, 토지소유관행 등 여러 조건의 제약을 받

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농지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면 영농에 불리하다.

정부에서는 영농의 기계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경지를 교환분합에 의해 통합하는 한편 논외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바로 잡고 관개수로로 바로 펴는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1994년말 현재 약 53% 정도의 경지정리가 완성되었는데, 특히 예산군(69.5%), 논산시(68.1%), 아산시(67.9%), 서천군(63.8%), 부여군(59.8%), 천안시(57.3%), 당진군(57.2%)등 평야지대에서 경지정리율이 높고, 서산시(25.7%), 태안군(35.7%), 금산군(35.7%), 공주시(38.2%), 연기군(46.6%)등지에서 경지정리율이 낮다.

(2) 어 촌

① 태안반도의 수산조건과 그 변화

태안반도는 충청남도의 북서부에 돌출해 있는 반도이다. 태안반도는 다시 북쪽에 대산반도와 이북반도, 남쪽에 부석반도와 남면반도 및 안면도, 서쪽으로 근흥반도와 소원반도 등으로 갈라져 있고, 이들 반도와 반도 사이에는 북쪽에 가로림만과 서산만, 남쪽에 천수만과 적돌만이 내륙 깊숙히 까지 파고 들어가 있으며, 그 연안에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반도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해안선의 총 길이가 816.6km나 되고, 섬이 201개나 포함되고 있다.

또한 연안의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그 차가 무려 9.6m나 되며, 연안에는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고 있어 간조시 노출되는 간석지 면적만도 671km²나 된다. 특히 간석지는 패류(貝類)·해조(海藻)·석화(石花)·대하(大蝦) 등의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천수만은 글자그대로 얕은 바다로서 각종 어류의 회유와 산란장소, 패류의 서식지로 적당하다. 간월도의 '어리굴젓'은 맛이 좋아 서산의 특산물로 이름나 있고, 가로림만은 과거 청어의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산·안면·부석 등지에서는 많은 염전이 분포되어 있어 소금의 생산이 많았고, 소금은 어류의 염장 처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태안반도는 천혜의 좋은 수산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지만, 최근에 대형 방조제의 건설과 해안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수산조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천수만과 적돌만에 각각 서산A지구방조제와 서산B지구방조제가 건설됨으로써, 우선 조류(潮流)의 흐름이 차단됨으로써 방조제 안쪽의 과거의 넓은 간석지는 육지화하여 농경지로 조성되었고, 그 일부가 내륙호(內陸湖)로서 남게 되었다. 또한 북쪽의 서산만에도 대호방조제가 축조되어 천수만지역과 같은 변화가 생겼으며,

대산반도 독곶지역에는 해안을 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해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조제의 건설과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해안선의 길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해안에 위치해 있던 과거의 중요한 어촌들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곳도 많다. 현재 서산시 관내의 해안선은 98.1km이고, 섬은 유·무인도를 포함하여 26개이다.

방조제의 건설과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태계와 수산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되어 있지 못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주장을 유보할 수 밖에 없다.

② 서산시 지역의 어촌

서산시 지역의 어촌도 반농반어의 어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석반도 남단의 창리(倉里)와 대산반도 동북단의 삼길포(三吉浦)를 제외하면 서산지역 일반촌락이 그러한 것 처럼 어촌도 해안을 따라 산촌 내지 소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로림만에 연해 있는 중왕리(왕산이)·우도·고파도·대산읍 대죽리의 녹안이·적돌만연안의 봉락리 등은 거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촌이었다.

서산시 지역 주요 어촌의 분포도는 <그림 4-2-21> <그림 4-2-22>와 같다. 이를 천수만연안, 적돌만연안, 가로림만연안, 서산만연안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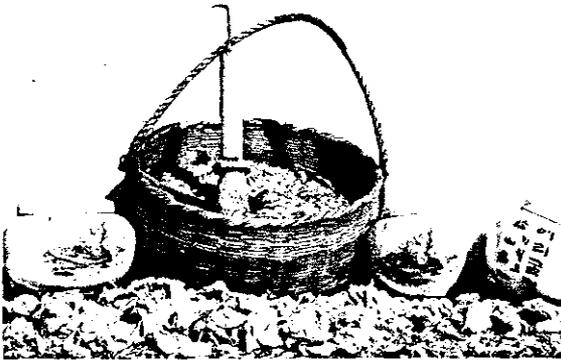
● 천수만연안

천수만(淺水灣)은 수심이 얇고, 간석지가 넓으며, 조수는 남쪽에서 들어와서 천수만을 돌아 다시 남쪽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천수만은 각종 어류의 회유와 산란장소, 또 각종 조개류의 서식장소로서 천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천수만연안에는 조기·송어·농어·대하·굴·고막(살조개) 등을 잡는 어촌들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수만 어구에 서산A지구방조제가 건설된 후로는 방조제 안쪽의 어촌들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간월도(看月島)는 특히 굴(石花)의 채취로 유명한 곳이다. 간월도의 굴은 크기가 작고 물날개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으로 만든 '어리굴젓'은 서산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간월도 주민들은 굴의 채취가 그들의 중요한 생업이었는데 방조제가 축조된 후로는 간월도는 섬이 아니라 육지화 되었고, 굴의 채취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고북면 사기리(沙器里)의 '사기포'는 대하(大蝦) 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며, 봉생



〈사진〉간월도의 굴 채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에서 채취되는 토종굴. 간월도의 굴은 크기가 작고 물날개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으로 만든 '어리굴젓'은 서산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리(鳳生里)의 '서창'은 창(倉)이 있던 곳이고, '봉산'은 고막(살조개)으로 유명한 어촌이었다. 해미면 석포리(石浦里)의 '돌개'는 송어·농어등 어류와 고막(살조개)을 많이 잡던 어촌이었다. 서산시 덕지천동(德之川洞)의 '오폐강'과 오남동(吾南洞)의 '오미'는 60년대초 까지만 해도 조갯배가 드나들던 원양어업의 기지였다. 이런 조갯배를 이곳 사람들은 '중선(中船)한다'고 한다.

● 적돌만연안

적돌만연안도 천수만연안과 같이 서산B지구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어촌들이 많았으나, 방조제가 축조된 후로는 방조제 안쪽의 어촌들은 어업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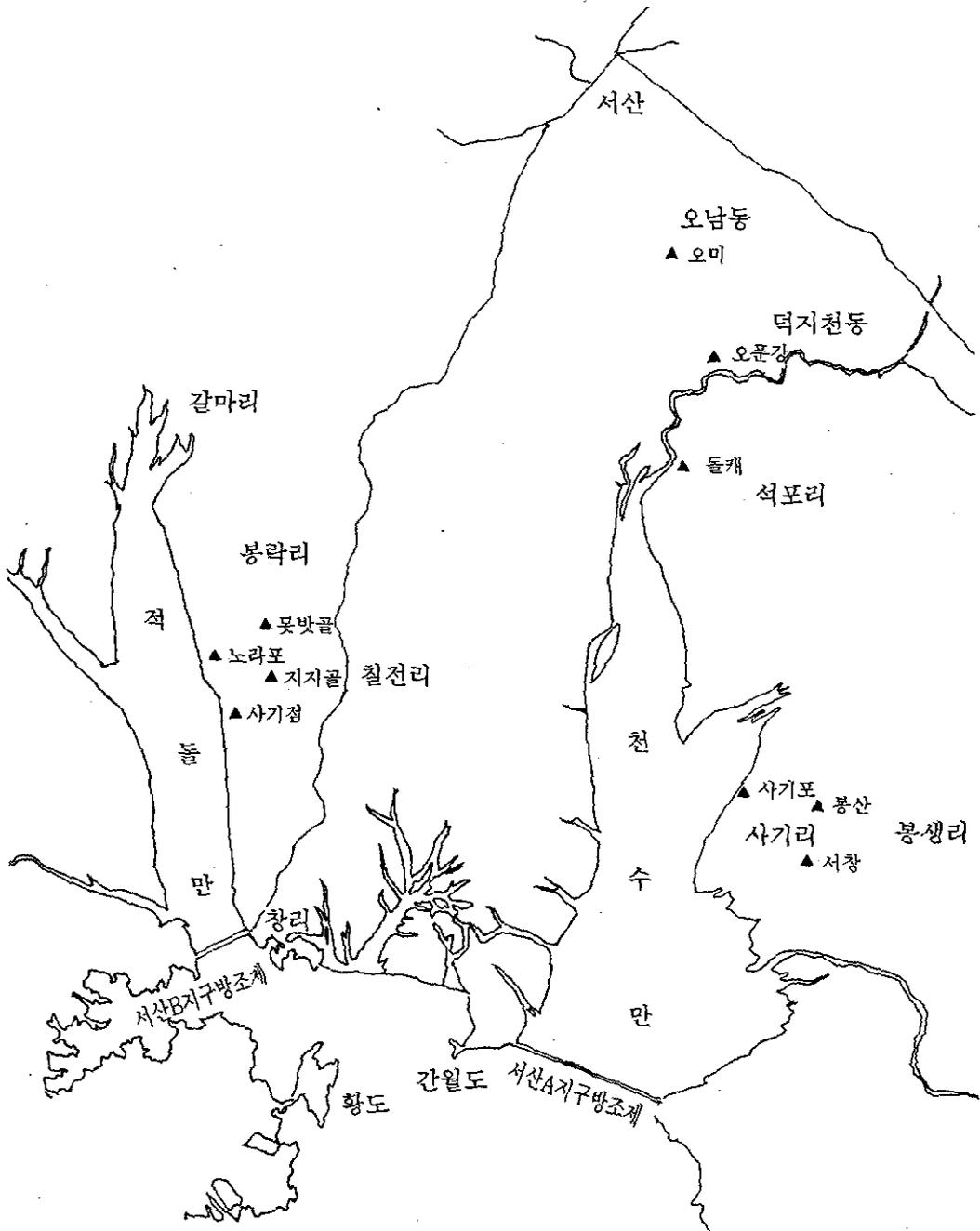
〈사진〉 서산 제일의 어촌 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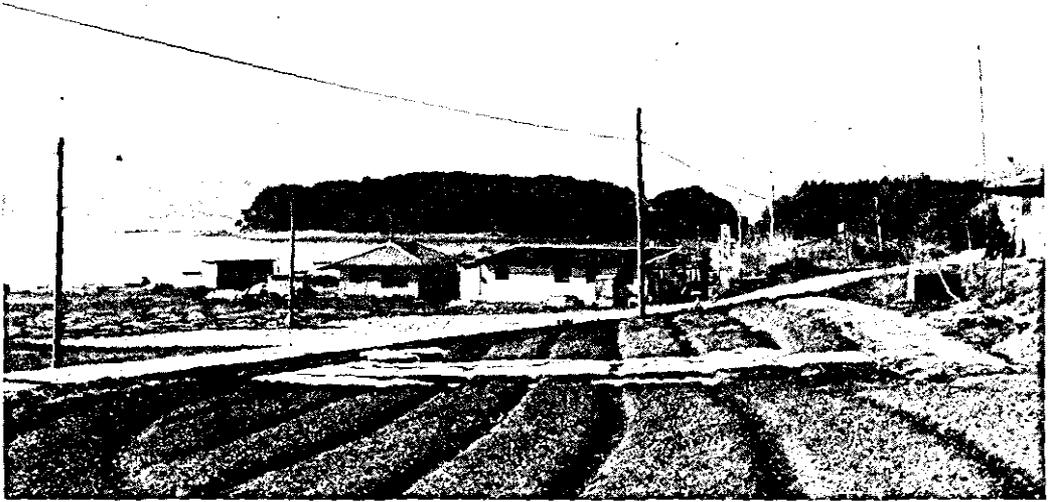
창리(倉里)는 부석반도 남단 서산 B지구 방조제 입구에 있는데, 천수만연안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이다.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당(堂)이 남아 있고, 방조제 건설과 더불어 교통이 편리해지자 횃집이 늘어나는 등 관광어촌으로 변화되고 있다.

창리(倉里)는 부석반도 남단 B지구방조제 입구에 있는데, 서산시 지역에서는 가장 큰 어촌적 취락을 이루고 있다. 창리는 조선시대에 군선이 주둔해 있던 주사창(舟師倉)이 있던 곳이며, 어촌에서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당(堂)이 남아 있다. 창리는 도미·농어 등의 어류를 많이 잡는 어항인데, 특히 서산A·B지구 방조제의 건설과 교통의 발달로 점차 횃집 등이 늘어나서 관광지화 하고 있는 어촌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면읍에 속하지만, 창리 앞바다의 황도(黃島)는 순수어촌으로 '황도 풍기풍어제'로 유명한 어업의 전진기지이다.

부석면 봉락리(鳳洛里)는 창리 보다도 어업기능이 성했던 곳이다. 여기의 '노라포'는 농어·숭어·놀래미 등의 어류를 많이 잡던 어촌이었다. 그러나 적돌만 어구에 서산B지구방조제가 건설되면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부근의 칠전리(七田里)도 유명한 어촌이었다. 여기의 '사기찜', '지지골', '못밭골'은 굴, 반지락 등의 채취가 많았던 곳이며, 특히 지지골에는 배를 부리는 사람이 많았다. 갈마리(渴馬里)는 '부석바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반지락·굴 등의 채취가 많았고 주목망어업이 성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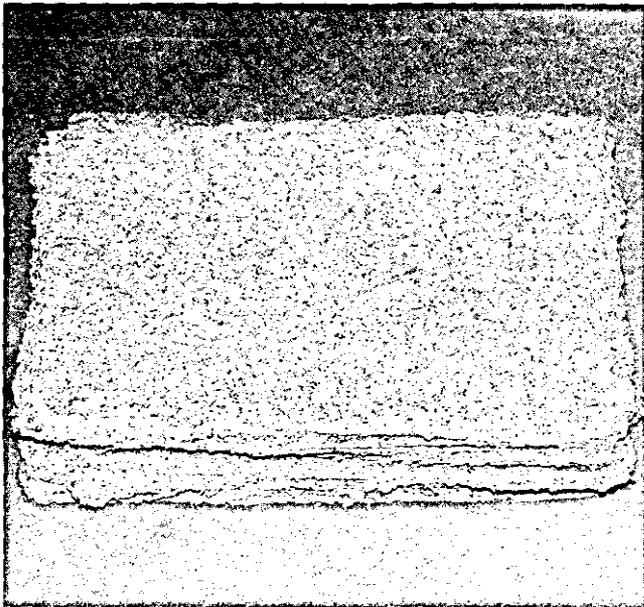
(그림 4-2-21) 천수만과 적돌만 연안의 어촌





〈사진〉 가로림만 제일의 어촌 중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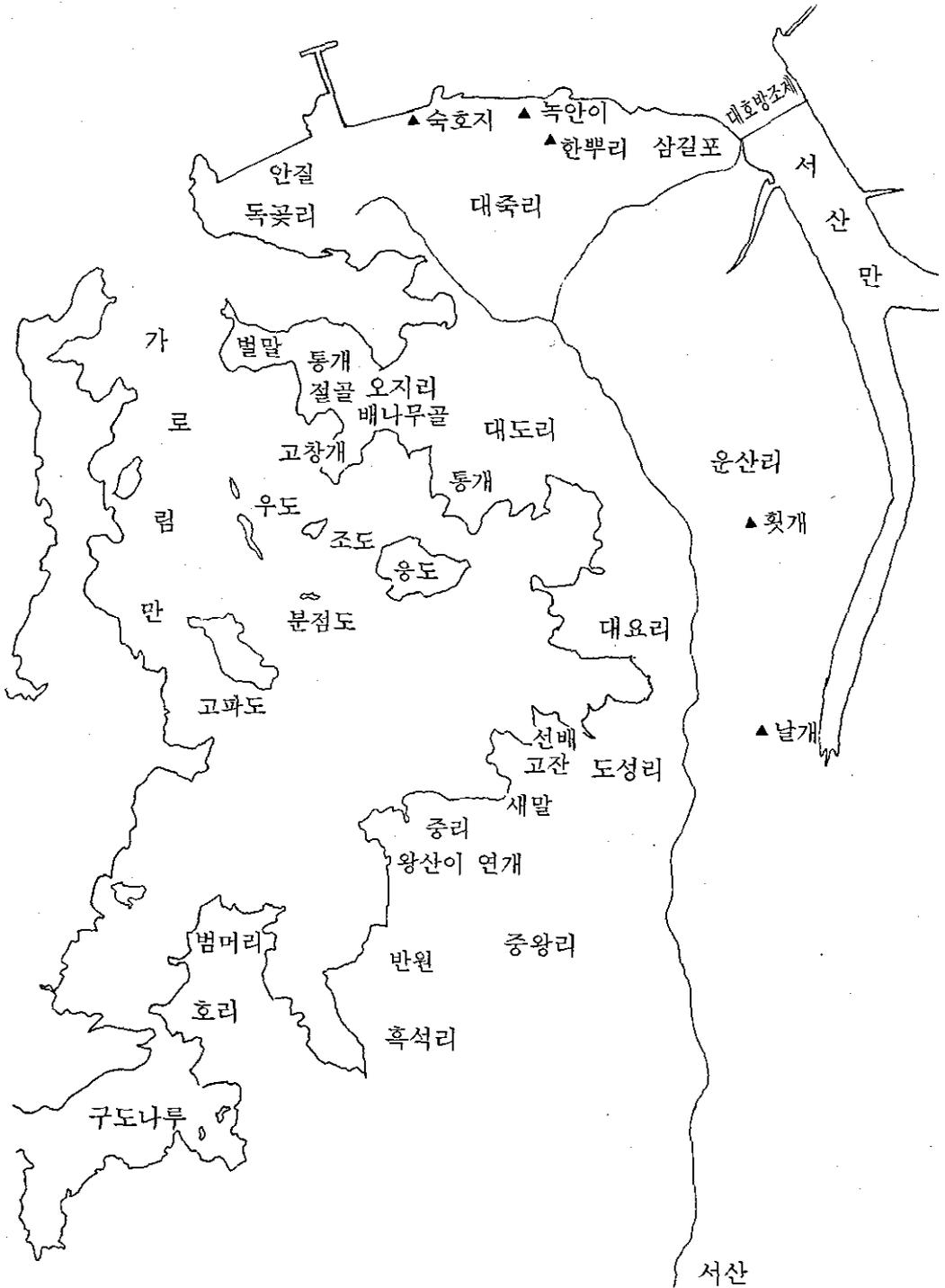
지곡면 중왕리와 도성리는 가로림만 연안의 제일가는 어촌이다. 여기서는 갈치·조기·낙지·굴·바지락·게 등 다양한 어류와 패류를 잡아 올리는데, 특히 실치잡이는 가로림만의 특산물이다.



〈사진〉 가로림만에서 잡은 실치포

가로림만의 실치는 이미 1920년대부터 뱃어포(白魚脯)로서 상품화 되었다.

〈그림 4-2-22〉 가로림만과 서산만 연안의 어촌



● 가로림만연안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각종 어류가 회유하고 산란하는 장소였다. 특히 1900년대초 까지 청어의 산란장소로 유명했던 곳이며, 갈치·조기·농어·실치·송어·민어·밴댕이·도미 등 수많은 어종이 잡히던 유명한 어장이었다. 또한 1950년대 까지도 많은 어전(漁箭)이 남아 있던 곳이었다.

팔봉면 호리(虎里)의 구도나루는 조선시대에 파지도만호가 있었던 곳이며, 최근 까지 서산지방과 인천을 잇는 정기여객선이 운항하던 나루터였다. 또 호리의 '범머리'는 실치·곤쟁이·굴·반지락을 많이 잡는 곳이며, 흑석리(黑石里)의 '반월'에서도 곤쟁이, 실치를 많이 잡고, 주목망어업이 성했다. 과거에 실치나 곤쟁이를 잡기 위해서는 '살'을 설치했는데, 살은 떠나 갈대로 영성하게 엮어서 잡아 올렸다. 팔봉면의 고파도(古波島)에서도 실치잡이가 성했고, 1970년대 후반까지도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곡면 중왕리(中旺里)는 가로림만의 중요한 어촌이다. 여기의 '중리', '왕산이', '연개' 등의 자연부락에서는 갈치·조기·낙지·굴·반지락·바다게·꽃게·미역·말·까막·망둥이 등 다양한 어종을 잡아올린다. 특히 왕산이는 실치잡이로 유명한데, 이미 일제시대부터 일본인에 의해 대량으로 어획되었으며, 요사이 나오는 뱀어포를 일정한 규격으로 상품화시켜온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이 되었다. 또 과거에 청어가 많이 잡혀 1900년대초 까지만 해도 청어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었다. 도성리(桃星里)의 '새말', '고잔', '선배' 등도 가로림만의 주요 어촌이다. 여기서는 조기·민어·굴·낙지·쭈꾸미·바다게·꽃게·까막·망둥이 등이 많이 잡힌다. 도성리는 바다배가 많아 어촌적 기능이 큰 곳이다.

대산읍의 대로리(大路里), 오지리(吾池里)도 중요한 어촌이다. 대로리의 '통개'는 바다게·꽃게 등을 많이 잡으며, 그 앞의 웅도(熊島)에서는 반지락·굴·낙지 등을 많이 잡는다. 또 분점도(分点島)에서는 갈치·농어·우럭을 많이 잡고 주목망어업을 한다. 오지리의 '고창개'·'절골'·'통개'·'별말'·'배나무골' 등의 자연부락에서는 반지락·굴·낙지·송어·백합 등의 어류를 많이 잡아올린다. 또한 오지리에는 염전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오지리 앞의 우도(牛島)에서는 밴댕이 잡이가 많고, 실치잡이를 위한 정치망이 크게 성했던 곳이다. 독곶리(獨串里)의 '안길'에서는 굴, 망둥이의 생산이 많고, 지금은 대산공업단지로 없어진 대죽리(大竹里)의 '숙호지'·'녹안이'·'한뿌리'(大角)은 모래땅이므로 특히 백합의 생산이 많았던 곳이다.

● 서산만연안

대산읍 화곡리 3구의 삼길포(三吉浦), 운산리의 '헛개', 지곡면 대요리의 '날개

〈사진〉 대호방조제 입구의 삼길포

삼길포는 서산만 입구의 비교적 순수어촌이다. 대호방조제가 건설되면서 관광어촌으로 핏집이 많아졌다. 삼길포는 과거에 실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다.



(出浦) 등은 서산만 연안의 주요 어촌이었다. 삼길포는 실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나, 대호방조제가 축조되면서 핏집이 많이 생겨 관광지화된 어촌이다. 핏개도 실치를 많이 잡던 곳이지만 대호방조제 축조 이전에 이미 그 기능이 삼길포로 넘어갔다. 핏개에도 과거에 '살(漁箭)'이 있었다. 날개에서는 반지락·망둥이 등을 많이 잡았는데, 대호방조제 건설 이후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날개에도 과거에 '살'이 있었다.

3) 도시

(1) 도시 및 지역계층 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

1990년대 전반부에 우리나라 도시변화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이른바 도농통합시의 출현이다. 이러한 도농통합시는 기존의 도시들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비교적 협소한 중심도시의 배후에 광범위한 기존의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본래의 도시적 기능과 형태가 뚜렷한 기존의 도시유형과 새로운 도농통합형으로 이원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체계상에서의 특정개별도시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나 충청남도 도시체계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간의 비교에 적지않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하여 우리나라나 충청남도 지역수준의 도시체계상에서의 서

산시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전국의 도농통합시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체계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파악하는 방법

둘째, 충청남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체계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파악하는 방법

이에 여기에서는 우선 도농통합시들의 인구순위규모분포와 면적순위규모분포에 의거하여 그의 인구 및 면적계층구조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농통합시의 인구 및 계층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인구순위규모분포에 의거하여 그의 인구계층구조를 조사하고, 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계층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① 전국도농통합시 인구 및 면적계층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

우리의 행정구역은 그동안 시를 도로부터 분리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읍을 군으로부터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도농분리형의 행정구역 조정의 관행이 계속 되면서 도농분리형의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 도농통합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이 요구되게 되었다. 결국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의 전지역에서 통합시가 출범하였으며, 특히 경북 및 충남의 모든 시가 통합시(전국 40개)로 전환되었다.

이 통합시들은 인구규모 편차가 약 5.5배에 이르고 있고, 이중 32개의 시(80%)가 인구 30만 이하이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대도시규모 1개 도시, 중도시규모 18개 도시로 증가하고, 소도시규모의 도시는 오히려 18개의 도시가 감소하여 전국 도시는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증가하였다. 한편 면적규모의 편차는 약 6.5배에 이르고 있으며, 통합시 중 19개 도시(약 48%)가 면적 700km²이상의 대도시들이다. 결국 전국의 총 68개의 시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인구면에 있어서

〈표1〉 도농통합전후 인구규모별 도시수 비교

구 분	도농통합전	도농통합후	증 감
거대도시(100만 이상)	6	6	0
대도시(50만~100만)	6	7	1
중도시(10만~50만)	29	47	+18
소도시(10만 미만)	33	15	-18

자료 : 김영·이우배, 1996,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제15권 제6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p.4.

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나, 면적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규모의 면적증대를 가져왔다(표1 참조).

가. 인구규모에 따른 도농통합시 계층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

인구규모에 따라 도농통합시의 도시계층을 분류하면, 모두 6개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Ⅰ계층(50만 이상)의 도시에 포항, 울산, 제Ⅱ계층(40~50만)의 도시에 창원, 마산, 제Ⅲ계층(30~40만)의 도시에 평택, 천안, 익산, 전주, 제Ⅳ계층(20~30만)에 남양주, 춘천, 원주, 강릉, 충주, 군산, 순천, 경주, 구미, 김해, 제Ⅴ계층(10~20만)에 제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광양,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제Ⅵ계층(10만 이하)에 삼척, 문경이 각각 속해 있다. 즉, 서산시는 인구규모에 따른 도농통합시 도시계층상에서 하위의 제Ⅴ계층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표2〉 인구규모에 따른 도·농통합시 계층

계 층	인구규모	해 당 도 시	도시수
제Ⅰ계층	50만이상	포항, 울산	2
제Ⅱ계층	40~50만	창원, 마산	2
제Ⅲ계층	30~40만	평택, 천안, 익산, 전주	4
제Ⅳ계층	20~30만	남양주, 춘천, 원주, 강릉, 충주, 군산, 순천, 경주, 구미, 김해	10
제Ⅴ계층	10~20만	제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정읍, 남원, 김제, 나주, 광양,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20
제Ⅵ계층	10만이하	삼척, 문경	2

자료 : 김영·이우배, 1996,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제15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 4.

나. 면적규모에 따른 도농통합시 계층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

면적규모에 따라 도농통합시의 도시계층을 분류하면, 6개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Ⅰ계층(1,000km²이상)에 춘천, 강릉, 삼척,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울산, 제Ⅱ계층(800~1,000km²)에 충주, 공주, 순천, 영천, 문경, 원주, 제천, 제Ⅲ계층(600~800km²)에 남원, 진주, 밀양, 천안, 서산, 정읍, 구미, 영주, 제Ⅳ계층(400~600km²)에 보령, 아산, 익산, 김제, 나주, 평택, 남양주, 광양, 경산, 김해, 제Ⅴ계층(300~400km²)에 군산, 마산, 사천, 거제, 제Ⅵ계층(300km²이하)에 창원, 통영이 각각 속해 있다.

표3. 면적규모에 따른 도·농통합시 계층

계 층	면적규모	면 적 규 모	도시수
제 I 계층	1,000km ² 이상	춘천, 강릉, 삼척,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울산	9
제 II 계층	800~1,000km ²	충주, 공주, 순천, 영천, 문경, 원주, 제천	7
제 III 계층	600~800km ²	남원, 진주, 밀양, 천안, 서산, 정읍, 구미, 영주	8
제 IV 계층	400~600km ²	보령, 아산, 익산, 김제, 나주, 평택, 남양주, 광양, 경산, 김해	10
제 V 계층	300~400km ²	군산, 마산, 사천, 거제	4
제 VI 계층	300km ² 이하	창원, 통영	2

자료 : 김영·이우배, 1996,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제15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 4.

여기에서 서산시는 도시계층상의 중위에 해당하는 제 III 계층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3 참조).

② 도시기능에 따른 도농통합시 분류상에서의 서산시의 특성

도농통합시를 도시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4 참조)

제 I 유형은 통합전 30만명이상의 시인구로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 도시이며, 기존의 군지역은 아직도 농업비중이 높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심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가 군을 흡수통합하는 유형이다.

제 II 유형은 통합전 15~25만명에 이르고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이 다양한 지방 중견도시이며, 제 I 유형보다는 낮지만 농촌지역이 중심도시에 강하게 의존하는 유형이다.

제 III 유형은 기존 시·군의 인구규모가 5만명 안팎으로 대등하고, 군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중심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기존시지역의 중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유형이다.

제 IV 유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시·군 모두 도시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기존 시지역은 위성도시의 성격을 띤다. 이 유형은 제 2, 3차 산업과 근교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중심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 통합시 유형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특징들이 나타난다. 먼저, 제 I 유형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중심도시가 기능강화 또는 대도시권의 진행에 따라 상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촌탈농인구 또는 겸업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표 4〉 도시기능에 의한 도농통합시의 분류

유형	통합시명	수	특성
I	구미, 창원, 포항, 마산, 울산	5	통합전의 시는 인구규모가 30만명이 넘고 제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방의 대도시이고(구미는 제외), 기존의 군지역은 아직 농업의 비중이 높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이고 중심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내용적으로 시가 군을 흡수하는 형
II	원주, 군산, 강릉, 청주, 순천, 진주, 경주, 천안, 이리	10	통합전 시는 인구규모가 15~25만명에 이르고,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한 지방의 중견도시로서, I 유형보다는 낮지만 농촌지역이 중심도시에 강하게 의존하는 형
III	공주, 문경, 보령, 삼척, 밀양, 거제, 통영, 아산, 김천, 서산, 제천, 안동, 영주, 상주, 정읍, 김제, 사천, 광양	20	기존 시·군의 인구규모가 5만명 안팎으로 대등하고, 군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중심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시 지역의 중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형(현행 군지역과 내용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IV	남양주, 평택, 경산, 나주, 김해	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시·군 모두 도시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기존시지역은 위성도시의 성격을 띄며, 2,3차 산업과 근교농업이 발달해 있었고, 중심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

자료 : 김영·이우배, 1996,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제15권 제6호,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p. 7.

나고 농촌적 토지이용 질서의 혼란과 공간적인 외연확산이 계속되는 유형이다. 그리고 중심도시의 면적과 인구규모가 주변의 농촌지역을 압도하고 기능적으로도 이미 배후지역 전체를 포섭하고 있어, 중심도시를 핵으로 전체 생활권의 통합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산업화된 대도시가 주변의 농촌지역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유형이다.

제Ⅱ유형과 제Ⅲ유형의 지역경제적인 측면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중심도시의 인접한 곳과 지역간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상공업기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게 되는 유형이다. 한편 소규모의 도시로서 상공업적 토지이용과 농업적 토지이용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감소와 농림업의 쇠퇴가 지속되는 유형이다. 제Ⅱ유형은 제Ⅰ유형만은 못하지만 중심도시의 인구가 더 많고 농촌주민의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면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생활권의 통합이 가능한 유형이며, 농촌지역이 중심

도시에 강하게 의존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Ⅲ유형은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의 인구규모가 대등하고 중심도시의 기능이 약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제Ⅳ유형은 상공업의 비중이 높고 겸업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유형이고 농촌적 토지이용 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공간적인 외연확산이 계속되는 유형이다. 제Ⅳ유형은 통합시의 중심도시와 농촌지역이 거대도시권의 중심도시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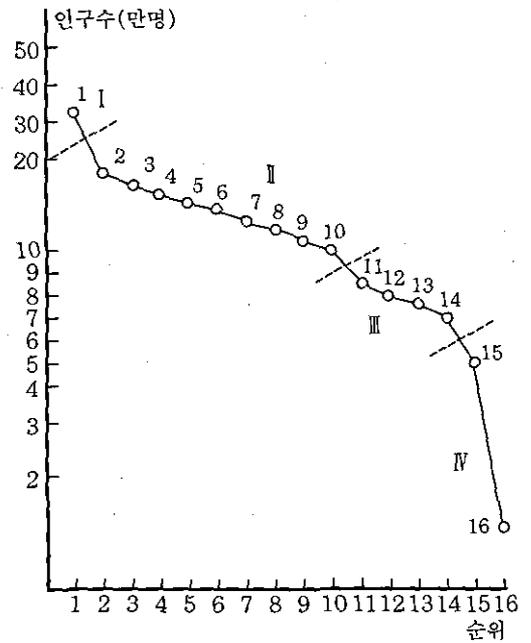
이러한 도시기능에 의한 도농통합시의 분류에 의하면, 서산시는 제Ⅲ유형에 속하고 있다. 즉, 서산시는 기존 시·군의 인구규모가 5만명 안팎으로 대등하고, 기존 군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중심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존 시지역의 중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유형에 속한다.

③ 충남 시·군 인구계층 구조상에서의 서산시의 위상

〈표 5〉 충남시·군의 인구계층 구조

계층	순위	시·군명	인구수	
I	1	천안시	318,034	
	2	아산시	155,135	
	3	논산시	150,136	
	4	서산시	140,330	
	5	공주시	139,238	
	II	6	보령시	124,886
		7	당진군	120,917
		8	예산군	112,136
		9	부여군	106,302
		10	홍성군	102,823
III	11	서천군	87,207	
	12	연기군	82,455	
	13	태안군	74,035	
	14	금산군	69,776	
	15	청양군	47,271	
IV	16	계룡출장소	14,010	

〈그림 1〉 충남시·군의 인구계층 구조



- 1. 천안시 2. 아산시 3. 논산시 4. 서산시
- 5. 공주시 6. 보령시 7. 당진군 8. 예산군
- 9. 부여군 10. 홍성군 11. 서천군 12. 연기군
- 13. 태안군 14. 금산군 15. 청양군
- 16. 계룡출장소

자료 : 통계청, 1995, 「인구 및 주택조사」, p.42.

충남 시·군 인구계층 구조를 보면, 인구규모에 따라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제Ⅰ계층에 천안시, 제Ⅱ계층에 아산시, 논산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당진군, 예산군, 부여군, 홍성군, 제Ⅲ계층에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금산군, 청양군, 제Ⅳ계층에 계룡출장소가 각각 속해 있다.

이 가운데, 서산시는 제Ⅱ계층에 속하여 있고, 충남전체에서는 제4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산시는 제Ⅱ계층내에서도 계층내 평균 인구 127,987명 보다도 많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인구규모면에서는 상위계층에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표 5 및 그림1 참조).

④ 태안반도 일대에서의 서산시 중심지의 위상

충남의 서부지역에는 대체로 4개의 중심지가 있는데, 현행정구역상의 보령시 대천동 일대, 홍성군 홍성읍 일대, 당진군 당진읍 일대, 서산시 동문동·부춘동 일대가 그곳들이다.

최근까지도 비슷한 수준의 이들 4개의 중심지들은 각기 독립적인 배후지역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서산시와 보령시가 도농통합시로 개편되면서 서산시와 보령시의 중심지 기능이 당진군과 홍성군의 중심지 기능의 상향폭보다 상대적으로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산시 중심지는 충남서부지역의 다른 중심지들과 달리 현재 행정구역이 상이한 태안군 일대도 배후지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즉, 현재 서산시와 태안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 교통, 생활 등의 제1차 중심지는 공유하고 있어서, 서산시 중심지가 태안반도 전역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중심지-주변지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래, 서산은 태안반도의 오랜 중심도시로 1942년에 읍으로 승격됐지만, 주요 교통축에서 벗어나 낙후상태에 있다가 수도권과의 도로교통이 편리해지는 한편, 천수만의 서산A·B지구 간척사업에 이어 대규모의 대산공업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활기찬 시급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즉, 서산시 중심부의 중심성은 아산만, 삼교천 방조제를 통한 수도권으로의 교통접근성이 증대되기 이전에는 공간적으로 태안반도에 한정된 농·임·수산물의 집산, 공산품의 매매, 교육·행정·문화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증대된 이후엔 그 중심성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본래, 서산시 중심지는 태안반도 외부지역과의 상호작용이 1970년대 말까지도 교통의 제약으로 인해서 극히 제한 되어 있었다. 즉, 태안반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은 안흥-인천간의 해운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서산-천안간 도로와 천안-서울간의 경부선 철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충청내륙으로의 접근은 천안을 관문으로한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태안반도 외부지역으로의 접근은 교통의 양과 질이 제한적이어서 태안반도지역은 사실상 불완전 개방지역에 속하고 있었다. 지난날 태안반도 지역을 지칭하는 속어인 '스-태안(서-태안)'이나 '서산 갯마을'은 이 지역의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어였는데, 이 말은 수도권이나 충청내륙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 때, 대표적 주변지역의 하나인 태안반도지역의 주변성, 원격성, 폐쇄성, 낙후성 등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따라서, 태안반도의 수위중심지인 서산시 중심지는 불완전 개방지역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부순환적 중심지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산만, 삼교천 방조제 등의 축조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완전개방지역의 중심지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교통접근도의 획기적 증대는 태안반도의 산업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의 서산시 중심지가 형성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고속도로가 당진군 운산면을 지나 해미면과 고북면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서산IC와 해미IC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태안반도 주민의 서산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접근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산시 중심지의 중심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 장차 충남내륙의 중심지인 공주·대전에 이르는 고속화도로망이 개설되면 서산시 중심지의 중심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서산시 중심지는 태안반도 전역을 충청내륙지방, 인천에서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지역 및 수도권과 연결시키는 결절로서 재화와 용역의 적환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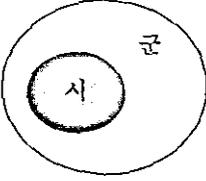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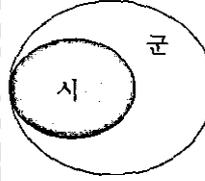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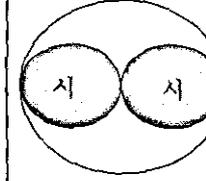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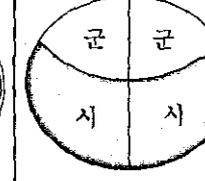
(2) 서산시의 도시내부구조

서산시는 도농통합형의 행정구역체제를 갖고 있어서, 도시적 인문경관과 기능을 갖고있는 부분은 洞지역이다. 따라서, 서산시의 도시구조에 대한 조사는 이들 동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면 된다.

① 도농통합시로서의 서산시의 물리적 공간유형

일반적으로 도농통합시의 물리적 공간유형은 시중심형, 시편심형, 트윈시티형, 군분할중립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 가운데 시중심형은 통합전의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한 유형으로 기존의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된 김제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시편심형은 통합전의 시가 군의 한쪽 외곽에 치우쳐 있는 유형으로 기존의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된 강릉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트윈시티형은 통합전에 군내에 2개이상의 시가 위치하였으나, 각기 군의 일부를 병합하여 쌍둥이 시를 갖는 유형으로 기존의 남양주군의 일부를 각각 통합한 미금시와 남양

〈그림 2〉 통합시의 4가지 물리적 공간유형

구분	(시중심형) •통합전의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한 형태	(시편심형) •통합전의 시가 한쪽 외곽에 치우쳐 있는 형태	(트윈시티형) •군 내부에 둘 이상의 시가 위치한 형태	(군분할통합형) •통합전의 시가 군을 분할하고 있는 형태
형태				
대표도시	김제시와 김제군	강릉시와 명주군	미암시와 남양주군	마산시·창원시와 창원군
특성	*방사의연확대다핵구조	*선형확대 중심이동	*염담도시권형성 주변성장	*배후지집중개발 분배성장

자료 : 이주희, 1995. "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제 9권 제4호, p.22/최양부, 윤원근, 1993. "도농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2호, p. 90/김영·이우배, 1996.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제15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6.

주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군분할통합형은 통합전의 시와 군을 분할하고 있는 유형으로 기존의 창원군을 분할통합한 마산시와 창원시가 이에 속한다.

서산시는 이러한 4개의 물리적 공간유형 가운데 시중심형에 속하여 중심지의 방사외연확대와 다핵구조전환, 중심지로의 접근도의 형평성유지 등이 가능한 효율적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② 서산시 읍·면·동의 인구계층구조상에서의 도시내부지역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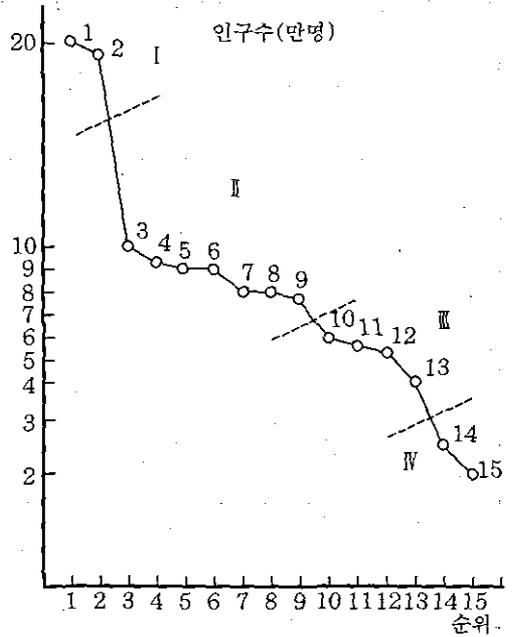
서산시 읍·면·동의 인구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인구규모에 따라 모두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I 계층엔 16,000명대의 동문동과 대산읍이 속해 있고, 제 II 계층엔 8,000~10,000명대의 부춘동, 활성동, 해미면, 석남동, 음암면, 운산면, 고북면 등이 속해 있다.

그리고, 제 III 계층엔 4,000~6,000명대의 인지면, 지곡면, 팔봉면, 성연면 등이 속해 있고, 제 IV 계층엔 2,000명대의 오산동과 수석동 등이 속해 있다(표6 및 그림 3 참조). 한편, 서산시 도시내부에 해당하는 6개동 가운데, 동문동이 제 I 계층에, 부춘동, 활성동 및 석남동이 제 II 계층에 각각 속하여 있고, 수석동과 오산동은 제 IV 계층에 속하여 있어서 동별인구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서산시 읍·면·동의 인구계층구조

계층	순위	시·군명	인구수
I	1	동문동	16,772
	2	대산읍	16,672
II	3	부춘동	10,857
	4	활성동	9,769
	5	해미면	9,748
	6	석남동	9,666
	7	음암면	8,337
	8	운산면	8,163
	9	고북면	8,137
	10	인지면	6,006
III	11	지곡면	5,899
	12	팔봉면	5,471
	13	성연면	4,309
IV	14	수석동	2,405
	15	오산동	2,226

〈그림 3〉 서산시 읍·면·동의 인구계층구조



1. 동문동 2. 대산읍 3. 부춘동 4. 활성동
 5. 해미면 6. 석남동 7. 음암면 8. 운산면
 9. 고북면 10. 인지면 11. 지곡면 12. 팔봉면
 13. 성연면 14. 수석동 15. 오산동

자료 : 통계청, 1995, 「인구 및 주택조사」, p.26.

③ 기능체의 업종구성과 입지 특성

어떤 한 도시의 도시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機能體의 업종구성과 공간적 입지분포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서 기능체의 업종구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도시의 기능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기능체의 입지분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도시규모가 아주 작은 소도시를 제외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체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표본수가 제한적이고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기능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기능체들의 입지분포와 업종구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전화를 갖지 않은 기능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방법은 전수조사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서산시의 도시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pp. 133~250)에 기재된 개별기능체들 가운데 동지역에 해당하는 기능체들 전체의 입지분포와 업종구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서산시의 동지역은 부춘, 동문, 활성, 수석, 석남, 오산동 등 6개 행정동지역을 의미하나, 활성동은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화번호부내의 개별기능체의 입지 분포표시는 법정동별로 되어 있어서 1차 자료 조사후 해당 행정동별로 재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된 서산시의 읍·면·동지역에 입지한 기능체수는 총 8,193개이다. 이 중에서 도시내부에 해당하는 동지역에는 전체의 75.07%에 해당하는 6,151개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의 동지역이 도시적 기능을 가진 도시화 지역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기능체의 업종별 구성

서산시의 도시내부에 입지한 기능체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업종분류 기준을 설정 하였는데, 전체업종을 우선 1차, 2차, 3차, 4차 및 5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이어서 각 산업을 세분류하였다.

여기서 1차산업은 농업, 임업, 낙농·축산업, 및 수산업으로, 2차산업은 광업, 공업 및 건설업으로, 3차산업은 일반 서어비스업, 요식업, 도·소매업, 교통·관광업 및 통신업으로, 4차산업은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및 부동산업으로, 그리고 5차산업은 보건·의료, 교육, 조사연구, 행정·세무·법률, 종교, 사회단체 및 위락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업종분류기준에 의거하여 기능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지역에 입지한 6,151개의 기능체중에서 3차산업이 66.26%(4,076개)로 절대적 수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은 5차산업이 15.57%(958개), 2차산업이 14.43%(888개)로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3차, 5차 및 2차산업이 전체의 96.26%를 차지해서 이들이 주류업종임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이러한 업종구성은 서산시의 도시내부가 사실상 요식업, 도·소매업, 교통·관광업 및 통신업으로 구성된 3차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보건·의료, 교육, 조사연구 등의 5차산업과 광업, 공업 및 건설업 등의 2차산업이 보조산업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3차산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도·소매업이 3차산업 전체의 48.40%(1,973개)를, 일반서어비스업이 17.44%(711개), 요식업이 29.31%(1,195개)

(표7) 서산시 동지역의 산업별 기능체수 및 단위면적당 기능체수

동별	산업별 기능체수					총기능체수	단위면적(1km ²)당 기능체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	5차산업		
부춘	5	315	1,190	64	285	1,859	197.76
동문	12	390	2,351	120	508	3,381	407.34
수석	4	113	298	10	88	513	58.29
석남	3	66	230	8	68	375	23.88
오산	1	4	7	2	9	23	2.23
계	25	888	4,076	204	958	6,151	1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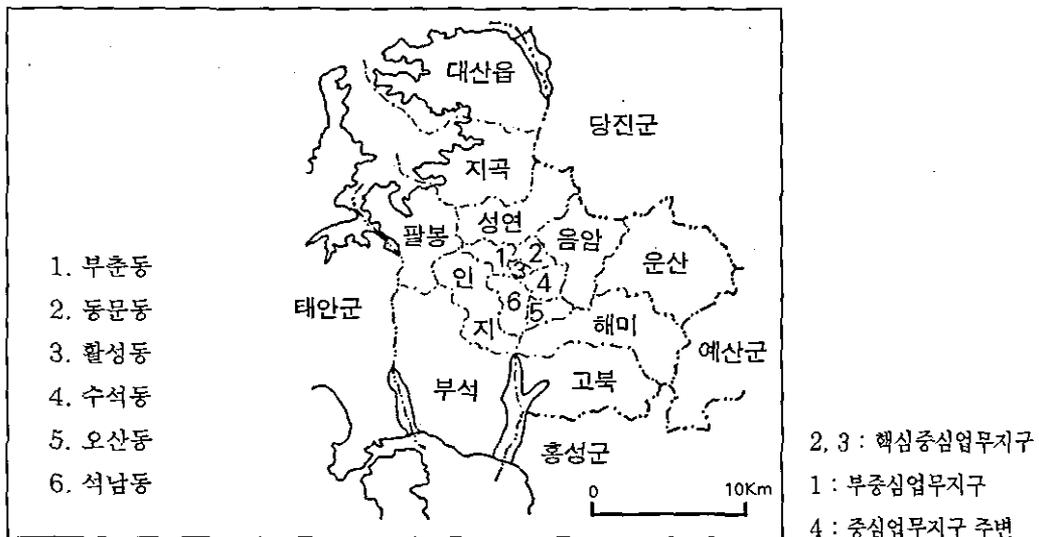
·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 통계청, 1996, 「인구 및 주택조사 잠정보고」, p. 10.

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2개업종이 3차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같은 3차산업 업종중에서도 교통·관광업과 통신업은 각각 4.46%(182개)와 0.36%(15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3차산업 내에서도 업종간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표 10 참조).

2차산업의 내역을 보면, 공업이 2차산업 전체의 68.80%(611개), 건설업이 29.6%를 각각 차지해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광업은 1.57%(14개)로 미미한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9 참조)

(그림 4) 서산시의 내부구조



5차산업은 교육이 5차산업 전체의 28.91%(277개)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위락이 16.91%(162개), 보건·의료가 14.19%(136개), 행정·세무·법률이 11.89%(114개), 종교가 10.22%(98개)로 비교적 고른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연구는 0.20%(2개)로 극히 미미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표12 참조).

또한, 농업, 임업, 낙농·축산업 및 수산업으로 구성된 1차산업은 조사지역의 도시성으로 인하여 미미한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표8 참조), 현대도시의 새로운 도시기능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는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및 부동산업으로 구성된 4차산업의 미미한 구성비율은 서산시의 도시기능의 저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11 참조).

한편, 전체 기능체의 업종구성을 세분류로 살펴보면, 1위 도·소매업(32.07%, 1,973개), 2위 요식업(19.42%, 1,195개), 3위 일반서서비스업(11.55%, 711개), 4위 공업(9.93%, 611개), 5위 교육(4.50%, 277개)등으로 나타나서, 3차산업에 속한 도·소매업, 요식업, 일반서서비스업이 각각 1, 2,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차산업의 공업과 5차산업의 교육이 각각 4, 5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 기능체의 업종별 입지분포

서산시의 도시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역에 입지한 기능체들의 입지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위면적(1km²)당 기능체 총수로 볼 때, 동문동이 407.34개, 부춘동이 197.76개, 수석동이 58.29개, 석남동이 23.88개, 오산동이 2.23개로 각각 나타나서 동문동지역이 핵심중심업무지구에 해당하고, 부춘동이 부중심업무지구에 해당되며, 수석동은 중심업무지구 주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석남동과 오산동은 사실상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산시 도시내부의 기능체 입지의 공간구조를 보면, 동문, 부춘, 수석동 등이 중심업무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7 및 그림 4 참조).

○ 서산시 중심업무지구의 배후지역

한 도시가 외부지역에 대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은 그 도시에 소득을 가져오는 기능인데, 이것을 기반기능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재화나 서비스가 그 도시 자체내에서 소비되고 외부로부터 소득을 가져오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바기반기능이라 한다.

서산시 도시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수준의 중심업무 지구는 위와 같은 기반기능과 바기반기능이 창출되는 핵심지구이다.

특히, 서산시 도시내부의 중심업무지구에서 창출되는 기반기능에 의한 재화와

〈표 8〉 서산시 동지역의 1차산업의 업종별 기능체수

동 별	업 종				계
	농 업	임 업	낙농·축산업	수 산업	
부 춘		1	4		5
동 문		1	5	6	12
수 석	1		1	2	4
석 남		1	1	1	3
오 산		1			1
계	1	4	11	9	25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전화번호부」, pp. 133~250.

〈표 9〉 서산시 동지역 2차산업의 업종별 기능체수

동 별	업 종			계
	광 업	공 업	건 설 업	
부 춘	4	198	113	315
동 문	9	290	91	390
수 석		78	35	113
석 남	1	41	24	66
오 산		4		4
계	14	611	263	888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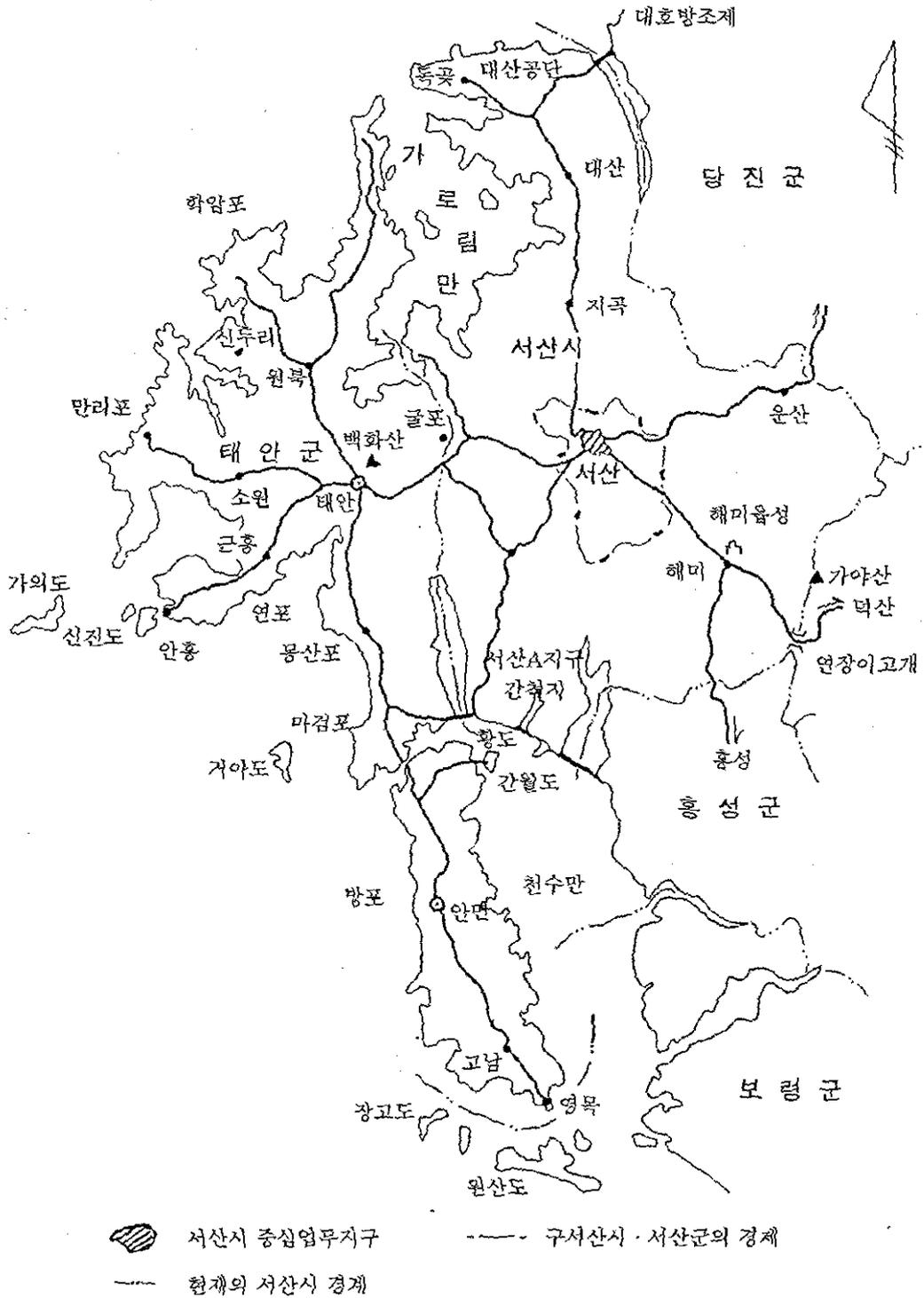
〈표 10〉 서산시 동지역 3차산업의 업종별 기능체수

동 별	업 종					계
	일반서비스업	요 식 업	도소매업	교 통 업*	통 신 업	
부 춘	223	432	489	43	3	1,190
동 문	382	668	1,201	88	12	2,351
수 석	53	53	165	27		298
석 남	52	40	114	24		230
오 산	1	2	4			7
계	711	1,195	1,973	182	15	4,076

*교통업에 운수업, 관광업 등 포함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그림 5〉 서산시의 중심업무 지구와 그의 배후 지역



용역의 공간적 도달범위는 서산시 읍면지역 전체와 인접 태안군 전체에 이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 뿐, 상당부분이 서산시 도시내부 중심업무지구의 기반기능 영향권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5 참조).

<표 11> 서산시 동지역 4차 산업의 업종별 기능체수

동 별	업 종				계
	무 역	금 융	보 험	부 동 산	
부춘	1	18	22	23	64
동문	3	39	32	46	120
수석		1	1	8	10
석남		4		4	8
오산		1	1		2
계	4	63	56	81	204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표 12> 서산시 동지역 5차 산업의 업종별 기능체수

동별	업 종							계
	보건·의료	교육	조사·연구	행정·사무·법률	종교	사회단체	위락	
부춘	21	89		32	23	63	57	285
동문	108	122	2	59	50	82	85	508
수석	6	33		13	16	11	9	88
석남	1	30		8	8	12	9	68
오산		3		2	1	1	2	9
계	136	277	2	114	98	169	162	958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즉, 서산시 도시내부의 중심업무지구가 중심지로서 창출하는 기반 및 비기반기능에 의한 중심성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산시는 물론 태안군 일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 도시내부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심지구로하여 창출되는 중심성은 다른 통합시들에 비하면 그 수준이 저급한 상태이다.

④ 도시내부 및 외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생활행태의 공간적 특성

일반적으로 도시내부에는 3, 4, 5차산업 기능체들이 입지해 있는 기능지역이 핵심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하여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1, 2차산업 기능체들이 입지하여 있는 기능지역이 산재하여 있다. 그리고, 도시내부에서 이

〈표 13〉 서산시 동지역 산업업종별 기능체수의 구성순위

구성순위	산업별	업종	기능체의 총수 및 구성비		
			총수	구성비(%)	누적구성비(%)
1	3	도·소매업	1,973	32.07	32.07
2	3	요식업	1,195	19.42	51.49
3	3	일반서어비스업	711	11.55	63.04
4	2	공업	611	9.93	72.97
5	5	교육	277	4.50	77.47
6	2	건설업	263	4.27	
7	3	교통업	182	2.95	
8	5	사회단체	169	2.74	
9	5	위락업	162	2.63	
10	5	보건·의료업	136	2.21	
11	5	행정·세무·법률	114	1.85	
12	5	종교	98	1.59	
13	4	부동산업	81	1.31	
14	4	금융업	63	1.02	
15	4	보험업	56	0.91	
16	3	통신업	15	0.24	
17	2	광고업	14	0.22	
18	1	낙농·축산업	11	0.17	
19	1	수산업	9	0.14	
20	4	무역업	4	0.06	
21	1	임업	4	0.06	
22	5	조사·연구	2	0.03	
23	1	농업	1	0.01	
계			6,151	100	

자료 : 한국통신총청본부, 1996, 「충남 서산시·태안군 전화번호부」, pp.133~250.

들 산업기능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거주지역화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내부구조의 파악은 각종 기능체의 업종구성 및 입지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거주지역의 파악은 주거종류,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생활행태의 공간적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거주지역의 특성파악을 위해서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생활행태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도시내부지역(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도시외부지역(읍면지역)거주민과의 대비를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동지역 거주민의 설문은 132매가 유효했고, 면지역 거주민의 설문은 217매가 유효했다.

설문내용 중에서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가구주와 주부의 직업, 가족의 한달수입, 가구주와 주부의 연령, 가구주와 주부의 학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생활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상품구매권, 의료권, 전화통화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 가구주와 주부의 종사직종구성

종사직종구성은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가구주의 직종구성은 사무직(21.96%), 도·소매업(16.66%), 농·임·수산업(15.15%)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의 직종구성은 무직(49.24%), 도·소매업(12.87%), 각종서비스업(12.1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외부지역의 경우, 가구주의 직종구성은 농·임·수산업(52.53%), 교통·통신·운수업(7.37%), 기능·생산공정 및 기타 단순노동(6.45%), 도·소매업(6.45%)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의 직종구성은 농·임·수산업(43.77%), 무직(26.26%), 기능·생산공정 및 기타단순노동(9.2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이러한 가구주와 주부의 종사직종구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가구주의 직종구성에 있어서 도시내부지역에서 사무직, 도·소매업에 이어 농·임·수산업이 3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도시내부지역에서도 비도시적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이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도시외부지역에선 지역특성상 농·임·수산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내부지역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둘째, 주부의 직종구성에 있어서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무직이 절반에 이르고 있

으나, 도시 외부지역의 경우 농·임·수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14〉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 가구주와 주부의 직종구성

종 사 직 종	도시내부지역				도시외부지역			
	가 구 주		주 부		가 구 주		주 부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농·임·수산업 종사자	20	15.15	13	9.84	114	52.53	95	43.77
공업 및 채석업 종사자	0	0	0	0	0	0	0	0
기능·생산공정 및 기타 단순노동 종사자	13	9.84	9	6.81	14	6.45	20	9.21
도·소매업 종사자	22	16.66	17	12.87	14	6.45	14	6.45
교통·통신·운수업 종사자	9	6.81	0	0	16	7.37	1	0.46
각종서비스업 종사자	8	6.06	16	12.12	9	4.14	14	6.45
사무직 종사자	29	21.96	2	1.51	12	5.52	3	1.38
관리직 종사자	12	9.09	0	0	8	3.68	0	0
전문직 종사자	9	6.81	1	0.75	7	3.22	0	0
군인	1	0.75	0	0	9	4.14	0	0
학생	0	0	0	0	0	0	0	0
무직	0	0	65	49.24	2	0.92	57	26.26
기타	9	6.81	9	6.81	12	5.52	13	5.99
계	132	100	132	100	217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가족의 한달 수입

가족의 한달 수입은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126~150만원(19.69%), 101~125만원(17.42%), 176~200만원(13.63%)의 순서로 나타나서, 101~200만원대가 50.74%로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76~100만원(23.04%), 126~150만원(19.69%), 101~125만원(14.28%)의 순서로 나타나서 76~150만원대가 57.0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5 참조).

따라서 가족 모두의 한달 수입은 도시내부지역이 도시외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 가족의 한달 수입

가족의 한달 수입	도시내부지역		도시외부지역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50만원 이하	2	1.51	16	7.37
50~75만원	7	5.30	14	6.45
75~100만원	9	6.81	50	23.04
101~125만원	23	17.42	31	14.28
126~150만원	26	19.69	38	17.51
151~175만원	11	8.33	10	4.60
176~200만원	18	13.63	15	6.91
201~225만원	8	6.06	14	6.45
226~250만원	5	3.78	8	3.68
251~275만원	4	3.03	4	1.84
276~300만원	6	4.57	10	4.60
301~325만원	2	1.51	1	0.46
326~350만원	4	3.03	1	0.46
351만원 이상	1	5.30	5	2.30
계	132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가족, 구성비 : %

○ 가구수와 주부의 연령

가구주와 주부의 연령구성을 보면,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가구주는 40~49세(28.03%), 50~54세(15.90%)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는 40~44세(46.96%), 35~39세(29.54%), 45~49세(18.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가구주는 45~49세(41.47%), 40~44세(33.64%), 50~54세(16.58%)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의 경우 40~44세(47.92%), 35~39세(27.64%), 45~49세(17.9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가구주와 주부 공히 40대전반 연령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가구주는 40대후반이, 주부는 40대전반 연령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양지역간 연령 격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16 참조).

가구주와 주부의 학력을 살펴보면,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가구주는 고등학교(46.21%), 중학교(25.00%), 초등학교(12.87%)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는 고등학교(38.63%), 중학교(32.57%), 초등학교(18.9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가구주는 초등학교(37.32%), 고등학교(29.03%), 중학교(28.11%)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부는 초등학교(41.47%), 중학교(30.87%), 고등학교(24.4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와 주부의 학력구성에 있어서, 도시내부지역은 고등학교가 수위로 나타나고, 도시외부지역

〈표 16〉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 가구주와 주부의 연령

종 사 직 종	도시내부지역				도시외부지역			
	가 구 주		주 부		가 구 주		주 부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24세	0	0	0	0	0	0	0	0
25~29세	0	0	0	0	0	0	0	0
30~34세	0	0	1	0.75	0	0	1	0.75
35~39세	11	8.33	39	29.54	6	2.76	60	27.64
40~44세	59	44.69	62	46.96	73	33.64	104	47.92
45~49세	37	28.03	24	18.18	90	41.47	39	17.97
50~54세	21	15.90	4	3.03	36	16.58	9	4.14
55~59세	3	2.27	1	0.75	8	3.68	2	0.92
60세이상	1	0.75	1	0.75	4	1.84	2	0.92
계	132	100	132	100	217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가족, 구성비 : %

〈표 17〉 서산시 도시내부 및 도시외부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 가구주와 주부의 학력

종 사 직 종	도시내부지역				도시외부지역			
	가 구 주		주 부		가 구 주		주 부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무 학	3	2.27	6	4.54	2	0.92	6	2.76
초등학교 졸업	17	12.87	25	18.93	81	37.32	90	41.47
중학교 졸업	33	25.00	43	32.57	61	28.11	67	30.87
고등학교 졸업	61	46.21	51	38.63	63	29.03	53	24.42
전문대학 졸업	9	6.81	2	1.51	4	1.84	1	0.46
대학교 졸업	7	5.30	4	3.03	5	2.30	0	0
대학원 졸업	2	1.51	1	0.75	1	0.46	0	0
계	132	100	132	100	132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은 초등학교 졸업이 수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간의 학력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표 17 참조).

나. 주민의 생활행태의 공간적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는 주민의 생활행태의 공간적 특성을 상품구매권, 의료권, 전화통화권 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품구매권

상품구매권을 보면,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식료품은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46.21%), 집부근상점(29.54%), 시내종합시장(22.72%)의 순서로, 일용잡화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41.66%), 집부근 상점(33.33%), 시내의 종합시장(23.48%)의 순서로, 의류 및 장신구는 시내종합시장(50.75%),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39.39%),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4.54%)의 순서로, 가구는 시내종합시장(60.60%),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28.0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9.84%)의 순서로, 가전제품의 경우 시내종합시장(61.36%),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30.30%),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6.06%)의 순서로 나타난다(표 18 참조).

따라서,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식료품과 일용잡화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주로 구매되고, 집부근 상점과 시내종합시장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5일장이나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에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류 및 장신구, 가구, 가전제품은 시내종합시장에서 주로 구매되고, 나머지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대부분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료품이나 일용잡화와 달리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에서도 약간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식료품은 집부근상점(49.30%), 시내종합시장(23.50%), 5일장(15.20%)의 순서로, 일용잡화는 집부근 상점(59.90%),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18.89%), 시내종합시장(13.36%)의 순서로, 의류 및 장신구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56.68%), 시내종합시장(34.10%)의 순서로, 가구는 시내종합시장(43.77%),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37.32%),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11.98%)의 순서로, 가전제품은 시내종합시장(43.77%),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35.94%),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13.3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식료품과 일용잡화는 집부근상점에서 가장 많은 구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시내종합시장,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5일장

〈표 18〉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 지역주민의 행태 : 상품구매권

지역	구매품목 구매장소	식료품		일용잡화		의류및장신구		가 구		가전제품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도시내부지역	시내의 종합시장	30	22.7	31	23.48	67	50.75	80	60.61	81	61.36
	5일장	0	0	1	0.75	4	6.03	2	1.51	3	2.27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	2	1.51	1	0.75	6	4.54	13	4	8	6
	계	132	100	132	100	132	100	132	100	132	100
도시외부지역	집부근 상점	107	49.30	130	59.5	5	2.30	8	3.68	7	3.22
	시내의 대형슈퍼마켓										
	이나 쇼핑센터	3	15.20	3	1.38	9	4.14	26	11.98	29	13.36
	시내의 종합시장	51	23.50	29	13.36	74	34.10	95	43.77	95	43.77
	5일장	33	15.20	14	6.45	6	2.76	7	3.22	8	3.68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시										
계	217	100	217	100	217	100	217	100	100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등지에서 분산구입되고 있으며, 의류 및 장신구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가장 많은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내종합시장에서 구입되고 있다. 또한, 가구와 가전제품은 시내종합시장에서 가장 많은 구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시내대형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와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도시내부지역과 도시외부지역은 상품구매권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의료진

평상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병·의원의 소재를 조사하여 의료권을 파악한 결과,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시내중심부(63.63%), 집근처(33.3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3.03%)의 순서로 나타나고, 도시외부지역의 경우도 시내중심부(65.43%), 집근처(29.49%),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5.06%)의 순서로 나타나고, 양지역이 유사한 의료권을 형성하고 있다(표 19 참조).

특히, 양지역 모두 시내중심부와 집근처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주민의 행태 : 의료권

병·의원의 소재지	도시내부지역		도시외부지역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집근처	44	33.33	64	29.49
서산시 중심부	84	63.63	142	65.4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의 도시	1	3.03	11	5.06
계	132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 전화통화권

전화통화권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하루중의 주요수신지(전화를 가장 많이 거는 곳)와 주요발신지(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곳)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주요수신지는 도시내부지역(80.3%), 도시외부지역(16.66%),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3.0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9.09%)순서로 나타나서, 도시내부지역의 경우 주요수신지와 주요발신지 모두 동일한 도시내부지역이 80%내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0 및 21 참조).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주요수신지는 도시외부지역(53.45%), 도시내부지역(38.24%),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8.29%)의 순서로 나타나고, 주요발신지는 도시외부지역(53.91%), 도시외부지역의 경우 주요수신지와 주요발신지 모두 동일한 도시외부지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주민의 행태 : 전화통화권(주요수신지)

지역	수신지	제1수신지		제2수신지		제3수신지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도시내부지역	서산시 동지역	106	80.30	17	12.87	9	6.81
	서산시 읍·면지역	22	16.66	63	47.72	47	35.60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이나 도시	4	3.03	52	39.39	76	57.57
	계	132	100	132	100	132	100
도시외부지역	서산시 동지역	84	38.24	77	35.48	57	26.26
	서산시 읍·면지역	116	53.45	82	37.78	19	8.75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이나 도시	18	8.29	58	26.72	141	64.97
	계	217	100	217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따라서, 도시내부지역과 도시외부지역은 동일지역을 수위발신지와 수신지로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표20 및 21 참조).

〈표 21〉 서산시 도시내부 및 외부지역주민의 행태 : 전화통화권(주요발신지)

지역	수신지	제1수신지		제2수신지		제3수신지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구성수	구성비
도시 외부 지역	서산시 동지역	101	76.51	20	15.15	11	8.33
	서산시 읍·면지역	19	14.39	76	57.57	37	28.0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이나 도시	12	9.09	36	27.27	84	63.63
	계	132	100	132	100	132	100
도시 외부 지역	서산시 동지역	75	34.56	81	37.32	61	28.11
	서산시 읍·면지역	117	53.91	78	35.94	22	10.13
	서산이 아닌 다른지역이나 도시	25	11.52	58	26.72	134	61.75
	계	217	100	217	100	217	100

* 단위 - 구성수 : 명, 구성비 : %

제5절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1. 서산의 지역개발사업

- 1) 공업개발 2) 농업개발
- 3) 교통개발 4) 관광개발
- 5) 도시개발 6) 행정개발

2. 서산지역 개발의 과제

- 1) 공업개발의 과제
- 2) 농업개발의 과제
- 3) 교통개발의 과제
- 4) 관광개발의 과제
- 5) 도시개발의 과제
- 6) 행정개발의 과제

3. 지역개발에 따른 서산주민의 저항

- 1) 인지면 모월리 개척단과 간척지 분양
- 2) 간사지 불법매립지 처리

3) A·B지구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피해와 보상과정

- 4) 서산 쓰레기 매립지 시설과정
- 5) 양대리 쓰레기장 설치
- 6) 분뇨처리장 시설문제
- 7) 인지면 산동리 공설공원묘지조성
- 8) K-Z 비행장건설에 따른 주민저항과 이주과정
- 9) 동문동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의 교훈

4. 서산의 지역개발과 환경의 변화

- 1) 토지 및 기후 2) 대기질
- 3) 수질 4) 토양
- 5) 폐기물 6) 소음과 진동

제5절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1. 서산의 지역개발사업

서산시 일대는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수도권 및 대전권과의 교통연계가 불량하여 외부지역과의 교류가 제한된 채 불완전 개방지역의 폐쇄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의 소외로 인하여 농업, 염업, 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간적으로는 당시의 서산읍, 태안읍, 안면읍, 등을 중심으로 농업, 염업, 수산업의 집산기능과 교육, 행정, 문화 등의 서어비스기능이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전의 서산시 일대는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의 표본의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외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건설, 천수만일대에서의 간척사업의 진행, 대산반도 일대에서의 대단위 공업단지의 건설, 분리됐던 서산시·군의 통합, 적극적인 관광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서산읍 일대의 중심지가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도시내부가 분화가 진행되고, 서산시가 전국적 도시체계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관을 기초로하여 서산시에서 그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지역개발의 현황과 과제를 공업개발, 농업개발, 교통개발, 관광개발, 도시개발, 행정개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개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업개발

(1) 대산·대죽공단의 개발

충남 서산시 일대는 서해안 개발의 전초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점들을 안고 있는 곳이다.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다. 중국과 가까우며 크고 작은 만이 많아 매립으로 대규모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백여만평의 바다를 매워 조성된 대산공단은「제2의 울산석유 화학단지」로 불린다. 삼성과 현대가 지금까지 투자한 공식비용만도 3조1천억원이며, 삼성종합화학과 현

대석유화학이 연간 1백50만t 안팎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60~70%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대정유는 휘발유·정유 등 각종 석유제품을 연간 3천여만배럴씩 생산하고 있다. 대산단지는 특히 울산이나 여천과는 달리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건설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개사는 앞으로 5년간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더 투자할 예정이어서 동양 굴지의 석유화학단지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것은 물론, 서해안지역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산공단 인근의 대산을 대죽·화곡리일대 63만평(공유수면 30만6천평 포함)에는 충남도가 시행하는 대죽공단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석유화학 관련 1백2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설계를 끝내고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 항공우주 생산기지의 건설

현대그룹이 서산에 1조원을 투입, 20만평 규모의 항공우주생산기지를 건설한다. 현대그룹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농공단지에 헬리콥터에서 항공기, 우주선 부품까지를 종합생산하는 대규모 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현대는 총1조원을 투입, 현대전자의 글로벌스타 프로젝트와 현대기술개발의 위성본체제작 사업을 연계한 종합항공우주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 생산기지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현대측이 성연농공단지에 20만평을 요청해오에 따라 지금까지 미분양된 7만평 외에 13만평을 확장하여 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성연농공단지는 89년에 사업에 착수, 92년에 9만3천평의 단지를 준공했다. 현대측은 현대전자의 글로벌스타 프로젝트에 참여 사업방침에 따라 현대기술개발이 미국TRW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위성본체제작을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항공부문도 현대기술개발이 일본 가와사키공업과 제휴, 연간15대 규모의 BK117헬기를 생산할 방침이다.

(3)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의 건설

충남도는 매립조성중인 서산B지구 간척사업지역내 현대측으로부터 1천7백60만평으로 조성되는 서산B지구 간척지내 항공기 부품생산공장 설립의사를 제시받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당초 현대측의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 설치희망에 대해 현행 공유수면 매립법중「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후 5년이내 농경지등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2) 농업개발

(1) 서산 간척지의 개발

충남지역 최대 간척지인 서산A·B지구가 최근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이곳을 당초 공유수면매립면허 목적대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단번에 4천6백61만평의 땅이 늘어났다. 이같은 면적은 청양군의 논과 밭과수원을 합친 3천3백92만평보다도 1천2백69만평이 넓고, 도내 전체 과수원규모 1천3백84만평의 3배가 넘는다. 충남도의 경지면적도 종전 8억2천4백82만평에서 5.6%가 늘었다.

서산A·B지구는 현대건설이 충남 서산·태안·홍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바다를 막아서 만든 것이다. 현대측은 지난 79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총6천4백70억원을 투입, 17년만에 완공했다. 제방의 길이는 2개소에 걸쳐 7천6백86m이며, 제방으로 인해 형성된 편입토지 4천6백만평중 논이 3천66만평, 도로 80만평, 수로 1백60만평, 하천 98만평, 저수지 1천1백66만평, 기타 97만평으로 돼있다. 현대그룹은 준공인가된 서산간척지를 세계적 수준의 첨단영농단지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현대그룹에 의하면 서산A·B지구 매립지 4천6백60여만평중 담수호 1천3백여만평을 제외한 3천3백60여만평을 대단위 기술영농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첨단 농업기술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첨단 농업기술센터에는 육성재배와 종자개발 토양연구 기계화연구 병충해연구 등에 필요한 실험장비가 도입되고 시험재배단지가 조성된다. 이같은 영농인력과 장비 확충이 마무리되면, 일반미 생산은 연간 13만7천여가마에서 50여만가마로, 찰쌀은 4천여가마에서 5천여가마로, 보리는 2만8천여가마에서 3만7천5백여가마로 크게 증가된다.

(2) 농정지원

서산시는 농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등 농정지원에 총 1백26억4천여만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지역의 지역특화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 및 판매의 지원폭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들이 돌아갈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센터 및 대도시 직판장을 확충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농어촌 기반시설에 3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포장, 농촌도로구조물 안전진단, 소하천 정비, 대형관정 굴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벼직파 시범지 육성, WTO 대응소득작물 개발, 농산물 가공개발 등에도 3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벼직파기 50대를 비롯하여 소형동력방제기 85대등 농기계 공급에 21억여원이 지원되며, 쌀 전업농 육성에 총 15억여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1억원을 투입, 고질적인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등 도·농통합형

도시형태에 맞는 균형적인 농어촌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3) 농촌주거환경 개선

서산시는 7억7천만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시는 주택·화장실·부엌등 3백80동 개량에 이어 98년까지 36억5천여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1백50동 화장실개량 1백5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백50동 등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3) 교통개발

(1) 육상교통망의 개발

육상교통망의 서산시내를 중심으로 당진~태안간 32번국도, 홍성~대산간 29번국도, 당진 석문~태안 남면간의 649번 지방도 등이 교차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공사중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군 운산면을 지나 해미면과 고북면을 지나고 있는데, 서산IC와 해미IC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수도권과 호남권으로의 접근도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서산은 태안군과 회부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중요하다(그림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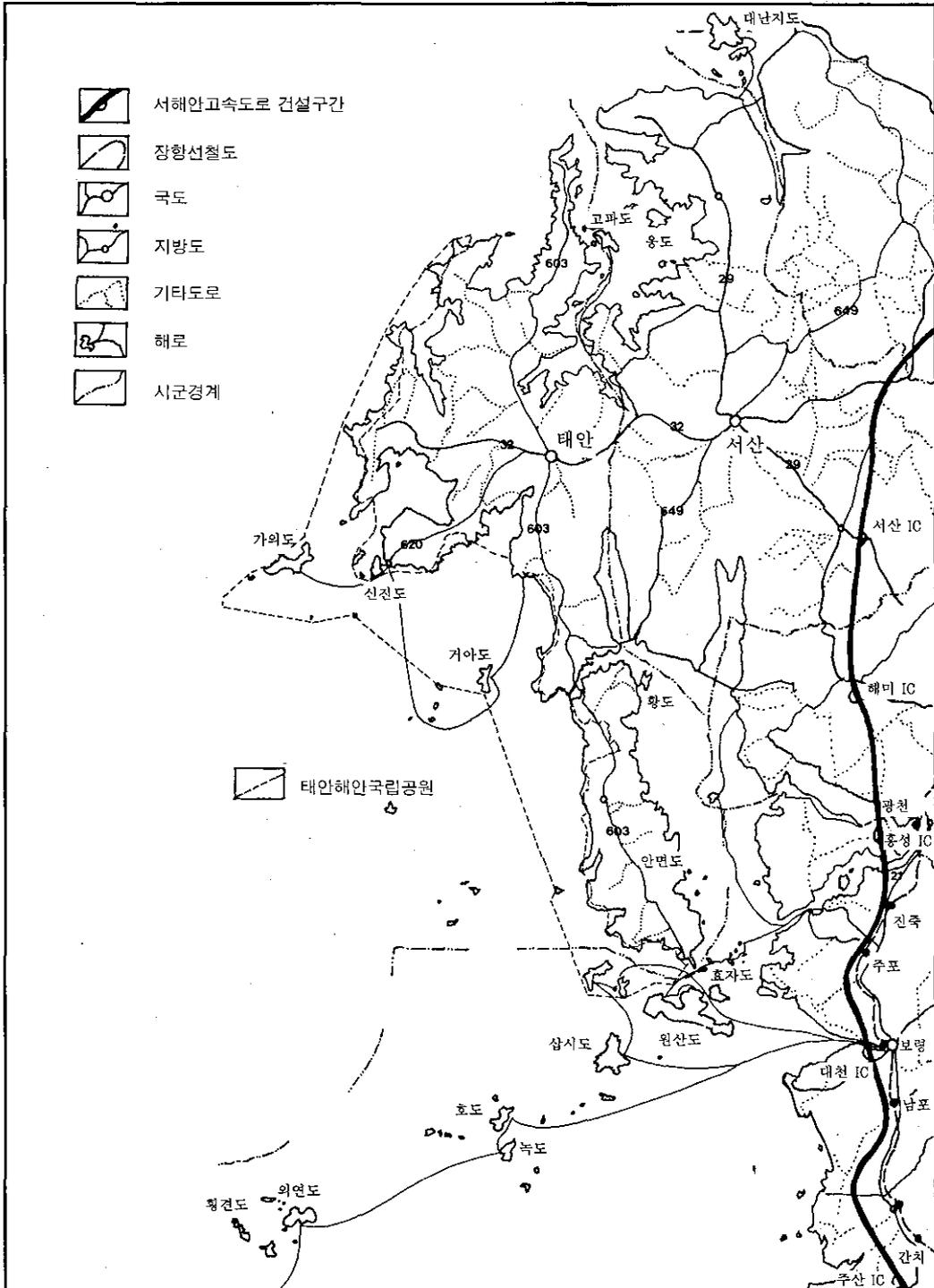
한편, 충청남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4대권 개발경영구상 가운데 간선교통망체계부분에 의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해안 고속국도이외에 장차 서해안 고속철도, 안흥항에서 시작해 아산항을 거쳐서 호남고속철도에 이르는 동서산업철도, 보령항에서 시작해서 태안반도 외곽부를 거쳐 아산항에 이르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 등이 서산시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서산시의 역외 교통접근도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근의 당진군에서 시작되어 대전일대의 호남고속국도에 연결될 당진-대전간 고속국도는 서산시에서 대전지역으로의 교통접근도를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다(그림7 참조).

(2) 대산 다목적 부두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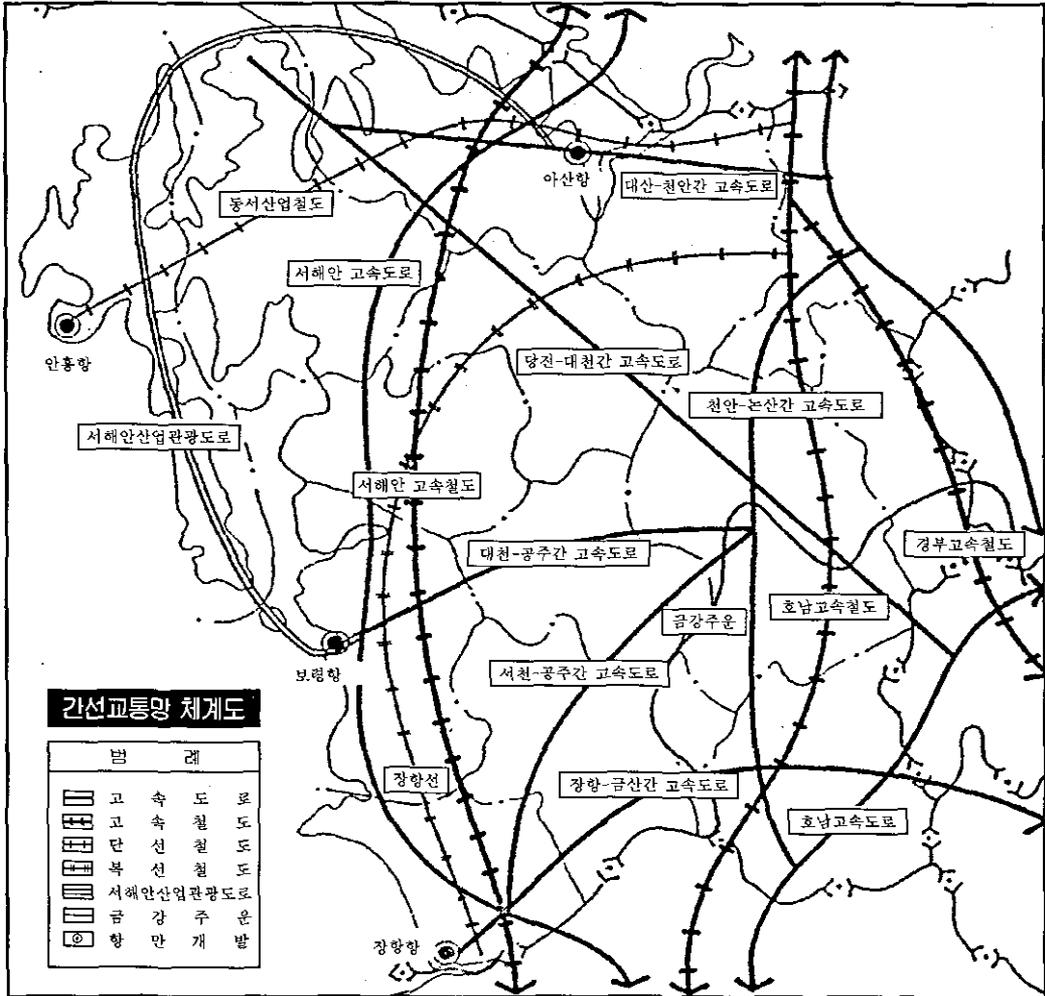
정부는 충남 대산유화공단에 연간 1백만톤의 수출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를 건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대산항의 경우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 인근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물량을 인천이나 군산, 부산항으로 옮겨 선적함으로써 물류비용 증가와 교통난 가중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 1백만톤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를 시

<그림 6>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자료 :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향토문화연구소, 1997, 「도서지 : 상권」, p. 180.

〈그림 7〉 충청남도의 건설교통망 체계구상



자료 : 충청남도, 1997, 「충남도정」, 제94호, p. 7.

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 경우 1백억원 이상의 물류비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3) 서산공항의 민항기 취항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4대권 개발경영구상에 의하면, 현재 해미면일대에 건설되어 있는 군공항시설을 이용하여 민항기를 취항시키는 계획과 공항에서 홍성군 갈산면에 이르는 15km의 전용도로 개설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4) 관광개발

(1) 천수만 철새공원 건설

우리나라 최고의 철새도래지중 하나로 손꼽히게 된 서산 천수만지역에 철새공원이 조성된다. 겨울철에 철새가 날아들고 있는 서산A·B지구내 담수호를 자연과 휴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조류 박물관과 조류사육시설 등을 갖춰 생태계조사와 연구 교육탐방의 명소로 만들고 육성할 방침이다. 서산 천수만 일대는 A·B지구 간척사업으로 3천1백85ha의 담수호가 조성된 뒤 매년 11월경부터 40여종 3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월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자연조건과 간월도일원의 어항을 이용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2) 관광코스 개발

서산시는 예부터 중국의 대륙문화와 빈번한 교류로 연구와 고증되어야 할 선현의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백제초기에 서산마애석불상과 같은 절작의 불교불상문화를 창조, 내륙으로 유입시킨 유서깊은 고장이며,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백제 불교문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과 그 주위에 있는 보원사지 등 문화재급 보물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기백을 느낄수 있는 1천8백m의 해미읍성과 백제 의자왕 때 건립한 가야한 기슭의 보물143호인 개심사 등 역사 문화유적 관광자원으로 사계절 관광에 손색이 없는 서산시는 인근시의 내륙관광지와 서북권역의 해양관광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서산시는 현재, 현충사-아산만-삼교호-서산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개심사-해미읍성코스, 충의사-수덕사-해미읍성-개심사-서산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코스, 해미읍성-죽사-부석사-A.B간척지구-안흥항코스 등 관광지 개발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5) 도시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중부권과의 연계 개발이 용이하고 넓은 간척사업을 비롯한 대산공단, 해미 K-Z비행장 건설, 대규모 항만청 시설 등과 주변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유서깊은 문화유적 등을 끌고루 갖춘 서산시는 국내외적이 신 기조에 부응하여 서해안지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지형적 여건속에서 도시의 공간적·기능적 개발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생활기반 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산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발전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서산시는 주변의 임해공단과 연계된 서해안 중핵도시로의 육성과 세계화 시대를 향한 최적의 전진기지로의 개척을 위하여 정주권 개발, 산업개발, 도로망확충, 행정체계 개선 등 다가오는 21세기의 손색없는 도시기틀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시는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의 7필지 3만여평의 대지에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1일 3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의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97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5천2백85ha의 배수구역과 9백62ha의 처리구역의 모든 하수가 정화처리되며, 특히, 전국 제1의 철새도래지로 매년 50여종의 철새 60여만 마리가 도래하고 있는 서산A·B지구내 간월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철새보호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또한, 교역의 다변화로 중국적교역 가능성이 현실화 되어가고 대서양 교역확대가 전개됨에 따라 한반도의 개발축이 서해안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개발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서산시는 임해공단 조성과 연계된 중핵도시로의 육성과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개척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서산-대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이 총7백20억원을 투입하여 96년을 완공목표로 활발히 공사중에 있으며, 당진선-태안선간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도심권 교통량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산시는 부춘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한 시가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목표연도 2001년에 계획인구 10만명으로 최종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되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상반기중에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운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서해안 고속국도 경유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대산읍에 대지 2천평에 연건평 1천평 규모의 근로자 복지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립도서관 건립, 대산도서관 건립, 종합사회 복지관건립 등을 비롯하여 고북과 인지에 총1백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6) 행정개발

서산시는 1995년 1월 1일자로 전국의 다른 32개의 다른 시들과 더불어 이른바

도농통합시로 개편되어 지역개발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의 의의는 다음의 몇가지 특징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이번의 시군통합은 시와 주변의 군이 대등하게 통합된 최초의 도농통합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종래의 행정구역개편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행정편의주의로 추진된 것에 비하여 이번의 경우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비록 주민투표대신 의견조사로 같음하긴 했지만 시군통합의 여부가 전적으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시군통합은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합쳐져서 울타리를 같이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도농분리형 행정구역 조정방식이 파생시킨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시-농촌의 이분법적 생활권 개념으로부터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을 지향하는 도농통합적 생활권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촌의 정주성을 회복하고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통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그동안의 도농분리형 행정구역 조정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편의를 제고시키며, 통합을 통해 지자체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개발투자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농간 균형개발을 통해 도농격차를 줄이며, 도시주민에게는 농촌의 녹지와 여가공간을 농촌주민에게는 도시수준의 생활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 들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어 있는 광역적 시설(공익시설 및 혐오시설)의 입지에서 비롯되는 인접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시군통합이 갖는 장점으로 꼽힌다.

2. 서산 지역개발의 과제

서산시의 지역개발의 과제는 공업개발, 농업개발, 교통개발, 관광개발, 도시개발, 행정개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공업개발의 과제

현재 대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업개발이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 등이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업단지가 들어선 이후의 생활 환경, 지역변화, 지역의식,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양낙준, 1997)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의 공업개발이 해결해야 할 여러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 태도

대산지역의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73.4%)에 많은 반응을 보여 '좋다' (22.0%)에 비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단 입주를 전후로 한 생활 환경을 비교하면 '나은 편이다'와 '훨씬 나아졌다' (43.6%)와 '못한 편이다'와 '훨씬 못하다' (42.0%)로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공단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목이 된다. 대산지역이 살기 좋은 점은 취업 기회(32.3%)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공단 입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대산지역의 좋지 않은 점은 '공해 및 환경오염' (33.4%), '문화시설' (24.3%), '교육 환경' (16.9%)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단 입주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과 공업화에 이어서 갖추어야 할 문화시설, 교육 환경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함을 보여준다.

(2) 지역변화에 대한 인식

공단조성과 주민 생활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반응(41.7%)이 부정적인 반응(19.4%)보다 높아 공단 입주를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단 입주로 얻은 것으로는 '소득 및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교통시설 향상'의 순으로 나타나서 공단이 들어와서 지역변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공단 입주로 생긴 문제점으로는 '환경오염 및 공해문제'에(50.9%)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주어 공단 입주로 인한 역기능도 큼을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단 입주로 얻은 것과 문제점을 비교하면 '얻은 것이 많다' (27.1%)가 '잃은 것이 많다' (2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긍정적인 면이 약간 많다. 특히 대졸자는 '얻은 것이 많다' (48.1%)에 높은 반응을 보여 공단 입주로 인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산지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와 '다소 낙관적이다' (57.4%)는 '다소 비관적이다'와 '매우 비관적이다' (13.9%)보다 높게 나타나 대산지역 주민은 전체적으로 대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지역의식 및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의식

'대산 사람'이라는 지역적 소속감은 '강하게 가지고 있다'와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50.8%)에 반응으로 나타났다. 공단 입주 전·후를 비교하면 소속감이 '회박해졌다'(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갈등경험은 '갈등이 있다'(55.1%)로써 대산지역이 공업화에 따른 이질적인 전입자의 증가로 해석된다.

대산에 살게 된 이유로는 '직장이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시설 및 환경정비'로 나타나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주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48.6%)이 높게 나타났고, 찬성의 원인에는 '공해 및 환경오염'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주 희망 지역으로는 대도시, 서산군, 서산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적정한 재산 보상'으로 나타나서 공단확장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로 생각된다.

(4)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대산지역의 환경오염정도는 '보통이다'(42.9%)로 나타나서 비교적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공단인접지역은 '심각하다'에 높은 반응을 보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환경오염중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배기가스'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건강상 피해'로써 이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지역 주민과 공단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대산지역 공장 증설에 대한 반응은 '지지한다'(56.0%)에 높게 나타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아직 미약하다'에 높은 반응을 보여서 이에 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투자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은 '더욱 필요하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대산3사 주변 환경영향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60.0%)에 반응을 보여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환경영향조사 전·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공단인접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서 주민의 인식에 대한 회사측의 홍보와 철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재 서산시의 대산지역일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업개발이 중화학공업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공해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입지 공업의 계속적인 외연적 확산, 대산지역내 공업집적의 적정화 추구하고과정에서 장차 더 많은 공업입지가 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산 지역의 공업집적은 인근의 당진 석문·송산지역, 아산 인주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결국 서산, 당진, 아산의 해안지역이 하나로 연결된 대단위 임해공업지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지역의 공업집적이 과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화학공업에 대비되는 첨단산업단지의 신규입지를 계획하여, 종국적으로는 서산시 지역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으로 이원화하는 공업부문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치대상 첨단산업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정밀기계, 정밀화학, 통신·정보, 항공·우주, 의공학·생명공학, 에너지산업 등이 있다. 서산시의 경우 이미 현대그룹 등이 성연면 일대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그리고 서산B지구 간척지내에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의 입지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산시 일대에는 현재 서해안 고속국도가 건설중이어서 첨단산업의 주요기본입지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은 상호보완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산시의 첨단산업 발달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서산시에 이미 입지해 있는 중화학공업은 물론 새로운 첨단산업 입지여건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공학 및 자연과학 계통의 대학 및 연구소의 신설 및 증설이 시급하다.

2) 농업개발의 과제

서산시의 농업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점중의 하나는 농촌지역주민의 중심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수요확보가 1차적으로 면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읍·시 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의 읍·시 중심지로의 교통접근도가 점차 높아져서, 농촌지역 주민의 면 중심지 이용은 상대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즉, 면 중심지에서 확보되어야 할 기초수요가 읍·시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읍·시 중심지로의 과대접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중심지체계의 붕괴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비용의 과다발생, 과소비조장 등 여러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한편, 면 중심지의 쇠퇴는 농촌지역 주민의 읍·시 중심지로의 교통접근도 향상 이외에도 면 중심지기능의 최소인구요구치의 결여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농촌지역의 절대인구가 읍·시지역으로 이주하여 면 중심지 기능의 최소인구요구치를 충족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농촌지역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장차 면 중심지 배후지역의 인구는 더욱 감소될 것이므로, 면 중심지의 배후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기존의 농촌지역의 2-3개 면지역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면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를 핵심취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3개 면지역 인구들이 이 핵심취락의 중심기능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大面主義에 입각한 농촌

정주권개발계획이라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서산시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취약형태가 散村이 상당부분이어서, 이러한 대면주의 전략에 입각한 중심지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요컨대, 서산시의 경우 광범위한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나, 도·농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나, 이러한 면지역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교통개발의 과제

서산시의 교통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지역과의 교통망개설인데, 현재, 서해안 고속국도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장차 서해안 고속철도의 건설 등이 계획되고 있어서, 수도권과 호남권으로의 접근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충청남도의 중심지인 대전권으로의 접근엔 아직도 상당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장차, 당진-대전간 고속국도가 계획되고는 있으나, 이의 실현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대전간 고속국도가 가급적 서산과 당진의 등거리 지점에서 시발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관광개발의 과제

서산시의 관광개발은 현재 태안군이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는데서 발생하는 몇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

즉, 서산시의 관광코스가 대부분이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이에 관한 협력이 부진한 편이다. 또한, 충청남도의 태안반도일대에 대한 관광개발이 태안군 안면읍일대에 치중되어 적극 전개되고 있고, 서산시쪽은 다소 소외되어 있어, 양지역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과거엔 태안군 안면읍에 진입하기 위해서 서산시 중심부를 통과해야 가능했으나, 최근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안군 안면읍으로 진입하는 천수만 간척독길이 개통되어, 서산시의 관문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서산시와 태안군지역의 연계관광의 가능성이 잠식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반도일대의 관광개발에 있어서, 서산시와 태안군지역의 관광자원이 연계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대규모 청소년 수련원이나 고급숙박시설을 태안군 최인접지역에 입지시킨다든지, 해미공항의 민항기 취항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이 연계개발의 사례이다.

5) 도시개발의 과제

서산시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지의 특정위치에 각종 기능체들이 과밀집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중심지내의 도로개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개설도로 자체도 폭이 좁아 자동차의 출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중심지는 2, 3, 4, 5차산업 및 주거기능체들이 지역적 분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재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거기능체들이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토지이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기존중심지는 기능체의 최적입지에 따른 최대지대의 창출이라는 토지이용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존 시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정에서 기존 중심지 기능의 재배치에 유의해야 할 것인데, 특히,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학교, 여객터미널, 시장, 대형상가, 대규모 위락시설 등의 재배치가 기존 중심지의 합리적 재구조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즉, 기존 중심지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용도지구지정에 따른 기능지역 분화가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기존 중심지의 재구조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도로 및 주차용적의 확보이다. 자가용 승용차의 출입이 수월해야 중심지의 중심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중심지로의 자가용 승용차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기존 중심지는 쇠퇴의 길을 걷게된다는 것은 여러 중소도시의 중심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중심지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신중심지의 출현을 동반한다. 신중심지가 급성장하는 반면, 기존 중심지는 정체내지 쇠퇴하게 된다. 공주의 구중심지(강남의 구 공주읍지구)와 신중심지(강북의 신관동지구), 대전의 기존시가지(도청-역전간)와 둔산시가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신중심지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화와 용역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기존 중심지의 재구조화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기존중심지가 인구, 기능 등의 측면에서 과대집적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도시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나 지하철 등이 건설되어야 할 정도까지 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집적되고,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하철이나 도시고속도로가 있는 거대도시는 이미 적정규모를 넘어선 도시로서 각종 비효율과 도시문제를 갖게 마련이다. 서산시의 현재의 공업지역과 중심지의 상태를 1960년대의 울산이나 포항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서산시의 공업지역과 중심지역이 과대지향의 확장일변도로 나가고 있음을 경계하는 말로, 도시문제로 가득찬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건설과정을 답습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크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환경친화적 도시는 크게 상업지역과 외부의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녹지군(그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산시의 경우도, 기존 중심지의 재구조화과정에서 환경친화적 도시구조를 염두에 두고 녹지공간의 체계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행정개발의 과제

(1)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개발의 과제

서산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당면하게된 과제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시군통합은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행정구역조정 방식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물론 정부에서도 당장에 예상되는 혼란과 주민의 우려에 대비해서 새로 만든 법률안의 부칙에 여러 가지 경과조치를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군지역의 세제상 특례를 유지하고, 법령, 조례·규칙, 행정처분 등을 종전대로 시행하며, 절감되는 예산을 통합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의 잉여인력도 불이익이 없도록 재배치하는 등 무리없는 시군통합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통합의 성공여부는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정적 조치만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시군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제화, 지방화의 추세를 맞이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인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통합시의 평균인구는 20만명정도인데 비해 평균면적은 774.3km²로 서울시를 능가하는 광활한 규모인데다 그 안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별개로 공존하고 있는 특수한 도시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같은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수준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도시의 광역적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경제력을 강화하는 등 도농일체적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공간계획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첫째,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불합리한 현행 지역 계획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종적구조, 부문계획간 연계부족, 도시계획의 타 계획과의 괴리, 제도간 상충·중복 등 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지역 계획제도는 마땅히 정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통합시계획의 위상과 발전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통합시의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의 세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① 현행제도의 적용 : 현행제도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통합시의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을, 농촌지역에 정주권계획 등 농촌계획을 그대로 적용하

는 방안, ② 도시계획의 개편 : 통합시를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하되 도시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용도지역지구제로 이원화하는 방안, ③ 새로운 제도의 도입 : 통합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시의 개발 계획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셋째, 부수적인 조치로서 통합시의 개발을 가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지역균형개발법」의 개발촉진지로 지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조치를 강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태안군과의 통합문제

서산시에 인접해있는 태안군은 현실적으로 사회·경제·교통 등 여러면에서 서산도시권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서산시·군 통합에 태안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서산시는 지역개발의 방향이 필연적으로 해안과 내륙으로 이원화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태안군이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어서, 해안진출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고, 태안군은 전적으로 해안에 입지한 지역으로서, 내륙으로의 진출이 필연적이나, 서산시와의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될 공간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산시와 태안군은 사회·문화·역사 등의 측면에서도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와 태안군은 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지역개발에 따른 서산주민의 저항

1) 인지면 모월리 개척단과 간척지 분양

서산시 인지면 모왕리, 산동리 연안(沿岸)에 있던 간사지는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염전용으로 몰막이 공사만 하였던 것인데, 8·15광복이후 염전으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5·16군사혁명 이후 정부에서는 61년 11월 29일 전국에 흩어져 있던 부랑(浮浪)청년들을 모아서 개척단이라 칭하고 이곳에 집단수용한 후에 이 간척지를 1가구당 3,000평씩 분양하여 농사를 짓고 정착케 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인지면 개척단”이다.

개척단 자리는 현재의 모월 1구 개화동 지역으로 남향지지의 좋은 터에 자리잡

고 있으며, 당시 그들이 거쳐했던 집은 흙벽들로 지어졌었지만 비교적 선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1차에 50명을 수용하였고, 많을 때는 100여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당시 이 개척단의 책임자는 민정식이었고, 감독은 정영일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후에 이곳을 거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서산시내, 혹은 도시로 이주한 사람도 있었으며, 반면 이곳을 영구 고향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발전과 함께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그때 분배받은 토지가 국유로 되어 있어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간사지 불법매립지 처리

옛 서산군구역(서천시 태안군)에는 바닷가 곳곳에 '빈지(濱地)'라고 하는 일제 측량 당시에는 없었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들은 바다물의 퇴적 작용이나 용기로 새로 생겨난 땅이나 불법으로 매립된 것 중에 지적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이었다.

이러한 땅을 당시 서산군에서 1984~1985년까지 일제 조사하여 국유로 등록한 후 1986년 국가로부터 군에서 양여를 받아 이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군의 재정수입도 올리고, 지역구민에게로 토지를 자기소유화시켜 줌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3) A·B 지구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피해와 보상과정

A·B 지구 간척공사는 80년대초 중동에 나가있던 현대건설이 장비를 철수하게 되자 이 장비로 정부가 대단위 간척공사로 농지를 늘리어 식량자급량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현대건설에서는 15,000ha가 넘는 광대한 해안을 물막이함으로써 이때부터 바다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대단위의 농경지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정부는 국토개발확장이라는 명제 위에 환경영향평가나, 이 간사지를 매립함으로써 나타날 지역어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커다란 배려를 하지 못하였다. 지역어민들이 받은 혜택이란 어업면허를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어업면허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하는 영세 어민들이나, 매립면적에 직접 속하지 않는 제방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는 적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매립공사는 완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문제는 물막이공사가 끝난지 일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매립된 제방 밖에 있는 안면읍 창기리, 승언리, 정당리, 중장리, 장곡리, 고남리

주민 등은 그 전해에 설치한 수백척의 해태시설이 겨울부터 포자가 붙지 않았고, 붙었던 포자라고 하더라도 썩어버려 성수기인 봄까지 단 한 속의 해태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때서야 그 원인이 A·B지구 간척공사로 인해 해류의 흐름이 바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더구나 천수만쪽에서는 그렇게도 흔하던 바지락마저도 없어져 해태 생산과 바지락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어민은 일시에 수입없는 가난뱅이 어민으로 전락하여 생계가 막연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계 걱정으로 시작된 불만의 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A·B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차츰 마을 내의 집단에서 전 마을의 연합적인 시위로 확산되게 되었다. 처음으로 집단저항행동이 일어난 것은 8월, 한여름이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였다. 전어민에게 사발통문이 전해져서 안면읍 정류장 앞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워낙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지라 관련지역의 주민들은 남녀노소 구별없이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곳에서 성토 쫓기대회만으로 끝내기로 하였으나 점차 감정이 고조되어 점심때가 지나서는 서산군청으로 몰려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마침 아침에 비가 왔던지라 손에는 우산을 들고 그 많은 인원 모두가 걸어서 출발하였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행정기관과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수, 수협장, 경찰서장 등이 급히 현지로 달려가 설득하기로 하는 한편, 서산까지 오는 것을 제지키 위해서 전경 200여명을 창기리 삼거리(안면 백사장 서산분기점)에 대기시켜 놓았다.

그러나 워낙 분노한 어민들은 길을 막고 있는 전경을 보자 마침 가지고 있던 우산대를 몽둥이로 삼아 전경들과 격돌하였으므로 전경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흩어졌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군수, 수협장, 경찰서장 등도 설득은 커녕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안면 연육교를 건너 신온(申溫)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전경들이 도로 가운데에 차를 대어 막아 놓고 주민들의 전진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전경은 이곳에서도 역부족으로 성난 주민들을 막지 못하였다.

당시 어민들이 뽑은 대표자 유병돈은 어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자 당암리에 이르렀을 때, 날도 저물고 집에 가서 집안도 살펴야 하는 주부들이 아침에 아무 준비없이 나왔으니 100리 길이 넘는 서산으로 가기보다는 현대건설의 사무소가 있는 부석면 창리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당암리 분기점에서 부석면 창리로 향하였는데, 창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날도 어두워졌지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점심 이후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주민들은, 더구나 단순히 여름옷만을 입고 있던 주민들의 분노에 찬 열기는 식어갔고 또 집에 부모나 어린애들을 두고

온 주부들은 어민보상투쟁보다는 집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그래도 1,000여명은 창리 현대사무소가 있는 넓은 광장에 모여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버티었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군단위 기관장은 물론이고 도에서 부지사, 식산국장, 수산과장, 수협도지부장이 오고, 경찰에서도 경찰국장과 경비과장을 비롯한 1,000여명이 넘는 전경들이 도착하여 대치하게 되었다. 이 대치는 밤새 계속되었는데, 부지사가 나가서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해태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그 다음날 오후 늦게 농성은 풀어졌다.

그후 대표자들과 충청남도, 또는 현대 간에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믿을만한 기관에 피해상황조사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에도 보상이 끝나기까지 당초의 집단행동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서산군청앞 집회, 서울현대사옥앞 집회 등 수십차례의 집단사태를 거치면서 장장 3년 끝에 해태문제는 원만한 보상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뒤에 다시 A·B지구 연안 어민들의 99%이상 되는 많은 수의 도수(徒手) 어민들은 면허없이 바다에 나가 조개, 굴, 낙지, 기타 어획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들이라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식, 남면, 해미, 고북, 인지 오산동, 석남동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사태가 여러번 일어났다. 그러나 현대건설에서는 정부에서 매립조건에 따른 보상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의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계속 불씨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

이들은 서산내에서의 집단 시위말고도 서울 한복판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의 집단 시위도 수십차례 있었고, 이에 따라 어민 대표, 군·도 농수산부, 현대건설 간에 협상이 진행되어 도수 어업에 대한 보상을 마침으로써 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전철을 되돌아볼 때,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일을 추진해야만 피해로 인한 주민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 서산 쓰레기 매립지 시설과정

서산시에서 쓰레기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초이다. 그 이전에는 쓰레기가 모두가 공해없이 자연으로 순환해서 없어지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자기의 논밭이나 또는 자기 논밭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건 경지에다 처리하여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그 양이 많이 발생하는 시장쓰레기만을 읍사무소에서 4-5명의 청소인원이 리어커로 처리하였으나 이것도 대부분 비료로 쓸 수 있는 공해없는 단순 식물성인 짚풀 및 소채 쓰레기였으므로 인근 과수원 등에 인심쓰며 처리했었다.

그러나 차츰 생활이 고급화되면서 쓰레기도 썩지않는 화학제품인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되고 양적으로도 많아지면서 이를 별도로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서산군에서는 1980년 군에서 성연 및 일람리 계곡에 처음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이곳에다 쓰레기 차량 1대를 구입, 서산시가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이때의 쓰레기 처리는 사후 복토(覆土)한다거나 하는 조치도 없이 그냥 방기하는 것이었지만, 쓰레기장과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별다른 마찰없이 4-5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쓰레기량이 점차 증가하고 그 내용물도 단순한 것에서 악취, 독물성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 아래에 넓게 퍼져있는 농경지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에 걸리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86년 경이었다. 그후 87년, 88년에 지역대표를 통하여 이 쓰레기장은 이미 양적으로도 넘쳐났고 하니 타지역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쓰레기는 혐오시설로 마스크를 크게 닳던터라 군에서도 쉽게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89년 1월 1일을 기하여 서산군은 서산읍을 서산시로 승격시키고 태안지방의 8개면을 떼어내어 태안군으로 분군해주고 그 나머지 10개면만이 서산군으로 남게 되는 행정구역개편이 있게 되었다. 그러자 서산군 소속인 성연면 지역주민들은 타 행정구역이 된 서산시의 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집단저항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생 서산시로서는 줄지에 이 쓰레기장을 관내에 설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성연지역 주민과 타협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도자와 포크레인을 상주시켜 복토하고 침출수(浸出水)를 밑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방을 쌓아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는 조건과 서산시 구역내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91년까지는 그냥저냥 버텼으나 1992년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출신 시의원을 대표로하여 쓰레기 일체반입금지를 내건 채 차량집입을 막는 바람에 사실상 성연면 일람리 쓰레기장 사용은 막을 내렸다.

5) 양대리 쓰레기장설치

서산시는 행정구역이 좁고 대부분이 산이 없는 평야지대인지라 기피 시설인 쓰

레기장 설치 장소의 선정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A지구 간척지 위쪽의 양대동 3통 지역은 인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 이어서 이곳의 토지소유자 박모씨와 협의 결과 어려운 협상 끝에 쓰레기장 설치가 이루어질 즈음인 1992년 양대동 1·2·3통 주민 200여명이 시청을 점거하고 약 1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때의 험악한 주민과 시청직원간의 대치상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극한이었던 것이다.

그후에 시장과 대표자들과의 면담, 그리고 현지방문설득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이곳에 1,200평의 피해가 가장 없게 한 쓰레기장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쓰레기장사업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므로써 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6) 분뇨처리장 시설문제

1970년대 이전에는 서산지방에서 분뇨처리문제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않았었다. 비료가 귀한 시대에 있어서 분뇨는 바로 귀중한 비료로 자리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전 부근 농가에서는 서산시가지에 있는 비농가들의 화장실(변소)을 미리 맡아놓고 퍼다가 자기 논밭에다 비료로 사용하였으므로 변소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정하는 판국이었던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서서 분뇨량이 많아지고 화학비료공급이 증대되자 서산군에서는 분뇨차량 1대를 서산읍에 배치하여 분뇨를 처리하고 그 댓가로 일정한 요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분뇨를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서산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농산과 잠업계에 별도의 분뇨차를 배치하여 군내 곳곳의 먼곳에 산재한 상전(桑田) 옆에다 분뇨통을 설치하고 이곳에 시내의 각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퍼다가 이들 양잠농가에 공급하여 높은 잠견 생산을 꾀하였다. 분뇨가 3D의 일종으로 기피대상이 된 오늘날과는 실로 격세지감을 갖게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80년대를 넘어서면서 화학비료가 일반화되면서 분뇨가 농가에서조차도 완전히 쓸모없어지게 되자 분뇨처리문제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80년대초반부터 분뇨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에서는 1시군에 1개소 이상의 분뇨정화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서산시에서도 분뇨처리가 당면한 중요사안이었으므로 분뇨정화처리시설 후보지를 석남동으로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1986년에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작

되었다. 이에 해당지역인 석남동, 죽성동, 양대동 지역주민들은 격렬히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서산시에서는 여러차례의 설득시도 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되어 '98. 12. 31일 준공예정인 분뇨처리장 시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7) 인지면 산동리 공설공원묘지조성

1971년 서산군 당시 서산읍 예천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시가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옮기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서산군에서는 마침 공유지가 있는 인지면 산동리 일대를 부지로 선정하고, 묘지조성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인지면 산동리 주민들과 예천동 공동묘지에 연고를 가진 주민들의 반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쉽게 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이후에도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등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반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시에서 공원묘지의 이름을 "도비공원(鳥飛公園)"이라 고치고 여러 시설들을 갖추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곳이 좋은 명소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8) K-Z 비행장건설에 따른 주민저항과 이주과정

서산 K-Z 비행장 건설에 대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군당국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공군본부에서 토지매입에 착수하려는 시기가 되어서야 이를 알게된 현지 해미면 언암리, 석포리, 기지리, 양림지, 저성리, 웅평리, 고북면 신정리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조상전래로 수 백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로 고향을 잃게 된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에 처음에는 마을내에서 웅성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반대의 농도가 짙어졌다. 마침내 1989년 9월 8일 전 동민들은 비행장건설결사반대라는 기치를 들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해미면사무소 앞 29번국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에 군과 경찰서에서는 전 직원을 급히 동원하여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주민들의 분노가 워낙 컸는지라 그들을 설득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주민들은 지나는 아무차나 이용하여 서산 시내로 진입하여 1호 광장을 점거하였는데, 그 수가 1,000여명은 훨씬 넘는 숫자였다. 이들의 반대시위로 도로교통은 마비되자 군에서는 마침 이입하는 이호종군수와 며칠 뒤에 취임할 강원조 군수까지 급히 쫓아와서 이들을 상대로 대형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정부에 알릴 것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설득되지 않은 채 시내를 몇 바퀴 돌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군청앞에 집결하여 농성

이 계속하다가 밤늦게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나 군·도에서는 직접 이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하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명확한 답변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 뒤에도 주민들은 수차례나 더 1호광장이나 군청앞에 모여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군청과 경찰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에 군에서 공군과 협의하여 비행장시설을 당초보다 주민에게 피해가 적게 하도록 하고 군과 도에서 토지매입과 보상업무를 맡아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사건은 해결을 보게 되었다.

충청남도에서 중앙과 협의하여 비행장 토지매입과 토지보상업무를 맡을 지방서기관을 장으로 하는 서산군 석포사업소를 설치하고 20여명의 직원을 긴급배치하여 피해상황조사 그리고 보상액조정업무를 전담하여 맡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당초에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던 주민들과도 비교적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사업이 완결될 수 있었다.

그후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해미면 기지리에 방향의 비를 세우고 매년 추석과 설이 되면 이 방향의 비를 찾아 고향사랑을 되새긴다고 한다.

아마도 이 사업은 집단민원처리의 한 시범케이스로 시사에 기록될 것이다.

9) 동문동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의 교훈

현 서산시청 소재지는 1,000년에 가까운 오래된 읍지(邑地)이나, 1942년 10월 1일 읍으로 승격되고 1967년 3월 2일 도시계획 준용인가가 되고 1967년 12월 14일 적용인가가 되기전까지는 지방행정과 산업경제, 그리고 5일시장의 중심기능을 하는 자연취락으로 발전해 온 소도시였다. 따라서 도로망은 도청소재지인 대전과 연결되는 29호선국도, 당진·태안과 연결되는 32호 국도선을 중심으로 각읍면간의 시군도(市郡道)가 당시 군청(시청)을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뻗쳐 있어서 소재지 인구 3만이 넘는 1970년초까지 모든 교통은 군청(현시청)앞에 있는 1호 광장을 거쳐야만 들어오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 당시 서산군수였던 설일진(薛一鎭)은 홍성과 당진 태안지방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들이 혼잡하게 1호 광장까지 들어올 필요없이 직접 태안지방에서 당진으로, 홍성지방에서 태안으로, 또 당진방면에서 태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제1외곽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강한 의지속에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이것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재정의 부족과 군수의 제한적 임기로 홍성통로인 용병원에서 부춘초등학교 근방인 대산사거리까지 사리도로의 기초공사만 끝냈었다. 그후 여러대의 군수를 거치면서 사리(砂利)도로로서는 기능을 다하게 되어 홍성·태안행 차량, 태안·홍성간 차량과 각읍면에서 직접 홍성지방으로 왕래하는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므로써 좁은 시내

도로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 대림혼다에서 용병원이 있는 흥성통까지는 도시계획선의 도로가 있으나 1977년까지 개통이 없어서, 모든 당진지방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통이 1호광장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삼교호 제방의 준공이 눈앞에 둔 시기에 있어서 교통량은 늘어나서 감당키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이때 군수 이관현(李寬鉉)의 집념으로 군재정을 투입,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이미 70년대초에 일부가 개통된 서산시 제1외곽도로는 전구간이 1977년 말에 완전 개통되므로써 교통의 숨통을 트게 되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많은 교통량이 있는 흥성지방에서 들어오는 29번 국도 중 용병원이 있는 내거리에서 현 의료원이 있는 곳까지는 먼 옛날 사리도로 개설 당시의 6~7m의 좁은 도로로 그대로 남아있었고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주택들도 서산여중고 서산농고 등 2000여 명 학생들의 아침 통학 시간대의 러시아워(rush hour)에는 차량과 보행하는 학생들로 교통꼭예를하는 곳이 되어 버렸었다.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직접목적하고도 주민들의 빈번한 건의로 청취한 당시 서산군수 임봉순(任鳳淳)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도로만을 재정을 투입 확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군재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구획정리사업용 구상하므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서산시동문제1지구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의 승인을 받아 확정시키었다. 이때의 기본 목표는 이미 서산시 인구가 4만을 넘어 5만에 가까워 머지않은 장래에 시로 승격하여야하는 시기에 이르도록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취락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시가지를 일부분이나마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미관과 위생적인 도시환경도 조성하고 도로망도 확충하여, 교통도 원활하게 하려는 원대한 목표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착수는 직접 계획을 한 군수나 실무책임과장도 바뀐 1987년 새로 부임한 군수 공병선(孔秉善)에 의하여 입찰까지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려 하였다. 원래 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만 된다는 법적 요건이 있어 형식상의 요식절차를 갖추었지만 사전에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대도시에서 인식된 도시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적법한 절차만을 거쳤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업착수시기에 예기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근본취지나 경험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전통적인 토지의 애착심에 상처가 되는 감보문제가 마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영세한 개인의 땅을 탈취해가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집단저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구나 1987년은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던

때라 이에 편승되어 그 열기는 심화 되었다. 매일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성토했던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세입자인 윤철수가 대표자가 되어 당시 200여명이 넘는 남녀노소 초등학교생들까지의 주민들이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매고 “내땅 지키기”, “땅 뺏기가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표자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두어바퀴 돈뒤에 군청현관 앞에 모여서 노래와 구호, 팽과리 북 등을 치며 농성하였다.

군수가 나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당시군수 공병선이 현관에 나와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주민과 협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간곡한 약속을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구획정리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군수가 각서를 쓰라는 강경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군에서도 업자와 계약하고 이미 착수단계에 이른 사업일뿐더러 또 대상주민 중 일부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뿐더러 이렇게 모든 사업에 있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 취소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지방행정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쉽게 취소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청안으로 들어와서 1·2층 복도를 점거하고 북을 치며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러한 농성은 그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군청을 점거한채 계속되었다. 더구나 이것이 마치 주민을 괴롭히는 강권행정의 표본인 것처럼 되어 지방과 대전 서울에 있는 일부민주화 운동권까지 연계되므로서 이제는 단순한 해당주민들만의 뜻만으로는 쉽사리 농성은 풀리수 없게 되었다. 3~4일간의 밤낮없는 농성중에는 권위있는 성직자 두사람이 밤에 찾아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격려까지 하였으니 그때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 권위있는 성직자는 천주교 운산성당 및 해미성당 신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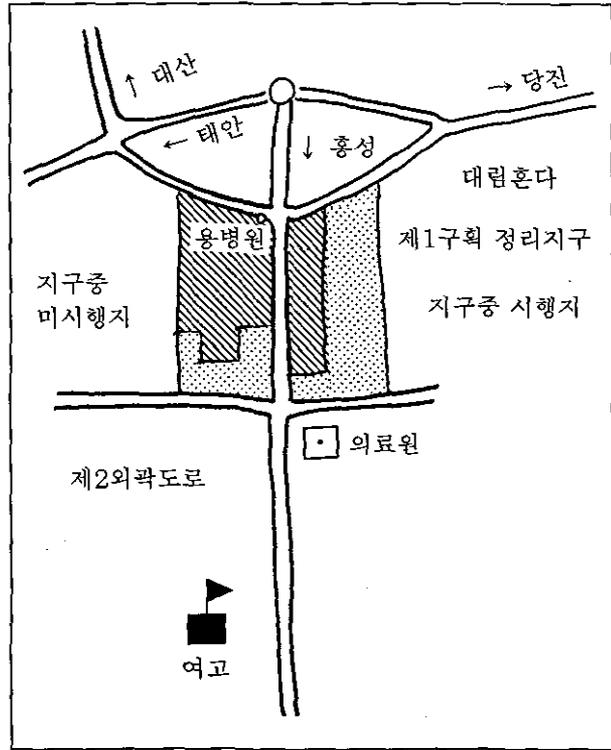
끝내는 군수가 사과하고 취락이 있어 주택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주택이 없는 논밭으로된 곳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대표자 윤철수에게 써주어 농성은 풀리고 이에따라 사업은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형태의 기형적인 사업으로 완료된 것이다. 이에따라 용병원에서 현 의료원 사거리까지의 도로 확장확보는 무산되었다. 그후로 이 구간도로 일부인 서편으로 국도비를 받아 편입지를 매입·확장하여 이제는 이 서쪽으로만 보도를 내어 한쪽으로만이라도 사람들을 통행할수 있는 숙원을 풀고 교통에도 원활하게 하는 숨통을 텃다. 그러나 제2외곽도로가 개설되어 의료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까지 여고앞에서 의료원 앞까지의 거리는 4차선으로 확장하여 놓고 갑자기 의료원 앞에서 용병원 앞까지 미묘된 제1확정리지구내에 있는 도로는 2차선으로도 좁은 도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지역도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고앞에서 100km이상으로 속력을 놓아 달리다가 갑자기 이곳에 와서 좁아지는 바람에 그후 무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냈었다. 이에 교통기관에서는 제2외곽도로가 개설되기전까지 한때 이곳부터 도로가 좁아진다는 표지판을

길게 연이어 꽃아 놓아서 미관을 흐리는 시설을 설치한 현상이 있었다.

이제 생각하면 이 구획사업은 옳은 것이었지만 당초 계획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본다. 용병원에서 의료원까지의 사이에 있는 도로 서편을 확장하는데 투입된 예산을 기채해 서라도 해서 도로변 주민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하였다든지, 주택이 서있는 지역은 감보율을 상대적으로 최소화시킨다든지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오늘날 이지구에 미추진된 부분인 국도29호선의 동쪽편으로 미확장으로 교통이 원활

하지 못하고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집단 취락에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났을때의 대책, 그리고 생활의 향상으로 모든 가정이 차량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상하수도시설 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됨에도 이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속에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때인가 해결되고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 난제를 푸는데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엄청난 재정의 부담은 이제 자연인이 된 당시 사업주체였던 군수도 국가도 아니고 바로 서산시민 전체가 져야하는 부담이란 점이 문제인 것이다. 1987년의 사업추진 당시에 있어 군(郡) 그리고 또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였더라면 오늘날에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살게 될 것이었을 것이고 서산 시민전체에게 큰부담이 되는 문제점으로 남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림 8〉 동문동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4. 서산의 지역개발과 환경의 변화.

1) 토지 및 기후

서산시는 충남도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서와 북은 황해와 임하고 당진, 예산, 홍성 해안 등 4개 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가야 산맥이 뻗어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기복이 심하다. 그러나 그외 지역은 비교적 평야가 많아 기후 풍토가 영농에 적합한 지역이다.

중국의 개방으로 무역량이 증가하여 천해의 조건이 갖추어진 서산시에 현대정유, 현대석유, 삼성종합화학 등 임해공단 사업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농지가 개발되었으며, 그리고 간월호 부남호 등이 만들어져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95년 통계에 의하면 서산시의 면적은 739.03km²으로 전이 81.72km², 답이 202.99km², 임야 321.06km², 대지 119.54km², 도로 135.18km², 공장 용지 30.53km² 등 기타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온은 연평균 11.6°C 강수량은 1,448.3mm, 일조시간은 2,334.7hr이고, 비가 온 일수는 1년 중 96일이다. 서산시는 41,452세대로 인구는 142,331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도시로 91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다.

2) 대기질

공기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음식물이 없어도 수주일 또는 수개월까지 살수 있고, 물이 없어도 며칠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다. 대기는 확산 범위가 넓어 국경이 없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동북 아시아 지역의 대기 오염 물체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은 한 순간도 대기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대기는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대기의 오염은 화산 폭발, 산불, 꽃가루의 발생,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생활하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 되는 가스, 휘발성 화학 물질의 취급,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대개 맹독성이고 그 양이 많아서 자연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원시 대기 중에는 메탄과 암모니아의 혼합기체가 대부분이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 현재의 대기로 바뀌었다. 현재의 대기는 약 78% 질소이고, 21%정도가 산소이며, 0.03%의 이산화탄소, 0.94%의 아르곤 수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및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동식물의 생명권 유지에 절대 필요하다. 수증기는 생태계에 물을 공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이다. 오존은 대기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계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 대기오염의 정의는 대기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물질 양 그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해 보건상 위해를 미치고 인간이나 식물, 동물, 동물의 생활에 해를 주어 도시인의 생활과 재산을 수용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기환경 보전법에는 매연, 먼지, 가스, 악취 발생물을 대개 오염물질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상 규제 기준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분진, 산화질소, 옥스탄트, 탄화수소, 납등 7개 항목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치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난방 시설, 산업 시설의 증가 및 자동차의 급증이나 특히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오염도는 겨울철에 높고 여름철에는 낮은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대기오염의 현황

서산대산지역에 대기오염망이 설치되어 95년과 96년에 측정된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표 1> 서산시 대산 지역의 대기질의 오염현황(금강 환경 관리청 측정망)

연료 \ 항목	SO ₂ (PPb)	TSP(Ng/cm ³)	O ₃ (PPb)	NO ₂ (PPb)	CO(PPb)
95	7	51	33	2	0.3
96	9	79	30	12	1.0

①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치는 50ppb로 1980년도에는 대도시가 거의 환경기준치

를 초과하였으나 1991년 서울의 오염도는 43ppb로 최초로 달성하였으나 겨울철에는 오염도가 50ppb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큰 공장이 있는 서산시 대산 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95년 7ppb, 96년 9ppb로 환경기준에 훨씬 미달되나 자동차의 증가와 화석연료사용의 급증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유류의 황 함유 기준의 강화 및 청정 연료의 확대공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아황산가스의 대기 오염을 자동차가 70~80%를 차지하므로 시민들은 대중 교통의 이용과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아황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비는 원래 대기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약산성을 띠나, 대기 중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다량 존재할 경우 빗방울에 녹아 비를 더욱 산성화시킨다. 산성우라함은 PH가 보통 5.6이하의 산도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산성도는 대기 오염물질중 특히 아황산가스의 오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성우가 오게 되면 호수의 산성도가 낮아져 생태계가 파괴되며, 건물과 문화재가 쉽게 낡게 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며 농작물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아직까지 서산지역은 산성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으나 서산임해공단의 증가, 중국의산업화 등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아황산 가스의 저감방안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② 먼지 (TSP:total suspended solid)

우리 나라에서는 1983년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추가로 설정됨에 따라 1984년 4월부터 먼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먼지의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 150이하로 서울을 제외한 기타주요도시는 밀돌고 있다. 서산 대산 지역은 95년 51, 96년 79로 환경기준에 크게 미달되나 서산시는 중국과 가까워 봄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현상, 서산지역에 공사지역이 많아짐에 따른 공사 차량의 증가 등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계속 주시 감시하여야 하겠다.

③ 질소산화물(NO_x)과 오존(O₃)

가스 상태의 질소 산화물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으나 대기오염에서의 주요오염물질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이며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_x)이라고 할 경우 NO와 NO₂의 총칭이다. 대기오염에서 NO와 NO₂가 중요한 이유는 NO₂의 광화학적 순환 때문인데, 탄화수가 없는 깨끗한 대기 내에서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즉 NO₂가 파장이 300~400nm인 자외선에 의하여 NO와 결합하여 NO₂와 산소분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반응은 탄화수소가 있는 경우 매우 빨리 일어나며 빛의 강도에 따라 오존의 발생량은 다른데 오존의 농도가 0.1ppm인 경우에 NO₂와 NO의 양은 약 10배이다.

NO₂는 특히 미립자상 물질의 공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면이나 나이론 섬유는 NO₂가 0.2~0.6ppm정도라도 탈색이 되며 섬유자체의 질도 저하된다. 질소산화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25ppm에서 급성피해를 나타낸다. 인체에 대해서는 급성작용과 만성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의 경우 코를 강하게 자극하고 폐충혈과 폐수종, 기관지염과 폐염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농도는 1~3ppm으로 장시간 흡입한 환자는 만성폐섬유화 및 폐수종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아황산가스와 마찬가지로 산성우의 원인이 된다.

서산 대산지역은 '95년 '96년 금강환경관리청 측정망으로 측정한 결과로 오존은 30ppb(0.03ppm) 질소산화물은 2~12ppb(0.002~0.012ppm)으로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산업시설의 증가로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및 무취의 가스로 불완전 연소의 생성물이다. CO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 중 역사가 매우 길었던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 많은 화산폭발과 불의 사용할 때 언제나 CO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래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매우 유독한 가스이나 공업적으로 용도가 많은 가스로 급속의 제련, 메틸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시산화물 등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대기중 CO의 주발생원은 교통기관과 주택 난방시 발생하는 경우인데 미국의 경우 8500만대의 자동차로부터 매일 25만여톤에 달하는 CO가 방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같은 양은 20여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한다. CO는 산업공정의 경우 제철, 석유화학, 유기합성, 주물공장 등 대부분 사업장에서 배출된다. CO가 호흡기관에 흡입되면 폐에서 혈액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다. 서산 대산 지역의 CO의 양은 0.3~1.0ppb로 환경기준량에 훨씬 미달되며,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서산지역의 대기의 오염도는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질

인류역사가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듯이 인간은 물을 떠나 잠시도 살 수 없으며, 인체의 70%정도가 물로서 구성 되어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바로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물이 맑고 산이 아름다워 금수강산

이라 일컬어져 왔으나 이제는 금수강산이 무색하리 만큼 하천, 호소, 해역이 오염의 몸살을 앓고 있고, 조만간 물자체의 부족현상까지 우려된다.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기본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물이 건강, 장수의 필수적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흔히 좋은 물이라면 생수 또는 약수를 연상한다. 유리탄산과 철분은 물의 신선미와 맛을 내므로 이들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생수 또는 약수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용수로서 철분은 약간(0.3ppm 이하)만 있으면 족하고 맛을 내는데는 그 6배 이상의 철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어느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인지 정확히 성분과 기준에 관한 자료는 아직 없다. 좋은 물은 물이 함유하고 있는 각종 성분 뿐만 아니라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5각형이나 6각형 고리 또는 사슬모양의 분자결합으로 존재하는데 그중 6각형 고리모양의 물이 가장 좋은 물로서 생체분자에 직접 붙어서 생체 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6각형의 구조로 된 물은 과일속에 많이 들어 있으며 물을 냉각시킬수록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좋은 물이란 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용수로 사용할 것이냐 공업용수로 쓸 것이냐, 농업용수로 쓸 것이냐에 따라 엄밀한 의미의 좋은 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물이란 깨끗한물, 맑은물 즉 다른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로서 가능할 존재할 때 일 것이다.

옛부터 첫새벽에 길은 우물물은 (정화수)라고 하여 최고의 물로서 취급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오염되지 아니한 가장 깨끗한 천연의 물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좋은물이란 자연 그대로의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말할 것이다.

수질오염이란 물이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세균학적 특성이 상호 연관된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화함으로써 물 이용상의 지상을 초래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하여 병원 미생물 또는 기생충 등이 인체에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상 위해를 일으키는 수질이 악화된 것을 말하며,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에 부패성 물질, 유독성 물질, 부유물질 등 물 이외의 이물질이 혼입됨으로써 생활, 농업, 공업, 수산업 등의 용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질오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강우량의 불균형으로 인한 하천 용량의 저하와 하상의 형태에 따른 유속 및 유량의 불연속성 그리고 하천 유역에서 표사 퇴적으로 인한 각종 부유물질의 하천유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은 자정능력이 있어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되면 저절로 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위적 오염물의 지속적인 배출은 이 자정능력을 잃어서 결국 별도의 오염물 처리시설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인위적 오염물질의 배출은 인구 증가 및 각종 산업활동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종류는 대별하면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과 같이 오염원이 쉽게 확인되는 점오염원(point source)과, 오염원이 확인이 어렵고 규제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로 비점오염원으로는 농약, 비료, 합성세제 등을 들수 있다.

서산지역의 하천으로는 역천, 청지천, 대교천, 해미천 등 48km 길이를 가지며, 호수로는 잠홍저수지, 성암저수지, 풍전저수지, 산수저수지, 고평저수지 등이 있고, 부남호 및 간월호가 있다. 서산지역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로 사용되는 급수 사용량을 91년은 3,230,960m³, 95년은 436,5931m³로 화학, 기계, 금속 분야의 공장의 증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서산지역의 수질오염현황

서산지역의 하천과 호수 및 해안지역의 95년 1-12월에 걸쳐 측정된 수질 오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항목	PH	COD	BOD	SS	T-P	T-N	대장균	DO
하천	역천		6.6~7.8		0.7~14.7	0.6~6.2			23~5000	1.9~14.2
	청지천		6.7~8.3		6.2~96.0	3.2~96.0			9000~50000	1.4~4.7
	대교천		6.5~8.4		0.1~2.4	0.8~7.4			23~3000	7.3~11.6
	해미천		6.4~7.3		0.6~4.8	0.4~13.4			240~3000	7.2~9.8
호수	잠홍지		7.0~8.5	3.1~8.2		2.8~16.4			2~240	6.6~14.4
	성암지		6.9~8.3	3.1~8.7		3.4~20.7			8~500	5.4~13.7
	풍전지		6.9~9.6	2.4~23.1		0.6~25.5			7~300	6.4~14.4
	산수지		6.9~8.4	0.9~5.1		0.4~8.0			2~130	6.4~13.8
	고평지		7.0~9.7	1.9~11.4		1.8~7.7	0.008~0.129	0.74~2.255	8~90	6.9~14.0
	부남호		7.8~9.1	4.3~15.1		2.0~10.2	0.018~0.053	0.361~2.386	2~13	7.8~14.5
	간월호		8.1~9.8	5.7~18.9		3.7~12.5	0.066~1.142	0.356~2.304	2~3000	7.1~16.6
해안	삼길포		7.8	1.1~1.7			0.007~0.022	0.006~0.775		
	대산별말		7.8	1.0~2.2			0.006~0.01	0.008~0.714		
	팔봉구도		7.5	0.2~1.3			0.008~0.01	0.003~0.551		
	부석간월도		7.3	0.6~1.7			0.005~0.01	0.014~0.545		

① pH

pH는 물의 산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술어로서 호수나 해수 및 하천의 pH를 지배하는 것은 주로 탄산염이다. 그외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생물학적인자, 공업, 광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료개수 또는 산성비에 의한 영향, 암석이나 토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질학적 요인 등이 있다. 서산지역의 하천의 호수 및 해수의 pH는 6.4~8.4로 1급수에 해당하며 양질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② 용존산소(DO)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량은 수질의 온도, 부재할 수 있는 유기성 물질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청지천의 경우 봄철에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수질을 나타내고 해안지역의 수질은 양호하나 하천이나 호수의 경우 가을과 겨울은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나 봄과 여름에는 2~3등급 수질을 나타내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에 위험수위까지 온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폐수와 축산폐수 등의 요인으로 저질의 수질 등급을 나타내므로 서산시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COD는 과망간산칼륨인 산화제에 의하여 산화되는 유기물질의 양을 부패에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서 수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술어이다. BOD는 수중의 유기물이 부패하는데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호흡작용에 의하여 소비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BOD역시 수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술어이다. 하천의 BOD는 0.1~23.1을 나타내며 산수지와 고평지는 상수원수 1~2등급의 수질을 나타내나 그외 잠흥지, 성암지, 풍전지, 부남호, 간월호 등은 공업용수의 2~3등급을 나타내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수의 COD는 1등급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④ 총질소(T-N)와 총인(T-P)

총질소와 총인은 수상 1차생물체 등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호수와 해안지역의 측정값만 수집되어 <표1>에 나타내었다. 고평지, 간월호, 부남호 등은 공업용수 2~3등급을 나타내므로 수질의 총인과 총질소 항목 역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은 생활오수와 축산폐수가

주된 요인으로 시급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을 처리하여 수중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부유물질량(SS) 및 대장균

대장균은 유기성 물질을 분해하는 호기성과 혐기성균을 말하며 부유물질과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청지천과 서산지역의 호수는 이 수질항목 역시 많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산해안지역의 해수는 아직까지 좋은 수질등급으로 해양생물들의 서식, 양식 및 번식에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좋은 해양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시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하천과 호수는 대교천을 제외하고 생활 환경 보전 대상 지역으로 수질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많은 예산의 투자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좋은 물 가꾸기에 힘을 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가 앞으로 2000년까지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궤도에 진입하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001년에는 용수수요가 지금의 283억톤에서 330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에너지와 용수사용의 급증으로 수질오염은 가속화, 광역화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물 가꾸기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해양과 하천, 호수 수질의 환경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해양수질환경기준

등 급	기 준								무기물등 (mg/l)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용존산 소량 (DO) (%)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 군수 (MPN/ 100ml)	노말핵산 추출물질 (유분)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1	7.8~8.3	1이하	포화율 95이상	10이하	200이하	검출되어 서는 안됨	0.05이하	0.007이하	6가크롬(Cr ⁶⁺):0.05이하 비소(As):0.05이하 카드뮴(Cd):0.01이하
2	6.5~8.5	2이하	포화율 85이상	25이하	1,000이하	검출되어 서는 안됨	0.1이하	0.015이하	아연(Zn):0.1이하 구리(Cu):0.02이하 시안(CN)·유기인·수은 (Hg)·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 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3	6.5~8.5	4이하	포화율 80이상				0.2이하	0.03이하	

〈표〉 하천수질환경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용존 산소량 (DO) (%)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군수 (E-Coli) (MPN/ 100ml)	대장균군수 (E-Coli) (MPN/ 100ml)
생 물 환 경	1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2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3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4	공업용수 3급 농업용수	6.5~8.5	8이하	8이하	100이하	2이상	-
	5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5~8.5	10이하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닐 것	2이상	-
사람의 건강 보호	전 수 액	카드늄(Cd):0.01mg/l 이하, 비소(As):0.05mg/l 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트르비페닐 (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0.1mg/l 이하, 6가크롬(Cr ⁶⁺):0.05mg/l						

4) 토양

인간을 정점으로 하여 아래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그 생활권을 육지와 수역 또는 공중의 어디서인가 찾고 있다. 생물의 생존을 허용하는 자연환경, 즉 생물권은 궁극적으로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다나 하천, 호수도 토지가 없이는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양(Soil)이란 식물의 생육에 관점을 둔 물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개념으로서 곧 흙이며, 토지(Land)라고 하는 것은 농업, 공업 혹은 거주 등 어떤 목적을 위한 스페이스(Space) 개념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염문제를 논할 때 토양오염(Soil pollution)이란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다. 결국 토양오염이란 산업과

〈표〉 호수수질환경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	대장균 군수 (E-Coli) (MPN/ 100m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생 물 환 경	1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2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3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4	공업용수 3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이하	1.0이하
	5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사람의 건강 보호	전 수 액	카드늄(Cd):0.01mg/l 이하, 비소(As):0.05mg/l 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트트비페닐 (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0.1mg/l 이하, 6가크롬(Cr ⁶⁺):0.05mg/l							

생산 활동에 따라 각종 식물 특히 농산물이 유해한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이것을 섭취하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토양이 인류 식량의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산업의 발달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과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말미암아 좋은 경작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렇게 한정된 경작지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더욱 많은 양, 더욱 강한 독성을 가진 각종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산업장에서의 매연이나 폐수가 부근 농토에 낙하 또는 흡수됨으로써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 결국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이처럼 토양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계속 질이 저하된다면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의 경작지 가운데서 거의 1/3이

황폐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 폐기물

고도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도시집중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그 성상의 다양화를 초래하였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폐기물문제는 대기 수질오염과 함께 “제 3의 공해”로 불리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산업폐기물문제는 이제 산업과도 직결되는 주요 현안 이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적, 지역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반대, 소위 님비신드롬(NIMBY)으로 매립지의 입지선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폐기물문제가 산업활동의 위축 등 크나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요즘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캠페인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언론기관, 소비자단체, 국민 모두가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식당의 나무젓가락이 점차 사라지고 1회용품 제조업체들이 도산하는가 하면, 그동안 1회용품에 밀려 찬밥 신세를 당하던 업체들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 선진국이라고 할까. 1인당 하루 발생량이 2Kg을 넘었고, 나라전체로는 하루에 9만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니 엄청난 양이다. 미적지근한 것을 싫어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근성이 쓰레기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나 할까, 항상 푸짐하게 차려야 차린 것으로 여기고, 포장도 여러겹 정성스럽게 하여야 예의를 갖추고, 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근에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1회용 제품들, 이들이 우리의 쓰레기 발생량을 높인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청소차로 수집하여 대부분 매립장으로 보내어지고 매립장으로 보내어지고 매립장으로 보내어진 쓰레기는 덮개 흙과 함께 매립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매립지가 몇 년 사용하면 바닥이 나게 되었고, 추가 매립지 확보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쉽지 아니한 현실이고 보면 정말로 큰 문제이다. 소각할 처리시설도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문제는 단순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 산업과도 직결되는 주요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번 김포주민의 반대로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조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음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사실이다.

폐기물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등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활동의 결과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인지도 모른다.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폐기물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서고

금, 남녀노소 구별없이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서산지역의 95년도 쓰레기 1일 배출량은 106ton이고 분료는 1일에 100kl를 발생시키고 있다. 서산지역의 매립지는 112개소, 면적은 148,086m²로 총매립량 713,905m³를 할수 있으며 이미 매입된량은 272,985m³로 440,920m³가 남아있다. 분리 수거와 자원 절약으로 폐기물의 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앞장서야겠다.

6) 소음과 진동

(1) 소음

[소음]이란 한 마디로 표현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재즈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소음이라고 하지 않지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소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한 예로 경북 경산에서는 옆집 마당에서 들리는 찬송가 소리가 시끄럽다고 현관문을 향해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같이 소음이란 주관적 요소가 강한데 일반적으로 문명의 불필요한 부산물이라 생각하고, 트럭, 비행기, 기계 등과 같은 것에서 나는 소리를 소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도 [소음이란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음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소음은 사람에게 정신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치므로 잠행성 오염물 (Insidious pollutant)이라고도 한다.

소음은 발생원의 측면으로 볼 때 인공소음과 자연소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인공소음은 자동차, 기차, 등에 의한 교통소음, 이동행상 등의 확성기에 의한 가두소음, 소규모 공사장에서나는 건축소음, 항공기 소음, 그리고 기계소음 등이며, 자연소음은 폭풍, 천둥, 호우 등에 의한 것으로 순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소음이라 할 수 있다.

(2) 진동

차량에 의한 교통, 선박 및 항공기 등과 같이 몸 전체가 흔들리는 전신진동의 경우와 착암기, 리베터, 체인톱 또는 풀 각기 등과 같은 진동곡구를 사용함으로써 손이나 팔꿈치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진동을 주는 국소진동이 있다.

산업장에서의 전신진동으로서 철도차량은 진동수가 10~13cycle/초, 전동차는 7~13cycle/초이며 진동 가속도로서는 수직진동이 0.1~0.3gal정도, 좌우진동은 0.04~0.2gal정도라고 한다.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진동은 교통, 토목공사, 공장 등에서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표진동은 수평진동보다 수직진동이 더 큰 경우가 많으며, 인체도 수직진동을

더 강하게 느낀다.

진동의 영향은 크게 신체 건강상의 피해와 가옥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를 들수 있다. 경미한 진동의 경우 가옥피해, 산사태 등의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

6Hz에서 허리, 가슴 및 등쪽에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며, 13Hz에서는 머리가 가장 크게 진동을 느끼고 안면에서는 볼, 눈꺼풀이 진동함을 느낀다. 4~14Hz에서 복통을 느끼고, 9~20Hz에서는 대소변을 보고 싶게 하고, 무릎에 탄력감이나 땀이 난다거나 열이 나는 느낌을 받으며, 수직 및 수평진동이 동시에 가해지면 2배의 자각현상이 나타난다. 3~6Hz 부근에서 심한 공진현상을 보여, 가해진 진동보다 크게 느끼고 2차적으로 20~30Hz 부근에서 공진 현상이 나타나지만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공진현상은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심하게 나타난다.

제6절 서산시 지명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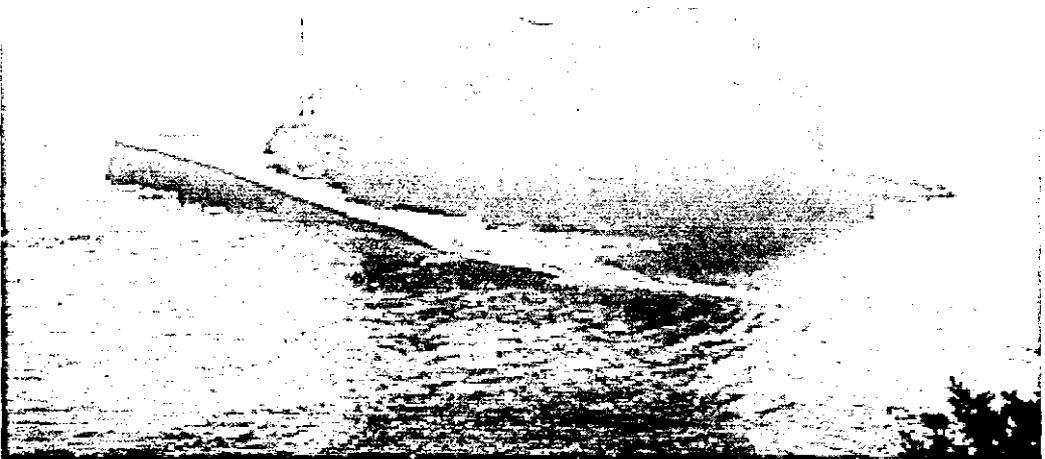
1. 서산(瑞山) 지명의 연혁 탐구를 위한 일반론

- 1) 소지명(小地名)의 연혁을 추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
- 2) 소지명(小地名)의 일반적 특징
- 3) 서낭당, 성황당(城隍堂)에 대하여
- 4) 지명의 연원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들
- 5) 연구 방법

2. 서산(瑞山) 지명의 연혁

- 1) 서산시의 산천

- | | | |
|--------------|-----------------|--------------|
| 3. 대산읍 | 4. 인지면(仁旨面) | 5. 부석면(浮石面) |
| 6. 팔봉면(八峰面) | 7. 지곡면(地谷面) | 8. 성연면(聖淵面) |
| 9. 음암면(音岩面) | 10. 운산면(雲山面) | 11. 해미면(海美面) |
| 12. 고북면(高北面) | 13. 서산 시내(瑞山市內) | |



(집필자 : 강현규)

제6절 서산시 지명의 연혁

1. 서산(瑞山) 지명의 연혁 탐구를 위한 일반론

1) 소지명(小地名)의 연혁을 추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

이제 탐구하려고 하는 지명 어원에 대하여는 조심스러운 점들이 많다. 지명 어원의 추구는 해당 지역 고로(古老)들께 문의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급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모두 부인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고 “천고의 비밀을 누가 알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진지하지 못한 자세이거나 자포자기의 말이다.

소지명의 어원 연구는 선입관을 가지고 탁상에서만 해서는 안된다. 현지 답사, 현지민들의 설명 경청, 음운론·형태론에 기초한 국어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신중을 기할 일이다. 표기 한자의 의미에 매달리거나 유사한 음성적 인상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거나 즉흥적으로 단안을 내려서는 안된다. 즉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도덕골(道德洞) : 성연면 해성리 강변말 동쪽의 마을. 사람들이 도덕을 숭상한다고 함.

사짓골 : 성연면 예덕리 상술에 서쪽에 있는 마을. 사지(사자)가 있었다 함.

솔례(率禮) : 성연면 예덕리 중심 마을.

주민 모두가 예의바른 사람들이 사는 모범 마을이라 함.

불모골, 빈갯골 : 서산시 온석동 내동 서남쪽에 있는 들. 부처가 있었음.

이 지역에서 아무 의문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닌 지명들을 약간만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매봉재

㉠고북면 신송리 북쪽에 있는 산, 매섬(지곡면 중왕리의 섬), ㉡부석면 지산리

지파동 서쪽의 산, ㉞음암면 울목리의 산.

속설은 ㉟ 매처럼 생겨서 매봉재·매섬이라 부른다고 한다. ㊱ 이 산에 매가 많이 살아서 ㉞ 매를 놓아 사냥을 하여서 매봉재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맨 앞의 '매섬'은 이 바위섬에 묘(墓) 하나가 있어 '묘섬'이라고 하다가 '매섬'이 된 것이다. 다른 '매봉재'의 '매-'는 '머리'(頭)와 대응되는 '마리'로서 모음간에서 [리]이 탈락된 것이다. 다시 이중모음의 과정을 거쳐 단모음이 되어 '매봉재'는 우두머리산(宗山, 頭山)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재'는 이 경우 '-고개'가 아니라 '-산'을 뜻한다.

② 증산(甌山) (고북면 용암리), 시루봉(지곡면 산성리의 산, 마을)

속설은 산의 생김새가 마치 시루처럼 생겨서, 혹은 시루를 이고 가는 형국이어서 '시루봉' 혹은 '증산'이라고 한다고 말한다. 한자로 시루증(甌)자를 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산의 순우리말 이름은 '수리산'으로, 수리산은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suri'가 음운도치되어 'siru'가 된 것이다. '수리'는 '정수리'(頂-)(뇌천:腦天.정문:頂門)의 '-수리'처럼 '맨 꼭대기'·'머리'(首)의 뜻을 가진 말이다. 이 '수리'는 '수레'와 그 음이 비슷한 까닭으로 '차'(車)라는 한자로도 번역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주의 차령(車嶺)이다. 차령(車嶺)은 실은 가장 높은 고개라는 '수릿재'를 한자로 쓴 것이다.

③ 촛대석 (고북면 신송리 서쪽 길가 양천리와와의 경계에 있는 바위.)

마치 촛대처럼 뾰족하게 서 있어서 촛대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억지다. 실은 남자의 발기한 성기처럼 생겼다 하여,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 '오대'를 기피해서 '촛대'(燭柱)라고 했다는 말은 옳은 설명이다.

④ 가절미(佳絶尾) (고북면 장요리 1구)

'가절미'의 '-미'는 '매/뒬'와 같이 '산'(山)을 뜻하는 말이다. 이 산 이름이 그 에 인접한 마을의 이름으로 옮겨 쓰인 것이다. '가절'이 한자 '가절'(佳絶) 즉 "마을 주변이 춘추의 꽃과 단풍으로 아름다운 마을임"에서 왔다고 보기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⑤ 함봉산(函峰山) (고북면 초록리)

속설은 '연암산의 한 봉우리가 마치 함처럼' 생겨서 '함봉산'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처럼 보인다. '함-'은 '한-'(大)의 'ㄴ'이 '봉'의 [비]음을 담

아 (자음동화되어) 같은 순음 [ㅁ]이 된 것으로, '한봉산'의 뜻은 '대봉산'(大峰山)인 것으로 보인다. '한소'(大牛)가 '황소'로 된 것과 비슷한 예다.

⑥ 황골(黃谷) (㉠고북면 신정리 2구, ㉡부석면 월계리 2구)

속설은 ㉠ 이 마을에 약재로 쓰이는 황금(黃芩)이 자라서 혹은 ㉡ 여름철 우기에 황톳풀이 마을 앞을 흘러서 황골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이 '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大)이 변한 것으로 '황골'은 '한골'(大谷)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환도골(環都洞)(부석면 월계리)도 '도곡을 둘러싼(環) 마을'이란 뜻이 아니라 '한(大)+도골'임이 틀림없다.

2) 소지명(小地名)의 일반적 특징

(1) 시설물(교량, 창고, 연못, 저수지)의 이름은 대부분 그 지역명을 차용하고 있다.

(2) 하나의 장소에 2개 이상의 지명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순 우리말 지명 즉 고유지명과 이를 한자로 옮긴 한자 지명이 공존함에서 비롯한다.

고욤골(古要洞), 꿩골, 연화리(蓮花里) (고북면 장요리, 마을)

튼개, 틀개, 기포(機浦), 기포리(고북면 기포리, 마을)

날새, 날새말, 비조(飛鳥), 신흥리(新興里) (고북면 신상리, 마을)

산직말(山直村), 독지(獨只, 篤只), 장땃뻐 (고북면 신상리, 마을)

(3) 쓰기 어려운 한자나 상서롭지 않은 의미를 가진 한자를 사용한 지명은, 쉬운 글자나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佳好字)로 바뀌었다.

(4) 고유지명은 오랜 동안 언중(言衆)의 사용으로 그 음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명에 대한 언중의 어원의식(語源意識)도 타락하여 건강부회가 많다. 따라서 민간어원설이 그 대부분이다. 다음이 그 예의 일부분이다.

연애골(戀愛洞)(지곡면 연화리:蓮花里) : 산으로 둘러싸여 매우 아름답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고을이므로, 청춘 남녀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어서 속칭 연애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억지 소리다. 마을 이름 연화리(蓮花里)의 음이 왜전되어 동음견인(同音牽引)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 연화(蓮花)란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풍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애골'이란 '연화산 밑에 있는 골'이란 뜻이다.

(5) 언중의 오랜 소지명 사용으로 음이 와전되어 지명의 분화를 낳은 것도 보인다.

옷골(漆洞)(지곡면 대요리 한우물 동쪽의 마을): 마을 입구에 옷나무가 많았음에 연유하여 이것이 '옷골·육골·육굴'로 변했다는 설, 주변의 여섯 마을; 6골에서 비롯했다는 설, 이 마을의 전답이 비옥하여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요(要)'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있으나 모두 믿기 어렵다.

(6) 하나의 고유지명이 산 이름도 되고, 고개 이름도 되고, 마을 이름도 되는 경우, 어느 것이 먼저였고, 어느 것이 그것에 의해 뒤에 이름 붙여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무수리재(舞袖里峙)(지곡면 무장리 고개): '무수리'란 마을(지곡면 무장리 부장골 북쪽의 마을)이 먼저 생기고 마을 이름이 지어져, 그 마을의 서쪽에 있는 것이 '무수리' 고개인지, 고개(무수리재)가 먼저 이름지어져 이 고개 동쪽에 마을이 생겨, 뒤에 마을 이름이 생겼는지 모를 일이다. '무수리'의 연원을 한자 '무수(舞袖)'에 근거하여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의 풍수상 나왔다고 전해오는 설이 있다. 다른 곳의 지명에서는 무쇠(銑鐵) 혹은 그 지방에 살았던 특수층 계급의 사람에 연유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경우는 많다.

오깃들(梧枝坪)(성연면 오사리의 중심 마을)(성연면 오사리 앞의 들판)

마을(오깃들)이 먼저 있어, 훗날에 그 마을 앞의 들을 '오깃들'이라고 했는지, 들(오깃들)이 먼저 생기고 훗날에 들판에 마을이 생겼는지, 그 선후(先後)는 잘 모를 일이다. '오깃들'이란 이름만을 이론상으로 따지면, '오지'는 마을의 이름이고 '오깃들'은 이 마을 앞의 들판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다.

(7) 하나의 지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어원들이 말해지고 있다.

① 날새, 날새말(飛鳥) (고북면 신상리. 마을)

- 낮은 재가 있어서 '날새'라고 했다.
- 나날이 새롭게 일어나라는 뜻에서 '날새'라고 했다. (日新又日新)
- 날새가 많이 날아든다 하여 '날새'라 했다.

마지막의 것이 그럴듯하다.

② 쇠섬(金島) (고북면 남정리. 섬)

- 섬 모양이 소처럼 생겨서 쇠섬이라고 했다.
- 섬에 돈 많은 부자들이 살아서 쇠섬이라고 했다.

앞의 것이 그럴듯하다.

③ 뜰개, 뜰개(機浦) (고북면 기포리, 마을)

- 지형이 배틀처럼 생겨서 뜰개(機浦)라고 하였다.
- 다른 마을에 비해 기업(機業)이 성하여서 뜰개(機浦)라고 하였다고 한다.

둘 다 억지 같다. 이것은 개(浦)·포구 이름에서 이에 인접한 마을 이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해석하면 뜰개:기포(機浦)의 대응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나, 뜰개:機浦의 대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보다 '뜰'·'뜰'은 -개(浦)(포구)의 속성을 수식하는 용언(用言)처럼 보인다. 내친 김에 추측을 하여 보면 앞의 '트인', '열려진' 개(浦)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3) 서낭당, 성황당(城隍堂)에 대하여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 산기슭의 길가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큰 나무와 함께 있는 돌무더기를 흔히 서낭당이라 한다..

이 '서낭'이란 말의 어원에 대하여는 첫째로 산신인 '산왕(山王)'에서 왔다는 김태곤 교수의 '산왕설'과, 둘째로 천신(天神)을 지칭하는 최고의 신인 상왕(上王)에서 왔다고 하는 하효길 교수의 '상왕설'과, 세째로 중국의 성황신앙(城隍信仰)이 전제되어 이 성황에서 왔다는 '성황설'이 있다.

어느 것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다만 단정적으로 그리고 의심없이 '서낭'이 중국의 성황(城隍)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황'(城隍)이란 본래 성지(城池)와 같은 말이며, '성지'(城池)란 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 주위에 도랑을 파 물을 채운 시설 즉 수옹(水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종철, 박호원 지음 서낭당 대원사 pp:8~9, 32 참조)

4) 지명의 연혁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들

(1) 방언 및 고어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① 음암면(音岩面) 부장리(富長里)의 소지명 '부다니'·'부다리'의 경우.

부다니[부다리][마을] 가래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처녀처럼 생겼다 함.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충남편) 하, p.63)

위의 언급은 소지명 '부다니' 혹은 '부다리'라는 지명어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고어(古語)의 그림자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지명어원의 타당성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처녀'(處女)를 뜻하는 순우리말 '부다니'·'부다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방언은 고려시대의 우리말 기록인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의 해석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女兒曰 寶姐 亦曰古召育曹兒 (여아왈 보달 역왈고소육조아)

여기 '여아' (女兒)를 '치녀'로 대치하면 '보달'은 '부다리'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서산 방언은 모음으로 끝나는 이른바 개음절어(開音節語)의 잔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pt^hr = pau-tat. 뽕썰 뽕와 (속 三孝 19), 쓰름나케(능 六 33)

이 '부다리'는 국어 변천사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딸' (女兒)에 이르렀다고 본다.

부다리 > 부달 > 뽕(어두자음군:語頭子音群 형성) > 딸(경음화:硬音化)

따라서 '치녀'를 뜻하는 '부다리'는 고려시대 이전의 어형을 유지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수랑배미(부석면 갈마리), 쉬논(성연면 오사리)에서 '수랑'·'수왕'·'쉬'가 '수령'의 이 지역 방언임을 알 수 있다.

③ 유투쟁이논(성연면 해성리)에서 '유투나무'가 '느티나무'의 이 지역 방언임을 알 수 있다.

④ 쉬우나무배미(고북면 남정리 논) '쉬우나무'·'시유나무'는 스무나무(자유:紫榆)의 이 지방 방언이다. '스무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이다. 느릅나무과(科)에는 140여 종이 있어, 한국에는 팽나무·스무나무·느티나무·느릅나무·비슬나무 등 15 종이 분포함.

⑤ 모안(뫓언)(부석면 대두리, 사양골 북쪽 마을) '모안(뫓언)'은 '산언덕'의 이 지방 옛말이다.

⑥ 벌떡운지, 벌떡구니말(부석면 지산리 방교 남쪽의 마을). '벌떡운지'·'벌떡구니'는 '들판'의 이 지역 방언이다.

⑦ 새양골(井洞)(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남쪽의 마을), 사양골(斜陽洞)(부석면 대두리) '사양'·'새양'·'시양'·'쟁'·'삼'·'삼'은 '샘'의 이 지역 방언이다.

⑧ 고두리부리(부석면 갈마리 2구 고잔 남쪽의 부리). '고두리'란 'yodoli'라는 몽고어 기원의 말로 "물건 끝이 뭉뚝한 자리"란 말이다.

⑨ 몽구리산(성연면 명천리). '몽구리'란 중(僧)의 별칭으로, 몽구리산은 민둥산을 말한다.

⑩ 가재골망(인지면 화수리 내동 뒤의 골짜기). 골망·굴명은 골짜기의 이 지역 방언이다.

⑪ 스문여(팔봉면 호리 중말 서쪽 바다에 있는 바위). '스문여'란 '암초'(暗礁)를 뜻하는 이 지역 말이다. 이를 '二十女'로 쓰고 해녀 20명의 익사와 관련지음은 건강 막심이다.

⑫ 가금애말, 가금외말(鳥村)(음암면 탐곡리 중곡 서쪽의 마을). '가그매', '까

그때'는 '까마귀'의 이 지역 방언이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은 "간오지간(艮鳥之間): 간대산과 오촌 사이에 피란지(避亂之地)가 있다"고 하는 풍수설에 연원을 두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 민간어원임이 확실하다.

⑬ 회천이(음암면 문양리 두름바위의 북쪽 골짜기 회천재 밑에 밑에 있는 마을). '회천'은 원래 '회초미'로서 꼬리고사리과의 다년생 양치 식물이다.

⑭ 덧백이(음암면 신장리 동암 옆의 마을). '덧백이'란 농악(農樂) 장단의 이름이다.

⑮ 이스물(大?莽)(음암면 부장리 안터 동쪽의 마을). '이스물'·'이시미'·'이슴'은 '이무기'의 이 지역 방언이다.

방아다리(부석면 지산리 3구). '방아다리'를 '방아깨비'의 방언으로 보아 '방아다리'가 많았음에 연유했다가보다 허수아비 비슷한 옛날 노리개의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무네미(고개)(水踰峙)(고북면 장요리). 이 고개로 물을 넘겨서 영농에 이용했으므로 무네미고개라 했다고 함은 억지다.

'무네미'는 물(水)과 무관한 것으로 '고개'를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형태소 분석을 하면 물(陸)?나미(波)로 '陸波'를 뜻한다. '무네미'의 '무'가 물(陸)·무디(丘)와 유관함은 다음으로도 알 수 있다. 무디울(丘村), 무띠울, 산지(山芝)(운산면 갈산리 정문거리 북쪽의 마을). 마을이 경사진 곳에 있음. '무디'란 '언덕'의 옛 말이다. (박춘석, 서산군의 지명유래, p.439)

'나미'는 고구려어 *nuami: '丙米'(池,海)와 통구스어 namu, lamu(海), 일본어 nami(波)와 같은 기원의 말이다.

暴池郡本高句麗丙米忽郡 景德王改名今海州<삼국사기 권 35 잡지 제4>

丙米忽一云池城 一云長池 <신증여람 권43. 해주목>

'운산면 여미리'의 '餘美'도 여월미야(余月美也)의 준말(음력 4월)로 '4월의 달이 몹시 아름답게 비친다'는 데서 온 말이 아니다. 이는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하여 여기 nuami, nami를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池·海·波의 뜻을 가진 말이다.

(2) 그 지역 언어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다.

- ① 우르내, 울내(성연면 명천리:鳴川里)에서 우르)울.
- ② 말우리(馬鳴里)(성연면 명천리:鳴川里)에서 우리)울.
- ③ 모기대(毛其大): 항대(項大)(인지면 모월리)에서 모기)목(項).
- ④ 원마루·원말(院洞), 원종(元宗)(운산면 수평리)에서 마루)말(村·洞), 가루고개(葛峴)*갈고개(운산면 갈산리)에서 가루)갈.

⑤ 돌모루(石隅)(부석면 갈마리)에서 모루 > 몰+옹이 > 모롱이.

⑥ 투루지(고북면 정자리)·신투루지(新機里)(고북면 양천리 1구). 투루·트르)틀.

‘기(機)’에 해당되는 훈 ‘틀’을 ‘트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⑦ 그마재, 금재(錦峴)(대산읍 기은리 고개)에서 그마>금(大). 이 고개의 흙에 많은 운모가 섞여 금빛이 났으므로 생긴 지명이다. 그마→금(大)

이상에서 이 지역의 옛말이나 방언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어(開音節語)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음운변화 현상의 실례를 볼 수 있다.

① 한샘말.(大井洞)→황샘말(운산면 소중리). 이것은 ‘한(大)+쇼(牛)’가 ‘황소’가 되어 황우(黃牛)로의 건강부회를 가능하게 한 것과 같다.

한(大)+바위(岩)→황바위(黃岩)(팔봉면 어송리 정자동 동쪽의 바위)도 같은 경우다. 이 음운변화를 모르고 ‘황바위’를 ‘黃岩’으로 적고, 황씨란 사람이 이 바위를 좋아하여 황씨바위라고도 한다 함은 건강부회가 막심하다.

② 구석마을(隅村) > 구석말 > 구억말(고북면 기포리 1구·부석면 송시리 속말 북쪽 마을)

모음 사이의 [시]이 탈락되어 ‘구억말’이 되었다. 이 ‘구억말’은 한자(漢字)와 억지로 연결되어 구억말(九億村)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편안히 살 수 있는 마을”이란 민간어원설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구억말’의 연원은 ‘구석에 위치한 마을’에 있다.

‘구억말’·‘곶말’·‘곶말’이 ‘구석마을’ 즉 ‘구석’에 위치한 ‘마을’에서 변한 것이란 사실은 다음과 같은 국어 음운 변천의 생생한 사실을 보여 준다.

ㅅ(무성음) > 유성적 조건에서 △(유성음) > ㅇ

③ 대방리(大芳里)(성연면 명천리). 대백이말(竹里) > 대백이 > ng(ㄱ)음의 ‘대백이’가 되어 우아한 유형의 대방리(大芳里)이다.

④ 둥구미(圓山)(성연면 명천리 2구 마을). 둥그미, 둥금리(東琴里) 우아한 양성 모음으로 바뀌고 좋은 의미의 한자로 바뀐다.

⑤ 함적골(팔봉면 어송리 2구 마을). 이것은 한(大)+절(寺)+골(谷,洞)이 변화한 것으로 큰 절이 있는 곳이다. ‘적과 대전하여 함락시킨 곳’이라고 함은 억지다.

(4) 인멸된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을 추적할 수 있다. (본문 3항 참조)

(5) 인멸된 지형·지물을 추정할 수 있다. (본문 4항 참조)

(6) 해당 지역에 생존했던 생물, 생산되었던 산물을 추적할 수 있다. (본문 6항 참조)

(7) 인멸된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 역사, 전설, 풍수설 등을 알 수 있다. (본문 7~10항 참조)

5) 연구 방법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명 어원의 추적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를 경계한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맹신을 경계한다. 선행의 업적으로 으뜸가는 것은 역시 한글학회에서 펴 낸 한국지명 총람 충남 서산군 편이다. 이것은 적지 않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명을 언급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의 업적이다. 지명을 기술하면서 그 지명의 연혁을 은근하게 설명하여 놓았다. 혹자가 들이대고 ‘꼭 그러냐’, ‘틀림없냐’라고 물으면 도피처까지 마련한 설명 속에는 지명 어원에 관한 많은 암시가 들어 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고로 이 같은 지명이 생겼다’는 확실한 언급은 없다. 즉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인이명지(因以名之)’란 언급은 없다. 이것은 지명 어원을 추구하는 사람의 몫이다. 즉 찾는 자의 맞장구치는 말로 해야 할 몫으로 남겨 두었다. 본고도 ‘인이명지(因以名之)’의 언급은 생략했다. 간결한 기술을 위해서였다.

선행의 업적으로 그 다음 가는 것은 《서산군의 지명유래》(박춘석, 서산문화원, 1993)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지방 출신으로 토착하여 생활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한글학회의 지명총람을 보완할 수 있었음은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애향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기 한자의 글자 뜻에 맞춘 듯한 설명이나 국어학적 기초 위에서 있지 않은 지명의 설명은, 어리석은 필자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곳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을 밝힌다. 아울러 본고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서산시 향토사학자 이은우(李殷佑) 선생의 고견을 접할 수 있었음과, 필자와 사제의 인연을 맺은 이 지역 출신 이성규(李成圭) 선생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한다. 삼가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 또한 본고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임이 틀림없다. 뒤에 오는 두려운 이들의 바른 고침을 바랄 뿐이다.

셋째로 필자가 위에서 국어학적으로 바로잡고자 한 지명의 연혁도 본고의 목적인 지명 연원의 유형 분석에서는 기존의 연혁·연원·어원 설명을 따랐음을 밝힌다. 그것은 이 지역 언중(言衆)의 일반적 인식을 찾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에서였다.

다. 그러나 종종 필자의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2. 서산(瑞山) 지명의 연혁

서산(瑞山)이란 지명의 연혁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백제	신라경덕왕	고려 충렬왕 10년(1284)	고려 충렬왕 34년(1308)
기군(基郡) →	부성(富成) →	서산(瑞山) →	서주목(瑞州牧) →
고려 충선왕 2년(1310)	조선 태종 13년(1413)	조선숙종 21년(1695)	(1713)
서령부(瑞寧府) →	서산군(瑞山郡) →	서산현 →	서산군 →
(1733)	(1742)	(1776)	(1785)
서산현 →	서산군 →	서산현 →	서령면 →
			(1917)
			(1942)
			(1995)
			서산읍 →
			서산시

1) 서산시의 산천

(1) 산

① 방향

* 남산(南山), 역마산(驛馬山), 토성산(土成山) ; 인지면, 부석면과 팔봉면 경계에 있는 산. 장군산(금강산)의 남쪽이 됨.

* 북산봉수, 북산산성, 봉우재, 봉화재 ; 서산읍 읍내리와 갈산리 경계에 있는 산. 서산시의 북쪽에 있음.

* 안산(案山), 양절산 ; 인지면, 남정리, 야당리, 애정리 경계에 있는 산. 남정리의 골수골 앞이 됨. 산봉우리가 두 마디로 되었음.

②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망일산(望日山) ; 대산면 대산리, 운산리, 영탑리에 걸쳐 있는 산. 망일사(望日寺)가 있음.

* 문수산(文殊山) ; 운산면 태봉리, 고평리와 용현리 경계에 있는 산. 문수사(文殊寺)가 있음.

* 일락산(日洛山), 일악산(日岳山) ; 해미면 황락리와 운산면 용현리 경계에 있는 산. 일락사(日洛寺)가 있음.

* 역마산(驛馬山), 남산(南山), 토성산(土城山) ; 인지면, 부석면과 팔봉면 경계에 있는 산. 풍전역(豐田驛)이 있을 때, 역마(驛馬)를 이 곳에서 먹였음.

* 봉우재, 봉화재, 북산봉수, 북산산성 ; 서산시 읍내동과 갈산리 경계에 있는 산. 조선조에 봉수대가 있었음. 서산시의 북쪽이 됨.

* 토성산(土城山), 남산(南山), 역마산(驛馬山) ; 고려 때 왜구의 침입을 막았던 토성이 있음.

* 금강산(金剛山), 서각산(犀角山·鼠角山) ; 인지면 성리, 차리와 팔봉면 금학리, 어송리 경계에 있는 산. 경치가 좋아서 강원도 금강산 다음 간다 함.

* 굴포(掘浦) ;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팔봉면 진장리 경계에 있는 개. 고려 17대 인종 때 조세를 운반할 때, 적들강과 가로림만을 거치면 400여리를 단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정습명(鄭襲明)을 보내어 개를 파다 중지, 종실 왕강(王康)의 건의에 의해 다시 파다 중지, 조선조 7대 세조 때 안철현(安哲鉉)을 보내어 시험하다 또 중지했음.

③ 지형(地形)·지물(地物)

* 대성산성(大城山城), 만리성(萬里城), 연암산(燕岩山) ; 고북면 장요리와 해미면 대곡리 경계에 있는 산. 산꼭대기에 둘레 10리의 석성이 있음.

* 당산(堂山), 당산성(堂山城), 성산성(城山城) ; 해미면 동암리, 반양리, 오학리, 삼송리 경계에 있는 산. 산제당이 있어서 음력 정월 14일에 제사를 지냄.

* 망미산(望美山) ; 지곡면 중왕리, 도성리, 산성리 경계에 있는 산. 이 산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사방이 매우 아름답음.

* 장군산(將軍山), 금강산(金剛山) ; 인지면 성리, 차리와 팔봉면 금학리, 어송리 경계에 있는 산. 산의 꼭대기에 장군바위가 있음.

④ 모양·크기

* 동암산(銅岩山), 동암산성(銅岩山城) ; 운산면 가좌리, 갈산리, 용장리 경계에 있는 산. 바위가 구리처럼 되었다 함.

* 시루봉, 증봉(甑峰), 증산(甑山) ; 고북면 용암리와 해미면 대곡리, 산수리 경계에 있는 산. 시루처럼 생겼음.

* 용머리산, 용머리, 용두산(龍頭山) ; 해미면 삼송리와 홍천리 경계에 있는 산. 모양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 장군산(將軍山) ; 고북면 장요리, 초록리, 가구리, 용암리와 해미면 대곡리에



〈사진〉 봉화봉(부춘산 정상 197m)

걸쳐 있는 산. 산세가 장군처럼 생겼다 함.

* 토미산 ; 음암면 문양리, 울목리와 성연면 명천리 경계에 있는 산. 작은 토성이 있는데, 마치 태를 두른 것처럼 생겼음.

* 양절산, 안산(安山) ; 산봉우리가 두 마디로 되었음.

* 오봉산(五峯山)·연화산 ; 성연면, 팔봉면, 지곡면 경계에 있는 산. 다섯 봉우리로 되었음.

* 팔봉산(八峯山) ; 팔봉면 어송리, 금학리, 대황리에 걸쳐 있는 산. 여덟 봉우리로 되었음.

⑤ 동·식물(動·植物)

* 연암산(燕岩山), 대성산성(大城山城), 만리성(萬里城) ; 고북면 장요리와 해미면 대곡리 경계에 있는 산. 명매기(제비와 비슷한 날짐승)가 깃드는 바위가 있음.

⑥ 관련 인물

* 상왕산(象王山) ; 운산면 신창리, 용현리, 태봉리, 고평리에 걸쳐 있는 산. 삼한(三韓)때 상왕(象王)이 이 곳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백제에게 망하였다 함.

⑦ 전설·풍수설

* 물니산(沒泥山), 모리산 ; 대산읍 대산리와 대로리 사이에 걸쳐 있는 산. 금구 물니형(金龜沒泥形)의 명당이 있다 함.

* 비룡산(飛龍山) ; 인지면, 팔봉면, 성연면 경계에 있는 산.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함.

⑧ 생산지

* 수정봉(水晶峰) ; 운산면 원평리, 와우리, 고평리에 걸쳐 있는 산. 수정이 난다 함.

(2) 내

① 경유지

* 대교천(大橋川), 한다리내 ; 음암면 탑곡리 안국산에서 발원하여 음암면, 운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성암저수지를 이루고 대교(한다리)를 지나 해미천을 합해 바다로 들어감.

* 버드내(신송천(新松川), 양천(楊川)) ; 고북면 장요리 연암산(燕岩山)에서 발원하여 신송리와 버드내를 거쳐 봉생리에서 바다로 들어감.

* 벗말내, 벌리천(伐里川) ; 운산면 용현리 상왕산(象王山)에서 발원하여 원벌리, 상성리를 거쳐 거성리에서 역천으로 들어감.

* 사쟁이내(진장천(榛牆川), 사장천(砂場川)) ; 팔봉면 진장리 문래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서 부석면 가사리의 사쟁이를 지나 동무실내를 합해 가지고 바다로 들어감.

* 장사목골내 ; 운산면 팔중리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고산리와 수평리의 장사목골을 지나 수당리에서 역천으로 들어감.

② 종착점(바다로 들어가는 지점)

* 남정천(南井川)(연쟁이내, 용암천(龍岩川)) ; 고북면 용암리 시루봉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신상리 앞을 거쳐 남정리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감.

* 동무실내 ; 팔봉면 진장리 문래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부석면 가사리의 동머시리를 지나 바다로 들어감.

③ 발원지

* 가구천(加口川) ; 고북면 가구리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기포리에

서 바다로 들어가는 내.

* 성연내(聖淵內), 성연천 ; 성연면 일람리, 고남리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서 일람리, 오사리, 고남리, 오사리, 평리를 거쳐 바다로 들어감.

* 용암천(龍岩川), 연쟁이내, 남정천(南井川) ; 고북면 용암리 시루봉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신상리 앞을 거쳐 남정리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감.

* 해미천(海美川) ; 해미면 삼준산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서 읍내리를 거쳐 한다리내로 들어감.

3. 대산읍(大山邑)

1) 읍명(邑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대산읍(大山邑) ; 대산부곡(大山部曲) 또는 대산곶(串)에서 왔는데, 대산(大山)은 대산면 대산리에 있는 망일산(望日山)을 가리킴.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기은리(其隱里), 기은구지, 기은곶, 기은 ; 대산읍. 남북으로 긴 곶(串)임. 기은곶 > 기은구지.

* 대로리(大路里), 한길말, 한질말 ; 대산읍. 마을 앞에 한길(大路)이 있음.

* 대산리(大山里) ; 대산읍. 대산 즉 망일산(望日山)이 있는 곳. 혹은 대산면이 있는 곳임.

* 독곶리(獨串里), 독곶 ; 대산읍. 바다속에 외따로 곶이를 이루었음.

* 오지리(吾池里) ; 대산읍. 오지가 되어 있음. 혹은 오지리 1구와 독곶 1구 사이에 있는 개(浦)를 웅덩이 못)으로 본 데서 연유.

* 웅도리(熊島里), 곰섬 ; 대산읍. 곰섬(熊島)에 위치해 있음.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대죽리(大竹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대각리와 죽엽리의 이름을 땀음.

* 영탑리(令塔里) ; 영전리(令田里)와 탑동(塔洞)의 이름을 땀음.

* 운산리(雲山里) ; 운전리(雲田里)와 산후리(山後里)의 이름을 땀음.

* 화곡리(花谷里) ; 개화리(開花里)와 반곡리(盤谷里)의 이름을 땀음.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위(上), 남(南)을 주로 취하고 있다.

- * 노상리(路上里) ; 대산읍 대산리 마을. 큰길 위쪽임.
- * 노하리(路下里) ; 대산읍 대로리·대산리 마을. 큰길 아래쪽임.
- * 매남리(梅南里) ; 대산읍 대산리 마을. 매봉재(梅峰峙) 남쪽에 있음.
- * 산전리(山前里) ; 대산읍 대산리 마을. 대산 망일산(望日山) 앞에 있음.
- * 상운전리(上雲田里) ; 대산읍 운산리 마을
- * 산뒤밭(山後里) ; 대산읍 운산리. 지새와 갈마리를 통틀어 일컬음.

② 위치

염전, 광산, 저수지, 다리, 시장, 제방 등은 주로 그것들이 위치한 지명에 의해 명명되고 있다.

- * 광암염전(廣岩鹽田), 대로염전(大路鹽田) ; 대산읍 대로리 광암 마을.
- * 금현제염소(錦峴製鹽所) ; 대산읍 기은리 금현마을
- * 부성제염소(富城製鹽所) ; 대산읍 영탑리에 있음.
- * 오지제염소(吾池製鹽所), 대오제염소(大吾製鹽所) ; 대산읍 오지리
- * 죽엽제염소(竹葉製鹽所) ; 대산읍 대죽리 죽엽마을
- * 제새염전, 지사염전 ; 대산읍 운산리 지새마을
- * 영탑광산(令塔鑛山) ; 대산읍 영탑리
- * 간월저수지(看月貯水池) ; 대산읍 운산리. 간월포(看月浦) 옆에 있음.
- * 개목저수지(開項貯水池), 화곡저수지 ; 대산읍 화곡리. 개목 남쪽에 있음.
- * 구진내(舊鎭川) ; 대산읍 대산리 내. 구진(舊鎭)마을 앞을 흐르는 내 임.
- * 구진다리(舊鎭橋), 대산교 ; 대산읍 대산리 구진 마을
- * 구진시장(舊鎭市場) ; 대산읍 대산리. 구진다리 옆에 있음.
- * 대산장 ; 대산읍 대산리
- * 대호지포(大湖芝浦) ; 대산읍 운산리. 당진군의 대호지면으로 건너다님
- * 망일사(望日寺) ; 대산읍 대산리. 망일산(望日山)에 위치함.
- * 모리골, 모리동, 몰니동(沒泥洞), 몰니곡 ; 대산읍 대로리 마을. 몰니산 기슭에 있음.
- * 밤섬제방(栗島堤防) ; 대산읍 운산리, 제방. 밤섬과 청량리 동쪽을 막은 둑.
- * 벼밭, 벌밭, 벌촌(筏村) ; 대산읍 오지리, 마을. 벌판에 위치해 있음.

- * 삼길포(三吉浦) : 대산읍 화곡리 3구, 마을. 삼길포 앞에 있음.
- * 아차산(峨嵯山) : 대산읍 대로리. 아차도에 있음.
- * 황금들(黃金坪) : 대산읍 독곶리, 들. 황금산 밑에 있음.
- * 횃개(檜浦) : 대산읍 운산리, 마을. 횃개(檜浦) 옆에 생긴 마을임.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 구진(舊鎭) : 대산읍 대산리, 마을. 이곳에 평신진(平薪鎭)이 있다가 화곡리의 서리실(*谷)로 옮겨 갔음.
- * 냉천, 냉천골(冷泉谷) : 대산읍 기은리, 골짜기. 냉천(찬샘)이 있었음.
- * 고창개(古倉浦) : 대산읍 오지리, 마을. 조선조 때 창고가 있었음.
- * 말마구지, 마곶(馬串) : 대산읍 오지리, 곶. 조선조에 말을 놓아 먹였음.
- * 벃말, 벌말(筏村) : 대산읍 오지리, 마을. 벃집(벃을 걸어 놓고 소금을 굽는 집)·벃터가 있음.
- * 소태나무배미 : 대산읍 대죽리 죽엽마을, 논. (쓴 성분인 소태나무가 논 주변에 있으므로 생긴 이름)
- * 영전(*田) : 대산읍 영탑리, 마을. 둔전(屯田)이 있었음.
- * 원두골(元頭洞) : 대산읍 대산리, 마을. 원두(園頭)가 성했음. 원두(元頭)는 취음표기임.
- * 저전(楮田) : 대산읍 영탑리, 마을. 닥나무밭이 있었음.
- * 절골(寺洞) : 대산읍 오지리, 마을. 절이 있었음.
- * 탑골(塔谷, 塔洞) : 대산읍 영탑리, 마을내에 탑이 있었음.
- * 간월동(看月洞) : 대산읍 운산리, 마을. 벃집(벃을 걸어 놓고 소금을 굽는 집)에서 달을 보며 소금을 구웠다고 함.

④ 지형(地形)·지물(地物)

지형, 부리, 우물, 서낭, 바위, 돌, 논 등에 의해 명명되었다.

- * 각골(角洞, 角谷), 노하리 : 대산읍 대산리 원두골 '부리'에 있는 마을. '각(角)'·'부리'는 반도처럼 바다로 나온 곳을 말함.
- * 한뿌리(大角里) : 대산읍 대죽리, 마을·부리.(사슴뿔처럼 생긴데 생긴 이름)
- * 황새부리 : 대산읍 기은리, 부리
- * 운전리(雲田里) : 대산읍 운전리, 마을. 망일산(望日山) 밑 구름밭(산이 높아 구름으로 가리어 농작물이 부실함)에 있는 마을.
- * 청량리(淸涼里) : 대산읍 운산리, 마을. 마을앞 시냇물이 맑고 시원함.
- * 물아니동(水多洞), 명지, 노하리 : 대산읍 대로리. 물니산 밑에 있어 물이 많이

남.

- * 샘벌(井筏, 井伐, 井坪) ; 대산읍 독곶리, 마을
- * 당재(堂峙) ; 대산읍 기은리,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 당봉(堂峰), 당뽕 ; 대산읍 독곶리, 봉우리.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음.
- * 서낭당이 ; 대산읍 대로리, 고개. 서낭당이 있음.
- * 광암(廣岩), 노상리(路上里) ; 대산읍 대로리, 마을. 넓은 바위(너름바회 ; 廣岩)가 있음.
- * 돌고개(石峴) ; 대산읍 대산리, 고개. 돌이 많음.
- * 논골(畚洞, 畚谷) ; 대산읍 독곶리, 마을. 논이 많음.

⑤ 모양·크기·상태

- * 신랑바위, 각시바위 ; 대산읍 운산리, 마을. 나란히 있는 두 바위가 큰 것은 마치 신랑바위, 작은 것은 각시바위 같다고 함.
- * 개바위 ; 대산읍 대산리, 바위. 개처럼 생겼다고 함.
- * 곰섬(熊島) ; 대산읍 웅도리. 섬이 곰같이 생겼음.
- * 노간이(鹿臥里), 노아리 ; 대산읍 대죽리 3구, 마을. 사슴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 * 숙호암(宿虎岩) ; 대산읍 대죽리, 바위. 바위가 자고 있는 범의 모습과 같다고 함. 혹은 마을 이름 숙호지(宿虎地)에 위치함에 연유했다고도 함.
- * 아섬, 와우섬(臥牛島) ; 대산읍 기은리, 섬.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 * 용머리염전(龍頭鹽田) ; 대산읍 운산리, 염전. 지형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고 함.
- * 태곶, 도끼곶, 토끼곶, 토끼섬 ; 대산읍 운산리, 섬·바위. 토끼처럼 생겼다고 함.
- * 멩에섬, 먹어섬(黑魚島) ; 대산읍 대죽리, 섬. 섬이 멩에처럼 생겼다고 함.
- * 댓잎마을(竹葉) ; 대산읍 대죽리, 마을. 마을의 모양이 댓잎처럼 생겼다고 함.
- * 개목(開項), 개화(開花) ; 대산읍 화곡리, 마을. 지형이 곶(串)의 목으로 되었음. '개목'은 지형이 목처럼 잘룩한 데서 연유했다고 함. 혹은 마을 모양이 꽃이 피는 모양 같다고 함.
- * 목벌, 목벚, 항벌(項筏) ; 대산읍 독곶리 1구, 마을. 목(項)처럼 잘룩함. 여기서 '벌'은 바다를 뜻함.
- * 서리실, 반곡(盤谷) ; 대산읍 화곡리, 마을. 마을의 지세가 서리서리 서리어 있는 것 같다고 함.
- * 아차산(峨嵯山) ; 대산읍 화곡리, 산·섬. '아차'를 음차로 보아 '작은 산'에서 왔다고 함. '아'에는 소(小,少)의 뜻이 있음. 또는 '아차(峨嵯)'를 훈차로 보아

섬의 모양이 높이 솟아 보임에 연유했다고도 하나 전자가 옳은 듯함.

* 자각산(紫閣山) ; 대산읍 오지리, 산. 서해의 낙조(落照)가 비쳐서 보랏빛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함.

* 장골(長谷) ; 대산읍 웅도리, 골짜기.

* 큰골(大谷) ; 대산읍 웅도리, 마을.

* 큰골(大谷) ; 대산읍 기은리, 골짜기.

* 한뿌리(大角리) ; 대산읍 대죽리, 마을·부리. 한 ; 큰(대)의 뜻임.

* 황새부리 ; 대산읍 기은리. 황새의 부리 같다거나 혹은 황새가 살았던 것에서 왔다기보다 '황(한:大)'에서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⑥ 동·식물(動·植物)

동물(매·앵무새·우럭), 식물(밤·정자나무·지초·전나무)과 유연적이다.

* 매섬(鷹島) ; 대산읍 웅도리, 섬. 매가 많이 앉았다고 함.

* 무명산(鵝鳴山), 명지산(明知山) ; 대산읍 대로리. 앵무새가 우는 산이라고 함.

* 흑어도(黑魚島) ; 대산읍 대죽리, 섬마을. 흑어(黑魚 ; 우럭·우럭기)가 많이 잡혔음.

* 밤섬(栗島) ; 대산읍 운산리. 밤나무가 많았음.

* 정갈, 정자동(亭子洞) ; 대산읍 대산리, 마을. 정자나무가 있었음.

* 지사(芝沙) ; 대산읍 운산리, 마을. 지초(芝草 ; 지치과의 다년초. 화상·동상을 치료하는 한약재.)

* 횃개(回浦) ; 대산읍 운산리, 마을. 돌아오는 포구(檣浦)에서 유래했다고 함.

⑦ 관련 인물

* 광순제염소(廣淳製鹽所) ; 대산읍 오지리, 염전. 주인이 김광순임.

* 영전(令田) ; 대산읍 영탑리, 마을. 전(田)씨가 많이 삶.

* 오제염소(吳製鹽所) ; 대산읍 기은리, 염전. 오씨가 만들었음.

* 윤희환염전(允煥鹽田), 윤희환간석지(允煥干澗地) ; 대산읍 대로리. 김윤희환이 만들었음.

* 해월암(海月庵) ; 대산읍 화곡리, 절. 해월선사가 창건했음.

⑧ 발생 연원

구진(舊鎭)(대산읍 대산리.마을) ; 이 곳에 평신진(平薪鎭)이 있다가, 화곡리의

반곡으로 옮겨 갔음. 구진(舊鎭)이란 '옛 진영이 있던 곳'이란 말이다. 구진다리(舊鎭橋), 구진내(舊鎭川), 구진시장(舊鎭市場).

대산읍에서는 서산의 다른 면에서 흔히 보이는 '새말(新村)'이 보이지 않는다. 대산읍의 취락 형성의 역사가 오래 된 때문으로 보인다.

⑨ 전설 · 풍수설

* 갈마리(渴馬里), 갈마동(渴馬洞), 갈머리(渴頭) ; 대산읍 운산리, 마을.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함.

* 용못 ; 대산읍 독곶리, 못. 못안에 용이 있다고 하여 가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냄.

⑩ 생산지

주로 금(金)의 생산과 유연적이다. [금]을 [그마]처럼 개음절로 발음했음이 특이한 일이다.

* 그마재, 금재(錦峴) ; 대산읍 기은리, 고개·마을. 이 고개의 흙이 검은 운모로 되어 있음.

* 황금굴 ; 대산읍 독곶리 당땡 북쪽 산기슭에 있는 굴. 예전에 금을 캐낸 굴이라 함. 바닷물이 들어와 있음.

* 황금산(黃金山) ; 대산읍 독곶리, 산. 본래 항금산(尙金山)에서 금을 캐 후부터 황금산이 되었음.

* 횃개(檜浦) ; 대산읍 운산리. 횃돌이 났다고 함.

4. 인지면(仁旨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인지면(仁旨面) : 인정부곡(仁政部谷)의 이름을 따서 인정면이라 함. 1914년 군명 폐합에 따라 노지면(蘆旨面)의 16개 동리와 군내면(郡內面)의 역리(驛里)와 마산면(馬山面)의 월계리(月溪里) 일부를 병합하여 인정(仁政)과 노지(蘆旨)의 이름을 땀음.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풍전리(豊田里) ; 고려 때 설치되어, 조선조 때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에 딸려 설치된 풍전역이 있었으므로 풍전 또는 역말, 역촌이라 하였음.

* 성리(成里), 성동, 잣골 ; 마을의 위치가 쥐뿌리재(鼠角峙) 밑이 되므로 잣골, 또는 성동(成洞)이라 하였는데, 의성 김씨가 살면서 “城”자를 “成”으로 고쳤음.

* 차리(車里), 수리재, 수릿골, 차동 ; 마을의 위치가 수리재 밑이 되므로 수리재 또는 수릿골, 차동이라 하였음. 일설은 이곳에 수리가 서식한 데서 연유되어 취헌(鷲峴), 수리·수레의 혼동으로 車洞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수릿날(端午日)·수릿재(車嶺)의 ‘수리·술’은 ‘정(頂)수리’의 ‘수리’처럼 ‘가장 높은 곳’·‘가장 좋은 것’의 뜻이니 ‘수릿재’·‘수릿골’은 각각 ‘가장 높은 고개’·‘가장 좋은 골’의 뜻임.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남정리(南井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남산리, 정동과 마산면의 월계리 일부를 병합하여 남산(南山)과 정동(井洞)의 이름을 따서 남정리라 함.

* 둔당리(菴堂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둔산리, 당산리, 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둔산(菴山)과 당산(堂山)의 이름을 따서 둔당리라 함.

* 모월리(毛月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기대리(毛基大里)와 양월리(梁越里)를 병합하여 모월리라 함.

* 산동리(山東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저리(山底里)와 동막리(東幕里)를 병합하여 산동리라 함.

* 애정리(艾井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당리(艾堂里)와 언정리(彦井里)를 병합하여 애정리라 함.

* 야당리(野堂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야촌, 원당리와 둔산리, 당산리, 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야촌(野村)과 원당(元堂)의 이름을 따서 야당리라 함.

* 화수리(花秀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계리, 반계리, 성산리, 수현리를 병합하여 화계(花溪)와 수현(秀峴)이름을 따서 화수리라 함.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동서남북

* 동막(東幕) ; 인지면 산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도비산 동쪽이 됨. 혹은 마을의 동쪽에 농막이 있었음에 연유.

- * 내동(內洞) ; 인지면 화수리. 터구말의 안쪽 마을.
- * 안골, 내동(內洞) ; 인지면 차리. 용못(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
- * 안골 ; 인지면 남정리. 공수굴 안쪽에 있는 마을.
- * 안터, 내촌 ; 모기대 안쪽에 있는 마을.
- * 가운데말 ; 인지면 야당리. 상촌의 남쪽 마을. 마을의 중앙부에 있음.
- * 중말(中村) ; 인지면 차리. 수릿골 동쪽의 마을. 마을의 중앙에 위치함.
- * 중간말(中村) ; 인지면 애정리. 온정 북쪽의 마을. 마을의 중앙에 위치함.
- * 중보(中湫) ; 인지면 화수리. 일곱마지기보와 여덟마지기보 사이에 있는 보.

○ 앞, 위(上), 밑, 아래(下), 뒤, 왼, 구석

- * 앞보 ; 인지면 풍전리. 역말 앞에 있는 보.
- * 윗말, 상촌(上村) ; 인지면 야당리. 들말 윗쪽에 있는 마을.
- * 산밑, 산저(山底) ; 인지면 산동리. 동막 서북쪽에 있는 마을. 산동리 1구 도비산 밑이 됨.
- * 아랫말, 하촌(下村) ; 인지면 야당리. 가운데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뒷재 ; 인지면 산동리 산저 북쪽에 있는 들.
- * 청룡골(靑龍洞) ; 인지면 남정리. 남살미 동북쪽에 있는 마을. 주산(主山)에서 왼쪽으로 벌어진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 * 구억말 ; 인지면 산동리. 산밑말(산저) 서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구억말(九億村) ; 인지면 성리. 용암동 북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구억말(九億村) ; 인지면 차리. 차리 2구 용못 서쪽 구석에 있는 마을.

② 위치

- * 양지말(陽地村) ; 인지면 야당리 1구 마을. 양지쪽에 이루어진 마을.
- * 양지말 ; 인지면 화수리 1구 마을. 마을이 양쪽에 있음.
- * 돌보다리, 석보교(石湫橋), 제이화수교 ; 인지면 화수리. 화계 남서쪽에 있는 다리. 돌보가 있었음.
- * 둔당교(菴堂橋) ;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다리.
- * 방죽안 다리 ; 인지면 둔당리. 방죽안 저수지 옆에 있는 다리.
- * 애정교(艾井橋) ; 인지면 애정리. 애당 남쪽에 있는 다리. 애정리에 가설된 다리.
- * 역말다리, 풍전교, 역촌교(驛村橋) ; 인지면 풍전리. 역말 남쪽에 있는 다리.
- * 화수교(花秀橋) ; 인지면 화수리. 화계 마을 앞의 다리. 화수리에 가설되었음.
- * 나무다리 ; 인지면 화수리와 둔당리 사이에 있는 다리. 나무로 놓았음.
- * 남살미, 남산리, 남산피 ; 인지면 남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남산 밑에 있음.

- * 농장촌(農場村) ; 인지면 야당리. 들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농장밑에 있음.
- * 둔산 모퉁이 ; 인지면 둔당리. 둔산 서쪽에 있는 모퉁이.
- * 들말(野村) ; 인지면 야당리 1구 마을. 들판에 있는 마을임.
- * 둔산보(菴山淤) ; 인지면 둔당리. 둔산리에 있음.
- * 모기대포(毛其大浦) ; 인지면 모월리. 모기대(마을) 동쪽에 있는 개.
- * 빼재, 수현(秀峴) ; 인지면 화수리. 빼재고개(화수리에서 부석면 강수리를 지나 태안읍 인평리로 가는 고개) 밑에 있는 마을.
- * 수령재, 수량재 ; 인지면 차리 뒷골 옆에 있는 마을. 마을의 위치가 수령재 밑임.
- * 양월(梁月) ; 인지면 모월리 1구 마을. 다리(梁) 건너에 있는 마을.
- * 온정(溫井) ; 인지면 애정리 2구 마을. 온정 주변에 있는 마을. 온정이란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다.
- * 은정, 서원말, 서원촌, 언정 ; 인지면 애정리. 은정 남쪽에 있는 마을. 큰 샘이 있음. 송곡서원이 있음.
- * 잿갯 ; 인지면 둔당리. 당울 서쪽의 마을. 잿갯 밑에 이루어진 마을이므로. '잿갯'이란 이 지방 방언으로 '야산'을 뜻하는 말임.
- * 잿말(城洞) ; 인지면 산동리. 산밑말 북쪽의 마을. 재 밑에 있음.
- * 잿말(城洞) ; 인지면 화수리. 터구말 동남쪽 마을. 잿밑에 위치함.
- * 참샘골 ; 인지면 화수리. 참샘이 있는 골짜기.
- * 청룡말, 청룡촌 ; 인지면 애정리. 은정 청룡쪽에 있는 마을. 청룡골에 있는 마을.
- * 풍전들(豐田平野) ;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 밑의 벌판. 들판의 위치가 풍전저수지 밑이 됨.
- * 풍전 저수지(豐田貯水池) ; 인지면 풍전리에 있는 저수지.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 양절산(兩寺山) ; 인지면 애정리. 애당 북쪽에 있는 산. 절이 둘 있었음.
- * 절골 ; 인지면 화수리. 잿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 * 서원말(書院洞) ; 인지면 애정리 2구에 있는 마을. 송곡사(松谷祠) 주변에 이루어진 마을.
- * 쑥대이, 쑥당, 애당이, 애당리 ; 인지면 애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쑥당(무학당 : 舞學堂)이 있음.
- * 기와집골 ; 인지면 산동리. 동막 동쪽에 있는 마을. 전에 부자가 살던 기와집이 있었음.
- * 산정말, 산정촌(山亭村) ; 인지면 모월리. 모기대 북쪽에 있는 마을. 산적집이

있었음. '산직말'이 '산정말'·'산정말'로 자음접변된 것임. '산정(山亭) 밑에서 이룩된 마을'에서 온 것이 아님.

* 비석골(碑石洞), 비성골, 비성곡, 피성골 ; 인지면 둔당리. 당을 북쪽에 있는 마을. 동구에 비가 서 있었음.

* 정문골(旌門谷) ; 인지면 애정리. 청룡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정문이 있음.

* 관청터 ; 인지면 애정리. 축당이에 있는 터. 인정북곡(仁政部曲)의 관청이 있었음.

* 사장터(射場址) ; 인지면 애정리. 청룡말 앞의 마을. 사장터(활쏘던 터) 앞에 있는 마을.

* 풍전역터(豐田驛-) ; 인지면 풍전리. 역말에 있는 풍전역의 터. 고려 때부터 풍전역이 있었음.

* 성재(城峙) ; 인지면 야당리. 원당 북서쪽의 고개. 성 위쪽에 고개임.

* 군내(郡內) ; 인지면 풍전리. 역말 북쪽의 마을.

* 가장골(加場谷) ;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북쪽의 골짜기. 이 골에서 가장(假葬)을 했음. 좋은 글자로 바꾸어 가장(加場)골이라 했음.

* 송장바위(屍身岩) ; 인지면 애정리. 동기산 밑에 있는 바위.

* 장장산 ;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북쪽에 있는 산.

* 공수골(公須洞) ; 인지면 남정리 1구의 마을. 조선조 때 공수전(公須田)이 있었음.

* 둔전들(屯田-) ;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서쪽에 있는 들. 조선조 때 둔전(屯田)이 있었음.

* 인정재(仁政峙) ; 인지면 산동리. 산저 서쪽의 고개. 인정면에 속해 있을 때의 '인정'에 연유.

* 행제동(行悌洞) ; 인지면 성동 동쪽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마을이라 함.

* 화계(花溪) ; 인지면 화수리의 중심 마을. 봄창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므로 '꽃내'라 하던 것이 한역(漢譯).

④ 지형(地形)·지물(地物)

* 새양골, 샘골, 정동(井洞) ;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남쪽에 있는 마을. 좋은 샘이 많음 '새양'은 '샘'의 이 지역 방언임.

* 용못, 용연(龍淵), 용연리 ; 인지면 차리. 수릿골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주변에 용못이 있음.

* 각시서낭터 ; 인지면 남정리. 남살미 서북쪽에 있는 각시서낭당의 터.

* 당산(堂山) ; 인지면 둔당리. 둔산 남쪽에 있는 마을. 신을 위하는 당산이 있

음.

- * 산제당골(山祭堂谷) ; 인지면 차리. 장군산 밑의 골짜기. 산제당이 있음.
- * 서낭당 ; 인지면 산동리. 동막 남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 있었음.
- * 서낭당터 ; 인지면 모월리. 북주개산 서쪽의 서낭당이 있던 터.
- * 서낭당이 ; 인지면 차리. 오얏굴 서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이 있었음.
- * 원당(元堂) ; 인지면 야당리 2구 마을. 원당 앞에 있는 마을.
- * 방죽밑들 ; 인지면 둔당리. 방죽안 저수지 밑에 있는 들.
- * 방죽안(防築內) ; 인지면 둔당리. 당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방죽의 안쪽에 있

음.

- * 방죽안 저수지 ; 인지면 둔당리. 방죽안에 있는 저수지.
- * 돌다리, 석교(石橋) ; 인지면 모월리. 모기대 남쪽 산동리 경계에 있는 다리.

돌로 놓았음.

* 반계(磻溪). 반계리 ; 인지면 화수리. 화계 남쪽에 있는 마을. 앞내에 반석(盤石, 磐石:너럭바위)이 있음. (중국에서의 반계(磻溪)는 태공망(太公望)이 낚시질하였다는 시내임.)

- * 차돌바위(石英岩) ; 인지면 애정리. 양절산 남쪽에 있는 바위. 차돌로 되었음.
- * 학들재 ; 인지면 모월리. 노화동 서쪽에 있는 고개. 큰 돌이 있었음.
- * 동구터(洞口址) ; 인지면 산동리. 잣말 서쪽의 마을. 동구에 큰 터가 있음.
- * 별미, 성산(星山), 성산리 ; 인지면 화수리 반계 동쪽에 있는 마을. 벼랑으로 된 산이 있음.

* 살막금(箭幕村) ; 인지면 산동리. 동막 동남쪽에 있던 살막. '살막'이란 어전(漁箭)을 설치해 놓고 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기 위해 지은 움막.

* 산촉부리 ; 인지면 산동리. 동막 동남쪽에의 살막. 살막금이 자리한 지형이 촉처럼 뾰족한 산부리에 있음에 연유함.

* 석천암(石泉庵) ; 인지면 산동리. 산밑말 남쪽 도비산에 있는 절. 절내의 돌샘이 유명함.

* 수령배미 ; 인지면 애정리. 쑥쟁이 남쪽에 있는 논. 큰 수령이 있음.

* 장승배기 ; 인지면 야당리에 있는 산. 장승이 서 있었음.

* 항개 ; 인지면 야당리, 모월리, 산동리와 서산시 양대동에 걸쳐 있는들. 개를 막아서 들을 이룸. 한(大)+개(浦) → 항개.

⑤ 모양·크기·상태

○ 모양

- * 감투바위 ; 인지면 애정리. 신촌의 서쪽 등기산에 있는 바위. 모양이 감투럼 생

졌음.

* 농바위산(籠岩山) ; 인지면 모월리. 양월 동쪽의 야산. 이 산에 있는 바위가 농(籠)처럼 생겼음.

* 달갈산 ; 인지면 남정리. 동미 가운데 있는 작은 산. 모양이 달갈처럼 생겼음.

* 마당바위 ; 인지면 둔당리. 둔당산 서쪽 발 가운데 있는 바위인데 실은 지석묘(支石墓)임. 마당처럼 넓고 큼.

* 북죽개산, 북주개산, 도기산(倒起山) ; 인지면 모월리. 모기대 북쪽에 있는 산. 모양이 북주개(주발뚜껑)처럼 생겼음.

* 선반동, 잣갓 ; 인지면 둔당리. 당을 서쪽에 있는 마을. 둔덕 위가 되어서 그 모양이 마치 선반같다 함.

* 안장(鞍裝)바위 ; 인지면 화수리. 내동 서북쪽에 있는 바위. 안장처럼 생겼음.

* 장구배미 ; 인지면 화수리. 분투굴 남쪽에 있는 논. 장구처럼 생겼음.

* 젓가락 바위 ; 인지면 성리. 장군바위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젓가락처럼 생겼는데, 장군이 장군바위에서 밥을 먹고 던진 젓가락이라 함.

* 큰 골 ; 인지면 차리. 차동 북쪽 장군산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큰 말 ; 인지면 화수리. 빼재 밑에 있는 마을. 마을 규모가 큼.

* 큰 말(大村) ; 인지면 산동리. 동막 남쪽의 마을. 마을 규모가 다른 마을보다 큼.

* 큰 역말(大驛村) ; 인지면 풍전리.

* 광대골(廣大洞) ; 인지면 산동리. 동막의 북쪽 마을. 마을의 규모가 넓고 큰 데서 연유. 혹시 '광대'와 有關?

* 모기대(毛其大) ; 인지면 모월리 2구의 마을. 다른 마을에 비해 큰 마을임. '모기'(毛其)는 '목'의 개음절식(開音節式) 취음표기이며, '목'은 '항(項)'을 뜻함. 따라서 '모기대'는 '항대(項大)'로 '크다'는 뜻임.

* 두내바지 ; 인지면 야당리. 들말 남쪽에 있는 내. 두 내가 합침.

* 봉기산(分岐山) ; 인지면 애정리. 신촌 서쪽에 있는 야산. 두 갈래로 뿔어 내린 산임. 분기산→봉기산.

* 네거리 ; 인지면 둔당리. 둔산(菴山) 남쪽에 있는 마을. 네 갈래 길이 있음.

* 육골(六谷) ; 인지면 둔당리 1구에 있는 마을. 주변의 6골로 이루어진 마을.

* 여덟마지기보 ; 인지면 화수리. 일곱마지기보 동남쪽의 보. 여덟마지기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보임.

* 쉰길 바위(五十丈岩) ; 인지면 성동 북쪽 비룡산에 있는 바위. 쉰길(五十丈)의 높이라 함.

* 작은 골 ; 인지면 차리. 큰 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작은역말(小驛村) ; 인지면 풍전리. 역말 북쪽의 마을. 마을 규모가 작음.

- * 소보(小湫) ; 인지면 야당리. 신촌 동쪽에 있는 작은 보.
- * 열으내(淺川) ; 인지면 야당리. 원당 남쪽의 내. 물이 얇은 내임.
- * 열으내(淺川) ; 인지면 야당리. 열으내 주변에 있는 들.
- * 여투내 ; 인지면 야당리. 원댕이 남쪽에 있는 내. 물이 얇음.
- * 찬샘물 ; 인지면 차리. 중말 남쪽에 있는 샘으로 물이 참.
- * 참샘 ; 인지면 화수리. 분투굴 동쪽 골짜기에 있는 샘. 물이 매우 참.
- * 냉천(冷川) ; 인지면 애정리. 사장터 북쪽에 있는 찬 샘.
- * 옷삼 ; 인지면 산동리. 동막 서쪽에 있는 샘. 물이 차서 옷 오른 데 씻으면 낫는다 함.
- * 고래 ; 인지면 야당리. 원댕이 북쪽에 있는 들. 물이 좋아서 매우 굽.
- * 구레논 ; 인지면 야당리. 소보 서남쪽에 있는 들. 매우 굽.

⑥ 동·식물(動·植物)

○ 동물

- * 가재골망(石蟹谷) ; 인지면 화수리. 내동 뒤에 있는 골짜기. 가재가 많이 있음. '골망'은 '골'의 이 지역 방언.
- * 매봉산(鷹峰山) ; 인지면 남정리. 새양골 남쪽에 있는 산. 이 곳에서 매 사냥을 하였다고 함. 혹은 매가 살고 있었다고 함.
- * 매봉재(鷹峰山) ; 인지면 애정리. 온정 북쪽의 산. 매가 살았음.
- * 범바위(虎岩) ; 인지면 산동리. 석천암 좌측의 바위. 모양이 범처럼 생겼음.
- * 부엉 바위 ; 인지면 산동리. 산저 남쪽에 있는 바위. 부엉이가 살았음.
- * 수릿재(鷲峴) ; 인지면 차리. 장군산과 문래산 사이에 있는 고개. 이 고개 숲에 수리가 서식하고 있었음.
- * 아골재 ; 인지면 남정리. 새양골의 남쪽에 있는 고개. 이 고개 숲속에 아골(새매의 수컷, 난추니)이 살고 있었음.
- * 여수바위(狐岩) ; 인지면 야당리. 장승백이 서남쪽에 있는 바위. 바위 주변에 여수(여우)가 자주 나타났음.
- * 용암동(龍岩洞) ; 인지면 성리. 성동 북쪽의 마을. 동구에 있는 바위가 용처럼 생겼음.
- * 토고말, 터꾸말 ; 인지면 화수리 2구 마을. 이 마을에 토폴(익더귀 ; 새매의 암컷)이 많음.
- * 노화동(蘆花洞) ; 인지면 모월리. 모기대의 남쪽 마을. 갈대꽃이 많이 필름.
- * 당울(堂栗) ; 인지면 둔당리. 당산(堂山)밑 밤나무가 있는 마을.
- * 대절, 죽사(竹寺), 영귀암 ; 인지면 성리. 용암동 뒤쪽에 있는 절. 절앞에 대나

무가 무성함.

* 둔산(菴山), 둔당산 ; 둔산 마을에 있는 산. 신당이 있음. 이 산에 둔나무(菴)이 많이 자람. '둔나무'이란 '차리공'(菜似?可食)을 말함.

* 밤고개(栗峙) ; 인지면 성리. 행제동과 동산동 경계에 있는 고개. 밤나무가 있었음.

* 솔계 ; 인지면 모월리. 노화동 동쪽에 있는 들. 소나무가 있었음.

* 밤나무골, 울리(栗里) ; 인지면 둔당리. 당울 앞에 형성된 마을. 마을에 밤나무가 있었음.

* 송정터(松亭-) ; 인지면 둔당리. 당울 북서쪽에 있는 소나무 정자의 터.

* 시목골(柿木洞) ; 인지면 산동리. 산밑말 남쪽의 골짜기. 감나무가 있었음.

* 썸뱅이 ; 인지면 산동리. 산밑말 서쪽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썸바귀가 많았음.

* 오얏골 ; 인지면 차리. 수릿골 서쪽의 마을. 이 마을에 오얏나무가 있었음.

* 오얏골 ; 인지면 애정리. 온정 북쪽의 마을. 마을에 오얏나무가 있었음.

* 우산말(雨傘村) ; 인지면 화수리 1구 마을. 이 마을에 우산나무(영거시과의 다년초. 식용함)이 많음.

* 유투나무 수풀 ; 인지면 산동리. 큰 말에 있는 느티나무. 숲을 이루었음.

⑦ 관련 인물

* 개척단(開拓團), 정착지 ; 인지면 모월리. 1961년에 대한 청소년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음.

* 마장대터 ; 인지면 애정리. 축댕이 남쪽에 있는 터. 장자가 살았음.

* 쌍효동(雙孝洞) ; 인지면 성리. 성동 서쪽에 있는 마을. 이씨의 부자가 효자로 이름 났음.

* 장자터(長者址) ; 인지면 애정리. 청룡말 남쪽에 있는 터. 장자가 살았다고 함.

⑧ 발생 연원

* 새말, 신동(新洞) ; 인지면 애정리. 온정 북서쪽에 새로 생긴 마을.

* 새말, 신촌(新村) ; 인지면 야당리. 들말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

* 개답 ; 인지면 야당리. 야당리에 있는 논. 저수지 주위에 새로 개간하였음.

* 원갯들 ; 인지면 야당리. 원댕이 동남쪽에 있는 들. 원래는 갯바닥이었음.

⑨ 전설 · 풍수설

* 썸댕터(艾堂址), 무학댕터(舞學堂址) ; 인지면 애정리. 썸댕이 마을에 있는 신당의 터. 예전에 장사하는 여인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썸으로 덮어놓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학이 아이를 품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를 무학이라 하였는데, 그 아이가 곧 무학대사이므로, 이 곳에 당을 짓고 기념한다고 함.

*용못 -인지면 차리. 전에 용이 승천했다 함.

*장군 바위 ; 인지면 성리. 동성 북쪽 장군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혹은 장군이 앉았던 바위라 함.

⑩ 생산지

* 분투골, 분투골(盆土村) ; 인지면 화수리 1구. 화계 북쪽에 있는 마을. 분토가 남. 혹은 땅이 걸어서 곡식이 잘 됨에 연유. 분토란 썩은 땅(기름진 땅);분토(糞土)를 가호자(佳好字) 분토(盆土)로 바꾼 것이라고도 함.

* 점터 ; 인지면 남정리. 공수골 동쪽에 있는 질그릇을 굽던 터.

* 점터 ; 인지면 모월리. 개척단 서쪽에 있는 터. 질그릇점이 있었음.

* 팥골(豆谷) ; 인지면 풍전리. 역말 서쪽의 마을. 팥을 많이 생산했음.

5. 부석면(浮石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 부석면(浮石面) ; 적돌강(積鬲江)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밀물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않고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부석면이라 함.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간월도리(看月島里) ; 고려말 무학대사가 이 섬에서 수행 중 유난히 밝은 달빛을 보고 불도를 깨달았다 하여 간월도, 암자를 간월암이라 하였다 함.

* 갈마리(渴馬里), 갈마, 갈마곳, 갈마지(渴馬地) ; 이 마을의 지형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고 있는 형국(渴馬飲水形)이라고 한다.

* 대두리(大頭里), 한머리 ; 지형이 큰 머리처럼 되어 있으므로, 한머리 또는 대두라 함.

* 마룡리(馬龍里) ; 이 마을 앞 못에서 검은 말(驪)이 나왔다 하여 마룡리라 함.

* 창리(倉里), 창촌, 왜현리(倭懸里) ; 조선조 때 주사창(舟師倉)이 있었으므로 창말·창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창리라 하였음.

* 월계리, 달내, 달내말 ; 마을 앞 시냇물에 달이 비치어 아름다워 달내·달내말, 한역하여 월계리(月溪里)가 됨.



〈사진〉 부석면 '간월암'

*칠전리(漆田里), 옷밭골, 칠전(七田), 옷나무골 ; 옷나무 밭이 많으므로 옷밭골 또는 칠전이라 함. 현재 옷나무가 하나도 없음은 지명연원의 오랜 생명성으로 보아 과념할 바가 못됨. 다른 곳의 지명에서는 에돌아지고 쪽 들어간 지형(地形)을 뜻할 때도 있음.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가사리(柯沙里) ; 가전리와 사장리를 병합하여 가사리라 함.

* 강당리(江堂里) ; 강촌(江村)과 서당동(書堂洞)의 이름을 따서 강당리라 함.

* 강수리(江秀里) ; 강경리(江境里)와 수현리(秀峴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칭함. 전설상으로는 저수지에 위령제를 지내 마을을 저수지의 범람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의 이름이 강수리라고 한다. 그러나 지명 '강수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생긴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 봉락리(鳳洛里) ; 봉동(鳳洞)과 낙양동(洛陽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봉락리라 함.

* 송사리(松柿里) ; 송정(松亭)과 시동(柿洞)의 이름을 따서 송사리라 함.

* 지산리(芝山里) ; 지파(芝巴)와 산저(山底)의 이름을 따서 지산리라 함.

* 취평리(翠坪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석면 취포리(翠浦里)와 평리(坪里)를 병합하여 취평리라 함.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 동정(東寺) ; 부석면 지산리, 절. 산저(山底)·산제 동쪽에 있는 절.
- * 성안(城內) ; 부석면 취평리 서쪽 마을, 토성(土城)안에 있는 마을.
- * 속말(內洞) ; 부석면 송시리, 갑골 안쪽의 마을.
- * 안고잔(內古棧) ; 부석면 갈마리, 마을. '고잔' 안쪽의 마을.
- * 안골(內洞) ; 부석면 강수리, 마을. 용수동의 안쪽에 있음.
- * 윗강수(上江秀) ; 부석면 강수리, 마을. 강수리 중 위쪽에 있는 강수리.
- * 윗노라실(上獐谷) ; 부석면 봉락리, 마을. 위에 있는 노라실.
- * 윗말(上村) ; 부석면 대두리, 마을. 사양동 위쪽에 있는 마을.
- * 산밑말(山底), 산제 ; 부석면 지산리, 마을. 산밑에 있음.
- * 아래노라실(下獐谷) ; 부석면 봉락리, 마을. 아래있는 노라실.
- * 아랫말(下村) ; 부석면 대두리, 마을. 사양골 아래의 마을.
- * 구억말(九億村) ; 부석면 대두리, 마을. 구석진 곳에 있음.
- * 구억말(九億村) ; 부석면 송시리, 마을. 속말 북쪽 구석진 곳에 있음.
- * 구억지(九億址) ; 부석면 대두리, 마을. 모안 남동쪽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 * 점앞 ; 부석면 대두리. 점산 앞에 있는 논.
- * 뒷골(後洞) ; 부석면 대두리 2구 마을. 사양골 북쪽 마을임.
- * 뒷골(後洞), 죽림(竹林) ; 부석면 송시리, 마을. 산의 뒤쪽 마을임.

② 위치

- * 대두(大頭)염전 ; 부석면 대두리
- * 지산(芝山)염전 ; 부석면 지산리
- * 가사(柯沙)저수지 ; 부석면 가사리
- * 대두(大頭)저수지, 중탱이저수지 ; 부석면 대두리
- * 봉동(鳳洞)저수지 ; 부석면 봉락리
- * 봉락(鳳洛)저수지, 흑석저수지 ; 부석면 봉락리.
- * 깊은개(深浦)저수지 ; 부석면 마룡리. 깊은개 북쪽에 있음.
- * 취평(翠坪)저수지, 산밑저수지 ; 부석면 취평리. 산밑에 있음.
- * 환도골(環都谷)저수지 ; 부석면 월계리. 환도골 남쪽에 있음.
- * 황골(黃谷)저수지 ; 부석면 월계리. 황골 남쪽에 있음.
- * 가사교(柯沙橋) ; 부석면 가사리
- * 방교(芳橋) ; 부석면 지산리 방교말

- * 사장교(沙場橋) ; 부석면 가사리 사쟁이 마을
- * 칠전교(七田橋) ; 부석면 칠전리

다음의 예는 위와는 달리 다리를 놓게 한 내(川) 혹은 저수지의 이름을 딴 것들이다.

- * 소내다리(牛川橋) ; 부석면 강당리. 소내에 가설된 다리.
- * 인평교 ; 부석면 가사리. 태안에서 부석면으로 들어가는 인평저수지 상단에 가설된 다리. 옛 이름 흥인교(興仁橋)의 인과 평신리(坪薪里)의 평을 따옴.
- * 장검교(長劍橋), 장금교 ; 부석면 취평리. 장검천에 가설되었음.
- * 흥진교(興津橋), 혼진다리, 흥인교(興仁橋) ; 부석면 가사리. 태안에서 부석면으로 들어가는 인평저수지 상단에 가설된 본래 흥진(興津)다리였음. 현재는 인평교(仁坪橋) 나무를 중심으로 흥하는 마을.
- * 강경들(江境坪) ; 부석면 강수리, 들. 강경(마을) 앞에 있음.
- * 내배미(川畓) ; 부석면 대두리, 논. 내(川) 옆에 있음.
- * 강경벌 ; 부석면 가사리, 마을. 강경벌(들)에 있음.
- * 내건너(川越) ; 부석면 대두리, 마을. 내건너에 있음.
- * 농장부락(農場部落) ; 부석면 가사리, 대성농장 북쪽마을. 농장 주위에 있음.
- * 달천(達川) ; 부석면 지산리, 마을. 마을 앞에 달천이 흐름.
- * 동피(東山), 동피말 ; 부석면 강당리 마을. 동피(산 이름)밑에 있음.
- * 모얀(뫓언) ; 부석면 대두리. 사양골 북쪽 마을. 산언덕 밑에 위치해 있음. # 뫓언 ; 산언덕의 옛말.
- * 버드렁치, 빠드렁티 ; 부석면 강수리, 마을. 빠드렁티(고개) 밑에 있음.
- * 뱃재(秀峴) 고개 ; 부석면 강수리, 고개. 뱃재산 기슭에 있음.
- * 벌덕운지, 벌떠구니말 ; 부석면 지산리 방교 남쪽의 마을. 마을이 넓은 벌떠구니(‘들판’의 방언) 앞에 위치해 있음.
- * 벌어지(廣村), 벌어지말 ; 부석면 지산리 3구의 마을. 앞이 탁 트이고 넓게 벌어진 들(벌어지들; 廣野)에 위치한 마을임.
- * 평리(坪里), 들말 ; 부석면 취평리, 마을. 들판에 있음.
- * 양지편 ; 부석면 대두리, 마을, 부엉굴 양지쪽에 있음.
- * 도웃개(陶窯浦) ; 부석면 지식리, 개. 도요동 동쪽에 있음.
- * 창물나루터 ; 부석면 창리. 창말에서 남쪽 안면도 소래로 건너가는 나루터.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 구정미(舊亭山) ; 부석면 가사리. 이 마을 위의 산허리에 오래 된 정자가 있음.
- * 연봉정(蓮峰亭) ; 부석면 가사리 1구 연봉산 밑 마을. 연봉산 밑에 연봉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주변의 마을.

* 불당골, 불당곡(佛堂谷) ; 부석면 간월도리, 들모루 동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불당이 있었음.

* 불당골(佛堂谷) ; 부석면 갈마리. 강당리 2구 마을. 이 마을에 불당(佛堂)이 있었음.

* 불당골(佛堂谷)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남쪽의 골짜기. 불당(佛堂)이 있었음.

* 성적골, 성절말(兄弟村), 형제울, 형제말, 형제리(兄弟籬) ; 부석면 칠전리. ? 밭굴 북쪽에 있는 마을. 절터가 있음. 혹은 형제가 의종게 살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였다 함.

* 절굴(寺洞) ; 부석면 강당리. 뿔너머동내(角後洞) 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절이 있었다 함.

* 절터(寺址) ; 부석면 칠전리. 성절말 동쪽에 있는 절터.

* 서당동(書堂洞)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북쪽의 마을. 서당이 있었음.

* 서당골, 서당동(書堂洞)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북쪽에 있는 마을. 서당이 있었음.

* 소맹이, 소당(小堂), 서당골 ; 부석면 봉락리 흑석 동쪽에 있는 마을. 전에 서당(書堂)이 있었다 함.

* 사정터(射亭址) ; 부석면 강당리. 동산정 위 남쪽에 있는 정자 터. 전에 활을 쏘던 곳임.

* 사정터(射亭址) ; 부석면 갈마리. 들모루 동쪽에 있는 활터. 활을 쏘던 사정(射亭)이 있었음.

* 삼복고개(三伏峙) ; 부석면 갈마리. 모시미 동북쪽의 고개. 나무가 울창하여 길손들이 삼복더위를 이 고개에서 식혔다고 함.

* 소내(牛川) ; 망등산에서 발원. 부석면 강당리를 지나 바다로 가는 내. 소가 건너다닌 내.

* 소시랑턱, 사택감, 혼인골망, 혼인골(婚姻谷) ; 부석면 가사리 3구 바닷가에 접한 지역. 조선조 때 이곳에 도둑의 두목이 신부를 납치, 강제로 혼례를 올렸다고 함.

* 시어지(詩於地), 시동(詩洞)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동쪽에 있는 마을. 시인이 많이 나서 시가(詩歌)를 불렀다 함.

* 등기산(登寄山)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동쪽의 산. 음력 정월 보름날 달맛이를 하기 위해 오르던 산.

* 육골(六谷), 육골말 ; 부석면 강수리 2구 마을. 마을 주변에 6개의 골이 있음.

* 비단배미 ; 부석면 봉락리 흑석 남쪽에 있는 논. 전에 흥년이 들었을 때 비단과 바꿨다고 함.

* 궁논, 죽논 ; 부석면 봉락리 비단배미 남쪽에 있는 논. 흉년이 들어 죽 세 그릇과 바꾸었다고 함.

* 사고개, 네고개, 사태고개(沙峴)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서쪽의 고개. 고개 주변이 4개의 고개로 되어 있음. 혹은 비가 많이 내리면 사태가 일어난다 하여 사태고개라 했다는 설도 있음.

* 창리, 삼고개 ; 부석면 창리 목말에서 창말로 가는 고개. 셋으로 되었음.

* 웃판바위 ; 부석면 지산리 지파동 동쪽의 바위. 바위에 웃판이 그려져 있음.

* 왜현리(倭懸里) ; 부석면 창리의 한 마을. 고려 말 왜구가 침략, 노략질을 하고 있을 때 아군이 이를 붙잡아 매달아 놓았음. 고려말 1373년에 왜구의 침입으로 태안군이 폐군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주사창터(舟師倉址) ; 부석면 창리. 조선조 때 이곳에 주사선박소(舟師船舶所)를 두고, 구선(龜船), 방선(防船), 병선 각 1척, 사후선(司候船)3척을 두어 이 지방을 지키게 하였음.

* 창리, 창말, 창촌, 왜현리(倭懸里) ; 부석면 창리. 조선조 ? 주사창(수군의 군수품 창고)이 있었으므로 창말 또는 창촌이라 칭함.

* 철쟁이재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북쪽, 작은 도비산 북쪽에 있는 고개. 일제 시대에 일인들이 조선의 지맥을 끊기 위해 철장(鐵杖)을 박았던 일이 있었다고 함.

* 영암(靈岩), 영아미 ; 부석면 갈마리 1구 마을. 이 바위에 빌면 영험이 있다고 함.

* 장승백이 ; 부석면 봉락리 봉동의 남쪽 마을. 장승이 있었음.

* 여기정(女妓井) ; 부석면 가사리 여근암 아래의 우물. 태안에서 서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 서주군(瑞州郡) 때 사신을 따라 태안을 가던 한 기생이 이 우물가에 이르러, 이 사신을 맞으러 태안서 나온 기생을 질투하다 실족하여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후 폐정(廢井)됨.

* 여근암(女根岩) ; 부석면 가사리 2구 검바위산(黑岩山) 중턱 길가의 바위.

암벽 중간쯤이 깊이 10cm, 세로 30cm, 가로 40cm 정도로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인의 성기와 흡사함. 현재는 물이 안 나옴.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사양골(斜陽洞), 새양골, 시암골, 새암골 ; 부석면 가사리 3구. 샘골(泉谷)이 변한 말임.

* 사양골(斜陽洞) ; 부석면 대두리 동남쪽 마을. 마을이 사양골에 위치했음. 사양·새양·시암·삼·삼은 모두 샘(泉)을 뜻함.

* 새양골, 새양골, 샘골(泉洞)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서쪽 산저 북쪽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샘(泉)이 있음.

- * 애겨물골 ; 부석면 지산리 애겨물 샘이 있는 골짜기
- * 통산배미 ; 부석면 지산리 방교들 가운데 있는 논. 둥그란 샘이 있어 물이 잘 남.
- * 동머시리 ; 부석면 가사리. 갈밭 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못이 있음.
- * 수랑배미 ; 부석면 대두리 고래 서쪽에 있는 논. 수렁이 있음.
- * 수랑배미 ; 부석면 갈마리 황섬 동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 수렁이 있음 ‘수랑’은 ‘수렁’의 와전.
- * 수랑배미 ; 부석면 간월도리 황섬들 동쪽에 있는 논. 수렁이 있음.
- * 수렁배미 ; 부석면 대두리 고래 서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 수렁이 있음.
- * 고래모퉁이 ; 부석면 대두리 고래 옆에 있는 모퉁이.
- * 돌-모루, 석우(石隅) ; 부석면 간월도리 고잔 동쪽에 있는 마을. 모퉁이에 돌이 있음.
- * 돌모루(石隅), 돌모루마을 ; 부석면 갈마리 1구 마을. 마을 모퉁이에 돌이 많았음. ‘모루 ; 모퉁이’
- * 쇠꼴 모랭이 ; 부석면 간월도리 고잔 서쪽에 있는 모퉁이. 모양이 쇠꼬챙이처럼 생겼음.
- * 고두리부리 ; 부석면 갈마리 2구 고잔 남쪽의 부리. ‘부리’ 모양으로 뭉뚝하게 생겼음. (고두리;물건 끝이 뭉뚝하게 생긴 것)
- * 돌뿌리, 석취(石嘴) ; 부석면 강수리 하강수 마을 서남쪽 마을. 돌이 많음.
- * 빨너머 동네(角越洞), 각후동(角後洞)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북쪽에 있는 마을. 꽃처럼 나온 산부리가 서당동(書堂洞)에 있음. 산부리 너머에 있는 마을.
- * 부리골, 각골(角谷) ; 부석면 가사리 구정미 마을 북동쪽 고을. 지형상으로 산부리의 안쪽에 이루어졌음.
- * 고잔(古棧), 고잔마을 ; 부석면 갈마리 2구 마을. 마을의 지형이 고잔(串)으로 되어 있음. 곳안 → 고잔(古棧, 高棧)
- * 안고잔(內古棧) ; 부석면 갈마리 2구의 마을. ‘고잔’ 안쪽의 마을.
- * 국사봉(國師峰) ; 부석면 마룡리 도라시 동남쪽의 산. 국사당이 있었음.
- * 국사봉(國師峰) ; 부석면 칠전리 성적골 동쪽의 산. 국사당이 있었음.
- * 당뿌리, 당재 ; 부석면 봉락리 아랫노라실 끝에 있는 작은 산. 전에 당이 있었음.
- * 당재(堂峙) ; 부석면 봉락리 아랫노라실에 있는 작은 고개. 당집이 있었음.
- * 당재(堂峙) ; 부석면 대두리 한머리에서 취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당집이 있었음.
- * 창말당(倉里堂) ; 부석면 창리 양어 방죽터 남쪽의 당집. 출어(出漁)할 때 고사를 지내는 당이 있었음.

- * 상고집매 ; 부석면 대두리 띠밭모랭이 동쪽에 있는 모롱이. 상여집이 있었음.
- * 서낭고개 ; 부석면 송시리에서 강수리의 아랫강수로 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 서낭댕이 ; 부석면 강수리 배짚말 남쪽의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 서낭댕이 ; 부석면 봉락리 탕점에서 대두리로 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음.
- * 거문녀, 부석(浮石) ;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바위. 60명이 앉을 만한 검은 바위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음.
- * 해변녀(海濱嶼), 해변여(海邊嶼) ; 부석면 칠전리 사기점 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 밀물에 안 보임. 해변에 있음.
- * 돌짜괴(石山) ; 부석면 지산리 달천 남쪽에 있는 산. 돌이 많음.
- * 부엉이배미 ; 부석면 대두리 고래모퉁이 동쪽에 있는 산. 논이 부엉바위 앞에 있음.
- * 차돌배(石英岩), 차돌배마을 ; 부석면 대두리, 마을. 마을 주변에 차돌바위가 있음.
- * 흑석(黑石), 검은돌, 검은돌말 ; 부석면 봉락리 봉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입구에 검은 돌이 많음.
- * 고잠(高岑), 고잠말 ; 부석면 마룡리, 마을. 마을 위치가 고잠 아래임. '고잠'이란 '높은 고개'란 뜻.
- * 갈마리, 갈마지, 갈마곶, 갈마(渴馬) ; 부석면 가사리 큰 벌판이 꽃이를 이루었으므로 갈마곶 또는 갈마지, 갈마라 함.
- * 갈밭, 갈밭말, 가전(柯田) ; 부석면 가사리 사쟁이 동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갈밭이 있었다 함. 혹은 가나무가 있어 '가나무 밭'서 왔다고도 함. 가나무밭 > 갈밭.
- * 강경(江境) ; 부석면 강수리 1구의 마을. 지형상으로 강을 경계로 하여 생긴 마을.
- * 강촌(江村), 강마실 ; 부석면 강당리 1구 마을. 이 마을은 좁은 바다(內海)에 접해 있는데, 이 바다를 강으로 인식하고 그 강에 접한 마을 이라는 뜻.
- * 느리재(緩峙) ; 부석면 대두리 사양리에서 취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함.
- * 다락골(樓洞) ; 부석면 대두리 사양골 동남쪽의 골짜기. 골짜기가 다락처럼 높은 곳에 있음.
- * 망등산(望登山)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북쪽의 야산. 이 산에 오르면 사방이 훤히 바라보임.
- * 언배미, 언담(堰畓) ; 부석면 송시리 속말 남쪽의 논. 방죽을 쌓아 만든 논.
- * 아니배, 검조도(檢潮島) ; 부석면 창리 창말 남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 큰

바위로 되었는데 이 바위가 물에 잠기는 정도를 보아서 조수의 높낮이를 알게 됨.

* 은배미 ; 부석면 송시리 속말 남쪽에 있는 논. 제방(堰)을 쌓아 만든 논. 혹은 은방울꽃을 심었다 함.

* 짚은개(잠보), 짚은개말 ; 부석면 마룡리 고잠 서쪽의 마을. 짚은개 옆에 있음.

* 토굴(土谷), 토굴말 ; 부석면 취평리 2구 마을. 이 마을에 자연 토굴이 있었음.

⑤ 모양·크기·상태

* 닭섬, 계도(鷄島), 물새섬, 조도(鳥島) ; 부석면 창리 아니배 동쪽에 있는 섬. 물새가 많이 앓음. 혹은 닭처럼 생겼음.

* 범말(虎洞) ; 부석면 간월도 남쪽의 마을. 마을 지형이 범같이 생겼다 함.

* 소등이곳이(牛背串) ; 부석면 가사리 사쟁이 남쪽에 있는 곳. 지형이 소의 등같이 생겼음.

* 토끼섬, 토도(兔島) ; 부석면 창리 창말 남동쪽에 있는 섬. 모양이 토끼같다 함.

* 말등산(馬背山), 말뚝산 ; 부석면 강수리 돌뿌리 남쪽의 야산. 모양이 말의 등처럼 생겼음.

* 고리작배미 ; 부석면 대두리 고래모롱이의 북쪽에 있는 논. 모양이 고리작처럼 생겼음.

* 검은여 ; 부석면 갈마리 천수만 해상에 있는 바위. 검게 보임.

* 두멍배미 ; 부석면 강당리 서당동 서쪽에 있는 논. 두멍처럼 생겼음.

* 말배미 ; 부석면 강당리 소내다리 북쪽에 있는 논. 모양이 네모진 말(斗)처럼 생겼음.

* 문필봉(文筆峰), 봉우재 ; 부석면 강당리 새터 서쪽에 있는 산. 붓끝처럼 뾰족함. 예전에 봉화를 들던 곳임.

* 병풍바위(屏風岩) ;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 북쪽의 바위. 모양이 병풍 같다고 함.

* 연봉산(蓮峯山) ; 부석면 가사리 사쟁이 북쪽 홍인교 동쪽에 있는 산. 봉우리가 연꽃 같다고 함. 혹은 조선조 태조 이성계의 연(輦)이 앓았다 간 산이라고도 함.

* 마랫돌(頭坪) ; 부석면 대두리 고랫들 남서쪽의 들. 들이 큰 데서 연유함.

* 큰개(大浦) ; 부석면 강당리 강촌 남쪽에 있는 개. 개의 규모가 큼.

* 큰말(大村) ; 부석면 간월도 중심의 마을. 섬 중에서 제일 큰 마을임.

* 큰밭말, 대전(大田)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서쪽의 마을. 큰밭 아래에 있는 마을.

* 한터(大基), 한터말 ; 부석면 강당리 강촌 중앙의 마을. 넓은 터에 있는 마을



〈사진〉 부석바위 '검은여'

입.

* 작은 도비산(小都飛山) ; 부석면 지산리 도요동 북쪽 도비산 줄기에 딸려 있는 산. 도비산에 비해 작은 산임.

* 진재(長峴) ; 부석면 갈마리 불당골에서 송시리로 가는 고개. 고개가 길고 높음.

* 길고개, 길현(吉峴)고개 ; 부석면 가사리 갈밭마을에서 강수리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흰하게 딸려 있음. 장현(長峴)의 뜻.

* 둥구뢰, 둥구미, 원산(圓山) ; 부석면 가사리 갈밭 동쪽에 있는 산. 그 모양이 둥글.

* 고래, 고랫돌 ; 부석면 대두리 사양동 앞의 들판.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 됨.

* 뜯바위, 부석(浮石), 검은여 ; 부석면 갈마리. 간만의 조수와 관계없이 바위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임.

* 배알산(拜謁山) ; 부석면 강당리 강촌 서남쪽의 산. 산 모양이 서울의 임금님께 배알하는 것 같다고 함.

* 뺏재, 수현(秀峴) ; 부석면 가사리 2구와 강수리 2구의 경계. 웃강수 동북쪽에 있는 산. 산이 높게 빼어났음.

* 빠드렁티, 버드렁치 ; 부석면 강수리 앞 고개. 고개의 형태가 빠드렁니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음.

* 사장(沙場), 모랫말, 사장이, 사쟁이 ; 부석면 가사리 마을 앞에 모래밭이 길게 펼쳐져 있음.

* 서근들뿌리 ; 부석면 칠전리 사기점 북쪽에 있는 뿌리. 돌이 푸석푸석함.

* 옷샘(漆泉) ; 부석면 가사리. 옷오른 사람이 씻으면 효험이 있다 함.

* 취포리(翠浦里), 취평포, 푸른개말, 푸른개, 취포, 취개 ; 부석면 취평리 동쪽 마을. 마을앞 갯물이 매우 푸름.

* 통개(桶浦) ; 부석면 칠전리 금곡 북쪽의 개. 개(浦)의 입구가 통처럼 좁음.

* 목말, 향촌(項村) ; 부석면 창리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음.

⑥ 동·식물(動·植物)

* 노라실(獐谷), 노라(老羅)실 ; 부석면 봉락리 2구 마을. 이 고을에 노라('노루'의 옛말)가 살았음.

* 노루내(獐川), 노루말 ; 강수리 1구의 마을. 지형이 노루처럼 생겼음.

* 말무덤 ; 부석면 대두리 묘안 북쪽에 있는 큰 무덤. 예전에 말이 전장에서 죽은 주인의 의복을 물고 이곳까지 와서 기진하여 죽었으므로 죽은 자리에 묻었다 함.

* 명막골, 명매기골 ; 부석면 대두리 상고집매 동쪽에 있는 골짜기. 명매기(일명 칼새. 제비와 비슷하나 조금 큼)가 많이 살았음.

* 부엉골, 구덕말 ; 부석면 대두리 한머리(大頭) 동쪽에 있는 마을. 부엉배(바위)가 있음. 부엉이가 살았었다고 함.

* 방아다리, 방아다리 ; 부석면 지산리 3구의 마을. 방아다리(방아깨비)가 많았음.

* 양어방죽터(養魚防藥址) ; 부석면 창리 창말 남쪽에 있는 논. 전에 고기를 기르는 방죽이 있음.

* 여우고개(狐峙) ; 부석면 마룡리 깊은개에서 강당리의 서당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에 여우가 출몰한다고 함.

* 토끼재(兔峴) ; 부석면 갈마리 영암에서 송시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 고개에 토끼가 자주 나타난다고 함.

* 황새바위 ; 부석면 봉락리 감나무골 동쪽의 바위. 이 바위에 황새가 많이 날아듦.

* 황새골, 판곡 ; 부석면 월계리 두화산 서쪽 골짜기. 황새가 많았음.

* 중태이 ; 부석면 대두리와 사양동 사이의 논. 논에 중태기(민물고기의 일종)가 살고 있음.

* 갈미(葛山), 갈미말 ; 부석면 가사리 갈밭(柯田) 마을의 북쪽 갈미 기슭에 있는 마을. 이 마을 뒷산에 칩이 무성함. 칩미 → 갈산(葛山)

- * 감나무골(柿木洞) ; 부석면 봉락리 흑석 북쪽의 골짜기. 감나무가 많음.
- * 감나무 마을, 감골, 시동(柿洞) ; 부석면 송시리, 마을. 마을에 감나무가 많음.
- * 개야지들 ; 부석면 갈마리 2구 마을. 들판에 개야지(버들개지)가 무성함.
- * 능수마을, 정류갓(檉柳村) ; 부석면 가사리 구정미 마을의 서쪽 마을. 능수버들이 많이 있음.
- * 대섬, 죽도(竹島) ; 부석면 창리 창말 동쪽에 있는 섬. 대나무가 많음.
- * 두화산(杜花山) ; 부석면 월계리 환도골 서쪽의 산. 봄철에 두견화가 만발함.
- * 띠밭 모랭이, 띠밭모랭이 ; 부석면 대두리 고래모퉁이 동쪽에 있는 모퉁이. 띠가 많이 남.
- * 바랭이골 ; 부석면 월계리 바래미 저수지 남쪽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바랭이풀이 무성함. 바랭이 ; 포아풀과의 1년생 풀. 산지나 밭에 많이 나는 잡초. 팔근초(八根草), 바래미, 바라미, 배라미.
- * 부들배미(蒲畚) ; 부석면 갈마리 개야지들 서쪽의 논. 배수로에 '부들'이 많음.
- * 솔안, 송내(松內) ; 부석면 월계리 황골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안쪽에 소나무가 많았음에 연유함.
- * 송정(松亭) ; 부석면 송시리 갑골 동북쪽의 마을. 동구에 소나무가 많아 농부들에게 정자의 역할을 했음.
- * 오릿골(赤楊洞) ; 부석면 대두리 사양동 남쪽의 마을. 오리나무가 많음.
- * 울곡(栗谷), 밤굴말, 밤골 ; 부석면 강수리 하강수(下江秀) 동쪽에 자리한 마을. 밤나무가 많았음.
- * 조살미말, 조살미(栗山) ; 부석면 가사리 2구 마을. 이곳 야산 기슭에서 조를 생산했음.
- * 창포샘(菖蒲井) ; 부석면 마룡리 고잠 남쪽의 샘. 샘옆에 창포가 무성하게 자랐음.

⑦ 관련 인물

- * 국효자문(鞠孝子門) ; 부석면 지산리 서당골 중앙에 있는 정문. 국효자의 정문(旌門).
- * 낙양동(洛陽洞) ; 부석면 봉락리 봉동 북쪽의 마을. 당나라 낙양 사람이 이곳으로 피난와서 살면서 마을을 개척하는 데 공로가 있어 그 출신 지명을 붙여 기렸음.
- * 동무실(東巫谷), 무당실 ; 부석면 가사리 2구. 무당이 마을의 동쪽에 살았음.
- * 장군개(將軍浦) ; 부석면 마룡리 남쪽의 개. 이 개 옆에 힘이 센 사람(將軍)이 살고 있었음.

* 장자마당터 ; 부석면 대두리. 부영배 바로 뒤쪽에 있는 터. 장자가 살았다고 함.

* 흥천골(興千谷) ; 부석면 월계리 두거미 남쪽의 마을. 이 마을 개척자 흥천의 이름을 딴 것.

* 황성(黃成), 황성마을, 황섬 ; 부석면 갈마리 2구 마을. 마을을 개척한 '황성'의 공을 기리기 위해 '황성마을'이라 하였음.

⑧ 발생 연원

* 새말, 신촌(新村) ; 부석면 취평리 북쪽에 있는 마을. 새로 된 마을.

* 새말(新村) ; 부석면 간월도리. 간월도 북쪽의 마을. 새로 생긴 마을임.

* 신당(新堂), 신당촌(新堂村) ; 부석면 강당리 강촌 서쪽의 마을. 새로 세운 당집이 있음.

* 구창터(舊倉址) ; 부석면 창리 북쪽에 있는 터. 옛 창고터임.

* 낙은동(樂隱洞), 날근터(舊基) ; 부석면 마룡리 고잠 남쪽의 마을. 낱은터에 생긴 마을임.

⑨ 전설 · 풍수설

* 기촌(機村), 배짚말 ; 부석면 강수리. 아랫강수 북쪽에 있는 마을. 옥녀가 배를 짜는 형국이라 함.

* 배짚말(機村) ; 부석면 강수리 노루내 북쪽의 마을. 이곳 지형이 배짜는 형국이라 함(玉女織錦形).

* 봉기(鳳基), 새터말 ; 부석면 강당리 문필봉 밑의 마을.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다가 봉이 나왔다고 함.

* 봉동(鳳洞), 봉새말 ; 부석면 봉락리 2구 마을. 예전에 이곳에 있는 서씨(徐氏)묘를 옮길 때 봉이 나와서 뒷산에 떨어졌다고 함. 혹은 봉이 건너편 산으로 날아갔다고 함.

* 용못(龍淵) ; 부석면 마룡리 짚은개 서쪽의 못. 용이 승천했다고 함.

* 용수동(龍水洞) ; 부석면 강수리 2구 마을. 이 곳 지형이 용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 함.

* 지파동(池巴洞) ; 부석면 지산리 마을. 중을 홀대한 지씨(池氏)가 묘를 잘못 써서 망하여 지파동(池破洞), 좋은 글자로 바꾸어 지파동(芝巴洞)이 되었다고 함.

* 청룡부리(靑龍角), 청룡뿌리 ; 부석면 가사리 갈밭말 서쪽의 '산부리'. 옛날 이곳에서 청룡이 승천했다고 함.

⑩ 생산지

- * 금곡(金谷) ; 부석면 칠전리에 있는 마을. 이 고을에서 금을 캐음.
- * 도요동(挑天洞) ; 부석면 지산리 1구의 마을. 이 마을에 도기(陶器)를 굽는 가마가 있었음. 도요동(陶窯洞→挑天洞)
- * 모시미, 저심(苧心) ; 부석면 간월도리 돌모루 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모시가 유명하였음.
- * 모시미(苧心), 모시미마을 ; 부석면 갈마리 1구 마을. 모시를 많이 생산했음.
- * 부들배미 ; 부석면 간월도리. 개야깃들 서쪽에 있는 논. 부들이 많았었다고 함.
- * 사기점(沙器店), 사기점말 ; 부석면 칠전리 금곡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사기점이 있었음.
- * 점말(店村) ; 부석면 송시리 2구 마을. 옹기점이 있었음.
- * 점산 ; 부석면 대두리 한머리(大頭)와 사양골 사이에 있는 산. 그릇점(옹기점)이 있었음.
- * 청금산(靑金山) ; 부석면 월계리 송내(松內) 북쪽의 야산. 이 산에서 청금석(靑金石)이 나온다고 함.

6. 팔봉면(八峰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① 연원을 가진 면명(面名)과 이명(里名)

- * 팔봉면(八峰面) ; 영풍창(永豊倉)이 있었으므로 영풍창면이라 하였고, 이 곳에 있는 여덟 봉우리로 된 팔봉산의 이름을 따서 팔봉면이라 하였음.
- * 고파도리(古波島里) ; '바자' (대·갈대등으로 위은 밭)를 이용, 이 섬 해안 주변에 '밭'을 설치하였음. 바자섬→바지섬→波知島→波島. 고려 때 이 지역의 수비를 위해 성을 쌓고 파도영(波島營)을 설치하였다. 조선조 초기에 파도영을 호리(虎里)로 옮겼으므로 파도(波島)는 옛파도(古波島)가 되었음. 혹은 옛날 호리(虎里)의 산신령이 청산리 이적산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적신 바지를 이 섬에서 말린 뒤부터 이 섬은 파도리가 되었다고 함.
- * 흑석리(黑石里), 거문돌, 검은돌말, 거문돌, 흑석 ; 흑석리 2구 마을. 검은 바위(玄武巖)가 있으므로 검은돌, 거문돌, 또는 흑석이라 하였음.
- * 호리(虎里), 범머리, 버머리, 호두, 호두리(虎頭里) ; 지형이 범의 머리처럼 생겼음.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금학리(金鶴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곡리(金谷里)의 금과 추학리(秋鶴里)의 학을 따서 금학리라 하였음.

* 대황리(大黃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곡리(黃谷里), 대동리(大同里), 방길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동과 황곡의 이름을 따서 대황리라 하였음.

* 덕송리(德松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동(德洞)과 상송리(上松里)를 병합하여 덕송리라 하였음.

* 양길리(陽吉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양리(斜陽里)와 우길리(牛吉里), 방길리(方吉里)의 이름을 양길리라 하였음.

* 어송리(漁松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티리(松崎里), 어은동(漁隱洞), 정자동을 병합하여 어은과 송티의 이름을 따서 어송리라 하였음.

* 진장리(榛牆里) : 진산리(榛山里)의 진, 장북리(牆北里)의 장을 땀음.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동미(東尾), 동끝말 ; 어송리 3구의 마을. 마을 위치가 동쪽 끝에 있음.

* 동쪽 가래(東楸, 진장리) ; 작은담뒤편 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 동쪽에 가래나무가 많음.

* 서산편(瑞山便, 고파도리) ; 고파도리의 동쪽편. 조선조 때는 고파도리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음.

* 태안편(泰安便, 고파도리) ; 고파도리의 서쪽편, 태안쪽임.

* 앞골(前谷, 진장리) ; 양지편 앞쪽에 있는 골짜기.

* 뒷골(後谷, 진장리) ; 양지편 뒤쪽 골짜기에 있는 논.

* 장북리(牆北里), 담뒤편 ; 담(牆), 즉 고성(古城)의 뒤(北)에서 마을이 형성되었음.

* 윗삼거리(上三巨里, 금학리) ; 금학리 3구 마을 삼거리 위쪽에 있는 마을.

* 위말(上村, 고파도리) ; 고파도리의 포구를 중심으로 당산 쪽에 자리한 마을, 위쪽에 위치했음.

* 아래삼거리(下三巨里, 금학리) ; 금학리 3구 삼거리 아래 있는 마을.

* 아랫말(下村, 고파도리) ; 포구를 중심으로 당산 아래쪽에 형성된 마을.

* 안말(內里, 호리) ; 암범머리(內虎里)의 이칭(異稱), 준말.

* 중말(中村, 호리) ; 호리의 중심 마을. 마을의 위치가 중앙에 있음.

* 끝부리(端嘴, 고파도리), 끝부리말 ; 고파도리의 북쪽 바다쪽으로 돌출한 부분

에 있는 마을.

② 위치

* 고잔(古棧, 대황리), 고잔말 ; 대황리 2구 마을. 마을의 지형이 고잔(古棧)임. '고잔'은 '곶(고지)'이 변한 것. 이보다 마을이 '곶' ; '고지' 안쪽에 위치라 데서 온 것인 듯함.

* 양지편(陽地村, 양길리), 산양(山陽) ; 왜양말 서쪽의 마을. 양지 쪽에 위치했음.

* 양지편다리(양길리) ; 양지편 동쪽에 있는 다리.

* 양지편(陽地村, 진장리) ; 진장리 1구, 마을 위치가 양지쪽임.

* 음지편(陰地村, 진장리) ; 진장리 1구. 마을 위치가 음지편임.

* 응달(陰地, 덕송리), 응달말 ; 무두리 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이 응달진 곳에 있음.

* 벌말(坪村, 양길리) ; 양길리 3구 왜양말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

* 벌말, 벌뜸, 평촌(坪村, 대황리) ; 대황리 1구 황골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 강석들(江石坪, 진장리) ; 강석이 마을에 있는 들판.

* 고성(古城, 진장리) ; 진장리 2구 마을. 고성 밑에 있는 마을.

* 당산(마을)(堂山, 대황리, 마을) ; 작은말 동쪽의 마을. 당산 아래 있는 마을.

* 대문다리, 대문다리말(어송리) ; 대문다리(지금의 어송검문소 주변)에 생긴 마을.

* 마루지(덕송리) ; 덕송리 1구 마을. 마루턱 밑에서 이루어진 마을.

* 발전모랭이(양길리) ; 양지편 북쪽에 있는 모롱이, 발 옆이 됨.

* 방길개(方吉浦, 대황리) ; 방길이에 있는 개(浦).

* 방천주막(防川酒幕, 대황리), 방천주막말 ; 방천제방 옆에 있는 마을. 주막이 있음.

* 백열(白灘, 대황리), 백여울, 백여울말 ; 대황리 2구 마을. 백여울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을임. 백여울:여울물에 파도가 일어 희게 보이는 곳.

* 벽지(僻地), 벽지말(양길리) ; 도채(도챙이) 동쪽의 마을. 마을이 궁벽진 곳에 있음.

* 산밑, 산밑말, 산저(山底, 양길리) ; 왜양말 남쪽에 있는 마을. 팔봉산 밑이 됨.

* 벽지(僻地), 벽지말(양길리) ; 도채(도챙이) 동쪽의 마을. 마을이 궁벽진 곳에 있음.

* 산이고개, 산이재(山峙, 금학리) ; 산이벌에서 어송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 산 기슭에 생긴 고개임.

- * 산이벌(山坪), 산이벌말(금학리) ; 금학리 2구 마을. 마을 위치가 산 밑의 들판임.
- * 삼밭골내(麻田里川, 금학리) ; 삼밭골 앞을 흐르는 내.
- * 장벌보(場坪淤, 양길리) ; 장벌에 있는 보.
- * 진산(榛山), 진산말, 진산리(진장리) ; 장북 동쪽의 마을. 마을 위치가 진산의 밑임.
- * 진틀모랭이(어송리) ; 진틀에 있는 모랭이
- * 집너머, 집너머말(진장리) ; 양지편의 너머에 있는 마을.
- * 창개, 창개말, 창포(倉浦)(어송리) ; 솔터 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창개가 있음.
- * 한재밀, 한재밀, 한재밀말(양길리) ; 양길리 2구 마을. 한재 밑에 있는 마을임.
- * 검은돌저수지(黑石貯水池, 흑석리) ; 검은돌 남쪽의 저수지. 검은돌에 있는 저수지.
- * 형제봉저수지(兄弟峰貯水池, 덕송리) ; 형제봉 밑에 있음.
- * 방천다리(防川橋, 대황리) ; 벌말 서남쪽에 있는 다리. 방천(防川:제방을 쌓아 개울물이 들어옴을 막는 것)에 놓은 다리.
- * 양지편다리(양길리) ; 양지편에 가설된 다리.
- * 장벌다리(場坪橋, 양길리) ; 장벌에 가설된 다리.
- * 고파도나루터(고파도리) ; 고파도에 있는 나루터.
- * 고파도염전(고파도리) ; 고파도리에 위치해 있는 염전.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 절굴(寺谷, 대황리) ; 백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 * 절터골(어송리) ; 어송리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음.
- * 함적골(陷敵洞, 어송리) ; 어송리 2구 마을. '적과 대전하여 함락시킨 곳' 이라 하나 건강임. 한절골(大寺洞)→한적골→함적골이 된 것임. 큰 절이 있던 곳임.
- * 창터, 영풍창터(어송리) ; 창개(倉浦) 남쪽에 있는 창고 터. 조선조 때 영풍창을 두어서 이 부근 고을의 조세를 이곳에 저장하였다가, 배로 운반하여 서울로 가져갔음.
- * 고성터(古城址, 진장리) ; 진장리 2구 옛 성터.
- * 호리산성터(虎痢山城址, 호리) ; 구도에 있는 산성터. 고파도에 있는 파지도영을 조선조 태종 때 구도로 옮기고 중종 11년에 석성을 쌓았음.
- * 가장골(加場洞, 대황리) ; 대황리 2구 마을. 가장(假葬:시체를 임시로 묻어 두던 곳) 밑에 위치함. 가장(假葬)에서 좋은 뜻의 글자로 바꿈.
- * 담뒤, 담뒤말, 장북(齋北, 진장리) ; 진장리 3구 고성 남동쪽에 있는 마을. 고



〈사진〉 영풍창지

성(古城)이 담처럼 북쪽에 있음.

* 빗돌머리, 빗돌머리골(양길리) ; 양길리 2구의 골짜기. 골짜기 입구에 빗돌(비석)이 있음.

* 스문여, 스문녀(二十女, 호리) ; 중말 서쪽 바다에 있는 바위. 50여년 전 해녀 20명이 이 바위섬에 해산물을 캐러 갔다가 돌풍으로 인해 몰사했다고 한다. 이후 이 바위를 스문녀(스물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민간어원이다. '숨은여'란 '숨은 바위', 즉 암초(暗礁)를 말함.

* 신발뿌리(履嘴, 대황리) ; 고잔 서쪽에 있는 부리. 해산물을 따러 바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 놓음.

* 어은동(漁隱洞, 어송리) ; 방조제 축조 전에는 바닷물이 지금의 어송검문소 앞까지 드나들었는데, 만조 때면 물 위에 비치는 소나무 숲의 그림자 밑에 많은 고기들이 모여들어 숨었다. 이렇게 숨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음.

* 오류동(梧柳洞), 오류골 ; 양길리 1구 마을. 고려말에 낙향한 선비가 동구에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자랐음.

* 옷샘(漆井, 대황리) ; 가장골 서남쪽에 있는 샘. 옷오른 사람이 이 샘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함.

* 정기봉(精氣峰, 금학리) ; 하삼거리 동쪽의 야산. 이 산에 빌면 소원성취하는 영험한 산이라 함.

* 형제봉(兄弟峰), 성지봉(호리) ; 중말 동북쪽의 야산. 산기슭에 형제가 의종개

살고 있었음.

* 한갓, 대동리(大同里, 대황리)-황골 서쪽의 마을.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마을임. 마을 주민이 한결같이 화합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하자 '한갓'을 '한밭'으로 생각하여 '대동리(大同里)'으로 한역하였으나 견강이다. 이 '갓'은 '말뼉갓'의 '갓'이다. '말뼉갓'이란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땅'으로 '나무갓', '풀갓'이 있다. 원래 '갓'이란 '밭'을 뜻하기도 하였으니 '한갓'은 '대전(大田)'을 뜻한다. 田方言呼밭而今轉爲갓又呼앗.

* 쇠이골, 우길리(牛吉里) ; 금학리 1구 마을. 소가 잘 되는 소에 이로운 동네. 억지인 듯함.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사양골(斜陽洞), 사양곡, 시암골, 시양골, 새양골, 샘골 ; 양길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좋은 샘이 있음.

* 참샘(대황리) ; 벌말 서남쪽에 있는 찬 샘.

* 새암골(어송리) ; 정자말 동쪽에 있는 마을. 샘이 있음.

* 참샘배미(대황리) ; 참샘 밑에 있는 논.

* 참셋골(대황리) ;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찬 샘이 있음.

* 한내, 대천, 한내말 ; 덕송 1구 마을. 덕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큰 내가 있음.

* 국수봉(國秀峰, 대황리) ; 당산의 서쪽산. 국사당(國師堂)이 있음. 국수봉(國壽峰), 국사봉(國事峰, 國賜峰, 國仕峰, 國祀峰).

* 당구지(堂串), 당구지말, 당화(堂花, 덕송리) ; 덕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곳으로 되고 신당(당집)이 있음.

* 당산(堂山, 대황리) ; 작은말 동쪽에 있는 산. 신당이 있음.

* 당산(堂山), 당봉(堂峰, 고파도리) ; 고파도리의 중앙에 솟은 산. 당집이 있음.

* 당재(堂峙, 흑석리) ; 검은돌 북쪽의 고개. 이 고개에 당집이 있음.

* 도당골(都堂谷, 대황리) ; 황골 남쪽의 골짜기. 골짜기에 도당(都堂:마을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단(壇))이 있음.

* 산제당골(山祭堂谷, 어송리) ; 뱀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제당이 있음.

* 서낭당이고개(덕송리) ; 상송에서 양길리로 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음.

* 장선모랭이(흑석리) ; 거문돌 남쪽에 있는 모롱이. 장승이 있었음.

* 장승모랭이(대황리) ; 멧긴쟁이 동북쪽에 있는 모롱이. 장승이 있었음.

* 구녕바위(孔岩, 어송리) ; 솔티 동쪽 팔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음.

* 덕대골, 덕동(德洞, 덕송리) ; 당구지 북쪽에 있는 마을. 덕대가 있었음. ※ 덕대 ; ①아이의 시체를 묻지 않고, 덕을 매어 그 위에 올려 놓고 용마름을 덮어 놓아

두는 일. ②덕 위에 올려 놓은 아이의 시체. ③나뭇가지나 기둥 사이에 올려 놓은 널이나 막대기.

* 들언친바위(어송리) ; 솔티 동쪽 팔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돌 위에 돌이 들어 얹혀 있음.

* 망미(望山), 망미산 ; 흑석리 2구의 야산. 이 산에 오르면 마을이 모두 보임.

* 바위배미(양길리) ; 장빨보 남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 바위가 박혀 있음.

* 벚터(흑석리) ; 반월의 서북쪽에 있는 벚터. 소금을 굽던 벚터가 있음.

* 삼밭골, 삼박골, 마전(麻田) ; 금학리 2구 쇠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삼밭이 많이 있음.

* 수랑배미(대황리) ; 벌말 서남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에 수렁이 있음.

* 우릴목(鳴頂, 호리) ; 중말의 북쪽 여울. 바다물이 좁은 목으로 빠져 나갈 때 마치 우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냄.

* 진틀(어송리) ; 정자말 남쪽에 있는 들. 흙이 매우 짙.

⑤ 모양 · 크기 · 상태

* 여수바위(狐岩, 대황리) ; 구학이 서쪽에 있는 바위. 여수(여우)처럼 생겼다 함. 혹은 여수(여우)가 이 바위에 출몰한다 함.

* 할미바위(어송리) ; 팔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등이 굽은 할미처럼 생겼음.

* 형제봉(兄弟峰, 덕송리) ; 덕동 북서쪽의 산.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다정하게 보인다고 함.

* 연봉산(連峰山) ; 진장리 3구에 있는 산. 산의 모양이 연꽃 봉우리 같다 함.

* 연화산(蓮花山, 대황리) ; 황곡 동쪽의 산. 산이 모양이 연꽃 같다고 함.

* 감투봉(어송리) ; 솔티 동쪽 팔봉산 남쪽에 있는 산. 감투 모양의 바위가 있음. 혹은 산의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다고 함.

* 고리짜바위(어송리) ; 솔티 동쪽 팔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고리짜처럼 생겼음.

* 두멍골 ; 양길리 2구 마을. 지형이 '두멍'처럼 생겼음.

* 말배미(대황리) ; 황골 서쪽에 있는 논. 논이 모양이 모말처럼 생겼음.

* 명에배미(대황리) ; 말배미 동쪽에 있는 논. 논이 모양이 명에처럼 생겼음.

* 발월, 반월(半月), 반월동 ; 흑석리 1구 마을. 거문돌 동북쪽에 있는 마을. 반달처럼 생긴 산이 있음.

* 젓가랑봉(어송리) ; 솔티 동쪽 팔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젓가락처럼 생겼음.

* 쥐뿌리재, 서각산(금학리) ; 마전 동쪽에 있는 산. 바위 돌이 빨처럼 서 있음.

* 맛바위, 맛바위말(對岩, 진장리) ; 양지편 북쪽에 있는 마을. 바위가 마주 서

있음.

* 삼거리(三巨里), 삼고리(三古里) ; 금학리 3구 소길이 북쪽에 있는 마을. 세 갈래의 길이 있음.

* 쌍섬(雙島) ; 내호리 동쪽의 섬. 섬 둘이 쌍으로 마주 보고 있음.

* 마룻들(頭坪) ; 어송리 2구 마을. 마룻들 앞에 이루어진 마을임. '마루'는 머리(頭), 마리(宗)의 뜻으로 '가장 큰 들'의 뜻.

* 장벌(場坪), 장벌말 ; 양길리 3구 마을. 넓은 들판에 있음.

* 큰말(大村) ; 흑석리의 중심 마을. 마을 규모가 비교적 큼.

* 큰새암골(어송리) ; 새암골의 큰 골짜기.

* 한재, 한재밑서낭당이(양길리) ; 양지말 서쪽에 있는 큰 고개.

* 황골, 황곡(黃谷), 황금골, 누런 골 ; 대황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 골짜기가 됨(←한골). 혹은 마을 앞 들판이 익은 벼로 황금색이 되었다고 함.

* 황바위(黃岩, 어송리) ; 정자동 동쪽에 있는 큰 바위. 정자동에 살던 황씨가 이 바위를 좋아한 데서 연유했다 함은 건강. 한바위(大岩)→항바위→황바위.

* 아홉마지기(양길리) ; 동당이 동쪽에 있는 논. 아홉마지기가 됨.

* 작은말(小村, 대황리) ; 구학이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작은담뒀(小薺北, 진장리) ; 담뒀에 있는 마을. 다른 마을에 비해 규모가 작음.

* 작은 새암골(어송리) ; 새암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⑥ 동·식물(動植物)

* 갈학(秋鶴) ; 양길리 1구 마을. 가을철에 학이 많이 날아 듭.

* 구학이(九鶴), 학림동(鶴林洞, 대황리) ; 도특재 서쪽의 마을. 아홉 마리의 학이 매년 찾아 왔음. 혹은마을안 숲속에 학이 깃든다고 함.

* 새섬(鳥島), 오섬(대황리) ; 고잔 북쪽에 있는 섬. 새가 많이 모여 삶.

* 서각산(鼠角山), 쥐뿌리재(금학리) ; 삼밭골 동쪽의 산. 산부리에 들쥐가 많이 살고 있음.

* 추학(秋鶴, 금학리) ; 쇠골 북쪽의 마을. 가을이면 학이 많이 날아 듭.

* 감나무골(柿木洞, 진장리) ; 고성 동쪽의 골짜기. 감나무가 있음.

* 감나무골(진장리) ; 고성 동쪽에 잇는 골짜기. 감나무가 있었음.

* 대뻥이, 대뻥이말, 대박이, 대백이 ; 덕송리 1구 마을. 마을에 대나무가 많음.

* 도채(茶菜), 도채말, 도챙이(양길리) ; 벌말 동쪽 마을. 이 마을에 '도채' (고채, 苦菜, 썸바귀)가 많음.

* 띠앗골(茅谷, 어송리) ; 정자동의 동쪽 골짜기. 이 골짜기에 띠가 무성함.

* 밤골(栗谷) ; 양길리 3구 마을. 밤나무가 많음.

* 상송(上松, 덕송리) ; 당구지 옆의 마을. 마을에 큰 소나무가 있음.

* 솔티, 솔티말, 송티(松峙) ; 어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팔봉산 밑 고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나라에서 목재로 썼다고 함.

* 옷나뭇골(漆木洞) ; 양길리 2구 산밑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뒷산에 옷나무가 있었음.

* 정자말, 정자동(亭子洞, 어송리) ; 어은동 동쪽에 있는 마을.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 행정이(杏亭), 행정말 ; 덕송리 1구 마을. 마을 가운데에 큰 은행나무가 있음.

* 황소나뭇골(대황리) ;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황소나무(큰 소나무)가 있었음.

⑦ 관련 인물

* 강석(江石), 강석말, 강석이 ; 진장리 1구 마을. 이 마을 개척자 '강석'의 이름을 따옴. 또는 저수지(강) 위쪽에 돌이 있음에 연유했다고도 함.

* 방길(方吉), 방길말(대황리) ; 별말 옆 마을. '방길'이란 사람이 마을을 개척했음.

* 원난봉(대황리) ; 백열 동쪽에 있는 산. 전에 원이 났다 함.

⑧ 발생 연원

* 사태, 신대(新垔) ; 진장리 3구 담뒤 남쪽에 새로 된 마을.

* 새터말(新垔洞, 어송리) ; 어은동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

* 구도(舊島) ; 호리의 중심 마을. 조선조 때 호리(虎里)에 파지도영(波知島營)이 설치되었었는데 폐진(廢鎭)된 뒤에 이를 구파도영(舊波島營)이라 하였고, 줄여서 구도(舊島)라 했다.

⑨ 전설 · 풍수설

* 용못골(龍淵谷, 진장리) ; 고성 남쪽의 골짜기. 용못이 있는 골짜기임. 또는 용이 승천한 못이라고도 함.

⑩ 생산지

* 쇠골, 금곡(金谷) ; 금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쇠가 혹은 금이 많이 났다고 함.

* 왜야골(瓦谷, 흑석리) ; 너북이의 남쪽 골짜기. 이 고을에서 기와와 질그릇을 구웠음.

* 왜얏골(瓦谷, 어송리) : 정자동 남쪽의 골짜기. 여기서 기와와 질그릇을 구웠음.

7. 지곡면(地谷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지곡면

* 마한의 치리국국(致利鞠國), 백제의 지륙현(地六縣), 신라의 지육현(地育縣) 고려의 지곡현(地谷縣)으로 조선조까지 오다 1914년 현(縣)을 면(面)으로 고쳤음.

* 연화리, 연화(蓮花), 연화골, 연화동 - 연화산 밑에 있으므로 연화골, 연화 또는 연화동이라 함.

* 환성리(環城里) : 마을 모습이 문고리처럼 생겼다 하여 골환이(谷環里)라 하였고, 문곶이(門串里)의 토성인 나성(羅城)이 있었으므로 골환이의 '환' 과 '토성'의 '성'을 따서 '환성리'라 함. (지곡면 환성리)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대요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대조리(大鳥里)와 요동리(要洞里)의 이름을 따서 대요리라 함.

* 도성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성동(星洞), 도원리(桃源里)의 이름을 따서 도성리라 함.

* 무장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무수리(舞袖里)와 부장리(部將里)의 이름을 따서 무장리라 함.

* 산성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부성산(富城山)의 이름을 따서 산성리라 함.

* 장현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어현리(於賢里)와 장이티리(長而峙里)의 이름을 따서 장현리라 함.

* 중왕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중리(中里)와 왕산리(旺山里)를 병합하여 중왕리라 함.

* 화천리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화동(花洞)과 원천리(遠川里)의 이름을 따서 화천리라 함.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 향

○ 동서남북, 위 아래, 안, 중(中)

* 미동말, 미동(山東), 동문(東門), 동문말, 내동(內洞), 산마을, 산골말 - 마을의 서쪽에 산이 있음. 부성산 골짜기의 마을, 부성산성의 동문이 있었음. (지곡면 산성리 2구 마을)

* 성동(星洞) ; 부성산 북편에 있는 마을. 마을의 생김이 별처럼 생겼음. → 星洞. (지곡면 도성리)

* 서문(西門), 서문말, 남문(말), 북문(말) ; 부성골 서쪽에 있는 마을. 부성산성의 서문이 있었음. (지곡면 산성리)

*스골, 셋골(瑞谷) ; 내동 서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산성리)

* 남문 ; 부성동 북쪽에 있는 마을. 부성산성의 남문이 있었음. (지곡면 산성리)

* 북문 ; 옷жат골 북쪽에 있는 마을. 부성산성의 북문이 있었음. (지곡면 산성리)

* 옷말 ; 부성동 위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산성리)

* 윗말(上村) ; 연화의 동쪽 마을. 지형적으로 위쪽에 있음. (지곡면 연화리)

* 윗말 ; 부장골 위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무장리)

* 윗말(上村) ; 머내/면내(遠川) 위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화천리)

* 아랫말(下村) ; 연화의 서쪽 마을. (지곡면 연화리)

* 아랫말(下村) ; 부성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산성리)

* 아랫말 ; 부장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무장리)

* 안골, 안장골(鞍裝谷), 내동(內洞) ; 부성동 서북쪽에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지곡면 산성리)

* 안골(內洞) ; 천곡 남쪽 마을. 지형적으로 안쪽에 위치해 있음. (지곡면 화천리)

* 안동네 ; 중리 안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중왕리)

* 안섬(安島) ; 왕산 남쪽의 섬. 큰 섬의 안쪽에 있음. (지곡면 중왕리)

* 안태 ; 성동 안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도성리)

* 중리(中里) ; 중왕리 1구 마을. 마을 중앙에 있음. (지곡면 중왕리)

* 중보(中湫) ; 원천과 울곡 사이의 보. 상보보다 규모가 작고, 마을의 중심부에 있음. (지곡면 화천리)

② 위치

* 대궐재(大關峙) ; 산성리 1구 마을. 마을이 대궐재에 있음. 차리국국 때의 대

컬터.

* 댓개(竹浦) ; 내동 서쪽 마을. 댓개 옆에 있음. (지곡면 산성리)

* 덧고개(重峙), 덧고개말 ; 어현 북쪽의 마을. 덧고개 (고개 위쪽에 또 고개가 있음) 아래 마을임. (지곡면 장현리)

* 도당미말, 도당미(都堂山) ; 내동 북쪽의 마을. 도당미 밑에 있는 마을. (도당 ;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단.) (지곡면 산성리)

* 돛다라니(猪走里) ; 성동 서쪽의 마을. (지곡면 도성리). 조선조 때는 도성리 전체가 저주리(猪走里)였던 '돛다란이'였음. (이마을 앞에 있는 섬이 돼지처럼 생겨서 (猪島)에 연유하여 생긴 지명임) '猪走里'는 한여현(韓汝賢)이 쓴 호산록(湖山錄) 坤 고금인물(古今人物)조에는 저지촌(猪旨村)이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輿地圖書 上(p.322)에는 저주리(猪走里)로, 忠淸道 瑞山郡 北地谷面(自官門 北距二十里)에 있다고 쓰여 있다.

* 두메실(峽谷), 드무실, 두모곡(豆毛谷), 두무곡(斗母谷) ; 둔지 북쪽의 골짜기의 마을. 두메에 위치함. (지곡면 무장리)

* 매봉재(鷹峰峙) ; 연화골 동쪽에서 장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매봉에 이루어진 고개. (지곡면 연화리)

* 먼내/면내(遠川), 무내말 ; 먼내 옆의 마을. 마을의 위치가 먼내(遠川) 주변임. (지곡면 화천리)

* 배다리(舟橋), 배다니 ; 아랫말 서쪽의 마을. 배다리 앞에 있는 마을. (지곡면 연화리)

* 벌뜸(坪村) ; 뱃말 북쪽의 마을. 벌판에 있는 마을임. (지곡면 도성리)

* 벌뜸(坪村) ; 밤실 동쪽 벌판에 있는 마을. 벌판에 있는 마을임. (지곡면 화천리)

* 보리고개(麥嶺), 보리고개말 ; 보리고개 밑의 마을. 고개 이름으로서의 '보리고개'는 봄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바다에 나가서 반지락등을 잡아 오다 쉬던 고개란 뜻. 배고픈 고개란 데서 유래되었음. (지곡면 도성리)

* 부금재(富金峙), 부금재말 ; 부금재 아래의 마을. (지곡면 도성리)

* 부성사(富城祠) ; 부성산 기슭에 있는 사당. 최치원 사당이 있음. (지곡면 산성리)

* 분점(盆店) ; 분점도[盆店島 ; 저섬(猪島) 북쪽의 섬]에 있는 마을. (지곡면 도성리)

* 불무고지(治申), 불무고지말 ; 배다리 서쪽 마을. 불무고지(대장간이 있었을 것임) 밑의 마을. (지곡면 연화리)

* 설굴(雪窟), 설굴말 ; 쟁이재 동쪽의 마을. 마을의 뒷산에 봄 늦게까지 눈이 녹지 않고 있었으므로 생긴 지명. (지곡면 장현리)

- * 암수골(岩岫洞), 암소골 ; 어현 동쪽의 마을.
- * 양지말(陽地村) ; 장현리 2구 마을. 마을 위치가 양지쪽임. (지곡면 장현리)
- * 양지편(陽地村) ; 무내(← 먼내 : 遠川)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위치가 남향임. (지곡면 화천리)
- * 영개, 연개, 영개말, 야원개, 마성개 ; 새말 서쪽에 있는 마을. 앞에 개(浦)가 있음. 지형이 야원 개처럼 생겼다 하여 생긴 지명이라 함은 믿기지 않음. (지곡면 중왕리)
- * 왕산(王山), 왕산말 ; 중왕리 2구 마을. 왕산 밑의 마을. (지곡면 지곡리)
- * 용모루(龍隅), 용모루말 ; 중리 남쪽 마을. 마을이 용모루(용모통이) 가까이 있음. (지곡면 중왕리)
- * 우도 양식장 ; 우도에 있는 굴 양식장. (지곡면 도성리)
- * 쟁이재(長而峙), 쟁이재말 ; 쟁이재 밑에 있는 마을. 긴 고개임. (지곡면 장현리)
- * 중절(中寺) ; 중절(아랫말 남쪽에 있던 절) 밑의 마을. (지곡면 연화리)
- * 머내다리(遠川橋) ; 머내(川)에 놓인 다리. (지곡면 화천리)

③ 역사적 유적 · 유물 · 사건 · 사연

- * 절골, 사동(寺洞) ; 부장골 서부쪽의 마을. 절이 있었음. (지곡면 무장리)



〈사진〉 파지도성지(波知島城址)

- * 절골(寺洞) ; 장현리 1구의 마을. 마을 위쪽에 절이 있었음. (지곡면 장현리)
- * 절골(寺谷) ; 노룡구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지곡면 환성리)
- * 절미재(寺山峴) ; 절미 뒤에 있는 고개. 절이 있는 골짜기 뒤에 있는 고개임. (지곡면 무장리)
- * 거리막(巨里幕), 거리막동 ; 한우물 동쪽의 마을. 마을 입구 도로변에 삼간 움팡집의 주막이 있었음. (지곡면 대요리)
- * 문꾸지(門串) ; 환성리 1구에 있는 마을. 성이 있었음. (지곡면 환성리)
- * 탑산(塔山), 탑산말 ; 쟁이재 북쪽에 있는 마을. 탑이 있었다 함. (지곡면 장현리)
- * 구인조 엄전터 ; 엄전 터. 9사람이 합자해서 만들어 경영했음. (지곡면 환성리)
- * 망덕 바위 ; 부성동 북쪽에 있는 바위. 전에 어느 부자가 이곳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망보았다 함. (지곡면 산성리)
- * 망미산(望美山) ; 노룡구지 동쪽에 있는 산. 매년 대보름날 밤에 이 산에서 보름달(望月)을 봄. (지곡면 환성리)
- * 부성골, 부성동(富城洞), 부성 ; 부성산 밑에 있는 마을임. 신라 때 부성군이 있었음. 부성(富城)은 당시 군호였음. (지곡면 산성리)
- * 수영구지, 수영곶(水營串) ; 노룡동 서쪽에 있는 마을. 곶으로 되었는데, 조선 조 때 파지도만호영(波知島萬戶營)이 일시 있었음. (지곡면 환성리)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 샘골(泉谷), 천곡, 향교골, 향교촌 ; 밤실 서쪽, 텃골 남쪽에 있는 마을. 샘이 있음. 향교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음. (지곡면 화천리)
- * 샘터, 샘치(井峙), 샘터말 ; 두무실 남쪽의 마을. 샘터 밑에 있음. (지곡면 무장리)
- * 시드물 ; 잔너머 남쪽에 있는 마을. 이곳에 흉년이 들면 곡물가가 오르고 풍년이 들면 시세가 내린다는 뜻에서 유래 했다고 함. 천수답 지대임. (지곡면 도성리)
- * 용수동(湧水洞) ; 한우물 북쪽의 마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음. (지곡면 대요리)
- * 참새골 ; 백장골의 다른 이름. 찬샘골(冷泉洞)의 와음인 듯함. (지곡면 장현리)
- * 한우물, 대정(大井), 대천(大泉), 고수동(古水洞) ; 대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 우물이 있음. (지곡면 대요리)
- * 국사봉(國賜峰) ; 아마힐산(阿摩詰山)이라고도 함. 정충신 장군묘가 있으며 국

사봉이란 임금이 이산을 정충신에게 하사한 데서 유래함. (지곡면 대요리)

* 당봉(堂峰), 당뽕, 당재 ; 왕산 북쪽에 있는 산. 신당이 있음. (지곡면 중왕리)

* 당봉(堂峰) ; 쇠섬에 있는 산. 신당이 있었음. (지곡면 도성리)

* 서낭당이 ; 무수리 고개에 있음. 서낭당이 있음. (지곡면 무장리)

* 솔대배기, 솟대배기, 솟대배기말 ; 산성리에 있는 마을. 솟대(蘇塗)가 있었음.

(지곡면 산성리)

* 원당이(元堂) ; 장현리 1구 마을. 당집이 있었음. (지곡면 장현리)

* 옥터(獄址) ; 남성대 동쪽에 있는 마을. 부성군의 옥터가 있음. (지곡면 산성리)

* 텃골(基谷) ; 화천리1구 서편에 있는 마을로 집터가 좋다는 뜻임. (지곡면 화천리)

* 헌터울(古基洞) ; 환성리 1구 마을. 옛 건물터가 있었음. (지곡면 환성리)

* 개목(蟻項), 개미목말 ; 시드물 북쪽의 마을. 지형이 개미목처럼 잘록함. (지곡면 도성리)

* 고잔(古棧, 高棧) ; 성동 서쪽의 마을. 마을 지형이 곶(串)으로 되어 있음. (지곡면 도성리)

* 군말(群村) ; 아랫말 서쪽 마을. 여러 마을로 되었음. (지곡면 연화리)



〈사진〉 망군말(亡君洞)

- * 노룡구지(老龍串) ; 환성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곳(串)으로 되었음. (지곡면 환성리)
- * 다릿목(橋項), 다릿목말 ; 내동 남쪽에 있는 마을. 다리가 있음. (지곡면 산성리)
- * 돈지(敦地), 대지(大地) ; 무수리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군사들이 둔치고 있었다 함. 혹은 마을의 규모가 큰 데서 연유한다고도 함. 敦:大也 (지곡면 무장리)
- * 돌출(突出) ; 성동 북쪽의 마을. 지형이 돌출해 있음. (지곡면 도성리)
- * 무내, 먼내(遠川) ; 연화봉에서 발원, 화천리를 지나 바다로 드는 내. 길고 멀리 흐르는 내임. (지곡면 화천리)
- * 미륵굴, 미력굴(彌勒洞) ; 아랫말 남쪽에 있는 마을. 미륵이 있음. (지곡면 연화리)
- * 보리고개 ; 시드물 남쪽에 있는 고개. 이 고개를 넘을 때 배고픔이 심해서 생긴 지명. (지곡면 도성리)
- * 삼밭재, 삼밭재말 ; 어현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삼밭이 있었음. (지곡면 장현리)
- * 삼형제 바위 ; 셋굴 서쪽에 있는 바위. 셋이 나란히 있음. (지곡면 산성리)

⑤ 모양 · 크기 · 상태

- * 매섬, 응도(鷹島) ; 대산면 응도리에 있는 작은 섬. 매처럼 생겼음. 혹은 매가 살고 있다 함. (대산읍 응도리)
- * 쇠섬, 소섬, 우도(牛島) ; 새섬 서쪽의 작은 섬. 섬 전체가 소처럼 생겼다고 함. (지곡면 도성리)
- * 여우섬(狐島) ; 섬이 여우처럼 생겼음. 지금은 매립되어 섬이 아닌데도 여우섬이라고 부름. (지곡면 도성리)
- * 제섬, 제도, 저도, 저섬(猪島), 돼지섬 ; 잔너머 (젯너머) 서쪽에 있는 섬. 섬 모양이 돼지처럼 생겼다 함. (지곡면 도성리)
- * 한새지, 한새울(漢鳥), 대조동(大鳥洞) ; 육골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함. 혹은 황새가 많이 살았었다고 함. (지곡면 대요리)
- * 농바위(籠岩) ; 연화산 북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농처럼 생겼음. (지곡면 연화리)
- * 동구미 ; 마을의 모양이 떡동구미(동구미, 동구미)처럼 아늑하게 생겼음. (지곡면 장현리)
- * 망군말 ; 부성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임금이 망한곳이라는 전설이 있음. 대정재가 옆에 있음. (지곡면 산성리)



〈사진〉 문꼬지 토성

- * 바군열(籠穴) ; 내동 서쪽에 있는 마을. 바구니 형국의 혈(穴)이라 함. (지곡면 산성리)
- * 시루봉(甌峰) ; 각시봉 북쪽에 있는 산. 산 모양이 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혹은 각시가 시루를 들고 가는 형국이라 함. (지곡면 산성리)
- * 대말(大村) ; 대요리 2구 옷골 북쪽에 있는 큰 마을. (지곡면 대요리)
- * 큰뚜지 ; 개풍농장 북쪽에 있는 큰 마을. (지곡면 중왕리)
- * 큰말(大村) ; 중왕리 1구 마을. 규모가 큰 마을임. (지곡면 중왕리)
- * 큰한티(大峙峰) ; 작은 한티 옆에 있는 큰 고개. (지곡면 화천리)
- * 작은 한티(大峙) ; 부장골에서 화천리로 넘어오는 고개. 다른 고개에 비해 큼. (지곡면 화천리)
- * 백장골(百丈洞) ; 어현 동쪽의 마을. 골의 길이가 백장(百丈)이 될 정도로 깊. 혹은 이곳에 살던 민(白丁)과 유관한 듯도 함. (지곡면 장현리)
- * 문꼬지(門串)말 ; 노룡구지 동남쪽에 있는 마을. 골이 문처럼 되었음. 혹은 마을이 문고지(門串)에 있음. (지곡면 환성리)
- * 왕패미(王胙) ; 내동 서쪽에 있는 큰 논. 다른 논에 비해 큼. (지곡면 산성리)
- * 장벌(場坪) ; 유골 넘어에 있음. 이곳에 옛날 장이 쳤었음. (지곡면 대요리)
- * 진골, 장곡(長谷), 빗들머리 ; 환성리에 있는 마을. ①골짜기가 깊. ②빗들이 있음. (지곡면 환리)

- * 소당봉(小堂峰) ; 쟁이재 동쪽의 야산. 작은 당집이 있었음. (지곡면 장현리)
- * 소말(小村) ; 대요리 2구 마을. 규모가 작은 마을임. (지곡면 대요리)
- * 소말(小村), 작은뚜지 ; 중왕리 1구 마을. 큰뚜지 북쪽에 있는 규모가 작은 마을임. (지곡면 중리)
- * 작음뜸북골 / 큰뜸북골 ; 뜸북골 북쪽에 있는 마을. (지곡면 도성리)
- * 단섬(獨島) ; 돈지 북쪽의 섬. 만조때만 섬이고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서 불완전한 섬이었음. (지곡면 무장리)
- * 샘건너말(泉越洞) ; 대요리 2구 마을. 위치가 샘건너에 있는 마을임. (지곡면 대요리)
- * 선배말(立岩), 선배 ; 바다에 있는 바위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음.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가 간조때나 만조 때나 변함없이 서 있었음. 그러나 이 바위는 송경농장 매립을 위해 파손시켜 석축용으로 이용되어 지금은 없어졌음. 선바위로 부터 서쪽 50 m지점에 명석 넓이만한 농바위가 남아 있음. (지곡면 도성리)
- * 육골(六谷) ; 대요리 1구의 동쪽에 있는 마을. 전답이 비옥하고 수원이 좋아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 요골(要洞)에서 왔다고 하나 믿기 어려움. (지곡면 대요리)

⑥ 동·식물 (動·植物)

- * 고라리(古羅里) ; 환성리 2구 마을. 마을의 생김이 문고리(環) 둥글게 생겼다 함. (지곡면 환성리)
- * 날개(出浦) ; 한새지 동쪽의 마을. 이곳은 포구로 이곳을 통하여 외지로 나간다는 뜻임. (지곡면 대요리)
- * 뜸북골, 뜸부기골 ; 잣너머 남쪽의 마을. 뜸부기가 많음. (지곡면 도성리)
- * 버미딛골 ; 불모꼬지 옆에 있는 골짜기. 범이 살던 터가 있음. (지곡면 연화리)
- * 새섬(鳥島) ; 우도(牛島) 북쪽의 섬. 물새들이 많이 살고 있음. (대산읍 오지리)
- * 새섬, 조도(鳥島) ; 헌터울 동북쪽에 있는 섬. 물새들이 많이 삶. (지곡면 환성리)
- * 실치개(白魚浦) ; 우도 동쪽에 있는 개(浦). 이 개(浦) 주변에서 실치가 많이 잡혔음. (지곡면 도성리)
- * 여우섬(狐島) ; 한우물 서쪽의 섬. 섬의 모양이 여우처럼 생겼다 함. 여우가 살았다고도 함. 현재는 섬이 아님. (지곡면 대요리)
- * 글슬기재(文智古介), 그심이한티, 그시미재 ; 연화산 북쪽의 고개.
- * 꽃마을, 화동(花洞) ; 화천리 3구 마을. 동구에 진달래꽃이 만발함. (지곡면 화천리)



〈사진〉 문지고개

- * 나무실(木谷) ; 밤실 동쪽 마을. 마을 골짜기에 수목이 울창했었음. (지곡면 화천리)
- * 감나무골(柿木洞) ; 무내 북쪽에 있는 마을. 감나무가 많았음. (지곡면 화천리)
- * 고두실(直洞) ; 대궐재 밑의 마을. 마을이 곧게 생겼음. (지곡면 산성리)
- * 밤실(栗谷) ; 천곡과 현 면 소재지의 마을. 이 마을에 밤나무가 많았음. (지곡면 화천리)
- * 배말(梨洞) ; 부금재의 서쪽 마을. 배나무가 많음. (지곡면 도성리)
- * 업나무골 ; 산성리 1구, 산동 동쪽 마을에 있는 마을. 업나무는 이곳에서 병구나무라고도 함. (지곡면 산성리)
- * 오리나무골(楡理木洞) ; 어현 서남쪽에 있는 마을. 오리나무가 많았음. (지곡면 장현리)

⑦ 관련 인물

- * 관장골(官長洞) ; 원천 서쪽의 마을. 옛날 이 마을에 관장(수령의 높임말)이 살았다 함. (지곡면 화천리)
- * 남상대(南商臺)말, 남성대(南城臺) ; 부성동 동쪽의 마을. 백제·신라 때 군청 소재지로서 대당 무역선의 배가 닿던 곳임. 밑에 닻개가 있음. (지곡면 산성리)

* 어현(於賢) ; 마을의 지형이 어진 사람(賢人)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라 함. (지곡면 장현리)

* 정충신묘(鄭忠臣墓) ; 국사봉 기슭의 정충신의 무덤. (지곡면 대요리)

* 피아굴 ; 중절 동쪽에 있는 마을. 피씨가 살았다 함. (지곡면 연화리)

⑧ 발생 연원

* 신동(新村) ; 돈지 옆 마을, 새로 생긴 마을. (지곡면 무장리)

* 새말(新村) ; 중리 서쪽에 새로 된 마을. (지곡면 중왕리)

* 새말, 신촌(新村) ; 잔너머 옆에 새로 된 마을. (지곡면 도성리)

* 새골(新洞), 새앗골 ; 시드물 북쪽의 마을, 새로 생긴 마을, 사잇골 / 사잇골(間洞) (지곡면 도성리)

⑨ 전설 · 풍수설

* 갈마시, 갈마수, 갈마실(渴馬谷), 갈마곡 ; 산성리 2구 내동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지형이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 함. (지곡면 산성리)

* 도원동(桃源洞), 재너머, 잣너머 ; 도성리의 중심 마을. '도원'(桃源)은 무릉도원의 준말. (지곡면 도성리)

* 무수리(舞袖里), 돈무리(頓舞理) ; 부장골 북쪽의 마을. 지형이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이라 함. 혹은 이 지역에 살았던 특수층 사람에 연유한 말일 수도 있음. (지곡면 무장리)

* 연화산(蓮花山) ; 연화골 남쪽의 산. 산의 모양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같다고 함. (지곡면 연화리)

* 옥녀봉(玉女峰) ; 지곡면 사무소 뒤쪽에 있는 산. 산 모양이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고 함. (지곡면 화천리)

⑩ 생산지

* 무수점, 무시점, 무쇠점(水鐵店) ; 대요리 1구 한우물 북쪽에 있는 마을. 무쇠점이 있었음. (지곡면 대요리)

* 부금재(富金峙) ; 부성산 줄기에 있는 고개.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함. (지곡면 도성리)

* 쇠평(金掘), 쇠평마을 ; 성동 서쪽의 마을. 야철지(冶鐵址)가 있었음. (지곡면 도성리)

* 지아미(瓦洞) ; 윗말 북쪽의 마을. 옛날 이 곳에서 기와를 구웠음. (지곡면 연화리)

8. 성연면(聖淵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성연면(聖淵面) ; 본래 고려 때 성연부곡(聖淵部曲)인데, 조선조 때 성연면으로 하였음. '성연'이란 마을의 연못에서 용이 승천한 뒤부터 마을이 번창하므로 성스러운 연못(聖淵)이라 하였다고 함.

* 갈현리(葛峴里), 갈고개(葛古介), 갈고리(葛古里), 갈현(葛峴) ; 본래 서산군 성연면의 지역으로서 갈고개 밑이 되므로 갈고개 또는 갈현, 갈고리라 하였음.

* 명천리(鳴川里), 울내(말), 우르내, 명천(鳴川) ; 앞내가 여울이 저서 늘 물소리가 나므로, 울내, 우르내 또는 명천이라 하였음.

* 평리(坪里), 벌말 ; 벌판에 마을이 생기었으므로 벌말 또는 평리라 함.

* 해성리(海城里), 해성(海城) ; 바다가 성처럼 둘러 있으므로 해성이라 함. 혹은 해구(海寇)를 막기 위해 해안에 성을 쌓은 데서 연유했다고도 함.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고남리(古南里)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삼고리(三古里)와 아남리(牙南里)의 이름을 따서 고남리라 함.

* 예덕리(禮德里)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슬례리(率禮里)와 덕천리(德川里)의 이름을 따서 예덕리라 함.

* 오사리(梧沙里)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오지리(梧枝里)와 사동(沙洞)의 이름을 따서 오사리라 함.

* 왕정리(旺井里)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왕동(旺洞)과 세정동(細井洞)의 이름을 따서 왕정리라 함.

* 일람리(日藍里) ;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일호리(日毫里)와 남동(藍洞)의 이름을 따서 일람리라 함.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성전골(城前洞), 성앞골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 북쪽 마을. 성(城) 앞에 있음. 토성이 있었다고 함.

- * 뒷골(後谷) ; 성연면 고남리. 3고개 서북쪽 골짜기. 마을 뒤횥에 있음.
- * 뒷골(後洞)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의 서쪽 마을. 중심되는 마을의 뒤횥에 있음.
- * 뒷골(後洞) ; 성연면 예덕리 2구. 하솔에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 상말(上村)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의 북쪽 마을. 위쪽에 있음.
- * 상평(上坪) ; 성연면 평리. 평리 1구 마을. 벌말 위쪽임.
- * 삼거리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 1구 느리실 북쪽에 있는 마을. 세 갈래 길이 있음.
- * 위삼거리(上三巨里) ; 성연면 명천리.
- * 아래삼거리 ; 성연면 명천리
- * 아래솔레(下率禮)/위솔레(上率禮) ; 성연면 예덕리.
- * 하평(下坪) ; 성연면 평리 2구. 벌말 아래쪽임.
- * 안골(內谷) ; 성연면 일람리. 일운이/이룬이 남쪽의 골짜기. 마을 안쪽에 있음.
- * 내성(內城) ; 성연면 해성리. 해성리를 성곽으로 보고 북쪽 해안가의 마을을 외성(外城), 안쪽을 내성(內城)으로 보았음. 혹은 조씨(趙氏)와 연결 바깥성조박(外姓), 안성조박(內姓)과 연결하기도 함.
- * 바깥성 주막, 외성(外城) ; 성연면 해성리. 안성주막 바깥 남쪽에 있는 마을.
- * 구억말(九億村) ; 성연면 갈현리 1구. 갈고개 서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구억말 ; 성연면 해성리. 내성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

② 위치

- * 강변말(江邊村) ; 성연면 해성리. 벼밭 서쪽의 마을. 바닷가에 위치했음.
- * 갯골(浦洞)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 2구. 마을이 개(浦) 옆에 있음.
- * 명천포(鳴川浦) ; 성연면 명천리에 접해 있는 개.
- * 사직개, 사직개말, 직동(直洞) ; 성연면 왕정리. 사직개 앞에 있는 마을.
- * 명천교(鳴川橋)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에 있는 다리.
- * 오사교(梧沙橋) ; 성연면 오사리 모시골 남동쪽의 다리. 오사리에 놓여 있음.
- * 평리교(坪里橋) ; 성연면 평리. 평리에 놓여 있는 다리. 성연교(聖淵橋)라고도 함.
- * 갈현저수지(葛峴貯水池) ; 성연면 갈현리. 새말 앞 저수지. 갈현리에 있음.
- * 모사리골못 ; 성연면 명천리. 모사리골에 있는 못.
- * 둥구미(圓山), 둥그미, 동금리(東琴里) ; 성연면 명천리. 명천 서쪽에 있는 마을. 뒤에 둥근 산이 있음.
- * 뭉구리(말), 문기리(文起里)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뭉

구리산 밑이 됨. (몽구리 ; 바싹 깎은 머리. 중의 별칭. 몽구리산=민둥산.)

* 몽구리약수터 ; 성연면 예덕리. 몽구리산 기슭에 있는 약물터.

* 문구리보, 문기리보 ; 성연면 명천리. 문기리(마을) 남쪽에 있는 보.

* 창말보(倉村淤) ; 성연면 명천리. 창말 남쪽에 있는 보.

* 갈고개(葛古介)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에서 왕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철이 많음.

* 못감시고개 ; 성연면 일람리. 못감싯골 위에 있는 고개.

* 삼고개(三古介) ; 성연면 고남리. 고남리 1구 아나미 서쪽에 있는 마을. 모새 고개·당고개·골고개 혹은 일호리고개·금학리고개·세길고개의 세 고개 밑에 있음.

* 쇠기리재 ; 성연면 오사리. 사동 서쪽에 있는 고개. 팔봉면 쇠기리로 넘어감.

* 절골고개(寺谷峙) ; 성연면 평리. 상평 마을에서 지곡면으로 가는 고개. 절골에 있는 고개임.

* 가재미(石蟹山), 가재미말 ; 성연면 고남리. 고남리 2구 마을. 가재미(山名) 밑에 위함.

* 갓골재 ; 성연면 명천리. 갓골(느리실 남쪽 가에 있는 골짜기) 남쪽에 있는 고개.

* 강동모랭이 ; 성연면 해성리. 강동골 입구에 있는 모랭이.

* 덕천(德川), 덕천말 ; 성연면 예덕리. 예덕 3구 마을. 덕천(내) 앞에 위치했음.

* 말우리재(馬鳴峙)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에 있는 고개.

* 말우리재서낭 ; 성연면 예덕리. 말우리재(고개)에 있는 서낭당.

* 모사리골절 ; 성연면 명천리. 모사리골에 있는 절.

* 벼말 ; 성연면 해성리. 내성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혹은 벼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도 함.

* 봉우티골망 ; 성연면 일람리. 봉우티 밑에 있는 골짜기.

* 성왕골(聖旺洞), 왕동(旺洞) ; 성연면 왕정리. 성왕산 밑의 마을.

* 아남이, 아나미, 아남리(牙南里) ; 성연면 고남리. 고남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아나미 산 밑에 있음.

* 양지편(陽地村) ; 성연면 예덕리. 예덕리 2구 마을. 양지편에 있음.

* 일운이내/이룬이내(日毫川) ; 성연면 일람리. 일운이/이룬이에 흐르는 내.

* 한티골 ; 성연면 오사리. 한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마야산(摩耶山) ; 성연면 해성리. 내성 남쪽의 산. 절이 있었음. 마야(摩耶)는

불모(佛母)를 말함.

* 불당골(佛堂谷) ; 성연면 갈현리 2구의 골짜기. 불당이 있었음.

* 불당골 ; 성연면 오사리. 생동 서북쪽의 골짜기. 불당이 있었음.

* 원적골산, 원저곡산 ; 성연면 해성리. 마야산 남쪽에 있는 산. 원적사(元寂寺)가 있었다 함.

* 절터골(寺基谷) ; 성연면 오사리. 여시밋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음.

* 곤자배미 ; 성연면 예덕리. 짚은골 북쪽에 있는 논. 예전 양전(量田)할 때 천자(千字)의 곤(昆)자를 매기었었음.

* 과녁산(貫革山) ; 성연면 명천리. 테미산과 몽구리산 사이에 있는 산. 테미산에서 이곳을 보고 활쏘기 연습을 했다고 함.

* 독너들 ; 성연면 오사리. 연화봉 동쪽에 있는 너설. 돌이 많음.

* 벼락배미(落雷畓) ; 성연면 예덕리. 두명배미논의 동쪽에 있는 논. 논에서 일하는 중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죽었다고 함.

* 쇧대바기, 쇧대백이말 ; 성연면 왕정리. 구석이터 남동쪽에 있는 마을. 전에 쇧대가 박혀 있었음.

* 신발뿌리 ; 성연면 명천리, 예덕리, 해성리 경계에 있는 부리. 바다로 가는 사람이 신을 벗어 놓고 갔다 함.

* 잣들, 재햇들 ; 성연면 예덕리. 덕천과 하솔예 사이에 있는 들. 논이 나빠서 재앙이 잘 들.

* 길뚝배미 ; 성연면 해성리. 동구잣골에 있는 논. 길로 된 뚝 밑에 있음. 즉 제방 안쪽에 있는 논임.

* 창말(倉村), 창터, 명천창터(鳴川倉基), 해창(海倉), 해창말 ; 성연면 명천리. 조선 때 해창(海倉)이 있었음. 부근 고을의 조세를 받아 이 곳에 쌓았다가 배로 서울로 운반했음.

* 판논 ; 성연면 평리. 상평 북동쪽에 있는 논. 수령이 있었는데 파서 논을 만들었음.

* 산제바위(山祭岩) ; 성연면 일람리. 매죽골(뽕쥐골) 남쪽에 있는 바위. 이곳에서 산제를 지냄.

* 말우리(馬鳴里), 말동구리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 1구 말우리 서쪽에 있는 모퉁이. 고려 말엽 어느 벼슬아치가 말을 타고 밤길을 가다가 여기서 말이 뒹굴었다고 함.

* 말우리, 마명리(馬鳴里)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 고려 때 어떤 관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말이 울었다고 함.

* 옥동샘(玉童泉) ; 성연면 왕정리. 참셋골 동쪽에 있는 샘. 전에 옥동이란 아이

가 이곳에 빠져 죽었다고 함.

④ 지형(地形)·지물(地物)

* 느리실(緩谷), 느리실말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 1구 마을이 위치한 곳의 경사도가 완만함.

* 두내바지 ; 성연면 오사리. 왕채 동남쪽에 있는 마을. 두내가 합함.

* 삼거리, 윗삼거리 ; 성연면 명천리. 삼거리 마을에 있는 길.

* 세갯들 ; 성연면 일람리. 개울 셋이 합침.

* 세모골(三角谷) ; 성연면 오사리. 절골 남서쪽의 골짜기. 모양이 세모꼴로 생겼음.

* 냉전골 ; 성연면 해성리. 내성 동쪽에 있는 골짜기. 냉천(冷泉)이 있음.

* 생동(生洞), 삼말 ;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 2구 마을. 마을 한가운데에 큰 샘이 있음. 샘 = 생 = 삼 = 泉.

* 참샘골, 참삼골(冷泉谷) ; 성연면 왕정리. 구석이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찬샘이 있음.

* 달밭듬병 ; 성연면 오사리. 생동에 있는 논. 전에 듨병이 있었음.

* 당미(堂山)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 2구. 당미 아래쪽의 마을. 당집이 있었음.

* 서낭당이 ; 성연면 해성리. 노적봉 동쪽 서낭봉에 있는 서낭당. 서낭신을 모신 당이 있음.

* 서낭봉 ; 성연면 해성리. 노적봉 동쪽의 산. 산기슭에 서낭당이 있음.

* 신당(新塘) ; 성연면 평리. 평리 2구 별말 동쪽에 있는 마을. 신당이 있었음.

* 창말산채당 ; 성연면 명천리. 창말 동쪽에 있는 산채당.

* 금바위(線岩) ; 성연면 고남리. 삼고개 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벼락이 쳐서 금이 갔음.

* 돌팍산(石山) ; 성연면 왕정리. 중터 서쪽에 있는 산. 돌이 많음.

* 벌뜸(坪村) ; 성연면 오사리. 오지평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 산골(山洞) ;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 2구 생동 북쪽의 골짜기 마을.

* 새미골(泉谷)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 3구 새미골(골짜기)에 있는 마을.

* 쉬논 ; 성연면 오사리. 생동 동쪽의 논. 논에 쉬(수렁)가 많음.

* 자갯골 ; 성연면 해성리. 안성주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자갯이 많음.

* 잔다리(말), 세교리(細橋里), 세정동(細井洞) ; 성연면 왕정리. 사직개 서북쪽의 마을. 마을 어귀에 잔 다리가 있음.

* 깊은골 ; 성연면 예덕리. 예덕리 2구 상술에 동쪽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임.

* 텃굴, 지곡(址谷) ; 성연면 고남리. 아나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터가 있음.

* 토굴(土窟), 토굴골 ; 성연면 일람리. 성왕산 서쪽 골짜기의 토굴. 골짜기에 토

굴이 있음.

- * 평산 ; 성연면 예덕리. 상솔레 북쪽에 있는 산. 꼭대기가 평평함.

⑤ 모양·크기·상태

- * 장구배미(長鼓畓) ; 성연면 일람리. 용애배미의 북쪽 논. 장구처럼 생겼음.
- * 장구배미(長鼓畓) ; 성연면 해성리. 질득배미의 동쪽에 있는 논. 모양이 장구처럼 생겼음.
- * 장구배미(長鼓畓) ; 성연면 왕정리. 참새골 남쪽에 있는 논. 모양이 장구처럼 생겼음.
- * 두멍배미 ; 성연면 해성리. 도덕골 남쪽에 있는 논. 두멍처럼 생겨서 항상 물이 마르지 않음.
- * 두렁배미논 ; 성연면 예덕리. 위솔레 가운데에 있는 논. 논 모양이 두멍처럼 생겨 물이 마르지 않음.
- * 굴뚝바위 ; 성연면 해성리. 모양이 굴뚝처럼 생겼음.
- * 노적봉(露積峯) ; 성연면 해성리. 안성주막 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노적이러처럼 생겼음.
- * 농바위 ;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에 있는 바위. 농처럼 생겼음.
- * 말바위(馬岩)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 동쪽 문길산(몽구리산) 꼭대기에 있음. 모양이 말처럼 생겼음.
- * 멩애배미 ; 성연면 오사리. 생동마을 북쪽의 논. 멩애처럼 생겼음.
- * 뫼쥐골, 메지, 매주, 사련동(四蓮洞) ; 성연면 일람리. 일람리 1구. 지형이 뫼쥐(들쥐)가 곳간에 들어간 형국이라 함.
- * 병풍바위 ; 성연면 해성리. 명천포 남쪽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겼음.
- * 아홉모랭이 ; 성연면 명천리. 말우리 서쪽에 있는 마을. 꼬불꼬불한 모랭이가 아홉이 있다고 함.
- * 형제고개, 형제티(兄弟峙) ; 성연면 일람리. 정관산 서쪽에 있는 고개. 고개 둘이 연하여 있음. 혹은 이 고개 밑에서 형제가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함.
- * 장배밧들 ; 성연면 명천리. 삼거리 서쪽에 있는 들. 배미가 깊.
- * 장아배미, 장어배미(長魚畓) ; 성연면 명천리. 둥구미 서쪽에 있는 논. 뱀장어가 많았다고 함. 장어처럼 길게 생겼음.
- * 진듬병 ; 성연면 평리. 벌말 북쪽에 있는 긴 듨병.
- * 진목(長項) ; 성연면 일람리. 일람교 동북쪽의 들. 들판이 길게 생겼음.
- * 큰봉산(大峰山) ; 성연면 해성리. 내성 동쪽의 산. 여기서는 비교적 큰 산임.
- * 한티고개(大峙) ; 성연면 오사리. 생동 북쪽에 있는 큰 고개.
- * 작은골(小谷) ; 성연면 고남리. 아남이 서쪽의 골짜기. 규모가 작은 골짜기임.

⑥ 동·식물(動·植物)

* 매봉산(鷹峰山) ; 성연면 명천리. 명천 남쪽에 있는 산. 매처럼 생겼다고 함. 혹은 매가 살았다고 함.

* 매봉재(鷹峰峙) ; 성연면 평리. 상평 북쪽의 야산. 모양이 매와 같다고 함. 매가 살았다고 함.

* 여우골(狐谷) ; 성연면 예덕리. 예덕리 2구 마을. 여우가 출몰했다고 함.

* 황새골 ; 성연면 오사리. 사태말 서쪽의 골짜기. 황새가 많이 깃들었다고 함.

* 대뱅이(竹里), 대백이, 대방리(大芳里) ; 성연면 명천리. 명천리 1구. 대나무가 많음.

* 모과울(木瓜洞), 과동(果洞)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 2구 갈고개 동쪽 골짜기가 있는 마을 모과나무가 있었음.

* 솔만, 솔안말, 송내(松內), 송내리(松內里) ; 성연면 고남리. 고남리 3구. 아나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소(沼), 혹은 소나무가 있었음.

* 오얏골 ; 성연면 일람리. 일람리 2구의 골짜기. 오얏나무가 많았음.

* 오깃들(梧枝坪) ; 성연면 오지리. 오사리의 중심 마을로 오깃들 옆에 있음. 오지리(梧枝里)는 오동나무가 많은 데서 연유했다 함.

* 유투쟁이논 ; 성연면 해성리. 갯변말 남쪽에 있는 논. 전에 유투나무(느티나무)가 많이 있었다 함.

⑦ 관련 인물

* 박시목골 ; 성연면 예덕리. 상솔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박씨가 시묘하였다 함.

* 장자골(長者谷) ; 성연면 오사리. 사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장자가 났었다 함. 혹은 장자의 무덤이 있었다 함.

⑧ 발생 연원

* 구장터(舊市場) ; 성연면 평리. 평리에 있는 옛 장터. 시장이 쇠었는데 새 장터로 옮겨 갔음.

* 사태말(新垆洞) ; 성연면 오사리. 오지깃들 서남쪽의 마을. 새로 터를 잡고 생긴 마을임.

* 새말(新村) ; 성연면 갈현리. 갈현 저수지 옆 마을. 새로 생긴 마을임.

* 새장터(新市場) ; 성연면 평리. 평리에 있는 성연면의 시장. 구장터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음.

⑨ 전설 · 풍수설

- * 용골, 용굴(龍洞)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 2구 마을. 용이 승천했다 함.
- * 용난수(龍出泉) ; 성연면 오사리. 벌뜸 남쪽에 있는 우물. 용이 나왔다 함.
- * 용못말, 용연동(龍淵洞) ; 성연면 갈현리. 갈현리 2구. 갈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 용못이 있었음.
- * 일호리(日毫里), 햇무리, 햇못말, 일운(日暈), 일운이, 일후니 ; 성연면 일람리. 일람리의 한 마을. 마을을 개척할 때 '햇무리'가 나타났다고 함.
- * 장수바위(將帥岩) ; 성연면 명천리. 말바위 옆 서쪽의 바위. 장수가 앉아 있었다고 함.

⑩ 생산지

- * 모시골(苧谷) ; 성연면 오사리. 오사교(梧沙橋) 서북쪽의 골짜기. 모시가 많이 생산되었음.
- * 사짓말, 사동(沙洞) ;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 1구 오짓들 서쪽에 있는 마을. 사기점이 있었음.
- * 사장골, 사장곡(沙場谷) ; 성연면 오사리. 생동(생말) 서쪽의 마을. 사기그릇을 구웠음.
- * 와촌(瓦村) ; 성연면 일람리. 일람리 3구. 이룬이 북동쪽에 있는 마을. 기와를 구웠음.
- * 점골(店洞) ; 성연면 오사리. 사동 남쪽에 있는 마을. 용기점이 있었다고 함.
- * 쪽말, 남동(藍洞) ; 성연면 일람리 3구. 이 마을에 쪽(藍)이 많이 자랐음.
- * 피논뜰 ; 성연면 명천리. 말동구리 서쪽에 있는 들. 피가 많이 났음.

9. 음암면(音岩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음암면(音岩面)-표기 한자의 의미를 따라 '소리나는 바위' '들림바위'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문양리(文陽里) 1구 드름배 마을 들림바위(音岩)에서 나왔다. 당초 면명은 동음암면(冬音岩面)이었으나 1914년 동(冬)은 없어지고 음암면(音岩面)이 되었다. '冬音'은 전국의 고·현(古·現) 지명 표기(耽津縣 ; 冬音縣, 冬音忽, 白冬音里 ; 白鶴里), 향가 모죽지랑가의 아동음(阿冬音)의 '冬音'에서 '듬'의 표기로 쓰였다. '둥글다'(圓)는 뜻이다. 따라서 '冬音岩'은 '둥근 바위'

(圓岩)이란 뜻이다. 드름배 마을엔 직경 1m 미만으로 말발굽같이 둥글게 생긴 바위가 있음.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성암리(星岩里) : 마을 어귀에 별처럼 생긴 바위(별바위)가 있음.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도당리(道堂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도동(求道洞)과 전당리(錢堂里)의 이름을 따서 도당리라 함.

* 문양리(文陽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문기리(文起里)와 장양리(章陽里)의 이름을 따서 문양리라 함.

* 부산리(富山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흥동(富興洞)과 산저리(山底里)의 이름을 따서 부산리라 함.

* 부장리(富長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다리(富多里)와 장산리(長山里)의 이름을 따서 부장리라 함.

* 상홍리(上紅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노티리(上蘆峙里)와 홍천리(紅川里)의 이름을 따서 상홍리라 함.

* 신장리(新莊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동(新洞)과 장림동(莊林洞)의 이름을 따서 신장리라 함.

* 유계리(遊溪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산리(遊山里)와 명계리(明溪里)의 이름을 따서 유계리라 함.

* 울목리(栗木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울리(栗里)와 목과동(木果洞)의 이름을 따서 울목리라 함.

* 탑곡리(塔谷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탑동(塔洞)과 중곡리(中谷里)의 이름을 따서 탑곡리라 함.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동녘벌, 동녘골(東谷, 부산리)

* 성동(城洞, 유계리), 성동말 : 성동(城東→城洞)

* 청룡부리(靑龍角, 상홍리), 청룡부리말 : '청룡'은 좌측임.

* 모산(毛山, 성암리), 모산마을 : 못 안(池內)→모산

* 안골(內洞, 울목리)

* 안말(內洞, 신장리) : 구리바위 안쪽 마을

- * 안터말, 안터(內基, 부장리) ; 부다리(부다니) 안쪽 마을
- * 가운데말(中谷, 탑곡리) ; 탑곡리의 가운데 마을
- * 중리(中里, 상흥리)
- * 위가재(上蘆峙, 상흥리)
- * 아래가재(下蘆峙, 상흥리) ; '가재' 는 '갈재(葛峙, 蘆峙)' 에서 변한 것임.
- * 아래밤실(下栗谷·下栗里, 울목리)
- * 구억말(九億村, 탑곡리, 울목리)

② 위치

- * 무릉재, 무릉티(武陵峙, 탑곡리, 고개) ; 무릉재(산) 위에 있는 고개임.
- * 갈산(葛山, 문양리, 마을), 갈산말 ; 갈산(산 이름) 밑에 있음.
- * 노르미(遊山), 노르미말(유계리, 마을) ; 노르미(산 이름) 밑에 있음.
- * 동산굴(洞山洞), 동산굴(부장리, 마을) ; 동산(산 이름) 밑에 있음.
- * 문구루, 문기리(文起里), 문길말(문양리, 마을) ; 문길산 밑에 있음.
- * 소르개재(蓴峙), 소르개재말(문양리, 마을) ; 소르개재 밑에 있음.
- * 부산(夫山, 성암리, 마을) ; 부산(夫山) 밑에 있음.
- * 부산리(夫山里, 부장리, 마을) ; 부산 밑에 있음.
- * 부영굴, 부흥동(富興洞, 부산리, 마을) ; 부흥산 앞(밑)에 있음.
- * 부흥산(富興山, 부산리, 산) ; 부영굴(마을) 뒤에 있는 산.
- * 산밑(山底), 산밑말(부산리, 마을) ; 성왕산 밑에 있음.
- * 홍천리(紅川里, 상흥리, 마을) ; 홍천(내) 앞의 마을임.
- * 회천이, 회천말, 회초미(문양리, 마을) ; 회천재(고개) 밑에 있음.
- * 회천재, 갈산재(문양리) ; 회천이에서 정미면 산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 길마재, 질마재(鞍峙, 탑곡리, 마을) ; 길마재 밑에 있음.
- * 장재(長峙), 장재말(부산리, 마을) ; 장재 밑에 있음.
- * 장재울 고개(長者洞峙, 문양리, 고개) ; 장재울에서 울목리 배시동으로 가는 고개.
- * 장재울 서낭당(문양리)
- * 검동내(儉洞川, 상흥리, 내) ; 검동(마을 이름) 앞에 있는 내.
- * 동상굴앞(東山洞-, 부장리, 들) ; 동산굴(마을 이름) 앞에 있음.
- * 미륵댕이들(彌勒堂野, 성암리, 들) ; 미륵댕이 마을 앞에 있음.
- * 부다니앞(부장리, 들) ; 부다니(마을) 앞에 있음.
- * 부산이들(夫山野, 성암리, 들) ; 부산이(마을) 앞의 마을.
- * 불당골미륵(佛堂谷彌勒, 신장리) ; 불당골(마을, 골짜기)에 있음.
- * 상홍(上紅)저수지(상흥리)

- * 성암(星岩)저수지(성암리)
- * 음암(音岩)저수지, 울목(栗木)저수지(울목리)
- * 뚝배기보(성암리, 보) ; 뚝배기들에 있음.
- * 용머리보(龍頭湫, 부장리, 보) ; 용머리마을 앞에 있음.
- * 점촌보(店村湫, 울목리, 보) ; 점촌(마을)에 있음.
- * 청룡보(靑龍湫, 상흥리) ; 청룡부리 밑에 있음.
- * 상홍교(上紅橋, 상흥리, 다리)
- * 점촌교(店村橋, 울목리, 다리) ; 울목리 점말(店村)에 있음.
- * 고양골(古陽洞, 탑곡리, 마을) ; 양지쪽에 있음.
- * 양지편(陽地村, 문양리, 마을)
- * 은골(陰洞), 음지골(부산리, 마을) ; 음지쪽에 있음.
- * 음지편(陰地村, 울목리)
- * 음지편(문양리)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 승개산(僧家山, 울목리), 중재 ; 이 산에 절(僧家)이 있었다고 함.
- * 가장동(加場洞, 부장리, 마을) ; 가장골(假葬洞) 밑에 있음. 가장(假葬→加場)
- * 강적골(부산리, 마을) ; 큰 절이 있었음.
- * 불당골(佛堂谷, 신장리, 마을) ; 불당이 있음.
- * 전당(錢堂)이, 전당리(도당리, 마을) ; 예전에 신불을 모셨던 전당(錢堂)이 있었음.
- * 절굴(도당리, 골짜기) ; 절이 있었음.
- * 미륵당이(성암리, 마을) ; 미륵당(彌勒堂)이 있음.
- * 탑골(塔洞, 탑곡리, 마을) ; 탑이 있었음.
- * 텃골(址谷, 울목리, 마을) ; 큰 집터가 있었음.
- * 망재, 망재(望峙, 부장리, 산) ; 예전에 봉화를 올리며 망을 보았음.
- * 방아샘(부장리, 샘) ; 이 물을 이용, 물방아를 놓았었음.
- * 수문아래(부장리, 골짜기) ; 전에 방아샘을 이용하며 물방아를 놓고 수문을 달았었음.
- * 검동(儉洞, 상흥리, 마을) ; 다른 마을에 비해 가난한 마을임.
- * 덧백이, 덧백이말(신장리) ; 농악(農樂)이 유달리 성한 마을임. ※덧백이:농악장단의 이름.
- * 구시울, 구디울(求道洞), 구수동(도당리, 마을) ; 옛날 이 곳에서 굿을 했던 곳이라 함. 혹은 지형이 구유같이 생긴 데서 유래했다고도 함. 그래서 이곳에서 부자가 되어도 얼마 안가서 망한다는 전설이 있음K.

* 철재고개(신장리, 고개) ; 이 고개에 이르면 으레 쉬어 감.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 쌍삼배기(신장리, 논) ; 쌍으로 된 샘이 있음.
- * 옥샘(玉泉, 신장리, 샘) ; 물이 옥같이 맑고 참.
- * 두레삼(부장리, 샘) ; 두레박으로 물을 폼.
- * 두레삼배미(부장리, 논) ; 두레삼 앞에 있는 논.
- * 샘골(泉谷, 신장리, 골짜기) ; 큰 샘이 있음.
- * 모삼들, 말목들(馬頂坪, 상흥리, 들) ; 모가 진 샘이 있었음.
- * 뚝뚝들(성암리, 들) ; 들 북판에 뚝뚝이 있음.
- * 방죽골(防築洞, 유계리, 마을) ; 방죽이 있음.
- * 방죽골(도당리, 골짜기) ; 방죽이 있음.
- * 방죽머리(말)(부산리, 마을) ; 방죽이 있음.
- * 방죽안(말)(부산리, 마을) ; 방죽이 있음.
- * 모가울서낭당이(울목리, 고개) ; 서낭당이 있었음.
- * 석가울서낭당이(울목리, 고개) ; 서낭당이 있었음.
- * 산제당(山祭堂, 부장리, 산신당) ; 산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음.
- * 서낭당터(도당리, 터) ; 서낭당이 있던 터.
- * 수렁논, 수왕(水旺, 탑곡리, 논) ; 논 가운데 수렁이 있음.
- * 쉬우논(신장리, 논) ; 수렁이 있음.
- * 나쁜돌고개(도당리, 고개) ; 넓은 돌이 있었음.
- * 구리배(銅岩), 장림동(莊林洞, 신장리, 마을) ; 구리바위가 있음.
- * 독골(石洞, 울목리, 마을) ; 돌이 많음.
- * 두름바위(鶴岩), 두름바위말(문양리, 마을) ; 두름바위가 있음.
- * 바위배기(石山, 울목리, 산) ; 큰 바위가 있음.
- * 석가울(釋家洞, 울목리, 마을) ; 돌이 많음.
- * 자갈배미(울목리, 논) ; 자갈이 많음.
- * 차돌박샘(도당리, 샘) ; 차돌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
- * 음암면(音岩面, 면 이름) ; '두루바위' 혹은 '소리나는 바위'가 있음.
- * 쪽다리(도당리, 다리) ; 긴 널조각 하나로 놓은 다리가 있음.
- * 쪽다리들(도당리, 들) ; 쪽다리가 있었음.
- * 쪽다리배미(울목리, 논) ; 쪽다리가 있었음.
- * 한다리(大橋), 대교리(大橋里, 유계리, 마을) ; 큰 다리가 있음.

⑤ 모양 · 크기 · 상태

* 구시울, 구디울(求道洞), 구수동(도당리, 마을) ; 이 마을이 '구유' 처럼 생겼다고 함.

* 각시바위(부장리, 바위) ; 각시처럼 생겼음.

* 길마재, 질마재(鞍峙, 탑곡리, 고개) ; 지형이 길마처럼 생겼음.

* 말목말, 말목(馬項, 상흥리, 마을) ; 지형이 말의 목처럼 생겼음.

* 배틀말(機村, 유계리, 마을) ; 지형이 배틀 같다 함.

* 부다니, 부다리(富多里, 부장리, 마을) ; 지형이 처녀처럼 생겼다 함(혹은 부자가 많았다고 함)

* 사슴머리(鹿頭, 탑곡리, 마을) ; 지형이 사슴의 머리 같다고 함.

* 황소바위(상흥리, 바위) ; 황소처럼 생겼음.

* 와룡송(臥龍松), 와룡정(臥龍亭, 신장리, 소나무) ; 용이 누워 있는 것 같다 함.

* 용머리(말)(부장리, 마을) ; 지형이 용의 머리 같다고 함. 큰 용머리 · 작은 용머리가 있음.

* 명계(明溪, 유계리, 마을) ; 마을 앞의 냇가 맑음.

* 속닷마지기(울목리, 논) ; 닻마지기가 됨.

* 고랫들(부산리, 들) ; 들이 매우 깊.

* 구리바위, 동암(銅岩, 신장리, 바위) ; 구리 성분이 많음.

* 진미, 진피(長山, 성암리, 마을) ; 마을 가운데 뻗어 있는 산등성이가 깊.



〈사진〉 구리바위(銅岩)

- * 한다리(大橋, 유계리, 다리) ; 다리가 큼.
- * 진배미등치(부장리, 논) ; 논이 매우 깊.
- * 진보(長淤, 부장리, 보) ; 보가 깊.
- * 큰용머리(大龍頭, 부장리, 마을)
- * 작은 용머리(小龍頭, 부장리, 마을)
- * 작은 말(小洞), 쇠양머리(문양리) ; 마을이 작음.
- * 반송(盤松, 신장리 소나무) ; 나무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음.
- * 옷샘(부산리, 샘) ; 물이 몹시 차서 옷 오른 데 좋다 함.
- * 옷샘터(신당리, 샘) ; 물이 매우 차서 옷 오른 데 좋다 함.
- * 형제샘터(상흥리, 샘) ; 둘이 나란히 있음.

⑥ 동·식물(動·植物)

- * 가금말(家禽村), 가구말(신장리, 마을) ; 닭·오리 등을 많이 칩.
- * 가금애말(鳥村, 탑곡리, 마을) ; 까마귀가 많음. 앞의 '가금말'의 설명보다 후자가 옳을 듯함.
- * 들림바위(音岩, 문양리, 바위) ; 이 바위에서 소리가 났다고도 함.
- * 가래울(楸洞), 노내동(蘆乃洞, 부장리, 마을) ;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함.
- * 갈재, 가재, 갈터(葛峙), 노티(蘆峙, 상흥리, 고개) ; 짙 혹은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함.
- * 감나무골(柿木洞, 문양리, 마을) ; 감나무가 많음.
- * 구디울(求道洞, 도당리, 마을) ; 구디(꾸지나무;뽕나무)가 많음.
- * 닥목굴(楮洞, 울목리, 마을) ; 뒷산에 닥나무가 많았다 함.
- * 매동(梅洞), 매림동(梅林洞, 신장리, 마을) ; 매화나무가 있음.
- * 면화들(유계리, 들) ; 면화가 잘 났음.
- * 모가울(木瓜洞, 울목리) ; 동구에 모과나무가 있었음.
- * 소란, 솔안(松內), 솔안말(부산리, 마을) ; 마을 앞에 무성한 소나무가 있었다 함.
- * 소란, 솔안(松內), 솔안말(탑곡리, 마을) ; 마을 앞에 무성한 소나무가 있었다 함.
- * 송바위(松岩, 부장리, 바위) ; 큰 소나무 앞에 있음.
- * 오류골(梧柳洞, 신장리, 마을) ;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있었음.
- * 와룡정(臥龍亭, 신장리, 정자) ; 소나무를 정자로 하였음.
- * 밤실(栗谷), 울리(栗里, 울목리, 마을) ; 밤나무가 많았음.
- * 한다리앞밤벌(유계리, 들) ; 밤나무가 많았음.
- * 배시동(排時洞, 울목리, 마을) ; 배나무가 있었다 함.

- * 옷나무굴(漆谷, 신장리, 골짜기) ; 옷나무가 많았음.
- * 자구나무보(부장리, 보) ; 자귀나무가 있었음.

⑦ 관련 인물

- * 단구대(丹丘臺, 유계리, 대) ; 광해군 때 찰방(察訪)을 지낸 단구자(丹丘子) 김적(金積)이 고향으로 와서 님시를 했음.
- * 서울배미(부장리, 논) ; 논 주인이 서울에 살았음. 혹은 논이 좋다고 서울까지 소문이 났음.
- * 송바위(松岩, 부장리, 바위) ; 이 마을 송씨가 이 바위에서 휴식을 취했음. 송씨바위→송바위.
- * 승개산(僧家山), 중째(울목리, 산) ; 중이 이 산을 넘어오다가 굶어 죽었다고 함.
- * 시묘막(侍墓幕), 백토골(白土谷, 부산리, 마을) ; 전에 어떤 효자가 여기서 시묘를 살았음.
- * 왕시랑이(旺時郎, 도당리, 마을) ; 고려 때 왕시랑이 살면서 이 마을에 큰 공이 있었다 함.
- * 장자울, 장재울, 장좌동(長者洞), 장양동(문양리, 마을) ; 예전에 장자(부자)가 살았다고 함.



〈사진〉 단구대
현재는 제방으로 묻혀있다.



〈사진〉 용유대

단구자는 단구대와 용유대간에 선유놀이를 하면서 시를 읊었던 것 같다.

* 장자터, 장주터(長者址) ; 전에 장자가 살았다고 함.

* 처녀바위(處女岩, 상흥리, 바위) ; 이 바위에서 처녀들이 놀았다 함.

* 최효자문(崔孝子門, 도당리) ; 최효자의 효를 기리는 정문이 있음.

⑧ 발생 연원

* 낡은터(舊基), 낡은재(신장리, 터) ; 오래 된 건물의 터가 있음.

* 사태말, 새터말(新垆, 신장리, 마을) ; 새로 생긴 마을임.

* 새터(新垆), 새태, 새터말(문양리, 마을) ; 새로 생긴



〈사진〉 단구유허(丹丘遺墟)라 바위에 새겨져 있다.

마을임.

⑨ 전설 · 풍수설

- * 구시울, 구디울(求道洞), 구수동(도당리, 마을) ; 가야산의 소가 이 곳 구시(구유)에서 쇠죽을 먹고 간 대산에 가서 누웠다고 함.
- * 용못터(부장리, 연못터) ; 전에 이 못에서 용이 나왔다고 함.
- * 이스물(부장리, 마을) ; 전에 이 못에서 이무기가 살았다고 함.
- * 화락(和樂), 화락이(도당리, 마을) ; 지형이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 이라 함. 화락(花落)→화락(和 樂).

⑩ 생산지

- * 광대섭(부산리, 산) ; 광대싸리(黃荊)가 많이 남.
- * 점말(店村, 울목리 · 탑곡리, 마을) ; 전에 질그릇점이 있었음.
- * 황금터(黃金垆, 신장리, 금광터) ; 황금을 캐다고 함.
- * 회천이, 회천말, 회초미(문양리, 마을) ; 회초미(꼬리고사리과의 다년생 양치 식물)가 많았음.
- * 흰돌산, 흰돌광산(울목리) ; 흰 돌을 캐냈음.

10. 운산면(雲山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 * 운산면(雲山面) ; 운천면(雲川面)의 운(雲)과 부산면(夫山面)의 산(山)을 따옴.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 가좌리(佳佐里) ; 운산면 가좌리. 다른 곳에 비해 가재가 많아서 '가재울' 이라고 하던 것을 '가좌리(佳佐里)' 라고 적은 것.
- * 고품리(古豊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및 병합시 고색리(古色里)를 고쳐 명명. 주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가 담겼음.
- * 소중리(小中里) ; 운산면 소중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병합에 의해 소동(小洞)과 중리(中里)의 이름을 따서 이름하였음.

* 안호리(安好里) ; 운산면. 기러기 떼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함. (雁好里) → (安好里)

* 와우리(臥牛里), 누운고개, 우현(牛峴), 와우현(臥牛峴) ; 운산면. 누운고개 밑이 되므로 누운고개 또는 와우현, 우현이라 하였음. 혹은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臥牛形) 같다고도 함.

* 용현리(龍賢里) ; 운산면. 용비동(龍飛洞)과 보현동(普賢洞)의 글자를 땀음.

* 강당이, 강당리(江堂里), 강당동(講堂洞) ;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 동쪽에 있는 마을. 최치원이 글을 가르쳤다는 강당터와 강당사지(江堂寺址)(보원사지)가 있었음.

* 원평리(院坪里), 원벌, 원평(元坪) ; 운산면. 조선조 때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으므로 원벌 또는 원평이라 하였음.

* 태봉리(胎封里), 태봉골, 태봉(胎封) ; 운산면. 본래 서산군 동음암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조 명종의 태가 묻힌 태봉이 있으므로, 태봉골 또는 태봉이라 하였음.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거성리(巨城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거산리(巨山里)와 하성리(下城里)의 이름을 따서 거성리라 함.

* 갈산리(葛山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갈현리(葛峴里)와 산지리(山芝里)의 이름을 따서 갈산리라 했음.

* 고산리(古山里) ; 운산면. 1941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고음곡리(古音谷里)와 두산리(斗山里)를 병합하여 고산리라 했음.

* 상성리(上城里) ; 운산면.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촌동(上村洞)과 성동(城東)의 이름을 따서 상성리라 함.

* 수당리(壽堂里) ; 운산면.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장수동(下長壽洞)과 상묵당리(上墨堂里)의 이름을 따서 수당리라 함.

* 수평리(壽坪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상장수동(上長壽洞)과 와평리(瓦坪里)를 땀음.

* 신창리(新昌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동신리(東新里)와 고창동(高昌洞)의 이름을 땀음.

* 용장리(龍獐里) ; 운산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용연리(龍淵里)와 장항리(獐項里)의 이름을 따서 용장리라 함.

* 원벌리(元伐里) ; 운산면. 1941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금리(元金里)와 벌리(伐里)의 이름을 따서 원벌리라 하였음.

* 팔중리(八中里) ; 운산면. 팔곡리(八谷里)와 중산리(中山里)의 이름을 땀음.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동·서·남·북

- * 동거리(東巨里) ; 운산면 소중리. 소동 남쪽에 있는 마을. 거리가 동쪽으로 길게 뻗었음.
- * 동신리(東新里) ; 운산면 신창리. 고창골 동쪽의 마을. 마을 동쪽에 새로 생긴 동네라 함.
- * 성동리(城東里), 잿등말 ; 운산면 상성리. 성의 동쪽에 있는 마을.
- * 서촌(西村) ; 운산면 원벌리. 벳말 서쪽에 있는 마을.
- * 남리동(南里洞)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남쪽에 있는 마을. 남쪽에 위치했음.
- * 북리동(北里洞)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북쪽의 마을. 북쪽에 위치했음.
- * 북정골(北井谷) ; 운산면 태봉리. 문수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안, 가운데(中), 구석, 너머, 뒤

- * 안골(內谷) ; 운산면 태봉리. 태봉 북쪽의 골짜기. 산골 깊은 곳에 있는 골짜기 입.
- * 안터, 내기(內基) ; 운산면 와우리. 와우리 2구 암소고개 안쪽에 있는 마을.
- * 이문안(里門內) ; 운산면 여미리. 이문(里門)안에 있는 마을.
- * 중들 ; 운산면 수평리. 원마루와 장사목골 중간에 있는 들.
- * 중리(中里)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남쪽의 마을. 부락의 중심에 있음.
- * 중미(말), 중산(中山) ; 운산면 팔중리. 팔중리에서 가장 큰 마을. 산 중허리에 있음. 혹은 마을이 중미(산) 밑에 있음.
- * 구억말, 구억촌 ; 운산면 원벌리. 벳말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넘어말(躑村) ; 운산면 여미리.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 * 산지(山芝) ; 운산면 갈산리. 좌세 북쪽의 마을. 산뒤(山後).

○ 위(上), 아래(下), 밑

- * 윗남댕이, 상남당(上南堂) ; 운산면 가좌리. 남댕이 위쪽에 있는 마을.
- * 윗말, 상촌(上村) ; 운산면 거성리. 큰말 위쪽에 있는 마을.
- * 웃말, 상촌(上村)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
- * 위산밑(上山底)(말), 상흑당리(上黑堂里), 상흑(上黑) ; 운산면 수당리. 산밑 위쪽에 있는 마을.

- * 윗장터(上場址) ; 운산면 여미리 마을에 있던 장터.
- * 상촌리(上村里), 상촌말, 윗말 ; 운산면 상성리. 궁촌 북서쪽의 마을. 지형적으로 위쪽에 있는 동네임.
- * 아랫고빛, 음산말 ; 운산면 고평리. 고빛 아래쪽에 있는 마을. 응달이 집.
- * 아래남댕이(南塘里), 하남당(下南塘) ; 운산면 가좌리. 가좌리 1구 남댕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 남쪽의 방죽 앞에 있음.
- * 아랫말, 하촌(下村)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아래산밑(말), 하산저(下山底), 하흑(下黑), 하흑당리(下黑堂里) ; 운산면 수당리. 산밑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하촌말, 하촌동(下村同) ; 운산면 상성리. 상촌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산밑(말), 산저(山底), 흑당(黑堂) ; 운산면 수당리. 바위배기산 밑에 있는 마을.
- * 창밑(倉下) ; 운산면 상성리. 궁말 서쪽의 마을. 창고 밑에 있는 마을임.

② 위치

○ 양지(陽地)

- * 양지말, 양촌(陽地村) ; 운산면 와우리. 모촌 서쪽에 있는 마을. 양지 바름.
- * 양지말, 양지촌(陽地村), 중리(中里) ; 운산면 소중리. 소중리에서 가장 큰 마을. 양지쪽임.
- * 윗고빛, 양지말 ; 운산면 고평리. 고빛 위쪽에 있는 마을. 양지쪽이 됨.
- * 양지말(陽村, 陽地村) ; 운산면 거성리 1구 마을. 양지쪽에 있음.
- * 양지말(陽地村) ; 운산면 갈산리. 갈산리 1구 마을. 마을이 양지쪽에 있음.

○ 음지(陰地)

- * 음산말(陰散村), 아래고빛 ; 운산면 고평리. 고색 아래쪽의 마을. 음산한 음지쪽에 있음.
- * 음산말(陰散村) ; 운산면 소중리. 소중리 2구 마을. 음산한 음지쪽임.
- * 음지말, 음촌말, 음촌(陰村, 陰地村) ; 운산면 거성리. 거성리 1구 양촌말 남쪽에 있는 마을. 음지쪽에 있음.

○ 벌판

- * 벌말(伐里), 평촌(坪村) ; 운산면 안호리. 고창골 서남쪽, 골말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 벌말에 위치해 있음.
- * 벌말(坪村) ; 운산면 수당리. 산밑 서쪽 벌판에 있는 마을.

* 별말(坪村), 별들, 별장(筏場) ; 운산면 거성리. 양촌말 남쪽 별판에 있는 마을.

* 벗말, 벌말, 벌리(伐里) ; 운산면 원벌리. 원벌리에서 가장 큰 마을. 벌판에 있는 마을.

○ 기타 위치

* 가루고개, 갈현(葛峴), 갈현동(葛峴洞), 가를 ; 운산면 갈산리. 가루고개 밑에 있는 마을.

* 거성농장마을(巨城農場) ; 운산면 거성리. 거성농장 주변에 생긴 마을.

* 구룡고개, 구룡현(九龍峴) ; 운산면 안호리. 운산면 수당리, 안호리에서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 궁벌(宮坪), 궁벌말 ; 운산면 용장리. 장벌 북쪽의 마을. 궁벌 앞의 마을임.

* 까치말골 ; 운산면 소중리. 까치말 뒤에 있는 골짜기.

* 당밀산 모랭이, 모롱이 ; 운산면 고산리. 당밀산 북쪽에 있는 모롱이.

* 말산, 두산(斗山)(말) ; 운산면 고산리. 말산 밑에 있는 마을.

* 모래고개(沙峴), 모래고개말 ; 운산면 갈산리. 모래고개 아래의 마을.

* 무르티, 무로티(舞老峙), 무릉티(舞陵峙) ; 운산면 갈산리. 무르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 무릉대(武陵臺), 무릉동(武陵洞) ; 운산면 고평리. 무릉대(군자동 남쪽에 있는 돈대) 밑에 있는 마을.

* 문수동(文洙洞) ; 운산면 태봉리. 태봉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문수사 밑에 있음.

* 문수사(文洙寺) ; 운산면 태봉리. 문수동에 있는 절. 문수산 밑이 됨.

* 바위배기 느티나무 ; 운산면 수당리. 바위배기 마을 북판에 있는 느티나무.

* 바위배기 ; 운산면 수당리. 바위배기 산밑에 있는 마을.

* 배티(梨峙)(말) ; 운산면. 중미 북쪽의 마을. 배티 밑에 있음.

* 벼락바윗들 ; 운산면 고산리. 벼락바위 밑에 있는 들.

* 불당골산, 불당곡산(佛堂谷山) ; 운산면 소중리. 불당골 뒤에 있는 산.

* 석천말(石川村) ; 운산면 거성리. 음지말 서남쪽의 마을. 하상(河床)에 돌이 많은 석천(石川) 옆에 있는 마을.

* 송복동(宋伏洞) ; 운산면 갈산리. 송보동(宋湫洞) 송보가 있는 마을.

* 식물원(植物園), 식물원마을 ; 운산면 소중리. 양지촌 동쪽의 마을. 식물원을 만들면서 생긴 마을.

* 암소고개(雌牛峴)(말) ; 와우리 남쪽의 마을. 암소고개 밑에 있음.

* 으름재(말), 의현(義峴), 잿벌 ; 운산면 원평리. 으름재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산골이 깊어 으름과 다래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

* 오수리 모탕이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동북쪽에 있는 모룽이. 수당리의 오소리로 통하는 길이 있음.

* 원산(元山)(말) ; 운산면 원평리. 원벌 위쪽의 마을. 원산(元山) 밑에 있음.

* 장벌, 장평리(場坪里)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북쪽에 있는 마을. 시장이 섬.

* 갯들(城洞), 갯들말 ; 운산면 상성리. 갯들 앞의 마을.

* 참샘 모랭이 ; 운산면 와우리. 참샘골에 있는 모룽이

* 태봉리(胎封里), 태봉골, 태봉동, 태봉 ; 운산면. 마을 뒷산에 태봉이 있음

* 홍한벌(鴻雁坪), 홍안이벌 ; 운산면 상성리. 홍안마을 앞의 들.

* 황샘말, 한샘말(大井洞) ; 운산면 소중리. 소중말 남쪽의 큰샘 앞에 있는 마을.

* 소중리 저수지(小中里貯水池) ; 운산면 소중리. 소중리 중앙에 있는 못.

* 오소리 다리, 오소교(鳥巢橋), 수당교(壽堂橋) ; 운산면 수당리. 오소리 앞에 있는 다리. 수당리에 있는 다리이기도 함.

* 운산교(雲山橋) ; 운산면 용장리. 장벌 동쪽에 놓인 다리. 운산리에 놓인 다리.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절

* 보현동(普賢洞) ; 운산면 용현리. 용현리 중심 마을. 동쪽에 보원사가 있었음.

* 보원사터(普願寺址) ; 운산면 용현리 2구 강대이골에 있는 절터.

* 불당골, 불당곡(佛堂谷) ; 운산면 소중리. 소중말 동쪽에 있는 마을. 불당이 있었음.

* 삼절, 삼사동(挿寺洞) ; 운산면 와우리. 누운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 삼사라는 절이 있었다 함.

* 새절(말), 신사(新寺)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 새로 절을 지었음.

* 궁말(宮村) ; 운산면 상성리. 궁 앞에 이루어진 마을. 지난 날 이곳에 큰 건물이 있었음.

* 사당재(祠堂峴) ; 운산면 여미리. 고개 마루에 조선조 2대 정종의 4남 선성군의 사당이 있음.

* 서당골(書堂谷) ; 운산면 여미리. 서당이 있음.

* 원당골(院堂谷)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원집이 있음.

* 원마루, 원말(院洞), 원종(元宗) ; 운산면 수평리. 장사목골(장수동)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때 행인의 편의를 돌보아 주는 원집이 있었음.

* 정문거리, 좌세(佐世), 정문동(旌門洞) ; 운산면 갈산리. 갈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안동 김씨의 정문이 있음. 좌세리(佐世里)의 본디 마을.

* 창산(倉山), 창채산 ; 운산면 상성리. 큰 말 서쪽에 있는 산. 산기슭에 창고가 있었는데 현재 구 주춧돌이 그냥 남아 있음.

* 초막골(草幕谷) ; 운산면 여미리. 초막(草幕)이 있던 골.

* 향교골(鄉校洞) ; 운산면 여미리. 향교 밑에 있는 마을.

○ 속성(屬性)

* 참샘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북쪽에 있는 샘. 물이 매우 참.

* 참샘, 냉천(冷泉) ; 운산면 와우리. 누운고개 서쪽에 있는 샘. 물이 매우 참.

* 냉천 ; 운산면 용현리. 갈동 남쪽에 있는 샘. 물이 아주 참.

○ 사연

* 갯이논 ; 운산면 팔중리. 배암산 밑 북쪽에 있는 논. 갯이로 파서 만들었다 함.

* 고창골(高昌洞) ; 운산면 신창리. 신창리의 중심 마을. 앞으로 번창하라는 뜻.

* 대문동(大門洞)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남쪽의 마을. 큰 대문달이 집이 있음.

* 도두람지, 도두리 ; 운산면 용현리. 갈동 서쪽에 있는 마을. 해돋이가 됨.

* 만세봉(萬歲峯) ; 운산면 용현리. 갈동 동쪽에 있는 봉우리. 기미년 독립운동 때 이 봉우리에서 만세를 불렀음.

* 두래삼 ; 운산면 와우리. 열두마지기는 북쪽에 있는 샘. 두레로 물을 품.

* 물레방앗골 ; 운산면 신창리. 고창골 남쪽의 골짜기. 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음.

* 백년안삼 ; 운산면 원벌리. 구억말 한가운데의 샘. 하열동온(夏冽冬溫)의 이름 난 샘이 100년간 내려옴.

* 벼락바위(落雷岩) ; 운산면 고산리. 곰실 앞산 밑 길 옆에 있는 바위. 여러 조각이 나서 있는데, 벼락을 맞았다 함.

* 사백냥짜리샘 ; 운산면 갈산리. 회선동 북쪽에 있는 샘. 물이 잘 나서 아무리 가물어도 줄지 아니하므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4백냥에 매매가 되었다고 함.

* 실티고개, 슬티(瑟峙)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동남쪽에 있는 고개. 예산군 봉산면 슬리로 감. 땀을 흘리고 이 고개에 오르면 바람이 슬슬(瑟瑟)불어와 땀을 식힌다 함.

* 애끼밧들 ; 운산면 소중리. 황샘 서남쪽에 있는 들. 농사 짓다가 가물면 애태운다 함.

* 으름재, 의현(義峴), 잿벌 ; 운산면 원평리. 원벌 남쪽에 있는 큰 고개. 예산군 덕산면으로 넘어가는데 산이 험해서 으름과 다래가 많이 아는 산이므로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넘어다녔다 함.

* 태봉산(胎封山), 태봉(胎封) ; 운산면 태봉리. 태봉골 뒤에 있는 산. 조선조 제 13대 명종의 태를 봉하였음.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국사당, 신당, 산제당, 서낭당.

* 국사봉(國師峰) ; 운산면 고산리. 웅곡(熊谷) 서쪽의 산. 국사당이 있음.

* 국수봉(國守峰) ; 운산면 팔중리. 황새바위 밑에 있는 야산. 국사당(國師堂)이 있음.

* 당고랑(堂谷) ; 운산면 팔중리. 팔곡과 중미 사이에 있는 마을. 신당(당집)이 있었음.

* 당밑산 ; 운산면 고산리. 고산리와 팔중리에 걸쳐 있는 산. 산제당이 있었음.

* 당재, 당재, 당현(堂峴), 당현동(堂峴洞), 당재말 ; 운산면 수당리. 오소골 동쪽에 있는 마을. 산제당(당집)이 있음.

* 서낭당이 ; 운산면 고평리. 윗고빛 양지말 동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서낭댕이고개, 모래고개, 사현(沙峴) ; 운산면 가좌리. 가재울에서 갈산리 갈현으로 넘어가는 고개. 왕모래가 많음. 서낭당이 있음.

* 서낭댕이고개 ; 운산면 상성리. 용장리로 넘어가는 고개. 서낭당이 있음.

* 산제당(山祭堂) ; 운산면 수당리. 바위배기 느티나무 앞의 산기슭에 있는 당집. 산제당이 있음.

○ 샘, 둥벙, 온천.

* 남정골, 남정곡(南井谷) ; 운산면 태봉리. 문수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남쪽 골짜기에 샘이 있음.

* 둥벙배미 ; 운산면 팔중리. 배암산 남쪽에 있는 논. 전에 둥벙이 있었음.

* 둥벙배미, 두멍배미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남쪽에 있는 논. 둥벙이 있음.

* 온전굴, 온천굴(溫泉洞), 온전동(溫田洞) ; 운산면 가좌리. 반장터 남쪽에 있는 마을. 온천이 있었다 함.

* 골말, 곡촌(谷村), ; 운산면 안호리. 안호의 서쪽 마을. 골짜기에 이루어진 마을.

* 골말(谷村) ; 운산면 갈산리. 회선동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구터(舊基) ; 운산면 여머리. 과거 여머현 때의 관청이 있던 터.

* 노루목, 장항(獐項), 장항리(獐項里) ; 운산면 용장리. 장벌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 함.

* 모래고개(沙峴) ; 운산면 갈산리. 갈산리에서 가재울로 넘어가는 고개. 모래가

많아 여름 우기(雨期)에는 사태가 남.

* 무디울(丘村), 무띠울, 산지(山芝) ; 운산면 갈산리. 정문거리 북쪽의 마을. 마을이 경사진 곳에 있음. 무디 ; '언덕'의 옛말.

* 미력벌(彌坪洞), 미평동(彌坪洞)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동쪽 벌판에 있는 마을. 미룩불이 있음.

* 바위배기 ; 운산면 수당리. 당째 남쪽에 있는 산. 바위가 많이 박혀 있음.

* 산수동(山水洞) ; 운산면 용장리. 먹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 산과 물이 좋음.

* 삼거리(三巨里) ; 운산면 용장리. 장벌 옆에 있는 길. 해미, 서산, 면천으로 가는 길이 세 갈래로 되어 있음.

* 수랑배미, 수렁배미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남쪽에 있는 논. 수랑(수렁)이 있음.

* 초당터(草堂址) ; 운산면 수평리. 옛벌 서쪽 문수산에 있는 초당의 터. 전에 글 읽던 곳이라 함.

* 평밭 ; 운산면 팔중리. 배암산 동쪽에 있는 밭. 평평함.

⑤ 모양·크기·상태

○ 구유(槽), 말(斗), 북(鼓), 상여(喪輿), 일산(日傘)

* 장사목골, 장수목골, 장수동(長壽洞), 장사동(長蛇洞), 장수골 ; 운산면 수평리. 원마루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뱀의 목 또는 장사의 목(長蛇項)처럼 생겼다 함.

* 구시울 ; 운산면 와우리. 모촌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구시(구유)처럼 생겼다 함.

* 누운고개, 와우현(臥牛峴) ; 운산면 와우리. 누운고개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함.

* 말산, 두산(斗山), 두티(斗峙), 말티 ; 운산면 고산리. 곰실 남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 함.

* 바디산 ; 운산면 수평리. 원마루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바디처럼 생겼다 함.

* 북산 ; 운산면 수평리. 원마루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북처럼 생겼다 함. 일설은 산중에서 북소리가 난다고 함.

* 상여바위(喪輿岩) ; 운산면 고산리. 면암산(棉岩山) 북쪽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모양이 상여와 같다고 함.

* 일산봉(日傘峰) ; 운산면 고산리. 말산 북쪽의 산. 모양이 일산(日傘)처럼 생겼다 함.

* 마릿들(頭坪) ; 운산면 안호리. 잔등벌 서쪽에 있는 들. 지대가 조금 높음. 또

는 규모가 큼.

- * 큰말(大村) ; 운산면 여미리. 다른 마을에 비해 규모가 큼.
- * 큰말, 대촌(大村) ; 운산면 거성리. 거성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을임.
- * 한샘(大井), 황샘 ; 운산면 소중리. 소중말 남쪽의 큰 샘.
- * 쉬운다랭이(五十畓) ; 운산면 고산리. 말산 남쪽에 있는 논. 다랑이가 50이 됨.
- * 원질바위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남쪽에 있는 바위. 높이가 원 길(五十丈)이나 된다 함.
- * 열두마지기논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남쪽에 있는 논. 논이 열두 마지가 됨.
- * 열두마지기배미 ; 운산면 수평리. 장사목골 서남쪽에 있는 들. 열두마지기가 됨.
- * 팔곡(八谷) ; 운산면 팔중리. 중미 남쪽의 마을. 주변 8개의 마을로 이루어졌음.
- * 소동말(小洞) ; 운산면 소중리. 소중말 동쪽의 마을. 마을의 규모가 작았음.
- * 쌍룡폭포(雙龍瀑布) ; 운산면 원평리. 원당굴 남쪽에 있는 폭포. 비가 오면 두 갈래의 물이 폭포를 이룸.

⑥ 동·식물(動·植物)

○ 동물(곰, 까치, 매미, 수리, 까마귀, 기러기, 황새)

- * 곰실(熊谷), 고음실(古音谷) ; 운산면 고산리. 고산리의 중심마을. 옛날에 곰이 살았음.
- * 까치말, 작동(鵲洞) ; 운산면 소중리. 소동 서쪽에 있는 마을. 까치가 많이 삶.
- * 매미골(蟬谷) ; 운산면 신창리. 고창골 동쪽의 마을. 매미가 유난히 시끄럽게 음.
- * 수리봉(鳶峰) ; 운산면 고산리. 일산봉 서쪽에 있는 야산. 수리가 살고 있었음.
- * 오소리(烏巢里) ; 운산면 수당리. 당재 서쪽의 마을. 마을에 까마귀가 많이 살았음.
- * 홍안(鴻雁), 홍안말 ; 운산면 상성리. 갯들 서쪽의 마을. 마을에 기러기가 날아듦.
- * 황새바위, 관암 ; 운산면 팔중리. 중미 서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황새처럼 되었다 함. 혹은 황새가 많이 앉았음.

○ 식물(취, 고비, 띠, 부들, 조피, 피, 후박)

* 가루고개(葛峴) ; 운산면 갈산리. 갈산리에서 태봉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 주변에 칩이 무성했음.

* 갈고개(葛峴)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 남쪽의 고개. 고개마루에 칩이 무성했음.

* 갈골(葛洞), 칩골 ;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 서쪽의 마을. 마을 어귀에 칩이 많았음.

* 고비실, 고빋, 고빋(高色) ; 운산면 고힌리. 고힌리의 중심 마을. 고비(고비과 ; 薇科의 다년생 식물. 어린 잎은 식용함)가 많이 자랐음.

* 모촌(茅村), 띠밭말 ; 운산면 와우리. 삼절 동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어귀에 띠밭이 있어 띠가 많음.

* 부들배미(蒲菴) ; 운산면 수평리. 피논들 북쪽에 있는 논. 부들(풀)이 많이 자랐음.

* 죄핏골 ; 운산면 용장리. 용못 동쪽에 있는 골짜기. 죄피나무가 많았음.

* 피논들 ; 운산면 수평리. 장수논 남쪽의 들. 논배미에 피(稗)가 많았음.

* 후박골, 호박골 ; 운산면 와우리. 암소고개와 누운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 후박나무가 있었다 함.

⑦ 관련 인물

* 군장동, (軍莊洞) ; 운산면 고힌리. 고비실 서북쪽의 마을.

* 대성(大聖), 대성말 ; 운산면 원평리. 원벌 서쪽의 마을. 이 마을에 성인(聖人)이 살았었다 함.

* 송보(宋洑) ; 운산면 갈산리. 숙룡골 서쪽에 있는 보. 옛날에 송씨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어 독을 쌓고 보를 냈음.

* 주가바위(周哥岩) ; 운산면 여미리. 이 마을에 살던 주씨가 일하다가 쉬던 바위라고 함.

⑧ 발생 연원

* 새터(新垔), 새대, 새터말 ; 운산면 상성리. 갯들 북쪽에 새로 된 마을. 새로 생긴 마을.

* 새터(新垔), 새터말 ; 운산면 신창리. 교창골 서쪽의 마을. 새로 생긴 마을.

* 신동(新洞) ; 운산면 소중리. 까치말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

* 구갈골(舊葛谷), 구갈곡(舊葛谷) ; 운산면 용현리. 갈골 남쪽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갈골이 처음에는 이곳에 있었음.

* 원안호(元安好) ; 운산면 안호리. 안호의 원마을.

⑨ 전설 · 풍수설

- * 무르티, 무로티(舞老峙), 무릉티(舞陵峙) ; 운산면 갈산리. 회선동 서북쪽의 고개. 고개의 모습이 노인이 춤추는 형국이라 함.(풍수지리설)
- * 배암산 ; 운산면 팔중리. 중미 가운데 있는 산. 배의 형국이라 함.
- * 숙룡골(宿龍洞), 숙룡평리(宿龍坪里) ; 운산면 갈산리. 회선동 남쪽의 마을. 마을 지형이 용이 자고 있는 형(宿龍形)이라 함.
- * 옥녀봉(玉女峯) ; 운산면 수평리. 원마루 뒤 북쪽에 있는 산.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이라 함.
- * 용나름, 용비동(龍飛洞) ;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 남쪽에 있는 마을. 용나름 못이 있음. 뒷산에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다 함.
- * 용못(말), 용연(龍淵), 용연리(龍淵里) ; 운산면 용장리. 용장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용이 나왔다고 하는 못이 있음.
- * 인바위, 인암(印巖) ; 운산면 용현리. 서산 마애삼존불상 건너편에 있는 바위. 사면이 돌로 누벼져 있고 이끼가 끼어 있는데, 상왕(象王)의 말(斗)만한 인장을 바위 속에 넣었다 함.
- * 회선동(會仙洞) ; 운산면 갈산리. 갈산리 2구 마을. 신선이 살던 동네라고 함.
- * 도당골(陶堂谷) ; 운산면 여미리. 질그릇을 구웠음.
- * 뒷점말, 독경말, 독경촌(讀經村), 독점말 ; 운산면 안호리. 안호 북쪽에 있는 마을. 독(糞) 만드는 점이 있었음.
- * 점골 ; 운산면 수평리. 옛벌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그릇을 구웠음.
- * 점말(店村) ; 운산면 여미리. 용기점이 있었음.
- * 구르고개 ; 운산면 용현리. 용현리에서 신창리로 넘어가는 고개. 전에 구리가 나왔다 함.
- * 원금리(元金里) ; 운산면 원벌리. 벌말 남쪽의 마을. 옛날부터 이 마을에서 채금(採金)을 하였음.
- * 떡고개, 묵현리(墨峴里) ; 운산면 용장리. 미력벌 남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떡을 만들었다 함.
- * 사기점(沙器店), 거문개점 ; 운산면 거성리. 거문개에 있는 마을. 사기점이 있었음.
- * 사기점터(沙器店址) ; 운산면 고산리. 말산 북쪽에 있는 터. 사기점이 있었음.
- * 솟점터 ; 운산면 고산리. 말산 중앙에 있는 터. 전에 술을 만들었음.
- * 지아배미 ; 운산면 안호리. 뒷점말 동쪽에 있는 논. 전에 지아(기와)를 구웠던 곳임.
- * 왜벌말, 옛벌, 와평리(瓦坪里), 와동(瓦洞) ; 운산면 수평리. 장사목골(長壽

洞)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기와를 굽던 곳임.

* 바지울 ; 운산면 여미리. 이 마을에서 기업(機業)이 성했음.

* 상가리(上佳里) ; 운산면 가좌리. 가재울 위쪽에 있는 마을. 누에를 많이 쳐서 상가리(桑稼里)라 하였다가 상가리(上佳里)로 적었음.

11. 해미면(海美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해미면(海美面) - 옛 정해현(貞海縣)의 해(海)와 여미현(餘美縣)의 미(美)를 땀음.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귀밀리(貴密里) ; 귀밀(귀리, 燕麥, 耳麥, 鑛麥, 雀麥)을 많이 재배했음. (해미면)

* 가지리(機池里) ; 지형이 배틀처럼 생겨서 혹은 유달리 기업(機業)이 성해서 배틀실 또는 베트실, 기지(機池)라 하였다 함. (해미면)

* 동암리(冬岩里) [역말, 역촌, 몽웅역] ; 백제의 몽웅향(夢熊鄉), 고려로부터 조선조까지 몽웅역이 있었으므로 역말, 역촌, 몽웅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역말의 이름을 피하여 동암리라 하였음. (해미면)

* 석포리(石浦里), 돌개, 석포 ; 뒤에는 돌이 둘러 있고 앞에는 개가 있으므로 돌개 또는 석포라 하였음. (해미면)

* 양림리(良林里) ;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상구리(上舊里), 하구리(下舊里), 그리고 석교리(石橋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이명(里名)을 개칭했음. (해미면)

* 웅소성리(雄梳城里), 어리성리, 어리성, 웅소성 ; 어리성 밀이 되므로 어리성, 어리성리 또는 웅소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웅소성이라 함. '웅소성'은 '어리성'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즉 '웅소'(雄梳)는 '어리'('얼레빗'의 준말로 '수빗'이라고도 함)의 표기다. '참빗'은 '암빗'·'자소'(雌梳)라고 한다. 웅소성은 지형이 얼레빗같이 생겼다고 함. (해미면)

* 읍내리(邑內里), 읍내 ; '읍'(邑)이란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관청이 있었던 마을이란 뜻. 본래 해미군의 군청이 있었으므로 읍내라 하였음. '읍내'란 '고을안'의 뜻. 줄여서 '읍'이 됨. (해미면)

* 응평리(鷹坪里), 매벌, 응평 ; 매혹으로 된 벌판이므로 매벌 또는 응평이라 하였음. 혹은 마을 앞 판에 매떼가 날아들므로 '매벌'이라 했다고도 함. (해미면)

* 저성리(猪城里), 도투성, 저성 ; 이 마을에 있는 성(城)의 자리가 돼지(猪)의 형국이라 하여, 혹은 지형이 두툼하므로 도투성 또는 '저성'이라 하였다 하나 믿기지 않음. '돌/독/돌:石'에 유의하면 '石城' (해미면)

* 전천리(前川里), 전천, 전내 ; 해미천이 앞에 있으므로 '앞내말', '전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천리라 함. (해미면)

* 조산리(造山里), 조산(造山) ;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이 허하여 생기가 이곳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보(裨補)의 뜻으로 인공(人工)의 산을 만들고 숲을 길렀으므로 조산(造山)이라 하였음. (해미면 조산리)

* 휴암리(休岩里), 부엉바위, 휴암(休鳥 岩) ; 부엉바위가 있으므로 부엉바위 또는 휴암(休鳥 岩)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휴암리(休岩里)라 함. (해미면)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관류리(館柳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기리(館基里)와 하류곡리(下柳谷里)를 병합하여 관류리라 했음. (해미면)

* 대곡리(大谷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티리(大峙里)와 심곡리(深谷里)의 이름을 따서 대곡리라 함. (해미면)

* 반양리(潘陽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반계리(潘溪里)와 만양리(晩陽里)를 병합하여 반양리라 함. (해미면)

* 산수리(山水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산리(堂山里)와 수원리(水源里)를 병합하여 산수리라 함. (해미면)

* 삼송리(三松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봉리(三峰里), 송티리(松峙里)의 이름을 따서 삼송리라 함. (해미면)

* 억대리(億垞里), 업터지, 억대 ; 본리 업터지 또는 억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억대리라 함. '업'이란 '한 가정의 수호신이나 동물(구렁이, 두꺼비 등)'을 말함. 따라서 '수호'(守護)의 터(垞)+지(地)인 듯함. 억(億) 채의 집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터라고 하는 데서 왔다고 함은 전강임. (해미면)

* 언암리(堰岩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언내리(堰內里)와 칠성암리(七星岩里)의 이름을 따서 언암리라 함. (해미면)

* 오학리(烏鶴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동(烏洞)과 백학동(白鶴洞)을 병합하여 오학리라 함. (해미면)

* 홍천리(紅泉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분홍리(分紅里)와 천곡리(泉谷里)의 이름을 따서 홍천리라 함. (해미면)



〈사진〉 수원동

* 황락리(皇洛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조촌(皇朝村)과 일락촌(日洛村)을 병합하여 황락리라 함. (해미면)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 * 동면(東面) ; 해미면(海美面)의 옛 이름. 해미읍내의 동쪽임. (서산시 해미면)
- * 동미(東山), 동미말 ; 홍천리 1구 마을. 동미(東山) 밑에 있음. (해미면 홍천리)
- * 동문밖(東門-) ; 해미읍성 동문밖에 있는 마을. (해미면 읍내리)
- * 서문밖(西門-) ; 해미읍성 서문밖에 있는 마을. (해미면 읍내리)
- * 서쪽내(西川) ; 귀밀마을 서쪽의 내. (해미면 귀밀리)
- * 서바탕이(西場), 서빠팅이, 석천 ; 샘골 서쪽에 있는 마을. 서바탕(서쪽에 있는 넓은 들) 앞에 있음.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닐 때 세번째 쉬어 가던 곳. (해미면 홍천리)
- * 남문앞(南門前) ; 읍내리 3구의 마을. 진남문(鎭南門) 앞에 있음. (해미면 읍내리)
- * 진남루(鎭南樓), 홍예문 ; 해미읍성의 남문에 건립된 문루(門樓). 남쪽에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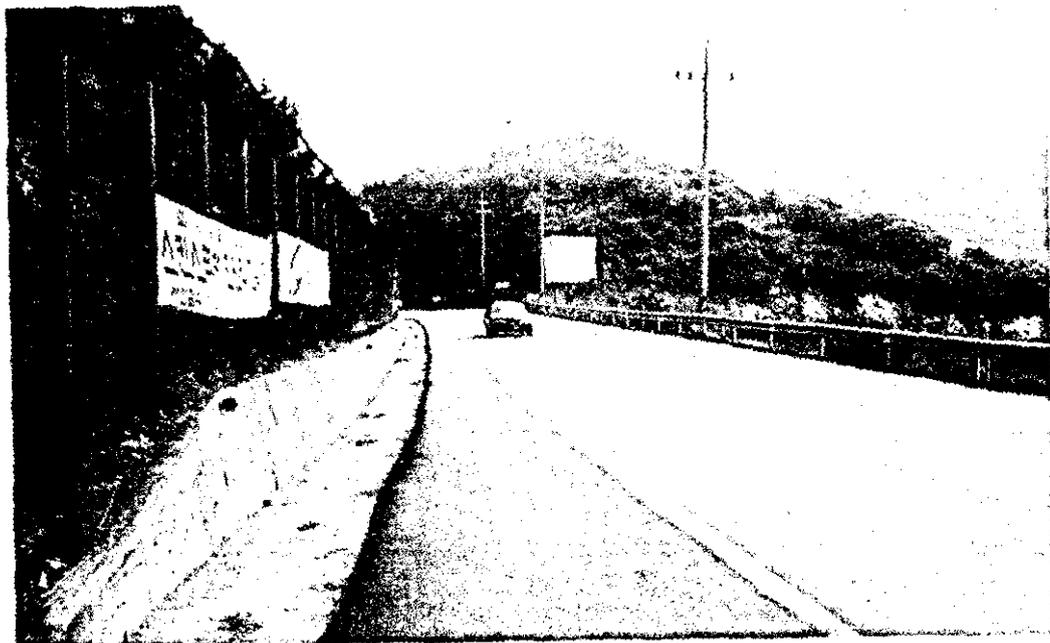
는 살기(殺氣)를 진압한다는 뜻. (해미면 읍내리)

- * 노상(路上) : 읍내 동북쪽에 있는 마을. 큰길 위쪽이 됨.
- * 윗말(上村), 상구(上舊) : 구리(舊理) 위쪽의 마을. (해미면 양림리)
- * 윗말(上村) : 반양리 1구, 안말 위쪽에 있음. (해미면 반양리)
- * 윗말(上村) : 지형상으로 위쪽에 있는 동네임. (해미면 동암리)
- * 윗말(上村) : 도투성 위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저성리)
- * 윗방골(上方谷) : 한티의 위쪽 골짜기. 위쪽에 있음. (해미면 대곡리)
- * 위버드실, 상류곡(上柳谷), 상류곡리(上柳谷里) : 버드실 위쪽에 있는 마을. 아래버드실은 관류리에 있음. (해미면 삼송리)
- * 윗전내, 상전천(上前川) : 전내말 위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전천리)
- * 위터골(上基洞) : 삼송리 1구 마을. 마을 위쪽에 터를 잡고 있음. (해미면 삼송리)
- * 아래관터(下館基), 하류곡리(下柳谷里) : 관터 아래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관류리)
- * 아랫골(下洞) : 주된 마을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억대리)
- * 아랫말(下村) : 지형상으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임. (해미면 동암리)
- * 아랫말(下村), 하구(下舊) : 구리마을 아래쪽의 마을. (해미면 양림리)
- * 아랫말(下村) : 반양리 2구, 안말 아래쪽에 있음. (해미면 반양리)
- * 아래버드실 : 관류리(館柳里)에 있음.
- * 아랫전내(下前川) : 전내마을의 아래에 있음. (해미면 전천리)
- * 노하(路下) : 노상 마을의 남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읍내리)
- * 장아래(帳下), 장막아랫들 : 업터지 북쪽의 들. 들판의 위치가 장막(帳幕) 아래에 있음. (해미면 억대리)
- * 안골(內洞), 안말 : 당산마을 안쪽의 마을. (해미면 산수리)
- * 안골 : 안말. (해미면 기지리)
- * 안골(內洞) : 가좌 서쪽의 마을. 안쪽에 위치한 마을임. (해미면 석포리)
- * 안말(內洞) : 마을 안쪽에 있는 동네임. (해미면 동암리)
- * 속뜸(內村) : 분홍 마을 북쪽의 마을. 마을 위치가 안쪽임. (해미면 흥천리)
- * 송뜸, 속뜸(內村), 속말, 송말 : 대곡리 2구. 짚으실 안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대곡리)
- * 개안뜰(浦內坪) : 귀밀마을 남쪽의 들. 들판이 개(浦) 안쪽에 있음. (해미면 귀밀리)
- * 성안, 성내(城內) : 해미읍성 안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읍내리)
- * 언안, 언내 : 언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 언(獨) 안쪽이 됨. (해미면 언암리)
- * 중보(中泐) : 조산 동쪽의 보. 마을 가운데에 자리한 보. (해미면 조산리)

- * 앞골(前洞), 앞골 ; 어리성 앞의 마을. (해미면 웅소성리)
- * 앞들(前野) ; 기지 앞의 들. (해미면 기지리)
- * 앞말(前洞) ; 기지리 1구 마을. 동구 앞에 있는 마을. 일설은 안말(內洞 ; 기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도 하나 잘못임. (해미면 기지리)
- * 뒷골(後洞), 뒷골 ; 어리성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해미면 웅소성리)
- * 뒷냇갈(後川) ; 업터지의 뒤쪽에 흐르는 내. (해미면 억대리)
- * 뒷논보(後畚漑) ; 업터지 뒷논에 딸린 보. (해미면 억대리)
- * 면학골뒷봉(眠鶴洞後峰) ; 면학골 뒤쪽의 산. (해미면 기지리)
- * 건너뜸 ; 대곡리 2구. 마을의 위치가 시내 건너편에 있음. (해미면 대곡리)
- * 너머말(越村) ; 기지리 1구의 마을. 안골말에서 보았을 때 안골 등성배기 너머에 있는 마을. (해미면 기지리)
- * 갓골, 개채곡(芥菜谷) ; 물방아거리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에 갓(芥菜)이 무성함. (해미면 휴암리)

② 위치

- * 양지뜸(陽地村) ; 대곡리 2구. 양지쪽에 있음. (해미면 대곡리)
- * 양지마을(陽地村) ; 양지쪽에 있음. (해미면 관류리)
- * 응골(陰洞) ; 기지리 1구 마을. 음지쪽에 위치했음. (해미면 기지리)
- * 강변말(江邊村) ; 읍내리 2구의 마을. 해미천(海美川) 주변에 있음. (해미면 읍내리)
- * 도구머리(渡口頭) · 도구머리말, 칠성암(七星岩) ; 언안 남동쪽에 있는 마을. ①바위의 머리쪽이 뿔. ②앞산에 7개의 바위가 있음. ③혹은 이 마을에 나루터가 있었음. (해미면 언암리)
- * 돌다리마을(石橋里) ; 저성(猪城) 서쪽의 마을. 돌다리 앞에 있는 마을. (해미면 저성리)
- * 돌다리(石橋) ; 돌다리 주변의 마을. '돌다리마을'에서 '마을' 탈락. (해미면 양림리)
- * 부엉바위(休鳥岩→休岩) ; 부엉바위 동쪽에 있는 마을. (해미면 휴암리)
- * 사창벌(社倉坪/射槍坪) (말) ; 부엉바위 동쪽의 마을. 사창벌 앞에 있는 마을. 이곳은 해미 병마 절도영의 군사들이 훈련하던 곳임. (해미면 휴암리)
- * 새뜸(新村) ; 대곡리 2구. '새로 생긴 마을' 이라기보다는 중심 마을에서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 마을. (해미면 대곡리)
- * 솔티(松峙), 솔티마을 ; 삼송리 2구 마을. 솔티 밑에 있는 마을. 마을 앞 고개에 소나무가 무성함. (해미면 삼송리)
- * 짜리고개(柳杻峴), 짜리고개말 ; 짜리고개 밑의 마을. (해미면 황락리)



〈사진〉 홍주한티(洪州漢峙)

- * 일락골, 일락촌(日岳村) : 황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일락산(日岳山) 밑이 됨. (日岳村→日落村)(해미면 황락리)
- * 강댕잇들(講堂坪) : 강댕잇골 앞에 있는 들. (해미면 전천리)
- * 강변 : 부영마위 북쪽에 있는 들. (해미면 휴암리)
- * 까치밭들(鶻坪) : 까치골 앞에 있는 들. '밭'·'들'은 같이 '野'의 뜻. (해미면 전천리)
- * 군궐들(郡界坪) : 업터지 북쪽에 있는 들. 조선조 때 해미군과 서산군의 경계가 되었었음. (해미면 억대리)
- * 들개앞들 : 들개 앞에 있는 들. (해미면 석포리)
- * 마굿들 : 언들 서쪽에 있는 들판. 마굿간 앞에 있는 들. (해미면 흥천리)
- * 성들(城坪) : 개사리 동쪽에 있는 들판. (해미면 귀밀리)
- * 한티골, 한티, 대티 : 깊으실 남쪽에 있는 마을. 덕산 한티 고개 밑이 됨. (해미면 대곡리)
- * 홍주한티 : 예산군 덕산면계와 접한 곳이라 이곳을 지나야 홍성(홍주)으로 갈 수 있었으므로 홍주한티라 했음. (해미면 대곡리)
- * 중보들(中湫坪) : 중보 앞의 들판. (해미면 조산리)
- * 깊은개들(深浦坪) : 기지 북쪽 깊은개 옆의 들. (해미면 기지리)
- * 통개들(桶浦坪) : 기지 동쪽 통개(桶浦) 옆의 들. (해미면 기지리)

- * 가장골보(假葬谷洑) ; 가장골 밑에 있는 보. (해미면 삼송리)
- * 강댕잇보(講堂洑) ; 강댕잇들 앞에 있는 보. (해미면 전천리)
- * 군계보(郡界洑) ; 서산시와 해미면의 경계에 있는 보. (해미면 억대리)
- * 궁현보(宮峴洑) ; 궁현 밑에 있는 보. (해미면 응평리)
- * 까치벌보(鵲坪洑) ; 까치벌들 앞의 보. (해미면 전천리)
- * 머릿들보(頭坪洑) ; 머릿들에 위치해 있는 보. (해미면 억대리, 홍천리)
- * 섬돌잇보(島石洑) ; 섬돌잇들 앞의 보. (해미면 전천리)
- * 앞들보(前野洑) ; 기지 앞들에 있는 보. (해미면 기지리)
- * 용머릿보(龍頭洑) ; 용머릿들에 있는 보. (해미면 홍천리)
- * 통갯보(桶浦洑), 통개들보 ; 통갯들 앞의 보. (해미면 기지리)
- * 궁논다리(宮畚橋) ; 궁논 남쪽에 있는 다리. 궁논에 놓인 다리임. (해미면 반양리)
- * 반양교(礮陽橋) ; 반양리에 있는 다리. (해미면 반양리)
- * 산수교(山水橋) ; 산수리에 있는 다리. (해미면 산수리)
- * 해미교(海美橋), 남석교 ; 읍내리에 놓인 다리. (해미면 읍내리)
- * 휴암교(休鳥 岩橋) ; 읍내에서 휴암리로 가는 해미천에 놓인 다리. 휴암리 쪽이 가까움. (해미면 읍내리)
- * 개구리샘배미(蛙井畚) ; 개구리샘 앞에 있는 논. (해미면 저성리)
- * 궁논(宮畚) ; 구해미 서북쪽의 논. 궁(眞海縣의 청사) 앞에 있는 논. (해미면 반양리)
- ※궁답 : 각 궁(宮)에 딸린 논.
- * 궁논샘(宮畚井) ; 궁논에 있는 샘. (해미면 반양리)
- * 돌개앞살 ; 돌개 앞에 있는 개. 어살이 있음. (해미면 석포리)
- * 반계미륵(礮溪彌勒) ; 반계마을에 있는 미륵. (해미면 반양리)
- * 산수저수지(山水貯水池) ; 산수리에 있는 저수지. 한서대학교 밑에 있음. (해미면 산수리)
- * 어리성골 ; 어리성이 있는 골짜기. (해미면 응소성리)
- * 일락사(日樂寺), 일악사 ; 일락골 동북쪽에 있는 절. 본 이름은 일악사(日岳寺)→일락사(日樂寺). (해미면 황락리)
- * 당산불당(堂山佛堂) ; 당산에 있는 불당(佛堂). (해미면 반양리)
- * 한다리고개, 시장고개 ; 뒷굴 남쪽에 있는 고개. ㉞ 음암면 유계리의 한다리로 감. ㉞ 해미시장으로 감. (해미면 응소성리)
- * 해미장(海美場), 읍내장 ; 읍내리에 있는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시장. (해미면 읍내리)
- * 해미읍성(海美邑城) ; 읍내리에 있는 성. (해미면 읍내리)

※ ㉔해미읍성(海美邑城), ㉕병마절도사영성(兵馬節度使營城), ㉖탱자성(枳城), ㉗결성(城)

* 황락리미륵(皇洛里彌勒) ; 새터말 동쪽에 있는 미륵. 황락리에 있음.(해미면 황락리)

* 면학골뒷봉 ; 면학골 뒤에 있는 산.(해미면 기지리)

* 역산(力山) ; 역말 동쪽에 있는 산.(해미면 동암리)

* 앞골등성백이 ; 앞골에서 너머말로 넘어가는 고개. 등성이가 앞골에서 가까워서 '앞골'을 붙였음.(해미면 기지리)

* 소룡골등성백이 ; 소룡골에서 샘골로 넘어가는 고개. 등성이가 소룡골에서 가까워서 '소룡골'을 붙였음.(해미면 기지리)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강당이(講堂) ; 해미천 옆의 마을. 옛날에 강당이 있었음.(해미면 전천리)

* 학당이골(學堂洞) ; 삼봉이 남쪽의 골짜기. 이 골짜기 밑에 학당이 있었음.(해미면 삼송리)

* 절골, 사곡(寺谷) ; 일락골 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에 절이 있음.(해미면 황락리)

* 사직단터(社稷壇-) ; 사직재에 있는 해미현 사직단의 터.(해미면 동암리)

* 사직재(社稷峙) ; 고동굴 남쪽에 있는 고개. 해미현의 사직의 터.(해미면 동암리)

* 불당골(佛堂谷) ; 깊으실(深谷)과 한티골(大峙洞) 사이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었음.(해미면 대곡리)

* 불당골 ; 삼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음.(해미면 삼송리)

* 관터, 관기(館基) ; 관류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 창(倉)을 지키는 관(?)이 있었음.(해미면 관류리)

* 궁논(宮畓) ; 궁재 밑에 있는 논. 궁(宮: 海美縣廳)에 딸린 논.(해미면 응평리)

* 궁재(宮峴), 궁재말, 뒷말, 상응평(上鷹坪) ; 매벌 위쪽의 마을.(해미면 응평리)

* 향교말(鄕校村), 오동(烏洞) ; 오학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㉘ 해미향교가 있음. ㉙ 까마귀가 많다고 함.(해미면 오학리)

* 창말 ; 낮머리에 있는 마을. 세곡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었음.(해미면 언암리)

* 고리안(古壘內) ; 시전골 남쪽의 골짜기. 옛 보루가 있음.(해미면 산수리)

* 물방아거리 ; 부엉바위 서쪽에 있는 터. 물방앗간이 있었음.(해미면 휴암리)

* 성목재(城項峙) ; 기지의 동남쪽에 있는 고개. 전에 성이 있었다 함. 앞에 성이 있는 좁은 고개임.(해미면 기지리)

* 지성(枳城) ; 해미면(海美面) 옛 이름. 해미군 읍내에 있는 지성(枳城)의 이름을 땀음.(서산시 해미면)

* 태성산(泰城山) ; 어리성이 있는 산. 큰 성(웅소성)이 있음.(해미면 웅소성리)

* 가장골(加場谷) ; 삼봉이 옆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어린애의 무덤이 많았음. 가장(假葬) ; 시체를 임시로 묻거나 어린애의 시체를 임시로 묻는것. 假葬→加場.(해미면 삼송리)

* 고장골(藁葬谷), 고작골 ; 학댕이골 서북쪽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시체를 짚 거적으로 싸서 묻는 일이 허다했음.(해미면 삼송리)

* 병마절도사영성(兵馬節度使營城) ; 해미읍성의 다른 이름. 조선조 태종 18년(1418)에 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었음.(해미면 읍내리)

* 안흥정(安興亭) ; 산수리에 있는 정자. 고려 문종 31년(1077)에 고만도정(高蠻島亭)을 폐하고 이를 지어 중국 사신이 내왕할 때 송영(送迎)하던 곳.(해미면 산수리)

* 황조촌(皇朝村) ; 일락촌 밑의 마을. 중국 황조(皇朝) 밑에 살고 있던 진씨(陳氏)란 사람이 이곳에 피난와 살았음.(해미면 황락리)

* 가절미(佳絶山) ; 부영산 동쪽의 야산. 봄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단풍으로 아름다운 산임.(해미면 휴암리)

* 분홍(分紅), 분홍말 ; 홍천리 1구. 샘골 동쪽에 있는 마을. 봄철에 진달래꽃으로 온산이 분홍색이 됨. (해미면 홍천리)

* 분홍재, 분홍티(分紅峙) ; 역말 북쪽에 있는 고개. 홍천리 분홍으로 넘어감. 봄철이면 고개에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분홍빛이 됨.

* 원앙이(鴛鴦), 원앙이 마을 ; 향교 동쪽 산골의 마을. 이 마을에 원앙새처럼 사 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음.(해미면 오학리)

* 장터(場洞), 장말 ; 귀밀 마을 동남쪽의 마을. 남면(南面)이었을 때 장이 열렸음.(해미면 귀밀리)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새암골, 사양골(泉洞) ; 기지 2구 남쪽에 있는 마을. 큰 샘이 있었음.(해미면 기지리)

* 샘골(泉洞), 천곡(泉谷) ; 홍천리 2구. 홍천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 샘이 있었음.(해미면 홍천리)

* 수원골(水源洞) ; 당산 남서쪽에 있는 마을. 아무리 가물어서도 마르지 않는 수원(水源)이 있음.(해미면 산수리)

* 유왕모랭이, 약모랭이, 용왕모랭이 ; 부영산 동쪽에 있는 모룽이. 유황이 났음.

혹은 유왕(龍王)샘 앞에 있는 모퉁이 임.(해미면 휴암리)

* 섬뜩들 ; 귀밀 서남쪽에 있는 들. 가운데 섬이 있음.(해미면 휴암리)

* 섬배미(島畵) ; 질뜩배미 동쪽에 있는 논. 가운데가 섬처럼 흙이 쌓여 있음.(해미면 휴암리)

* 닭산, 당산(堂山)(말), 계산(鷄山) ; 산수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당산이 있음.(해미면 산수리)

* 당미(堂山), 당미말 ; 당산 밑에 있는 마을.(해미면 언암리)

* 당미봉(堂美峯) ; 소물 서쪽에 있는 산. 당이 있었음.(해미면 언암리)

* 당산(堂山) ; 구해미 북쪽의 산. 당집이 있음.(해미면 반양리)

* 산제당(山祭堂) ; 귀밀마을 북쪽의 당집(山神堂).(해미면 귀밀리)

* 서낭당이 ; 언안 동남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해미면 언암리)

* 서낭당이, 서낭당고개 ; 부영산 남쪽의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해미면 휴암리)

* 서낭당이 ; 어리성 동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해미면 웅소성리)

* 서낭재 ; 구해미 동북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해미면 반양리)

* 서낭재(城隍峙) ; 역말 남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해미면 동암리)

* 쇠등골서낭당이 ; 쇠등골의 동쪽에 있는 서낭당.(해미면 기지리)

* 영당골(靈堂洞) ; 안골의 남쪽에 있는 마을. 신불을 모신 영당이 있었음.(해미면 산수리)

* 독샘 ; 도구머리 안쪽에 있는 샘. 돌로 쌓았음.(해미면 언암리)

* 돌다리, 석교(石橋) ; 구리 동쪽에 있는 마을. 돌다리가 있음.(해미면 양림리)

* 돌담안 ; 들레에 돌로 담을 쌓았음.(해미면 산수리)

* 빗뚝다리(碑石橋), 휴암교(休岩橋) ; 부영바위 북쪽에 있는 다리. 빗돌(碑石)이 있었음.(해미면 휴암리)

* 섬돌잇들(島石坪) ; 전내마을 서쪽에 있는 들. 들판 입구에 큰 돌이 있음.(해미면 전천리)

* 다래깃들, 다래끼들(樓坪), 다락들(樓坪) ; 도투성(猪城) 북쪽에 있는 들. 지대가 높음.(해미면 저성리)

* 동산모랭이 ; 안말 뒷동산에 있는 모롱이.(해미면 기지리)

* 말무덤(馬塚), 하응평, 아랫말 ; 매벌마을 아래쪽에 있는 마을. 큰 무덤이 있었음.(해미면 응평리)

* 방죽골(防築洞) ; 어리성 동쪽의 마을. 마을 앞에 방죽이 있음.(해미면 웅소성리)

* 부영산, 휴산 ; 부영바위가 있는 산.(해미면 휴암리)

* 비선골, 비선곡 ; 칠성바위가 있는 골짜기. 비가 서 있었음.(해미면 언암리)

- * 산직말(山直村) ; 산을 관리하기 위해 산지기의 초막이 있었음.(해미면 조산리)
- * 쉬우논 ; 용머리뿌리 동쪽에 있는 논. 수령이 있음.(해미면 삼송리)
- * 어리성고개 ; 귀밀에서 동쪽 어리성리(웅소성리)로 넘어가는 고개.(해미면 귀밀리)
- * 언들(堰坪), 언들말, 은틀, 은뜰 ; 홍천리 2구. 분홍과 샘골 사이의 들. 제방을 쌓고 만든 들판.(해미면 홍천리)
- * 장승재(長丞峙), 장승재골 ; 역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장승이 서 있었음.(해미면 동암리)
- * 질독배미 ; 부엉바위 아래의 논. 논배미 독이 길로 쓰이고 있음. 길독→질독.(해미면 휴암리)
- * 고등굴, 고동굴 ; 역말 남쪽에 있는 골은 골짜기. 혹은 고동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구불어져 있음. 정반대의 해석임. 전자가 옳은 듯함.(해미면 동암리)
- * 만양이(晩陽里) ; 반양리 2구. 지형상 햇볕이 늦게까지 비추다가 떨어짐.(해미면 반양리)
- * 삼섬, 삼도(三島) ; 가좌의 남쪽, 돌개 서남쪽에 있는 마을. 밀물이 차면 세 섬으로 됨.(해미면 석포리)
- * 지레한티, 덕산한티 ; 한티 북쪽에 있는 마을. 덕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 혹은 '지레'란 '지레목'의 준말로 '산줄기가 끊어진 곳'의 뜻.(해미면 대곡리)
- * 짚오실, 심곡(深谷) ; 대곡리 2구. 대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깊은 골짜기가 됨.(해미면 대곡리)
- * 일자말 ; 마을의 생김새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음. 옛날 배가 닿던곳 임.(해미면 억대리)
- * 반계(磻溪), 구해미 ; 반양리의 중심 마을.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음.(해미면 반양리)

⑤ 모양·크기·상대

- * 개절미(佳絶山) ; 부엉산 동쪽에 있는 산. 개가 조는 모양이라 함. 혹은 산이 아름답다고 함.(해미면 휴암리)
- * 쇠등골(牛背洞), 쇠동골, 소룡골(巢龍谷) ; 기지 동쪽의 마을. 지형이 소의 등처럼 생겼다고 함. 혹은 이곳의 지형을 와우형(臥牛形)이라고 함. 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음.(해미면 기지리)
- * 용머릿들(龍頭坪) ; 분홍마을 동북쪽의 들판. 용머리처럼 생겼다 함. (해미면 홍천리)
- * 용머리뿌리, 용머리부리(龍頭嘴) ; 삼봉 서쪽에 있는 부리. 부리의 모양이 용

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해미면 삼송리)

* 자라봉(鼈峰) : 은틀 북쪽에 있는 산. 산의 모양이 자라처럼 생겼음. (해미면 홍천리)

* 황소고개(黃牛峙) : 부영산에서 가절미로 넘어가는 골짜기. 다른 골에 비해 긴 골짜기임. ‘굴멍’, ‘골망’은 ‘골’의 방언. 고개가 황소의 등같이 생겼음. ‘한(大)’ + ‘소(牛)’ + ‘고개(峙)’ → ‘황소고개’인 듯함. (해미면 휴암리)

* 감투봉 : 절골 동쪽에 있는 산. 감투처럼 생겼음. (해미면 황락리)

* 건탕바위(巾宕岩) : 부채덩굴의 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선비의 건탕(망건과 탕건)같이 생겼음. (해미면 동암리)

* 구수배미 : 저성 동쪽에 있는 논배미. 논 모양이 구수(구유)처럼 생겨서, 혹은 구수샘(구유샘) 앞에 있는 논에서 연유했다고도 함. (해미면 저성리)

* 구수샘 : 접말 동쪽에 있는 샘. 모양이 구수(구유)처럼 생겼음. (해미면 저성리)

* 낫머리(鎌頭), 낫머리말 : 언암리 2구. 마을의 지형이 낫머리처럼 생겼다 함. (해미면 언암리)

* 목탁바위(木鐸岩) : 역말 동쪽 옥녀봉에 있는 바위. 목탁처럼 생겼음. 혹은 어느 중이 이 바위에 앉아 목탁을 쳤다고도 함. (해미면 동암리)

* 방아다리 : 접말 동쪽에 있는 논. 모양이 방아의 다리처럼 생겼음. (해미면 저성리)

* 방아다리, 방하다리 : 서낭재 동쪽에 있는 산. 논 모양이 방아의 다리, 혹은 방아다리(노리개의 한 가지) 같음. (해미면 동암리)

* 부채동굴, 범채덩굴 : 옥녀봉 동쪽에 있는 바위. 바위 모양이 부채같이 생겼음, 혹은 호랑이 굴이 있음. (해미면 동암리)

* 북바위(鼓岩) : 옥녀봉 북쪽에 있는 바위. 북처럼 생겼음. (해미면 동암리)

* 서귀샘, 세귀샘 : 조산 서쪽에 있는 샘. 모양이 세모로 되었음. 혹은 겨울에는 더운 기운이 도는 좋은 샘이라 하여 서기정(暑氣井)이라고도 함. (해미면 조산리)

* 소물(牛水), 소물말 : 언암리 2구. 마을 모양이 소가 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함. (해미면 언암리)

* 안장바위(鞍岩) : 옥녀봉 북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안장처럼 생겼음. (해미면 동암리)

* 어리성, 웅소성, 태성산 : 웅소성리에 있는 성. 흩으로 쌓았는데, 성 쌓은 상태가 머리빚(얼레빚)처럼 생겼음. (해미면 웅소성리)

* 마릿들, 머릿들(頭坪) : 용머릿들 서쪽에 있는 들. 들판이 넓고 지대가 좀 높음. (해미면 홍천리)

* 마릿들(頭坪) : 관터 서쪽의 들. 규모가 큰 들임. ‘마리’는 ‘머리’와 같은 말로

‘으뜸’의 뜻. (해미면 관류리)

* 마릿들, 머릿들(頭坪) ; 엽터지 북쪽의 들. 지대가 높아서 매마름. 혹은 주변의 들 중 제일 큰 들임. (해미면 억대리)

* 큰보(大湫), 부엉배미보 ; 부엉바위 앞에 있는 큰 보. (해미면 휴암리)

* 큰돌개(大石浦) ; 돌개 남쪽에 있는 큰 마을. (해미면 석포리)

* 한티, 한티골(大峙洞), 대티 ; 대곡리에서 예산군 덕산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 (해미면 대곡리)

* 한다리(大橋) ;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 마을과 해미면의 경계에 놓인 다리. (해미면 억대리)

* 황고랫들(黃鯨野) ; 아랫관터 남쪽의 들. 크고 기름진 들임. ‘황’ ; ‘한(大)’, ‘고랫들’ ; ‘고래실(沃谷)’로 보아 ‘대옥야(大沃野)’의 뜻. (해미면 관류리)

* 넘적바위 ; 수원골에 있는 넘적하고 큰 바위. (해미면 산수리)

* 진골망(長谷) ; 부영산 서쪽의 골짜기. 다른 골에 비해 긴 골짜기임. ‘골망’ · ‘굴멍’은 ‘골’ · ‘골짜기’의 방언임. (해미면 휴암리)

* 작은돌개(小石浦) ; 돌개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해미면 석포리)

* 삼거리(三巨里), 홍주한티 ; 대곡리 1구. 한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 해미에서 덕산과 홍성으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음. (해미면 대곡리)

* 삼봉이(三峯-), 삼봉리, 삼봉 ; 삼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마을 입구에 세 봉우리로 된 산이 있음. (해미면 삼송리)

* 칠성바위, 칠성암(七星岩) ; 도구머리 서쪽에 있는 바위. 일곱 개가 있음. (해미면 언암리)

* 구정벌(九井坪) ; 구해미 남쪽의 들판. 9개의 샘이 있음. (해미면 반양리)

* 감동밭 ; 독가문논 동북쪽에 있는 논. 흙이 매우 겹. (해미면 동암리)

* 구레, 구레 ; 조산 남쪽에 있는 들. 물이 항상 있고 땅이 겹. ‘고래실’이 ‘옥곡(沃谷)’인 것처럼 ‘구레들’은 ‘옥야(沃野)’의 뜻임. (해미면 조산리)

* 구레, 구라들, 구레 ; 삼봉 서남쪽에 있는 들. 물이 좋고 겹. ‘구레’, ‘구라’, ‘고래’는 ‘걸다(沃)’의 뜻. (해미면 삼송리)

* 구레들(九羅坪) ; 저성(猪城)의 들판에 있는 들. 규모가 크고 넓음. 혹은 고래실(沃谷)처럼 기름진 들(沃野)의 뜻임. (해미면 저성리)

* 빈질바위 ; 지레한티에 있는 바위. 빈질거려서 매우 미끄러움. (해미면 대곡리)

* 냉천(冷泉) ; 역말 동쪽에 있는 샘. 샘물이 매우 차음. (해미면 동암리)

* 찬골재(寒洞峙), 참굴재 ; 역말 서쪽의 고개. 계곡에 찬물이 흘렀음. (해미면 동암리)

⑥ 동·식물(動·植物)

- * 가금마을(烏村) : 향교 서쪽의 마을. 이 마을에 까마귀가 많아서 가그매말, 까그매말(烏村)이라고 한 데서 온 듯하다. (해미면 오학리)
- * 개구리샘(蛙井) : 점말(아랫말) 동쪽에 있는 샘. 개구리가 많음. (해미면 저성리)
- * 까치골(鶻洞) : 전내마을 남쪽의 마을. 까치가 많았음. (해미면 전천리)
- * 돼지골(猪谷) : 석장골 동쪽의 골짜기. 산돼지가 많이 나타났다고 함. (해미면 대곡리)
- * 매봉재(鷹峰峙) : 일락골 남쪽에 있는 산. 매가 살고 있었음. (해미면 황락리)
- * 백학(白鶴) : 칠새인 두루미(白鶴)가 이 마을에 날아와 겨울을 지냈음. (해미면 오학리)
- * 부엉바위 : 부엉바위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부엉이가 살았음. (해미면 휴암리)
- * 부엉재 : 역말의 서쪽에 있는 고개. 부엉이가 살았음. (해미면 동암리)
- * 싸리고개(柵峴) : 덕산면으로 넘어가는 감투봉 북쪽의 고개. 싸리나무가 많았음. (해미면 황락리)
- * 제비굴(燕谷) : 옥너봉 동쪽에 있는 굴. 제비가 집을 지었음. 혹은 골짜기의 모양이 제비형이라 함. (해미면 동암리)
- * 호랑이굴(虎谷) : 부채덩굴 북쪽에 있는 굴. 호랑이가 살았음. (해미면 동암리)
- * 가래골(楸洞) : 소생이골 서쪽의 골짜기. 가래나무가 많았음. (해미면 동암리)
- * 가새골(荊谷) : 인경너덜 북쪽의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았음. (해미면 산수리)
- * 섯(성) : 해미읍성의 다른 이름. 성이 섯나무에 둘러싸여 있음. (해미면 읍내리)
- * 대추나뭇벌(棗坪) : 물방아거리 서쪽에 있는 들. 대추나무가 있었음. (해미면 휴암리)
- * 숲안터 : 부영산 서쪽에 있는 터. 느티나무와 숲이 많이 있었음. (해미면 휴암리)
- * 원두골(園頭谷) : 당산과 수원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 원두(園頭) : 밭에 심어서 가꾸는 참외·오이·수박·호박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미면 산수리)
- * 탕자성(枳城) : 해미읍성의 다른 이름. 읍성 둘레에 탕자나무가 무성함. (해미면 읍내리)

⑦ 관련 인물

- * 도둑놈골 ; 닭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후미져서 도둑들이 살았다고 함. (해미면 산수리)
- * 비촌말(卑村·皮村) ; 부엉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 특수 하층민이 살았음. 전국의 비촌말·피촌말은 이와같은 의미임.(해미면 휴암리)
- * 삼섬개, 삼도포(三島浦) ; 삼섬부리 서쪽에 있는 개. (해미면 석포리)
- * 성방천(成防川) ; 성씨가 제방을 쌓아, 냇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함. (해미면 언암리)
- * 안홍할미자리 ; 말무덤 남쪽에 있는 논. 안홍에서 시집 온 할미의 논이었음. (해미면 응평리)
- * 은배미(銀沓) ; 물방아거리 북쪽에 있는 논. 은을 주고 샀다 함. 은씨(殷氏)가 경작하였다고 함은 억지임. '은배미'의 '은'은 원래 '언'으로 '언'은 고어에서 '둑'·'언덕'의 뜻임. 언데(堤), 언패, 언언(堰)《훈몽자회, 상6》따라서 '은배미'는 '언덕 주위의 논'이란 뜻임.(해미면 휴암리)
- * 정문앞(旌門前), 정문앞말 ; 기지 동쪽의 마을. 마을 앞에 함효자(咸孝子)의 정문이 있음. (해미면 기지리)
- * 청허정터(淸虛亭址) ; 해미읍성 안에 있던 청허정의 터. 병마절도사 조숙기(曹淑沂, 1434~1509)가 세웠음. (해미면 읍내리)
- * 함효자문(咸孝子門) ; 기지 동쪽에 있는 정문. (해미면 기지리)

⑧ 발생연원

- * 구리(舊里) ; 양림리(良林里)에서 가장 오래 된 마을. (해미면 양림리)
- * 구해미(舊海美), 반계(磻溪) ; 반양리의 중심 마을. 과거 정해현(貞海縣)의 소재지. (해미면 반양리)
- * 본동(本洞) ; 해미천 옆의 마을. 조산리의 본래 중심이 되는 곳. (해미면 조산리)
- * 사태말, 새터말(新垆村) ; 일락골 서쪽에 새로 된 마을. (해미면 황락리)
- * 신평리(新坪里) ; 구리 마을 동쪽 벌판에 새로 된 마을. (해미면 양림리)

⑨ 전설·풍수설

- * 공기바위 ; 구해미 북쪽 당산 서쪽에 있는 바위. 옛날 장수가 공기놀이를 하던 것이라 함. (해미면 반양리)
- * 면학골(眠鶴洞) ; 기지 동남쪽의 골짜기. 지형이 학이 즐고 있는 형국이라 함. (해미면 기지리)
- * 소룡골(巢龍窟) ; 기지리 2구의 마을. 용이 살고 있다고 해서 소룡동(巢龍洞),

혹은 이 마을에 용이 사는 굴이 있다고 해서 소룡굴(巢龍窟)이라 함. (해미면 기지리)

* 석장골(錫丈谷) ; 위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고승(高僧)이 석장(錫丈)을 숨겨 놓았다 함. 석장(錫丈=錫杖谷) (해미면 대곡리)

* 신선대(神仙臺) ; 짚으실 북서쪽 뒷산에 있는 바위. 대로 되었는데, 옛날에 신선(神仙)이 와서 놀았다 함. 한서대학교 맞은 편에 우뚝 솟은 산. (해미면 대곡리)

* 옥녀봉(玉女峯) ; 모양이 단정해서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 함. (해미면 언암리)

* 옥녀봉(玉女峯) ; 역말 북쪽에 있는 산.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 함. (해미면 동암리)

* 장수바위(將帥岩) ; 언들(은들) 북쪽에 있는 큰 바위. 옛날 한 장수가 이 바위에서 쉬어갔다 함. (해미면 홍천리)

⑩ 생산지

* 앳들 ; 중붓들 남쪽에 있는 들. 기와를 구웠었음. 기와들→앗들→앳들. (해미면 조산리)

* 점말, 점촌(店村) ; 역말 남쪽에 있는 마을. 옹기를 구웠음. (해미면 동암리)



〈사진〉 신선대

* 점말(店村), 아랫말(下村) ; 도투성 아래쪽에 있는 마을. 그릇점이 있었음. (해미면 저성리)

* 점어귀(店於口), 점옥 ; 짚으실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어귀에 사기점이 있었다 함. (해미면 대곡리)

12. 고북면(高北面)

1) 면명(面名)과 이명(里名)의 연원

고북면(高北面)의 13개 리명(里名)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도 본디의 이름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다. 즉 다른 면의 경우에는 이명(里名)은 병합된 두 이명에서 한 자씩 떼어 만듬이 대부분인데 고북면의 경우는 이렇게 만든 것이 전체 13개리 중 4개리 (약 3할)뿐이다. 그것은 '고북(高北)'이란 면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고북면(高北面) ; 고려 때 고구현(高丘縣), 조선조 중기 이후 홍주목 고북면이었다. 고구현(高丘縣)의 북쪽에 있다 하여 고북이라 하였다.

① 연원을 가진 이명(里名)

* 가구리(加口里) ; 고북의 중심 마을로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므로 가구(加口)라 했다. 혹은 밭에 거북 모양의 돌이 있어 밭의 명칭을 '가구전(加口田)'이라 한 데서 왔다고도 한다.

* 남정리(南井里) ; 사무실(마을 이름) 남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남정이라 했다. 혹은 마을의 남쪽에 유명한 샘이 있었음에 연유했다고도 한다.

* 기포리(機浦里)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여러 마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병합하여 중심 마을인 기포리의 이름을 땀다. 기포(機浦)란 이 마을의 고유지명 틀개·튼개의 한역지명이다. 의문의 여지가 많으나 기포(機浦)란 이름은 이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비해 기업(機業)이 성했음에서 연유했다고 한다. 시비가 어떠한 병합 마을의 두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은 아니다.

* 사기리(沙器里) ; 지난 날 사기그릇을 만들던 사기점(沙器店)이 있었으므로 사기소리(沙器所里)라 하던 것을 소(所)자를 떼어 사기리라 하였다.

* 신송리(新松里) ; 일제 때 사방공사를 하느라고 마을 뒷산에 새로 소나무를 심은 데서 연유했다.

* 양천리(楊川里) ; 앞내의 독에 버들이 무성하다 하여 버드내(楊川)라 하였다.

- * 용암리(龍岩里) : 마을에 용바위가 있음에 연유하였다.
- * 정자리(亭子里) : 마을 가운데 큰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에 연유하였다.
- * 초록리(草綠里) : 이 마을이 연암산(燕岩山) 밑 새초(따 ; 茅)가 파랗게 무성한 곳에 있어 '새프르기'라 하던 것을 한역한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병합된 마을 중 대표적인 두 마을 이름에서 각각 한 자씩 떼어서 이름을 만든 것. 고북면 13개리 중 4개리만 이렇게 하여 이름을 지었다.

② 합성에 의한 이명(里名)

- * 봉생리(鳳生里) : 봉산리(鳳山里)와 생천리(生川里)의 머리 글자를 뺐음.
- * 신상리(新上里) : 신흥리(新興里)와 상정리(上井里)의 머리 글자를 뺐음.
- * 신정리(新井里) : 신대리(新垓里)와 고정리(古井里)의 이름을 뺐음.
- * 장요리(長要里) : 장선리(長善里)와 고요리(古要里)의 이름을 뺐음.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동서남북·중앙과 변경·앞 뒤·안팎·위아래의 구별에 의한 것.

* 구역말, 구역촌(九億村) [고북면 기포리 은개 서쪽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九億'이란 한자의 뜻에 의해 '九'는 '많은 수', '億'은 '편안(安也)'을 뜻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편안히 살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함은 억지임. '구석(*) + 마을(村) → 구역말'이 된 것임.

- * 서창(西倉) : 고북면 봉생리
- * 남정, 남정리(南井里) : 고북면 남정리
- * 간재, 간재말, 간티(良峙) : 고북면 가구리 구 마을. 간(良)은 동북방임.
- * 앞고랑(前谷) : 고북면 정자리
- * 뒷골(後洞) : 고북면 가구리
- * 뒷고래, 뒷골(後谷) : 고북면 사기리
- * 터뒷말, 터뒤(後洞) : 고북면 기포리
- * 성북재(城北峙) : 고북면 봉생리
- * 안말(內洞) : 고북면 초록리
- * 숲안(松內) : 고북면 신정리
- * 청룡안(靑龍案) : 고북면 가구리

- * 상황골(上黃谷) ; 고북면 신정리
- * 상정(上井) ; 고북면 남정리 마을
- * 하정(下井) ; 고북면 남정리 마을

② 위치

별(별판)·양지뜸·산밑 등에 위치함에 의해 명명되었다.

- * 별뜸(坪村) ; 고북면 장요리, 마을. 뜸 ; 한 동네에서 몇 집씩 모여있는 지역.
- * 별말(坪村) ; 고북면 기포리, 마을
- * 군별, 군별말 ; 고북면 양천리, 마을
- * 양지뜸(陽地里) ; 고북면 장요리, 마을
- * 증산(甌山), 증산말 ; 고북면 용암리, 마을. 증산 밑에 있는 마을.

가까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심리가 산 이름과 그 밑에 있는 마을 이름 등의 일치를 가져왔다. 유사(類似)와 인접(隣接)이 연상(聯想)을 불러 일으킴과 같은 원리다. 교량·보·저수지·공동묘지 같은 인공(구조)물은 예외 없이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명에 연유하고 있다.

- * 고북교(高北橋), 가구교(加口橋) ; 고북면 가구리 다리
- * 기포교(機浦橋) ; 고북면 기포리 다리
- * 남정교(南井橋) ; 고북면 남정리 다리
- * 소정교(小亭橋) ; 고북면 양천리 다리. 소정마을에 있음.
- * 신상교(新上橋) ; 고북면 신상리 다리
- * 용암교(龍岩橋) ; 고북면 용암리 다리
- * 고북장(高北場) ; 고북면 가구리 장
- * 농장촌(農場村) ; 고북면 신상리 마을. 해미농장(농장 이름)의 주위에 있음.
- * 마룻들보 ; 고북면 가구리 보. 마룻들(들 이름)에 있음.
- * 솔안 저수지(松內貯水池) ; 고북면 신정리 저수지. 솔안(마을) 옆에 있음.
- * 신송저수지(新松貯水池) ; 고북면 신송리 저수지
- * 신정염전(新井鹽田) ; 고북면 신정리 염전
- * 탑골공동묘지(塔洞共同墓地) ; 고북면 신송리 공동묘지)탑골(마을 이름)에 있음.

음.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창고·절·성(城)·탑·봉수대·초막·산직집 등이 있었음에 연원한 것.

- * 서창(西倉), 서창말, 창리(倉里) ; 고북면 봉생리
- * 창동(倉洞), 곳집말 ; 고북면 가구리

- * 대사, 대사리, 대사동(大寺洞), 한저루, 한절 ; 고북면 대사리
- * 절굴 ; 고북면 대사리의 골짜기
- * 구성재, 구성티(舊城峙) ; 고북면 초록리
- * 탑골, 탑동(塔洞) ; 고북면 신송리
- * 봉의재, 봉산(鳳山), 봉산말 ; 고북면 봉생리. 봉화를 들었다 함.
- * 도갱이고개(陶棺峙) ; 고북면 신송리. 용관(甕棺)이 발굴됐음.
- * 막을소시, 색연(塞淵) ; 고북면 신송리. 300여년 전 북씨가 큰 못을 파고 독을 만들었음.
- * 산직말(山直村) ; 고북면 신상리 마을
- * 초막골(草幕洞) ; 고북면 정자리. 옥이오 때 피난민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음.
- * 왜고랑(倭洞) ; 고북면 가구리. 고려말에 왜구가 쳐들어와 큰 피해를 준 곳이라 함.
- * 삼성산(三姓山), 삼섬산 ; 고북면 신정리. 성이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았다 함.
- * 빌미봉 ; 고북면 신송리. 이 산에서 여우가 울면 이를 빌미로 하여 동네에 불행이 닥쳤으므로 악령이 있는 산이라 하였음.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지형이란 땅의 습윤 상태를 말하고, 지물이란 샘(泉) · 우물(井) · 서낭 · 제방(堰) · 벼랑 · 계곡 등을 말한다.

- * 삼성부리, 삼성뿌리(三姓嘴) ; 고북면 신정리
- * 쇠섬부리(金島嘴), 쇠섬뿌리 ; 고북면 남정리 부리(串). '부리'란 반도형(半島形)으로 생긴 갑(岬)을 말함.
- * 물안이, 수한(水閑) ; 고북면 대사리 마을
- * 생천(生川) ; 고북면 봉생리 마을. 돌이 많거나 물이 많음. 혹은 지대가 낮아 습지이기 때문에 생으로 내를 파서 배수를 했음.
- * 독지(獨只, 篤只), 장땃뿔 ; 고북면 신상리 마을. 돌이 많음. 돌땅마을.
- * 예정(醴井), 예정말, 남정, 남정리(南井里) ; 고북면 남정리
- * 상정(上井), 윗말 ; 고북면 남정리
- * 하정(下井), 호정(潮井) ; 고북면 남정리 마을
- * 샘실, 삼실, 사무실, 사무실말(井谷) ; 고북면 남정리 마을 골짜기
- * 물가지(골), 냉천골(冷泉谷) ; 고북면 초록리 골짜기
- * 샘배미(泉番) ; 고북면 정자리 논
- * 고정(古井) ; 고북면 신정리 우물
- * 찬샘(冷泉) ; 고북면 대사리 샘

- * 호정(湖井) ; 고북면 남정리 샘
- * 서낭당이 ; 고북면 용암리 서낭당
- * 서낭당 ; 고북면 대사리 고개
- * 서낭당이 ; 고북면 가구리 고개
- * 당산(堂山) ; 고북면 신정리 산
- * 당터(堂地) ; 고북면 사기리 신당터
- * 솔안(松內) ; 고북면 신정리 마을. 마을 앞에 소(沼)가 있었다고 함. (혹은 마을 앞에 소나무가 있었다고도 함.)
- * 언개(堰浦), 은개, 언개말 ; 고북면 기포리 마을
- * 선숫골 ; 고북면 정자리 골짜기
- * 석수굴, 비랭이들 ; 고북면 용암리
- * 계월, 계곡 ; 고북면 대사리 마을

⑤ 모양·크기·상태

모양이란 용(龍), 사람의 코, 노루(獐), 비녀, 배(舟), 개(犬), 함(函), 소(牛), 마당, 섬(島) 처럼 생겼음을 말한다. 크기란 대(大), 장(長), 종(宗), 광(廣)을 말한다.

- * 용바위(龍岩) ; 고북면 용암리 1구 바위
- * 코생이, 코숭이 바위 ; 고북면 초록리 바위. '코숭이'란 코를 뜻하며 여기서는 '산줄기의 끝'을 말함.
- * 노루녀 ; 고북면 사기리 섬.
- * 비아배미, 마당배미 ; 고북면 기포리
- * 배바위, 개바위 ; 고북면 기포리
- * 함봉산(函峰山) ; 고북면 초록리
- * 쇠섬(金島) ; 고북면 남정리 섬·마을. 현재는 마을. 연륙되었음.
- * 마당배미 ; 고북면 기포리 논
- * 벽장바위 ; 고북면 장요리 바위
- * 섬배미(島畚) ; 고북면 가구리 논
- * 큰골(大谷), 진골(長谷) ; 고북면 초록리 골짜기
- * 큰보(大漚) ; 고북면 기포리 보
- * 큰마을(大村) ; 고북면 사기리 들
- * 마룻들 ; 고북면 가구리 들. 들이 마루(廳舍)처럼 넓음. 혹은 '마룻들'을 들(野) 중의 '종야(宗野)'로 보아도 넓다는 뜻은 같음.
- * 광골(廣谷) ; 고북면 장요리 골짜기

이외에 고읍(麗), 맑음(淸) 등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 * 고븐모래 : 고북면 사기리 백사장. '곱다(麗)'는 '비'을 유지한 좋은 예다.
- * 청동(淸洞) : 고북면 사기리 마을
- * 가절미(佳絶尾) : 고북면 장요리 마을

⑥ 동·식물(動·植物)

동물 즉 뱀이 많거나 징기미(갑각류의 담수산 새우)가 많이 잡히거나, 범(虎)이 나타남에 연유한다.

- * 배암골(蛇谷) : 고북면 남정리 골짜기
- * 징거미, 징거미말 : 고북면 신정리 마을
- * 범골 : 고북면 대사리 마을

식물 즉 팽나무, 복숭아나무, 쉬우나무, 매화나무, 소나무, 소정(소나무 정자), 시초(柴草), 황금(黃芩; 팔꽃과의 다년초. 한약재로 오줌소태·배앓이·하혈·기침에 효험이 있음)이 있음에 연유한다.

- * 팽나무배미 : 고북면 기포리 논
- * 도간이(桃澗) : 고북면 가구리 마을
- * 쉬우나무배미 : 고북면 남정리 논
- * 매령(梅嶺) : 고북면 용암리 마을
- * 솔안(松內) : 고북면 신정리 마을
- * 소쟁이, 소정이(小亭里) : 고북면 양천리 마을. '소정'이란 소나무 그늘로 된 정자를 말함.
- * 초록리, 새푸르기, 초록(草綠) : 고북면 초록리. 시초(따;茅)가 무성함.
- * 황골(黃谷) : 고북면 신정리 마을. 황금(黃芩)이 많이 자람

⑦ 관련 인물

소유자, 경작자, 개척자를 말한다.

- * 권오장원 : 고북면 사기리 간석지. 권오장이란 사람이 원(垣)을 막았음.
- * 복내미골(福男谷) : 고북면 가구리 골짜기. '복남'이란 사람이 일구었다고 함.
- * 산직말(山直村) : 고북면 신상리 마을. 산직집이 있어 산지기가 살았음.
- * 장선(長善), 장선말 : 고북면 장요리 마을. 김장선이란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

했다고 함.

- * 종구배미 ; 고북면 남정리 논. '종구' 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음.

⑧ 발생 연원

발생의 신구(新舊)에 의한 것이다.

- * 신리(新里) ; 고북면 장요리 마을
- * 새말, 새마을(新村) ; 고북면 신상리 마을
- * 새말(新村) ; 고북면 초록리 마을
- * 새말, 새마을(新村) ; 고북면 용암리 마을
- * 새터(新垆), 새터말 ; 고북면 신정리 마을
- * 새터(新垆), 새터말 ; 고북면 사기리 마을
- * 새태말(新垆), 신대말 ; 고북면 기포리 마을
- * 신들이, 신투루지(新機里) ; 고북면 양천리. 기업(機業)이 매우 성한 새로 생긴 마을임.
- * 원신송(元新松) ; 고북면 신송리 마을. 해미군 상도면 때 본래의 신송마을.
- * 구성재(舊城峙) ; 고북면 초록리 고개

⑨ 전설 · 풍수설

- * 봉산(鳳山) ; 고북면 봉생리 마을. 옛날 봉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음.
- * 용바위(龍岩) ; 고북면 용암리 바위. 용이 올라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 * 무네미고개(水踰里) ; 고북면 장요리 고개. '이쪽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함'에서 연유했다 하나 건강인 듯함(후술 참조)
- * 면학골(眠鶴谷) ; 고북면 가구리 골짜기. 학이 조는 형국이라는 풍수설에서 연유했다고 하나 믿기 어려움.

⑩ 생산지

사기 · 금 · 피륙의 생산에 연유한 것이다.

- * 사기(沙器), 사기리, 사기포(沙器浦), 사기소(沙器所) ; 고북면 사기리 마을. 사기 그릇을 굽던 사기점이 있었음.
- * 양그미(陽巨美), 양금촌(良金村) ; 고북면 정자리 마을. 양질의 금광이 있었다 함.
- * 투루지(機里) ; 고북면 정자리 마을. 기업(機業) ; 틀을 사용하여 피륙을 짜는

작업)이 성행했음.

13. 서산시내

1) 동명(洞名)의 연원

① 연원을 가진 동명(洞名)

덕지천동(德之川洞) [덕지내, 덕지천]: 덕지내 가에 있음.

* 동문동(東門洞) 현 1호 광장이 있는곳에 서산읍의 동문이 있었음.

* 읍내동(邑內洞) : 조선조때 서산군 대신동 지역. 읍내리와 군내면의 노상리와 노하리를 합쳐 1914년 읍내리라 하였다가 1989년 1월 1일에 읍내동으로 하였다.

* 장동(獐洞) 노루울, 노루골, 노를, 장동, 노곡 : 본래 서산군 오산면 지역. 지형이 노루(獐)처럼 생겼다 하여 이같이 불렀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장동, 소장동, 하장동을 병합하여 장리라 하다가 1989년 장동이라 하였음. (이하 '리'를 '동'으로 바꾼 해는 같음)

② 합성에 의한 동명(洞名)

1914년 행정구역 폐합 후 구성(構成) 소지명(小地名)의 이름자를 따서 만든 것.

* 갈산동(葛山洞)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상갈(上葛)과 산북(山北)의 이름을 따서 갈산리라 하다가 갈산동이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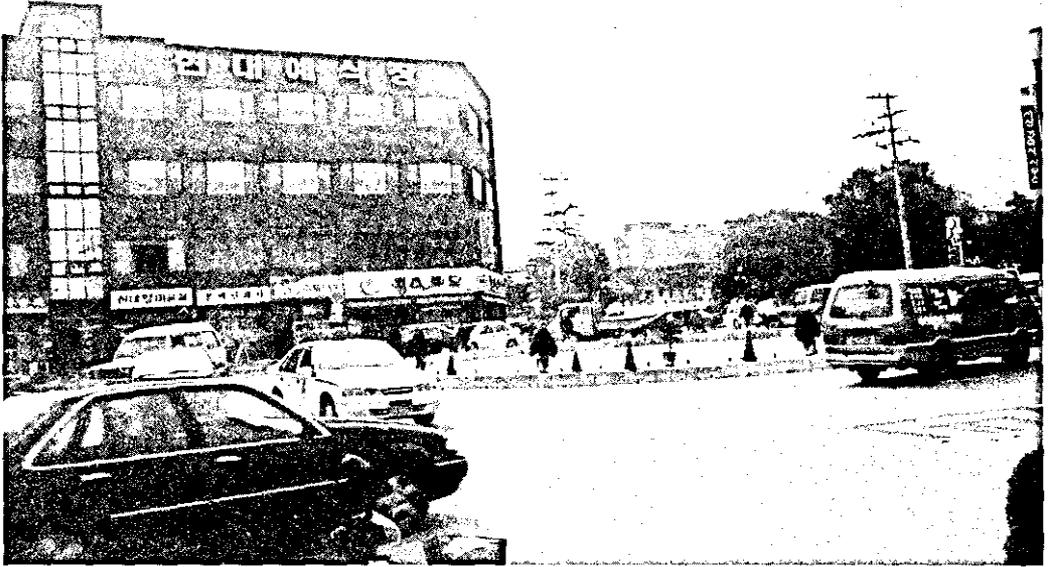
* 석남동(石南洞) : 본래 서산군 대사동면의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지리·남원리의 이름을 따서 석남리라 하다가 1989년 석남동이라 하였음.

* 석림동(石林洞) : 본래 서산군 대사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리, 죽림리, 석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지와 죽림의 이름을 따서 석림리라 하다가 석림동이라 하였음.

* 수석동(壽石洞) : 본래 서산군 동암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동, 강석리, 도곡리, 주을동, 평리, 회동, 익동을 병합하여 수동과 강석의 이름을 따서 수석리라 하다가 수석동이라 하였음.

* 예천동(禮川洞) : 본래 예산군 군내면과 울꽃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천리, 공림리, 상여전리, 하여전리를 병합하여 여전과 모천의 이름을 따서 예천리라 하다가 예천동이라 하였음.

* 오남동(吾南洞) : 본래 서산군 오산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



〈사진〉 동밖(東門外)

남지리, 소남지리, 내오산리와 동암면 익동 일부를 병합하여 오산과 남지의 이름을 따서 오남리라 하다가 오남동이라 하였음.

* 온석동(溫石洞) : 본래 서산군 대사동면의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온동, 상입석리, 하입석리, 쌍연리 일부를 병합하여 온동, 입석의 이름을 따서 온석리라 하다가 온석동이라 하였음.

* 잠홍동(潛紅洞) : 본래 서산군 대사동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잠동, 홍천리, 쌍연리 일부를 병합하여 잠동·홍천의 이름을 따서 잠홍리라 하다가 잠홍동이라 하였음.

* 죽성동(竹城洞) : 본래 서산군 울곶면 지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전리, 을호리, 양대리 일부를 병합하여 죽성리라 하다가 죽성동이라 하였음.

2) 소지명(小地名)의 연원

① 방향

동·서·남·북, 구석·중앙, 앞·뒤, 안·밖, 위·아래 등을 말함.

* 서산시 동문동(洞門里), 동문거리, 동문 : 본래 서산군 대사동면의 지역. 서산읍의 동문이 되므로 이렇게 이름했음.

- * 동미 ; 서산시 갈산동 갈터 동쪽에 있는 마을.
- * 서문다리, 서문교(西門橋) ; 서산시 읍내동. 서산 읍성 서쪽에 있는 다리.
- * 남문밖, 남문외(南門外) ; 서산시 읍내동. 구장터 남쪽에 있는 마을. 읍성 문의 남문 바깥쪽임.
- * 남원(南院) ; 서산시 석남동. 석지(石旨 : 돛마루) 동남쪽에 잇는 마을. 조선조 때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저지원(猪旨院)이 있었는데, 서산읍의 남쪽이었음.

○ 앞·뒤

- * 앞굴, 전곡(前谷) ; 서산시 덕지천동. 죽터(마을 이름) 남쪽(앞쪽)에 있는 마을.
- * 뒷굴, 후곡(後谷) ; 서산시 덕지천동. 덕지내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 뒷골, 후곡(後谷) ; 서산시 덕지천동. 상여전(上餘田) 뒤에 있는 마을.
- * 산뒤, 산디, 산북(山北) ; 서산시 갈산동. 갈터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비룡산(飛龍山) 뒤에 있음.

○ 안(內)

- * 구만이, 구만리(九萬里) ; 서산시 양대동. 배다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시내가 굽이진 안쪽이 됨.
- * 내동(內洞), 안터굴 ; 서산시 장동. 노루골 안쪽에 있는 마을.
- * 안말, 내촌(內村) ; 서산시 양대동. 배다리 안쪽에 있는 마을.
- * 새언내, 새언안, 새원안, 신언내(新堰內) ; 서산시 양대동. 구원안(舊堰內) 남쪽에 있는 들. 새로 쌓은 둑 안쪽임.
- * 중안말 ; 서산시 잠흥동. 잠흥동 중앙에 있는 마을.
- * 지장내(地藏-) ; 서산시 동문동. 동문리에서 가장 큰 마을. 지장고개 안쪽에 있음.

○ 위(上)

- * 노상말(路上-), 노상촌(路上村) ; 서산시 읍내동. 중앙말 동쪽에 있는 마을. 동문리로 가는 길 위쪽에 있음.
- * 상여전(上餘田) ; 서산시 예천동. 여전(餘田 ; 마을 이름) 위쪽에 있는 마을.
- * 윗선돌 ; 서산시 온석동. 내동, 상입석리. 선돌(마을 이름) 위쪽에 있는 마을.

○ 밑·아래

- * 성밑, 성저(城底), 성하(城下) ; 서산시 읍내동. 성내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아랫갈티, 하갈(下葛) ; 서산시 갈산동. 갈티 아래쪽에 있는 마을.

○ 구석 · 가(邊)

- * 구서기 ; 서산시 잠홍동. 잔골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
- * 갓골 ; 서산시 양대동 서쪽 가에 있는 마을.

② 위치

교량·저수지 등 구조물의 이름은 대개 그것들이 존재해 있는 위치 즉 지명을 취한다. 교량이 그 대표다. 그러나 교량도 그 밑에 흐르는 내(川)의 이름을 따른 경우가 있다.

- * 남원교(南院橋) ; 서산시 석남동. 남원에 있는 다리.
- * 잠홍교(潛紅橋) ; 서산시 잠홍동. 잠동과 홍천 사이에 있는 다리.
- * 중앙교(中央橋) ; 서산시 읍내동. 중앙말/중앙촌(中央村)에 있는 다리.
- * 청지천교(淸之川橋), 쌍다리 ; 서산시 석남동. 남원(南院) 동북쪽 청지천에 놓인 다리.
- * 온석 저수지(溫石貯水池) ; 서산시 온석동. 온동 남쪽에 있는 못.

○ 마을 · 절의 이름은 주위(대개 '뒤')에 있는 산 · 고개 · 벌판 이름에서 연유한 경우가 많다

- * 공림(公林) ; 서산시 예천동. 여전 북서쪽의 마을. 공림산(公林山) 아래에 있음.
- * 돌장, 석장(石庄) ; 서산시 양대동 배다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돌장산 아래가 됨.
- * 망운대봉, 만뎃봉 ; 서산시 석림동. 만뎃봉(산 이름) 밑에 있는 마을.
- * 매사리 ; 서산시 갈산동. 매사리산 동쪽 밑에 있는 마을.
- * 소탐(蘇探), 소탐이 ; 서산시 수석동. 익동(益洞) 남동쪽에 있는 마을. 소탐산 아래에 있음.
- * 갈티(葛峙) ; 서산시 갈산동. 갈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
- * 벌말, 평리(坪里) ; 서산시 석림동. 대숲말 동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 * 약물재 (약물티 ; 藥物峙) ; 서산시 동문동. 약물재 고개에 있는 마을.
- * 소탐산절, 도선암(道仙庵) ; 서산시 수석동. 소탐산에 있는 절.

○ 양지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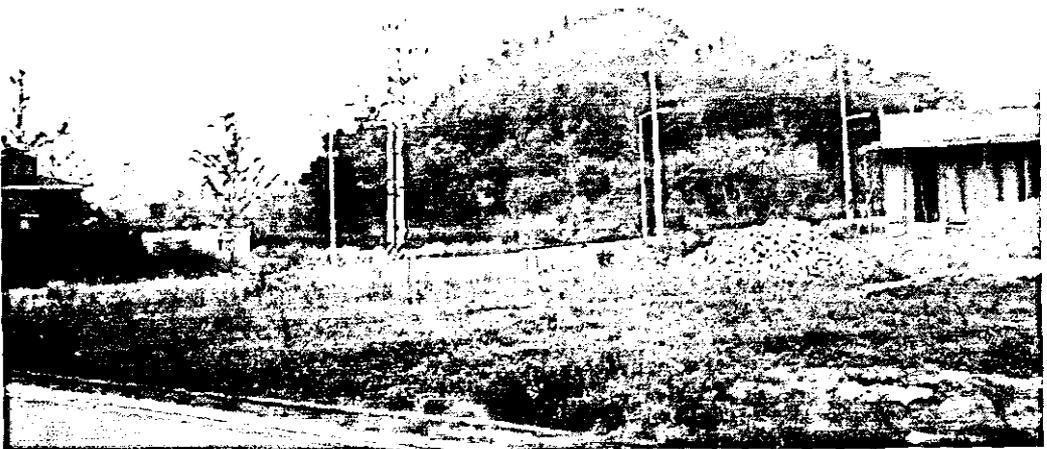
- * 양지말 ; 서산시 갈산동. 산 뒤 북쪽에 있는 마을. 따라서 남향 양지 마을임.
- * 양지쪽말 ; 서산시 양대동. 구만이 양지쪽에 있는 마을.

고개 이름은 각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름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 갈티고개 ; 서산시 갈산동. 갈산리에서 성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 땃고개, 죽티(竹峙) ; 서산시 죽성동. 대밭에서 구만리로 넘어가는 고개.
- * 역말고개, 역촌고개 ; 서산시 예천동. 예천리에서 인지면 풍전리 역말로 가는 고개.
- * 잔골재, 왕재고개(←旺字 -), 잠동티(潛洞峙) ; 서산시 온석동. 윗선돌 남쪽에 있는 고개. 윗선돌에서 잠홍리 잔골(潛澗)로 감.

○ 이외에 그 위치에 의해 명명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 강석이 앞골(江石 -) ; 서산시 수석동. 강석이(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
- * 고방다릿들 ; 서산시 석남동. 미럭밀 남쪽에 있는 들. 굽은 다리가 있었음.
- * 너더리벌, 대광야(大廣野) ; 서산시 오남동. 너더리다리가 있는 큰 들.
- * 느랏들 ; 서산시 온석동. 느랏벌(마을 이름) 앞에 있는 들.



〈사진〉 울음산

* 돌장나루터, 석장포(石場浦) ; 서산시 양대동. 돌장(마을 이름)에 있는 나루터.

* 밤갯내 ; 서산시 동문동. 밤갯이(울동; 栗洞)에 흐르는 내.

* 밤갯들 ; 서산시 동문동. 밤갯이(마을 이름. 울동 ; 栗洞) 앞에 있는 들.

* 석지방죽(石旨-), 축자제(丑子堤) ; 서산시 석남동. 석지(마을 이름) 서쪽에 있는 방죽.

* 선돌재, 입석티(立石峙) ; 서산시 온석동. 윗선돌(마을) 동북쪽에 있는 고개.

* 중보들 ; 서산시 석림동. 중보가 있는 들.

③ 역사적 유적·유물·사건·사연

* 대사동(大寺洞), 절터, 단절 ; 서산시 읍내동. 동문리, 읍내리, 예천리에 걸쳐 있는 마을. 큰 절이 있었음.

* 절굴 ; 서산시 장동. 새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음.

* 지장고개[지장티 ; 地藏峙] ; 향교말 동쪽에 있는 고개. 밑에 지장사(地藏寺)가 있었음.

* 한적골[대사동 ; 大寺洞] ;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마을. 큰 절이 있었음.

* 산직말, 직동(直洞) ; 서산시 수석동. 수동 동쪽에 있는 마을. 산직집이 있었음.

* 서원말, 서원동(書院洞), 원동(院洞) ; 서산시 읍내동. 읍내 북쪽에 있는 마을. 성암서원(聖岩書院)이 있었음.

* 향교말[교동 ; 校洞] ; 동문 북쪽에 있는 마을. 서산향교가 있음.

○ 돌마루·선돌·탑·빙고(氷庫)

* 돛마루, 저지(猪旨), 석지(石旨), 석지리(石旨里) ; 서산시 석남동. 석남동에서 가장 큰 마을. 미륵이 있음. '돌미륵'이 있음에 연유한 것으로 보아 '돌마을', '돌마을'이 '돌마루', '돌마루'로 변한 것으로 보임. '저지(猪旨)'는



〈사진〉 선돌바위

‘돌마루’ · ‘독마루’의 ‘돌마루’로의 오인 오역임.

- * 미륵밭/미력밭 ; 서산시 석남동. 미륵 있는 곳에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선돌, 입석(立石), 입석리(立石里) ; 서산시 온석동. 온석동의 으뜸 마을 큰 돌이 서 있음.
- * 학돌재, 학독재, 학석티(鶴石峙) ; 서산시 읍내동. 서원말 옆에 있는 마을. 큰 돌이 있음.
- * 대사동탑(大寺洞塔), 동문리 석탑(東門里 石塔) ; 서산시 동문동. 대사동에 있는 돌탑.
- * 빙고개, 빙고재(氷庫峙) ; 서산시 읍내동. 서원말 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빙고(氷庫)가 있었음.
- * 옷샘 ; 서산시 읍내동. 배밋골에 있는 샘. 물이 매우 차서 옷 오른 데에 효험이 있었다 함.

○ 성터

- * 활성(活城) ; 서산시 동문동. 동문 동남쪽에 있는 마을. 활성터가 있음.
- * 활성터(活城-) ; 서산시 동문동. 활성 마을에 있는 성터.

○ 사건 · 사연

- * 군진밭(軍陣伐), 신촌말(新村-) ; 서산시 예천동. 전에 군대가 진을 치고 훈련을 했다 함.
- * 군모루 ; 서산시 양대동. 양대 동쪽 장리로 넘어가는 길가에 있는 모퉁이. 전에 군이 주둔하였었음.
- * 나무장골, 목장곡(木場谷) ; 서산시 예천동. 사기말 동쪽에 있는 마을. 나무시장이 있었음.
- * 낭보 ; 서산시 양대동. 구원안(舊堰內 ; 들 이름)에 있는 보. 떨어진 보라하여 낙보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낭보로 불림.
- * 마사리(馬舍里), 말 먹이던 골 ; 서산시 읍내동. 중앙말 북쪽 부춘산 아래 새로 생긴 마을. 예전에 말을 먹이던 곳이다.
- * 만대봉, 망원대봉(望遠臺峯), 망향대(望鄉臺), 정선생원외랑망원대(鄭先生員外郎望遠臺) ; 서산시 석림동. 현 서산여자중학교 오른쪽에 있는 산. 고려 고종 때 중국 송나라 사람 정신보(鄭臣保)가 간월도에 상륙,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늘 이 산에 올라가서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았다 함.
- * 삼선암(三仙庵) ; 서산시 읍내동. 마사리 위쪽 부춘산에 있는 절. 전에 옥녀봉 아래 세 암자(상선, 중선, 하선)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고 절을 세워 삼선암이라 하

였음.

* 소굴, 우곡(牛谷) ; 서산시 양대동. 양대리에 있는 마을. 소를 먹이었다 함.

* 온동(溫洞) ; 서산시 온석동. 윗선돌 동쪽에 있는 마을. 온천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다 함.

* 옥터(獄-) ;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조선조 때 서산군의 옥터.

* 우림골, 울음골, 명림골(鳴林-), 명림동(鳴林洞) ; 서산시 읍내동. 노상말 뒤쪽에 있는 마을. ①울창한 소나무가 많아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났음. ②명림산(鳴林山), 명륜산(鳴倫山) 아래가 됨.

* 유왕배미 ; 서산시 덕지천동. 앞골 남쪽에 있는 논. 큰 샘이 있어서 용왕제(龍王祭)를 지냈음.

* 철장골 ; 서산시 읍내동. 배무골 옆에 있는 마을.

④ 지형(地形) · 지물(地物)

* 약물재[약물터 ; 藥物峙] ; 서산시 동문동. 새장벌 남쪽에 있는 고개.

* 잔골재, 잠통티(潛洞峙) ; 서산시 온석동. 윗선동 남쪽에 있는 고개.

* 참삼, 진천(眞泉), 참샘 ; 서산시 덕지천동. 죽터 동쪽에 있는 마을. 찬 샘이 있음.

* 참셋골 ; 서산시 읍내동. 배밋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찬 샘이 있었음.

○ 방죽 · 용못

* 방죽골 ; 서산시 온석동. 내동(內洞 ; 마을 이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방죽이 있었음.

* 용못배미 ; 서산시 수석동. 산직말 앞에 있는 논. 전에 용못이 있었음.

○ 골짜기

* 골말 ; 서산시 장동. 새말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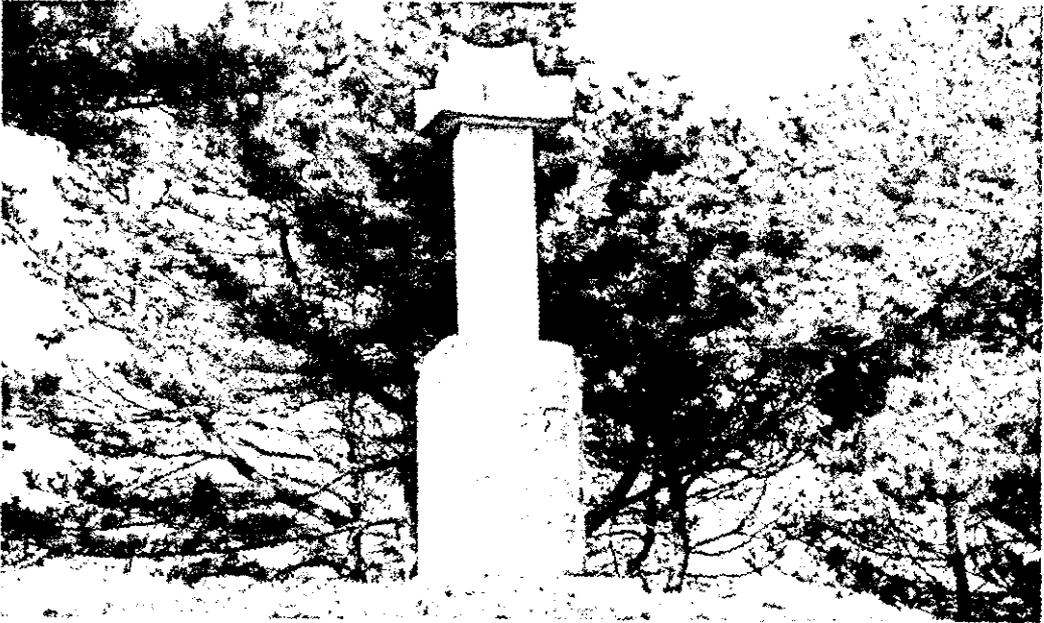
* 골말, 곡촌(谷村) ; 서산시 양대동. 동녘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기타 ; 금광 · 낭떠러지 · 재료(널빤지) · 돌 · 두렁 · 모래 · 논배미 · 서낭당 · 장대 · 둑 · 무덤

* 금광다리 ; 서산시 덕지천동. 배다리 북쪽에 잇는 다리. 금광이 있었다 함.

* 너더리다리 ; 서산시 오남동에 있던 다리. 널로 놓았었음. 너덜-널(板)

* 배다리, 주교(舟橋) ; 서산시 덕지천동. 참샘 옆에 있는 다리. 전에 이곳까지 배가 닿았다 함.



〈사진〉 망운대



〈사진〉 삼선암

* 배다리, 주교(舟橋) ; 서산시 죽성리에 배다리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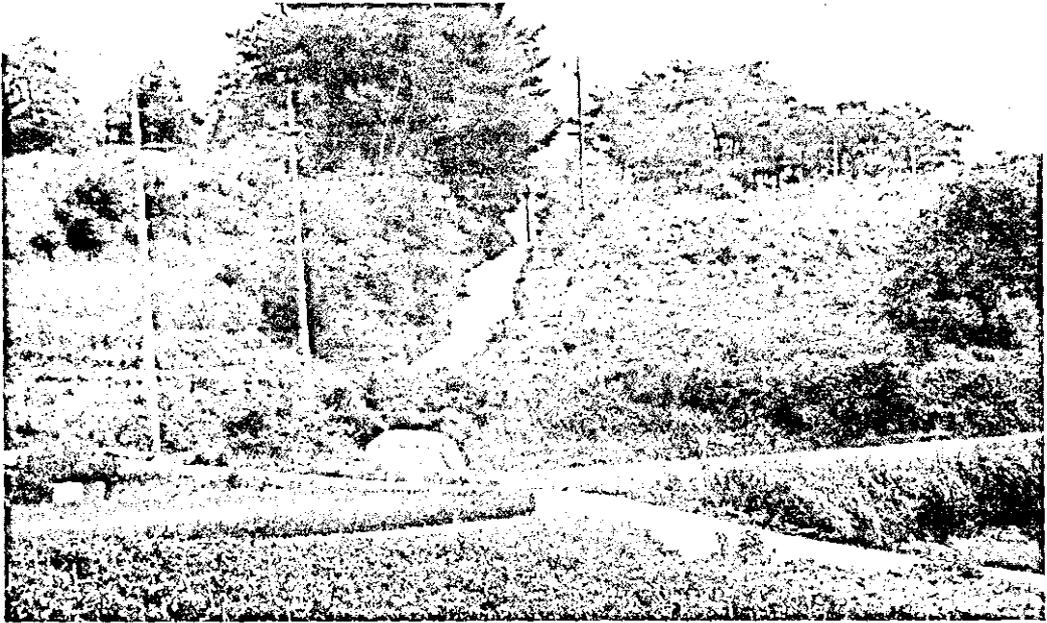
* 유타리(柳野) ; 서산시 석림동. 버들이 많은 들판임.

- * 낭재 ; 서산시 장동. 하장동 동쪽에 있는 산. 낭떠러지가 있음.
- * 돌금, 석금(石金) ; 서산시 장동. 소장동에 딸린 마을. 돌이 많이 있었음.
- * 두령굴 ; 서산시 장동. 새말 북쪽에 있는 들, 두령이 많음.
- * 모셀, 모살, 남동(南洞) ; 서산시 장동. 새말 남쪽에 있는 마을. 모래가 많음.
- * 당재 ; 서산시 석남동. 석지(石旨) 남쪽에 잇는 마을. 신당이 있었음.
- * 서낭댕이 ; 서산시 장동. 소장동 북쪽에 있는 고개. 서낭당이 있었음.
- * 장대바기 ; 서산시 동문동. 동문 동남쪽에 있는 마을. 군사 훈련하던 장대가 있었음.
- * 죽터, 죽기(竹基) ; 서산시 덕지천동. 앞골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죽이 있었음.
- * 할무덤재 ; 서산시 장동. 새말 북쪽에 있는 고개, 큰 무덤이 있었음.

⑤ 모양·크기·상태

○ 모양

- * 쌍다리, 청지천교(淸之川橋) ; 서산시 석남동. 남원(南院) 동북쪽 청지천에 쌍으로 놓인 다리.
- * 쌍못이, 쌍연(雙淵) ; 서산시 잠흥동. 잔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연못이 쌍으로 있었음.
- * 쌍못터, 쌍연(雙淵), 쌍연리(雙淵里) ; 서산시 온석동. 아래선들 남쪽에 있는 마을. 쌍못이 있었음.
- * 구렁목 ; 서산시 석림동. 대숲말 북쪽에 있는 목. 지형이 구렁져 파져있는 목쟁이라 하여 생긴이름.
- * 무석(舞石) ; 서산시 석림동. 서산여고와 여중이 있는 마을. 옛날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이 춤추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함.
- * 방석술 ; 서산시 죽성동. 대밭 중앙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가 방석처럼 생겼음.
- * 배못이, 주지(舟池) ; 무석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배처럼 길게 생긴 못이 있었음.
- * 상여봉 ; 서산시 온석동. 아래선들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상여 같다 함.
- * 섬배미 ; 서산시 장동. 새말 북쪽에 있는 논. 가운데 섬같이 우뚝 솟은 곳이 있음.
- * 통배미 ; 서산시 잠흥동. 잔골 북쪽에 있는 논. 지형이 통처럼 생겼음.
- * 신무산(神巫山) ; 서산시 양대동. 양대 동쪽에 있는 산. 무당이 춤추는 형국이라 함.



〈사진〉 전구령목

* 양총배미 ; 서산시 장동. 두령굴 남쪽에 있는 논. 모양이 양총(洋銃)같이 생겼다 함.

* 연소형(燕巢形) ; 서산시 온석동. 온동(마을 이름) 북쪽 성왕산 남쪽에 있는 바위. 제비 모양으로 생겼음.

* 장구샘 ; 서산시 석림동. 벌말 남쪽에 있는 샘. 모양이 장구처럼 생겼음.

* 옥녀봉(玉女峰) ; 서산시 읍내동. 마사리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형국이라 함.

○ 색깔

* 검정들 ; 서산시 양대동. 골말(마을 이름) 앞에 있는 들. 흙빛이 검음.

* 황북재, 황북티(黃北峙) ; 서산시 장동. 외정이 서쪽에 있는 고개. 흙빛이 붉음.

* 구랫들 ; 서산시 죽성동. 대밭 서쪽에 있는 들. 물이 많고 기름짐.

* 고방다리 ; 서산시 양대동. 양대 동쪽, 오남동과 접계에 있는 다리. 활처럼 가운데가 구부러지게 만든 다리.

○ 크기

* 소남지(小南池) ; 서산시 오남동. 남광지 옆의 작은 마을.

* 한갈래 ; 서산시 잠흥동. 흥천에 붙은 마을. 길게 뻗어 있음.



〈사진〉 부춘산 정상 옥녀봉(187m)



〈사진〉 옥녀봉 옥녀제단

* 마랫들 : 서산시 죽성동, 대밭, 명맥이 사이에 있는 들. 땅이 매마름.

⑥ 동·식물(動·植物)



〈사진〉 양유정

* 부영산, 부흥산(富興山) ; 서산시 온석동. 윗선돌 서북쪽에 있는 산. 부영이가 살았음.

* 명맥이, 을호(乙湖) ; 서산시 죽성동. 대밭 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큰 들과 군진내(屯堂川이라고도 함)가 있음.

* 밤갯이(울지동 ; 栗枝洞) ; 서산시 동문동. 동문 동남쪽에 있는 마을. 밤나무가 많음.

* 버드나무터 ; 서산시 온석동. 내동(內洞)에 있는 터. 큰 버드나무가 있었음.

* 양류정(楊柳亭), 서산공원(瑞山公園) ; 서산시 읍내동. 읍내 남쪽에 있는 공원. 수백년된 버드나무와 느티나무가 구락을 이루고 있음. 서산 팔경중의 하나.

* 쌍피정(雙槐亭) ; 서산시 동문동. 동문동에 있는 느티나무. 쌍으로서 있으나 이제는 없어졌다.

* 연당(蓮塘) ; 서산시 읍내동. 성안 구 소방서와 서산시청 사이에 있는 못. 연꽃이 많이 피.

* 정주골(碇舟谷) ; 서산시 석림동. 대숲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올때 배를 대던 곳.

⑦ 관련 인물

정선생원외랑망원대(鄭先生員外郎望遠臺), 만뎃봉, 망원대봉(望遠臺峰), 망향대

(望鄉臺) ; 서산시 석림동. 현 서산여자중학교 오른쪽에 있는 산. 고려 고종 때 중국 송나라 사람 정신보(鄭臣保)가 간월도에 상륙·정착하여 살았는데, 늘 이 산에 올라가서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바라 보았다고 함.

⑧ 발생 연원

* 구장터, 구시장(舊市場) ; 서산시 읍내동. 읍내동에 있는 장터. 1956년 10월2일 이전까지 장이 섰음.

* 새말 ; 서산시 장동. 장동 서쪽에 새로 된 마을.

* 새말 ; 서산시 석림동. 대숲말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

* 새장벌[신시장 ; 新市場] ; 서산시 동문동. 동문 동남쪽에 있는 마을. 구장터에 있는 시장을 1954년 새로 이곳으로 옮겼음.

* 사태말 ; 서산시 수석동. 수동 서쪽에 새로 된 마을.

* 새터말 ; 서산시 양대동. 배다리 옆에 새로 생긴 마을.

⑨ 전설·풍수설

* 말뚝이샘 ; 서산시 잠흥동. 잔골/잠골/, 잠동(潛洞)(홍천 동쪽의 마을) 동쪽에 있는 큰 샘. 옛날 홍천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어린 장사가 난 지 사흘만에 시렁에 날아 왔으므로 집안을 망칠 아이라 하여 끌로 날개를 파서 죽였더니 용천샘에서 용마가 나와 주인을 찾으려 울다가 이 샘에 빠져 죽었다 함.

* 말무덤 ; 서산시 잠흥동. 말뚝이 샘 서북쪽에 있는 큰 무덤. 옛날 홍천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장사가 나서, 집안을 망칠 징조라하여 죽였더니 용마가 용천샘에서 나와 울다가 말뚝이샘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곳에 묻었다 함.

* 번개골, 불모골 ; 서산시 온석동. 내동(內洞) 서남쪽에 있는 들. 번개만 쳐도 물이 고인다는 속설이 있음.

* 영천샘, 용천샘(龍泉-) ; 서산시 잠흥동. 증안말 옆에 있는 샘. 예전에 이 샘에서 용마가 나와 주인을 찾다가 주인이 죽은 줄을 알고 울며 뛰어 다니다가 말뚝이샘에서 빠져 죽었다 함.

* 용천(龍泉) ; 서산시 읍내동. 우렁골에 있는 샘. 전에 용이 올라갔다 함.

⑩ 생산지

* 감나무배기 ; 서산시 잠흥동. 잔골 북편에 있는 길. 감나무가 있었음.

* 대밭, 죽전(竹田) ; 서산시 죽성동. 죽성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전에 대나무밭이었다 함.

* 대석굴, 대섭굴 ; 서산시 양대동. 양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대숲이 많이

있었다 함.

* 대숲말, 죽림(竹林) ; 서산시 석림동. 석림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대나무숲이 많았음.

* 사기말, 사기촌(沙器村) ; 서산시 예천동. 상여전(上餘田)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에 사기를 구웠음.

* 수박밭 ; 서산시 석림동. 벌말 남쪽에 있는 들. 전에 수박을 많이 놓았었음.

* 신촌말(新村-), 군진벌(軍陣伐) ; 서산시 예천동. 하여전 서쪽에 새로 된 마을.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인 쇄 : 1998년 4월 일

발 행 : 1998년 4월 일

편 찬 :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발행처 : 서 산 시

인 쇄 : 대전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

작업자 : 청 오 인 쇄 소

(0455)64-6366